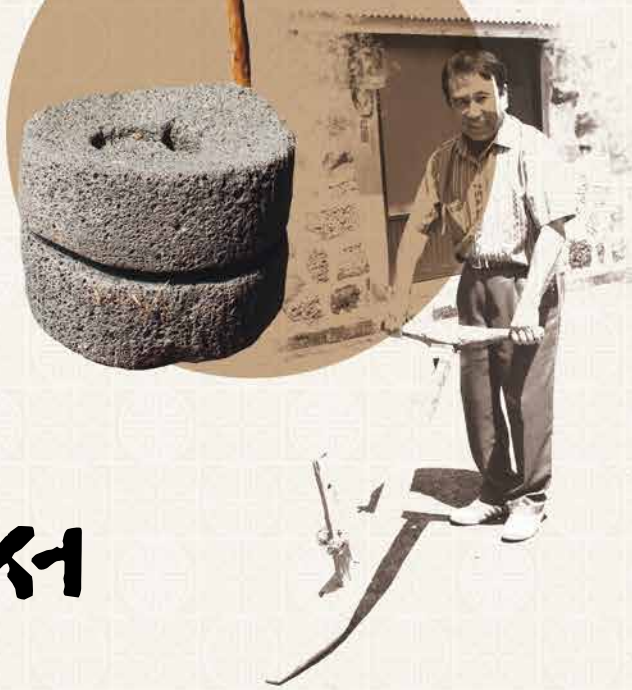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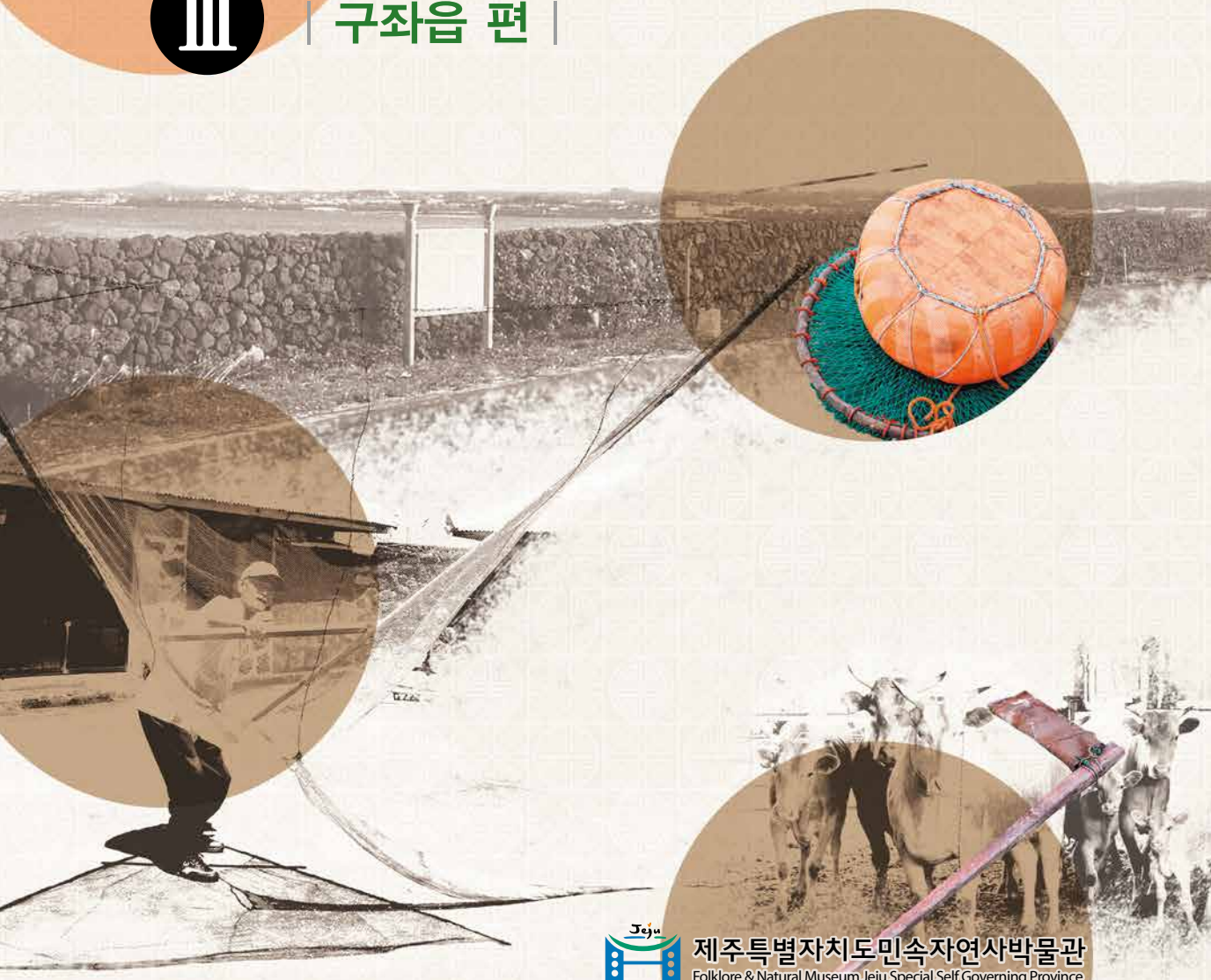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16-01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 구좌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Museum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

| 구좌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Museum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IDEAL




발간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는 민속 문화의 보고인 제주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품을 대상으로 일상 및 생활사 분야 조사·연구이며 박물관의 전시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도내 전 지역을 답사하여 민속품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하여 민속·문화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학술·교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한 세 번째 작업으로 금번『제주인의 삶과 도구총서-구좌읍 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형태와 명칭을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구좌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다양하고 알찬내용을 담고 있고 민속품 조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소중한 발걸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좌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이 총서는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사연구보고서가 제주의 고유한 민속 문화를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제주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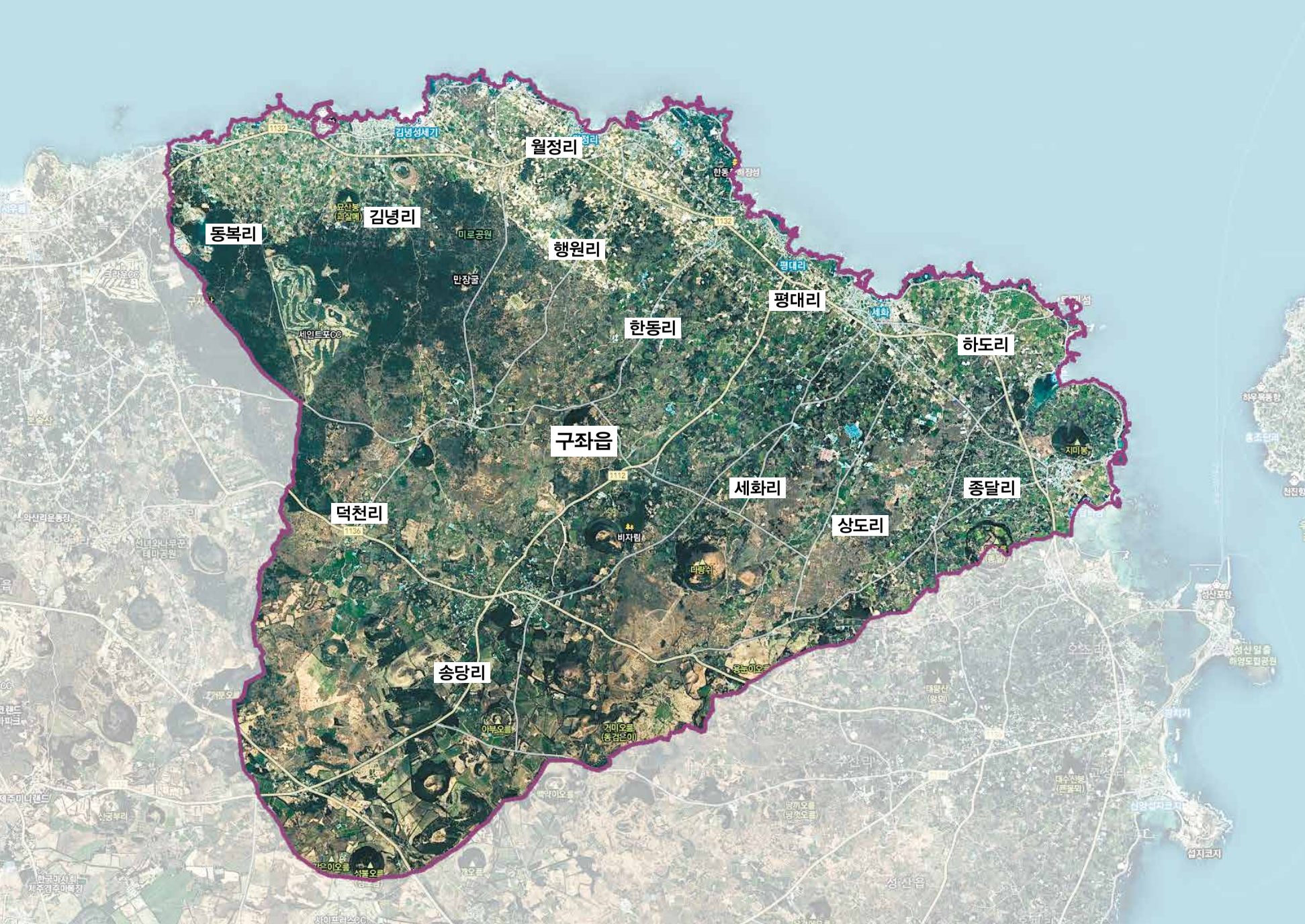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구좌지역 주민들과, 이 조사연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김순자 선생님, 김보향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 영 수**




월정리
김녕리
동복리
행원리
평대리
한동리
하도리
구좌읍
세화리
종달리
덕천리
상도리
송당리
김녕성세기
묘산봉
(파설메)
미로공원
만장굴
세인트포CC
비자림
다랑쉬
이부오름
거미오름
(동검은이)
지미봉
성산포항
성산 일출
해양도립공원
섭지코지
성산읍

차례

Ⅰ 조사 개요 ····· 9

1. 조사 개요 ····· 10
2. 조사단 구성 ····· 11
3. 조사 범위와 제보자·정리 방법 ····· 12
4. 구좌읍 및 조사 마을 개관 ····· 14

Ⅱ 조사 내용 ····· 21

1. 의생활 ····· 22
   1.1. 제작 도구 ····· 22
   1.2. 손질 도구 ····· 35
   1.3. 옷감과 의복 ····· 44

2. 식생활 ····· 54
   2.1. 그릇 ····· 54
   2.2. 조리 도구 ····· 82
   2.3. 저장과 운반 ····· 95
   2.4. 제사 관련 ····· 105

3. 주생활 ····· 116
   3.1. 가재도구 ····· 116
   3.2. 조명 기구 ····· 123
   3.3. 난방 기구 ····· 125
   3.4. 연장류 ····· 127
   3.5. 집줄 관련 ····· 137
   3.6. 기타 ····· 141

4. 농업 관련 …… 152
4.1. 파종 관련 …… 152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 168
4.3. 건조와 손질 관련 …… 174
4.4. 운반 도구 …… 194
4.5. 계량 도구 …… 202

5. 어업 관련 …… 206
5.1. 어로 도구 …… 206
5.2. 물질 도구 …… 216
5.3. 제염 관련 …… 226

6. 축산 관련 …… 235
6.1. 마소 가꾸기 …… 236
6.2. 꼴 베기 …… 243
6.3. 백중제 …… 249

7. 용천수 …… 251

8. 신당 …… 257

Ⅲ 마무리 …… 263

부록 …… 269

김녕리 주민의 삶과 도구
– 김복만 씨 구술 이야기






I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관광개발로 급격히 인멸·훼손되어 가는 제주 고유의 민속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가 세 번째 지역인 구좌읍 지역의 민속 현장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제주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박물관의 전시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후세대들에게 제주의 전통민속문화를 전승시키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 조사명: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구좌읍 편

○ 조사지: 구좌읍 6개 법정리(김녕리, 한동리, 송당리, 세화리, 하도리, 종달리)
※ 10개년 사업으로 도내 전지역 전수조사 - 2013년(애월), 2014년(조천), 2015년(구좌), 2016년(안덕), 2017년(한경), 2018년(한림), 2019년(대정), 2020년(남원), 2021년(표선), 2022년(성산)

○ 조사기간: 2015년 5월 11일 ~ 2015년 10월 31일
- 예비조사: 2014년 5월 11일 ~ 5월 22일

- 1차 현지조사: 2015년 5월 26일 ~ 7월 16일
- 2차 현지조사: 2015년 7월 20일 ~ 9월 30일
- 보충조사: 2015년 10월 1일 ~ 11월 31일

○ 조사 내용
- 김녕리: 해녀, 농업, 어업, 의식주 도구(김순자, 김보향)
- 한동리: 농업, 어업, 의식주 도구(김순자, 김보향), 용천수(고범석)
- 송당리: 축산업(김순자, 김보향)
- 세화리: 농업, 어업, 의식주 도구(김순자, 김보향)
- 하도리: 갯담, 멸치잡이, 어업(김순자, 김보향), 용천수(고범석)
- 종달리: 염전(김순자, 김보향)
- 김녕리, 송당리 신당(고범석)

○ 조사방법: 선행연구 검토,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2.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김영수(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 조사책임: 양상훈(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팀장)

○ 조 사 원: 고범석(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외부조사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조사보조원: 고순여(민속자연사박물관 공무직)
고경희(민속자연사박물관 자원봉사자)

3. 조사 범위와 제보자·정리 방법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권 구좌읍 지역의 생활 도구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좌읍의 12개 마을 가운데 6개 마을을 선별하여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어업, 축산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관련 도구를 조사, 정리하였다. 조사는 농사와 바다 일을 업으로 하여 전통 사회를 살아온 주민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 쓰거나 구입해서 쓴 옛 도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는 전통사회에서 사용하였던 물품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의 숨결을 느껴보고,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 유산들을 복원해 낸다는 의미도 있다.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현지에서 제보자들을 만나 면 대 면으로 이루어졌다. 김녕리 7명, 한동리 12명, 세화리 4명, 송당리 6명, 하도리 10명, 종달리 2명 등이다.

도구 정리는 6개 범주로 나눠 조사된 도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조사된 도구 가운데 현물이 없는 경우에도 간략하게나마 특징을 기술하려고 하였다. 도구 설명은 정의, 쓰임새, 특징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도구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관련 구술 채록 자료도 곁들여 실었다. 현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구좌 지역의 도구의 명칭을 포함하여 그 특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도구가 많이 쓰이지 않는 어업 관련 어휘 가운데 제염과 관련한 내용은 종달리 마을지를 참고하여 소금 생산 과정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조사된 도구 가운데 비슷한 도구가 많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몇 가지만을 선택하여 설명하였다.

제보자는 조사 마을 출신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활하였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별 제보자와 조사 날짜는 〈표 1〉과 같다.

〈표 1〉 마을별 제보자와 조사 날짜

마 을	성 명	나이/생년	성 별	조 사 날 짜	비 고
김녕리	김복만	1941	여	5. 28.	
	백규삼	1919	여	5. 28.	
	임기추	1927	남	9. 19.	
	고춘자	1927	여	10. 4.	
	이삼년	1932	여	9. 25.	
	한재병	1944	남	9. 19.	
	서순실	55세	여	10. 6. / 10. 26.	
한동리	오문봉	1932	남	5. 21.	
	고재인	1924	여	5. 27. / 9. 6.	
	강희숙	1932	여	6. 5.	
	김예음	1934	여	10. 7.	
	박창식	1934	여	6. 5.	
	고미생	1931	여	10. 2.	
	허기생	1929	여	10. 7.	
	강순자	1930	여	9. 6.	
	허정순	1931	여	10. 7. / 10. 17.	
	김양근	1969	남	10. 7.	
	오봉수	67세	남	8. 27. / 10. 6	
	허웅수	78세	남	8. 27. / 10. 6	
세화리	김윤생	1926	여	6. 4.	
	홍영애	1935	여	10. 10.	
	김병희	1935	남	10. 10.	
	부안일	91세	여	10. 10.	
송당리	김병현	83세	남	6. 16. / 9. 5.	
	김석봉	1939	남	9. 20.	
	조명순	1939	여	9. 20.	
	홍태휴	1934	남	9. 20.	
	김윤호	1937	남	9. 20.	
	김호종	1943	남	12. 14.	

마을	성명	나이/생년	성별	조사일	비고
하도리	김일선	1932	여	9. 1.	
	홍수선	1929	여	10. 4.	
	손성추	1933	남	9. 4.	
	김옥연	87세	여	9. 4.	
	김영수	1940	남	9. 4. / 9. 5. / 10. 6.	
	김경순	1940	여	9. 5.	
	강영실	1939	남	9. 4.	
	오만종	1934	남	9. 4.	
	김백년	62세	남	10. 6.	
	오맹은	76세	남	11. 4.	
종달리	김수길	80세	남	5. 28. / 9. 5.	
	조규철	1935	남	9. 5.	

4. 구좌읍 및 조사 마을 개관

구좌읍에 촌락이 형성되고 본격적인 행정체제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서기 1300여년 때(고려 충렬왕)부터이며, 이때 탐라현을 동서로 도현(道縣)을 설치하여 통치하였으며, 현재의 구좌읍 지역에 김녕촌이 설촌되어 촌락의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킨 것이 바로 구좌읍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874년(고종 11년)에 좌면이 신좌면과 구좌면으로 나뉘어졌다. 이때 구좌면의 행정구역은 동복리, 동김녕리, 서김녕리, 덕천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연평리 등 14개리로 되었다. 1915년 도제(島制)가 실시됨에 따라 구좌면은 전라남도 제주도 구좌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1946년 미군정이 도제(道制)실시를 허용함으로써 전라남도 관할에서 벗어나 제주도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1951년에는 김녕리와 연평리에 면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에는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때 만장굴관리사업소가 북제주군 사업소로 편입되었다. 군 자치제가 실시되던 1961년에는 2개의 출장소와 14개리가 구좌면 행정구역을 이루었다. 이후, 1986

년에 연평리가 우도면으로 승격 분리되고, 1998년 김녕출장소가 폐지되었으며, 2000년에 동·서 김녕리가 통합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12개 행정리, 12개 법정리, 60개 자연마을, 220개 반으로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구좌읍 편에서는 조사원이 절대 부족하고 시간상의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김녕리, 한동리, 송당리, 세화리, 하도리, 종달리 등 6개 지역을 조사하였다.

4.1. 김녕리

김녕리는 동성동, 신산동, 청수동, 봉지동, 용두동, 대충동, 한수동, 남흘동 8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동쪽으로 월정리, 서쪽으로 동복리, 남쪽으로 덕천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다와 연접해 있다. 마을 형태는 마치 배 모양을 닮은 선체형을 이루고 있다.

속칭 '왕궤'라는 곳이 혈거(穴居)유적지라 하고, 남흘동 남쪽 2km 지점에 있는 '삭싯골'도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 말에 양천 허씨가 이곳에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특별히 언제부터 어떤 성씨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시대에 김녕현(金寧縣)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김녕리에는 일찍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녕리 입산봉은 기생화산으로 이 부근에는 자연동굴이 있고 지하수가 용출되어 사람이 은거하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설촌 당시는 사람들이 궤내기굴, 남문굴과 왕절동에 터를 잡고 동굴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와흘, 대흘, 선흘, 선인동 선유, 부모실, 새모실, 남흘리로 이어지는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오늘의 마을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궤내기굴 선사 유적지에서 농경생활을 하였다고 입증될 만한 농경기류와 농우 해골 등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김녕리의 설촌은 약 2천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김녕리는 신산동(新山洞), 청수동(淸水洞), 동성동(東城洞), 봉지동(鳳池洞), 남흘동(南屹洞), 한수동(漢水洞), 용두동(龍頭洞), 대충동(大忠洞) 등 8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4.2. 한동리

한동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구좌읍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은 평대리 서동(西洞), 서쪽은 행원리 동동(東洞), 남쪽은 덕천리·송당리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해안에 닿아 있다.

한동리를 개촌한 성씨는 좌(左)씨이며 연대는 1276년에서 1300년대까지로 올라간다. 그러나 좌자이(左自以)가 좌가장을 사전으로 받은 것이 기황후 일가의 사전(賜田)이라면 좌자이가 명의(名醫)로 알려진 나이는 적어도 40대 이후일 것이므로, 한동리에 확실히 사람이 정착한 연대는 1300년대 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좌씨의 2대인 좌자이가 사전을 받아 좌가장을 개설한 것이라면 1대가 정착한 연대는 더 거슬러 올라갈 것이므로 한동리가 설촌된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7백년 전이 된다.

제주에서 목호의 난이 평정될 무렵인 1368년 경에 광산 김씨 입도조인 김윤조(金胤祖)가 처음 김녕에 정착하였다가 그 말년에 한동으로 이주할 때는 이미 한동에는 선주민이 있었다. 한동 선주민은 좌씨와 그 일단인 대원 조씨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좌씨는 감목관으로 세력을 행세하던 씨족이라 '목호의 난' 평정 과정에서 이미 한동리를 떠나고 조씨만 남아 있었고, 여기에 광산 김씨가 입향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광산 김씨 입도조 김윤조(金胤祖)의 말년이라면 1380년에서 1390년 사이가 될 것이며, 이때 정착한 곳이 속칭 '감낭굴' 이라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한편 광산 김씨와 다른 주민들은 이후 감낭굴에서 '가로대왓'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 후 현재 웃동네의 진올래(西洞)로 옮겨 취락이 크게 형성되었으며, 현재도 한동리에는 광산 김씨 후예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동리는 상동(上洞), 서동(西洞), 계룡동(啓龍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4.3. 송당리

송당리는 중산간 마을로서 4·3사건 전에는 셋손당, 알손당, 웃손당, 대천동, 장기동, 너븐밭, 가시남동, 득산이터, 굴레왓, 한마을곳 등 10여 개 동에 4백여 세대, 1천

5백여 명이 살았으나 현재는 1381번지를 중심으로 본동(셋손당), 1645번지를 중심으로 상동(웃손당), 2541번지를 중심으로 한 대천동 등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김해김씨 김언양이 3백여년 전 조천면에서, 광산 김씨 김진태가 200여년 전에 남원면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후손들이 전하는 바로는 송당리 설촌은 1천년이 된다고 한다.

제주 고씨 족보를 참고하면 고려조 의종시 고조기가 '산장야우' 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 시 구절에 송당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고조기가 지은 '산장야우'를 근거로 할 때 일치감이 있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어서 송당리는 적어도 1천여 년의 설촌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 하겠다.

궁예가 송악당에서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서기 918년에 태봉국이 망하게 되어 당시 고위신분이던 금백조가 세명주를 대동하여 피난 와서 가물개(현 삼양동)로 입도, 교래리 조인납에서 부부 인연을 맺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송당으로 이주하자 리민의 숭배를 받게 되었고, 사후에는 본향당 신사를 모시게 되었으므로 송악당에서 온 금백조가 당신(堂神)이 되었기 때문에 송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송당리는 오늘날 상동(上洞), 서동(西洞), 동동(東洞), 대천동(大川洞)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4.4. 세화리

세화리는 구좌읍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제주도 동부 생활권의 중심을 이루는 요지이며, 예로부터 인문교화의 전통이 이어져 초·중·고등 교육기관이 갖추어진 문화의 마을이다.

세화리의 설촌 시기는 서기 1300년(고려 충렬왕 26) 탐라현이 통치될 무렵으로 약 7백여 년을 거슬러 볼 수 있다. 선주민들의 최초의 거주지는 세화리의 최초의 신당이 유래된 곳인 원당(元堂)이라고 전해진다. 이곳은 제주도 무속신앙의 본향이라는 송당의 당오름과 더불어 세화리에 이전된 당터이고, 이 당동산 주변을 따라 속칭 '[illegible]는곳머세'에서 목축을 할 무렵부터 당시의 제1소장 중심인 송당리와 제2소장 교래리, 녹산장 지역 가시리 등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하여 차츰 촌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세화리는 700여 년 전에 제주 고씨가 '[illegible]는곶머세' 일대에 들어와 살면서 설촌되었고, 그 후에 군위 오씨, 양씨, 부씨, 김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사람에 따라서 제주 고씨보다 군위 오씨가 먼저 들어왔다고도 한다.).

현재 세화리는 시장동(市場洞), 전항동(前巷洞), 통항동(桶巷洞), 합전동(合田洞), 중앙동(中央洞)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4.5. 하도리

하도리는『가락제주총람(駕洛濟州總覽)』좌정승공편(左政丞公篇)에 의하면 김해 김씨 제주도 입도조(入島祖) 좌정승공 김만희(金萬希)의 6세손인 김계찬(金繼瓚)이 1501년(연산 7) 호구단자(戶口單子)에 24세 때 동도(東道) 도의의리(道衣離里·도의여[illegible]을: 상(上)·하(下)도리를 합친 마을) 기관(記官)이 되고 증조부, 조부, 아버지도 호장(戶長·향직(鄕職)의 우두머리)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탐라부씨(耽羅夫氏)』세보에 의하면 '6세손 부사직(副司直) 어모장군(禦侮將軍) 세영(世榮)공(부용배 18대조)이 난야리(蘭野里·현 성산읍 난산리)에서 별방성(別防城)으로 옮겨와 거주하고 양천 허씨를 배필로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구전상으로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같은 연대에 '지세터(현 굴동(窟洞)과 신동(新洞) 경계)'에 양천 허씨가, 동가름(현 동동)에는 탐라 고씨 증시조 22세손 고한소(高漢昭)공(고홍임 12대조)이 현 제주시에서 이주했다고 하며 서문동은 원래 별방진 서문쪽에 생긴 부락으로서 이만근(李萬根)공(이장윤 6대조), 임석(林石)공(임태호 8대조), 조씨 등이, 신동은 오씨가 선입주한 것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다. 면수동은 1881년(신사년)에 김원용(金元用)공(김석만 조부)이 서동에서, 창흥동은 1900년초에 김인관공(김두성 조부) 고승문공(고지상 조부) 김기팔공(김태홍 조부) 순으로 동동에서 이주했다고 한다.

현 서문동 남측 속칭 [illegible]무리동산 부근에 송씨 집성 마을인 [illegible]무리동이 있었는데 면수동 신동 등으로 이주하면서 1940년을 전후해서 완전 폐동되었다.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하도리 선입주 정착은 지금으로부터 약 6백년 전인 것으로 추정이 되며 설촌은 굴동과 서동, 다음으로 동동, 서문동, 신동 등이고 면수동과 창흥동은 그 연대가 얕은 편이다.

하도리는 현재 '면수동(面水洞), 창흥동(昌興洞), 서문동(西門洞), 동동(東洞), 굴동(窟洞), 신동(新洞), 서동(西洞)' 등 7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4.6. 종달리

종달리가 언제 설촌되어 사람이 살았을까 하는 문제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략 두 가지 설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오래 전부터 은월봉을 중심으로하여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남평 문씨가 '문쟁이올래'에 터전을 잡고 거주했다는 설이다. 종달리의 설촌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오래 전에 은월봉을 중심으로 '넙은드르' '대머들' '황무동' 등지에 흩어져 살았던 선민들이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생활에 불편을 느낀 일부 선민들이 차츰 '안카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제2의 설촌이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종달리의 설촌은 첫째, 오래 전에 은월봉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여러 선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설인데, 이는 본리의 설촌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제1의 설촌'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8백여년 전에 '제1의 설촌' 지역과 외지로부터 여러 선인들이 '안카름'으로 입촌하여 촌락을 형성한 것인데 이는 본리의 실제 설촌으로서 '제2의 설촌' 이라 할 수 있으며 남평문씨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6백여년 전에 '안카름' 지역과 외지에서 여러 선민들이 현 마을 경내로 이주하면서 설촌이 마무리되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종달리는 오늘날 '서동(西洞), 중동(中洞), 동동(東洞), 동중동(東中洞), 전수동(前水洞)'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1)]

1) 구좌읍(2000),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509~756쪽 참조.










Ⅱ

조사 내용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4. 농업 관련
5. 어업 관련
6. 축산 관련
7. 용천수
8. 신당



Ⅱ 조사 내용

1. 의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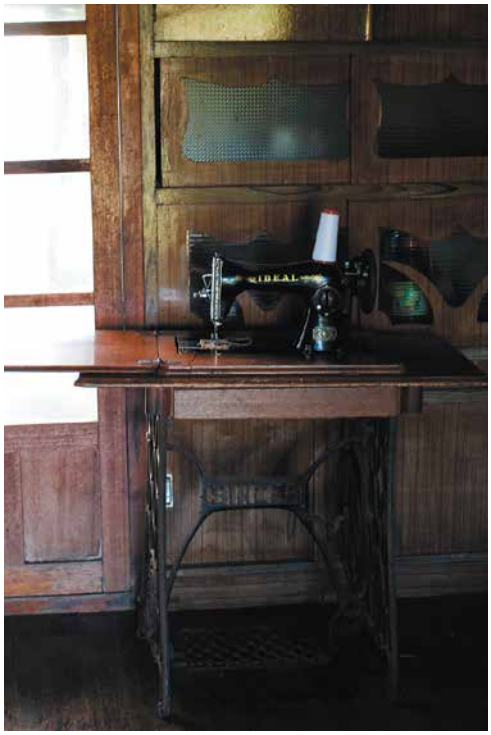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의복이다. 의생활 관련 도구로는 크게 제작 도구와 손질 도구, 옷감과 의복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제작도구로 재봉틀과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였고, 손질 도구로는 다듬이 도구, 다림질 도구, 세탁 도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옷감과 의복'에서는 구좌 지역 사람들이 전통 사회에서 입었던 의복과 옷감, 관련 도구 등에 대하여 조사, 정리하였다. 도구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했던 도구에 대해서는 덧붙여 기술하였다.

1.1. 제작 도구

1.1.1. 재봉틀

'재봉틀'은 바느질을 하는 기계로, 구좌 지역의 제보자들은 '재봉틀'이라는 방언 대신에 일본어 '미싱(ミシン)'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보자들은 발로 하는 재봉틀을 '발미싱', 손으로 돌려 옷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봉틀을 '손미싱'이라고 하였다. '발미싱'은 표준어 '발재봉틀'을 말하고, '손미싱'은 '손재봉틀'을 가리킨다.

"이 미싱은이 나가이 놈 쓰던 거 사서. 저 마흔둘에. 친정에서 미싱 씨단에 이제 나가 미싱을 아니 헤신디 엇이 헤난 섭섭허연게. 누게가 혼 해 써난 거 풀아불켄 헴젠 헨 그때 수만 원 줜 산 거라. 수만 원 줜 산디 이제도록 헤도 고장 안 나고 영 좋아. 밧도 살 정도 주. 일년 써난 거 그냥 풀아불켄 허난에 미싱 이제 좋은 거난 나가 사켄 헨에 그때 그냥 산 허난 이거 멧 십 년이라게. 나 죽을 때꺼장은 이거 허당 말 거주. 치메도 멘들고 저고리도 멘들고 몸빼도 멘들고 헷주. 엿날은 이 자식덜 결혼 시키젠 허민 새각시 옷덜 헤도 렌 헤근에이 나 새각시 옷도 헤줘나고.(이 재봉틀은 내가 남 쓰던 거 샀어. 저 마흔둘에. 친정에서 재봉틀 쓰다가 이제 내가 재봉틀을 아니 했는데 없이 하니까 섭섭했어. 누가 한 해 썼던 거 팔아버리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때 사만 원 줘서 산 거야. 사만 원 줘서 샀는데 이제도록 해도 고장 안 나고 이렇게 좋아. 밭도 살 정도지. 일년 썼던 거 그냥 팔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재봉틀 좋은 것이니까 내가 사겠다고 해서 그때 그냥 사서 하니까 이거 몇 십 년이야.)"[2)]



〈사진 1〉 강순자 씨의 '미싱'


〈사진 2〉 홍수선 씨의 '미싱'


〈사진 3〉 고재인 씨의 '미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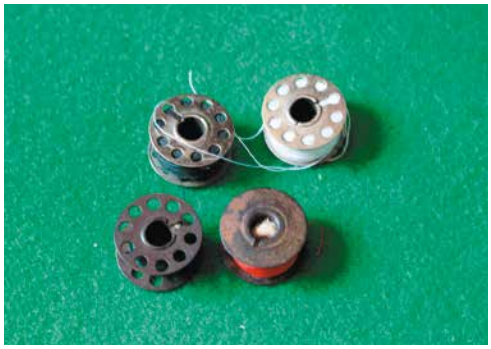
2) 홍수선(하도리)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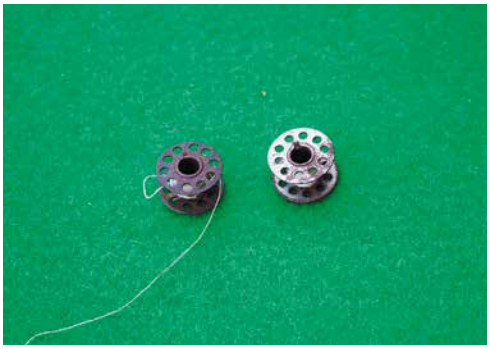
〈사진 1〉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시집온 후에 구입하여 40년 이상 사용한 '발재봉틀'로 재봉실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요즘도 사용하고 있다. 〈사진 2〉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사용하는 '손재봉틀'이다. 홍 씨는 이 재봉틀을 마흔두 살에 동네 사람이 1년 정도 썼던 것을 4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홍 씨는 이 재봉틀로 품삯을 받고 신부옷 등 남의 옷도 해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 4만 원이면 밭도 살 정도의 큰돈이었다고 하니, 큰돈을 줄만큼 재봉틀에는 붉은 칠을 하고 자개 장식이 달려 있다. 〈사진 3〉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이십 대에 부녀회장 활동을 하면서 본부에서 부상으로 받은 '미싱'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사진 4〉는 홍수선 씨가 재봉틀을 할 때 사용하는 재봉틀 바늘과 쌈지다. 〈사진 5〉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사진 6〉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는 북이다. '북'은 재봉틀 부속품의 한 가지로, 밑실을 감아 넣는 물건이다.



〈사진 4〉 홍수선 씨의 '미싱바농'


〈사진 5〉 홍수선 씨의 '북'


〈사진 6〉 강순자 씨의 '북'

〈사진 7〉은 한동리 강순자 씨 집에서 촬영한 '미싱지름통'으로 플라스틱 용기이고, 〈사진 8〉은 한동리 고재인 씨 '지름통'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미싱지름통'은 재봉틀에 기름을 칠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사진 7〉 강순자 씨의 '미싱지름통'


〈사진 8〉 고재인 씨의 '미싱지름통'

〈사진 9〉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보관하는 '도라이바(ドライバ)'이다. '도라이바'는 '나사못을 돌려서 박거나 빼는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드라이버'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표준어로는 '나사돌리개'에 해당하는 말이다. '도라이바'도 쓰임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십자 모양의 나사를 풀 때는 '십자드라이버', 일자 모양의 나사를 풀 때는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한다. 쓰임에 따라 드라이버의 크기도 각양각색이다.


〈사진 9〉 홍수선 씨의 '미싱 도라이바'

1.1.2. 바느질 도구

(1) 바농상지

'바농상지'는 '바늘, 실, 가위,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을 말한다. 표준어 '반짇고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제보자들은 '바농상지'로 가는 대오리를 엮어 만든 작은 바구니나 작은 상자 따위를 이용하고 있었다. '동이구덕'이 헐자 천 등을 발라 만든 '부른바구리'를 반짇고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동리 강순자 씨는 제사 때 떡

을 담고 가는 바구니인 '동이구덕'[3]을 '바농상지'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바구니의 가장자리 헌 부분을 털실로 감고 있었다(〈사진 10〉).

〈사진 11〉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하는 '바농상지'로,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illegible]는대구덕새끼'가 헐어가니까 헝겊을 발라 만든 '[illegible]른구덕'을 이용하고 있었다. '[illegible]는대구덕새끼'는 가는 대오리로 결은 작은 바구니를 말하고, '[illegible]른구덕'은 바구니에 헝겊 따위로 조각조각 붙인 바구니를 말한다. 〈사진 12〉는 김녕리 이삼년 씨의 '바농상지'로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이씨의 딸이 여행을 갔다가 할머니 몫으로 사온 선물인데, 지금은 이씨가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진 13〉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사용하는 '바농상지'로 50년 전에 구입한 것이다. 바닥이 왕골로 짜여 있다.



〈사진 10〉 강순자 씨의 '바농상지'



〈사진 11〉 고재인 씨의 '바농상지'



〈사진 12〉 이삼년 씨의 '바농상지'



〈사진 13〉 홍수선 씨의 '바농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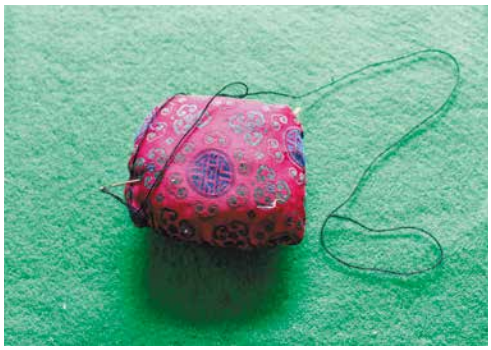
3) '동이구덕'은 떡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인 '동이'를 넣어서 다닐 때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동이'를 넣지 않고, 떡을 넣어 다니는 대그릇도 '떡동이'이라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바구니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2) 바농과 바농졸레, 속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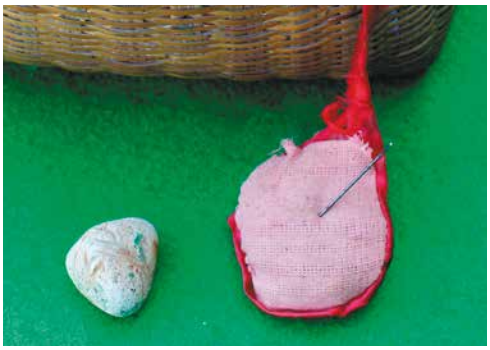
'바농'은 표준어 '바늘'에 해당하는 말이다. 구좌읍 한동리 강순자 씨는 바늘 20개를 '바농 ᄒᆞᆫ 쌈'(바늘 한 쌈)이라고 하였다. '바농'도 옷감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천의 종류에 따라서 바늘의 크기도 달리하여 썼다. 바늘이 녹슬면 '속돌'에 갈아서 썼다. '바늘'이 녹슨 것을 구좌 지역에서는 '보미다'라고 하였다.

"속돌 바농 보미민 ᄀᆞ는 거.('속돌' 바늘 녹슬면 가는 거.)"[4]

'바농졸레[바농졸레]'는 '부녀자들이 바늘을 꽂아 둘 목적으로 만든 공예품'을 말한다. 안에는 머리카락을 넣어 만들었는데, 머리카락을 넣어 '바농졸레'를 만들면 바늘이 녹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바농졸레'는 보통 '바농상지'에 매달아 사용한다. 〈사진 14〉



〈사진 14〉 고재인 씨의 '바농졸레'



〈사진 15〉 강순자 씨의 '바농졸레'와 '속돌'(왼쪽)



〈사진 16〉 이삼년 씨의 '바농졸레'와 '속돌'(아래)



〈사진 17〉 고재인 씨의 '속돌'

4) 고재인(한동리) 씨 구술.

는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하는 '바농졸레'로 양단을 기워 만들었다. 〈사진 15〉는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는 '바농졸레[바농쫄레]'이고, 〈사진 16〉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뜨개질해 만든 '바농졸레'다. '바농졸레'는 표준어 '바늘겨레'에 대응하는 말이다. 〈사진 17〉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녹슨 바늘을 갈 때 사용했던 '속돌'로, 바늘을 갈았던 흔적이 보인다. '속돌'은 구멍이 난 부드러운 돌이다.

(3) 바농질자

'바농질자'는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보통 왕대를 이용해 만드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무를 납작하게 잘라 만들기도 한다. 표준어 '바느질자'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한 자'를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cm'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좌읍 세화리에서 조사된 자는 44cm와 52cm 크기의 자였다. 홍영애 씨 집에서 조사된 자는 44cm로 대나무에 눈금을 정교하게 그어 만든 자였다(〈사진 18〉). 하도리 홍수선 씨가 사용하는 자에는 일부만 눈금이 매겨져 있는, 대나무로 만든 자였다(〈사진 19〉) 오륙십년 전에 구입해 지금도 홍 씨가 바느질할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20〉의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는 자는 나무를 얇게 오려 만든 자로



〈사진 18〉 홍영애 씨의 '바농질자'



〈사진 19〉 홍수선 씨의 '바농질자'



〈사진 20〉 강순자 씨의 '바농질자'와 '가세'

치를 어림잡아 표시해 놓은 자였다. 길이는 52cm였다.

"이 자 오륙십년도 더 뒈실 거라. 나가 느량 이걸로 옷 다 헤시난. 옷 몰른 때도 이걸로 허고, 옛날에는 광목 바꽈 와도 이걸로 재고 멩지 헤도 이걸로 재고, 영 헨 헤오민 이걸로 재여 보주게. 옷 헐 때도 이거이 멧 치 멧 자 딱 재멍 허주게. 이건 혼 치 닷 분. 요디 영헨 표시헌 거 다섯 치. 다섯 치꺼장 헤 놩 다시 일로 다섯 치. 경허민 혼 자.(이 자 오륙십년도 더 됐을 거야. 내가 늘 이것으로 옷 다 했으니까. 옷 마를 때도 이것으로 하고, 옛날에는 광목 바꿔 와도 이것으로 재고 명주 해도 이것으로 재고, 이렇게 해서 해오면 이것으로 재여 보지. 옷 할 때도 이거 몇 치 몇 자 딱 재면서 하지. 이것은 한 치 닷 푼. 여기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것 다섯 치. 다섯 치까지 해 놓아서 다시 이리로 다섯 치. 그렇게 하면 한 자.)"[5]

제보자들은 길이를 잴 때 예전에는 '성냥살(성냥개비)'을 기준으로, '성냥살' 하나 길이를 '한 치'[6]로 보고, 성냥개비 열 개를 '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4) 고넹이포

'고넹이포'는 바늘이나 실, 실패, 헝겊 조각 따위를 넣어 두기 위해 네모나게 만든 주머니다. 끝에 끈을 달아 주머니를 여며서 감싸면 안에 것이 나오지 않아 반짇고리가 깔끔하다. 헝겊 쪼가리를 이어서 만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문양과 모양이 차이난다.

"옛날은 고넹이포엔 헌 거 멘들아근에 험벅덜 이레 놓고 저 씰패 놓고 바농 놓고 헨 이레 영 놔낫저. 엿날 옛적 경허단 이제 그냥 하간 거 나오난 이건 그냥 쓸 걸로 안 알앙 그냥 담앙 놔뒁주. 데껴불지 안 허영. 저 바농도이 머리털 뿔아뒨에 영헨 담안에 멘들앙 놔근에 그 고넹이포러레 영 돌아멩 바농 그디 찔럿다근에 바농 빠냉 허고.(옛날은 '고양이포'라고 한 것 만들어서 헝겊들 이리 넣고 저 실패 넣고 바늘 넣고 해서 이리로 이렇게 놨었지. 옛날 옛적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이런 저런 것 나오니까 이것은 그냥 쓸 것으

5) 홍수선 씨 구술.

6) 『표준국어대사전』의 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 또는 약 3.33cm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보자들은 예전의 자에서 '한 치'는 대략 5cm 정도로 보았다고 한다.

로 안 알아서 그냥 담아서 놔뒀지. 던져버리니 안 해서. 저 바늘도 머리털 빨아둬서 이렇게 해서 담아서 만들어 넣어서 그 '고넹이포'에 이렇게 매달아서 바늘 거기 찔렀다가 바늘 뽑아서 하고.)"[7]



〈사진 21〉 강순자 씨의 '고넹이포'



〈사진 22〉 고재인 씨의 '고넹이포'

〈사진 21〉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는 '고넹이포'이고, 〈사진 22〉는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하는 '고넹이포'이다. 그 안에 실, '실도레기', 천 조각 등 바느질에 소용되는 물건들을 담아놓는다고 하였다.

"고넹이포. 아무 거라도 바농질허는 거 뭐 그런 것덜 허지렁헌 거 담주게. 일허불지 말렌. 그건 중요헌 것만 놓는 포라고 헤연 고넹이포. 이름이 고넹이포. 거 나가 멘들앗어. 혼 삼십 년도 넘어실 거라. 옛날에사 무신 험벅 시냐? 게난 그추룩 막 그런 걸로.('고넹이포'. 아무 것이라도 바느질하는 거 뭐 그런 것들 허드레한 것 담지.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은 중요한 것만 넣는 보자기라고 해서 '고넹이포'. 이름이 '고넹이포'. 거 내가 만들었어. 한 삼십 년도 넘었을 거야. 옛날이야 무슨 헝겊 있니? 그러니까 그처럼 막 그런 것으로.)"[8]

사진에서 보듯이, 바느질 하는 사람에 따라 '고넹이포'의 모양과 색깔도 달라 주인들의 개성을 읽을 수 있다. '고넹이포'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찾지 못했다.

7) 홍수선 씨 구술.
8) 고재인 씨 구술.

(5) 씰, 씰도레기/씰패

'씰'은 '섬유를 가늘고 길게 뽑아서 만든 물건. 천을 짜거나 바느질을 하는데 쓰인다.' '씰'은 표준어 '실'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씰'은 옷감과 굵기, 색깔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목화로 만든 실은 '미녕씰(무명실)'이라고 하고, 명주로 만든 실은 '멩지씰(명주실)'이라고 한다. 무명실을 사리어 꼬아 놓은 타래 하나를 구좌 지역에서는 '한 거림'이라고 하였다.

'씰도레기'와 '씰패'는 실을 감기 위해 만든 물건이다. 예전에는 나무를 이용하여 편편하게 만들어 썼는데, 요즘은 둥그렇게 만들어 쓰고 있다. 하도리 홍수선 씨는 둥그렇게 만든 것은 '씰도레기', 나무 따위로 편편하게 만든 것은 '씰패'라고 하여 구분해 불렀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나무로 만든 실패를 '씰톨레'라고 하였다. 나무 대신에 종이나 헝겊을 말거나 꿰매서 실패를 만들기도 하였다.

"옛날에 실톨레라고 해서 낭으로 멘든 거 션게이 이젠 어디 그런 거 엇어. 씰 감는 씰톨레.(옛날에 '실톨레'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것 있던데 이제 어디 그런 것 없어.)"[9]

〈사진 23〉은 한동리 강순자가 '바농상지'에 보관하고 있는 '미녕씰(왼쪽 하얀 것)' 등의 실과 '속돌' 그리고 '씰도레기'다. 〈사진 24〉의 '씰도레기'는 홍수선 씨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해 온 것이니 70~80년은 족히 넘었다. 〈사진 25〉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진 23〉 강순자 씨의 '씰'과 '씰톨레', '속돌'



〈사진 24〉 홍수선 씨의 '씰도레기'

9) 이삼년(김녕리) 씨 구술.



〈사진 25〉 이삼년 씨의 '씰패'



〈사진 26〉 고재인 씨의 '씰도레기'

종이와 천을 이용해 만든 '씰패'이고, 〈사진 26〉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하고 있는 '씰도레기'로, 고씨는 '씰패'라고 하였다. 사진 가운데의 '씰패'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이고, 재봉틀 실패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6) 골미

'골미'는 표준어 '골무'를 말한다. 제주에서 바느질할 때 골무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한다.

(7) 벌ᄆᆞ작과 단추

'벌ᄆᆞ작'은 헝겊으로 매듭을 지어 만든 단추로, 매듭단추를 구좌 지역에서 일컫는 말이다. '벌ᄆᆞ작'은 예전에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소중이'나 적삼 등을 여미기 위해 달았다. '벌ᄆᆞ작'은 매듭 모양이 벌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표준어 '벌매듭'에 대응하는 말이다. '벌ᄆᆞ작'은 옥양목을 오려서 양쪽으로 접은 다음에 손바느질로 기워서 기다랗게 줄을 만든 후 벌모양처럼 매듭해서 만든다. 그렇게 만드는 것을 '꿰ᄌᆞᆷ다'라고 하고, '꿰'를 가지고 '벌ᄆᆞ작'을 만드는 것을 '벌ᄆᆞ작 ᄆᆞᆺ다'라고 한다. 〈사진 27〉의 '벌ᄆᆞ작'은 홍 씨가 가계에 보태기 위해서 예전에 삯바느질을 할 때 물옷인 '소중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다가 남은 것을 모아둔 것이다.

"물옷, 소중이 헨 입어나지 안 헤사게? 그거 허민이 벌ᄆᆞ작으로 이디 ᄒᆞ나 돌고 이디

돌고 이디 돌곡 세 개썩 네 개썩 돌앙 입엇주게. 놈의 소중이도 멘들고 나 것도 멘들고 그거 벌ᄆᆞ작게. 아이고 야, 그거 허젠 얼마나 공들엄신 줄 알암시냐? 그거 좁아근에 그거 다 멘들아근에 허젠 허민. 옥광목 헤근에 다 손으로 줘에 멘들앗주게. 저이 우리 벌ᄆᆞ작 멘들 때 꿰 좁앙, "아이고, 꿰 좁앙 벌ᄆᆞ작 멘들아사켜" 우리 경헷주. 두린 때이 "아이고, 꿰 좁아근에 벌ᄆᆞ작 묫아사켜." 경헨 이제 꿰 좁앙 벌ᄆᆞ작 멘들아근에 이제 소중이헤영 저 엿날은 적삼도 멘들앙 돌고 저고리에도 멘들앙 돌고 벌ᄆᆞ작으로.(물옷 '소중이' 해서 입었지 안 했니? 그것 하면 벌매듭으로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고 여기 달고 세 개씩 네 개씩 달아서 입었지. 남의 '소중이'도 만들고 내 것도 만들고 그거 벌매듭. 아이고 야, 그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공들고 있는 지 알고 있니? 그것 집어서 그것 다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옥광목 해서 다 손으로 기워서 만들었지. 저 우리 벌매듭 만들 때 '꿰' 집어서, "아이고, '꿰' 집어서 벌매듭 만들어야겠다." 우리 그렇게 했지. 어린 때 "아이고, '꿰' 집어서 벌매듭 맺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젠 '꿰' 집어서 벌매듭 만들어서 이제 '소중이랑' 저 옛날은 적삼도 만들어서 매달고 저고리에도 만들어서 달고 벌매듭으로.)"[10]

'벌ᄆᆞ작' 이후에는 단추들이 다양하게 나와 옷매무새를 좋게 하였다.

〈사진 27〉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벌ᄆᆞ작'이고, 〈사진 28〉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단추류와 '단추지갑'이다.



〈사진 27〉 홍수선 씨의 '벌모작'



〈사진 28〉 고재인 씨의 '단추들'

(8) 보선본

'보선본'은 '버선을 지을 때에 감을 떠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종이 본'을 말한다.

10) 홍수선 씨 구술.

표준어 ‘버선본’에 대응하는 말이다.

“나 이거 보라. 보선본 멘들아근에 이거 영 톡톡 놓멍 보선 뜨멍이 놈도 멘들아 주고 나도 멘들앙 신고 헷주게. 이거 하나 멘들아 놩 보선 이보다 족게 헐 건 ᄒᆞ쏠 족게 이 본보다 ᄒᆞ쏠 족게 헤불고. 엿날에이 이런 보선으로 텅 허단에 이젠 그냥이 보선 놔가지고이 본을 떠본덴. 보선 놔가지고 연필로 그련에 본으로 떤 헤영 신어 보니까 딱 맞안.(나 이것 봐라. 버선본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톡톡 놓으면서 버선 뜨면서 남도 만들어 주고 나도 만들어서 신고 했지. 이것 하나 만들어 놓아서 버선 이보다 작게 할 것은 조금 작게 하고 이 본보다 조금 작게 해버리고. 옛날에 이런 버선으로 떠서 하다가 이제는 그냥 버선 놔가지고 본을 떠본다고. 버선 놔가지고 연필로 그려서 본으로 떠서 해서 신어 보니까 딱 맞았어.)”[11]



〈사진 29〉 홍수선 씨의 ‘광목 보선’과 ‘보선본’



〈사진 30〉 홍수선 씨의 ‘보선본 뒷면’

〈사진 29〉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보선본’으로 만든 ‘광목 보선’(왼쪽)과 ‘보선본’이며, 〈사진 30〉은 ‘보선본’의 뒷면이다. 이 ‘보선본’은 1985년 달력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30년 이상 되었는데, 홍씨는 지금도 이 보선본으로 ‘보선’을 만들고 있다.

11) 홍수선 씨 구술.

1.2. 손질 도구

1.2.1. 다듬이 도구

(1) 안반

'안반'은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기 위해 만든 네모난 나무판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안반'을 '떡을 칠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 판.'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다듬이를 할 때 소용하는 물건이다. '다듬이질'을 하지 않게 되자 이 '안반'은 잔치 등 큰일 때에 떡을 밀거나 고기 따위를 썰기 위해 받쳐 쓰는 도마 구실을 하였다. 그래서 제보자에 따라서는 '돔베'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 나무로 만든 것은 '낭안반', 돌로 만들어진 것은 '돌안반'이라고 한다.



〈사진 31〉 고재인 씨의 '돌안반'



〈사진 32〉 김옥연 씨의 '돔베'

〈사진 31〉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돌안반'으로, 고씨가 스물두 살인 70년 전에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고씨가 열세 살 된 때 돌아가신 고씨의 친정어머니가 한 해 동안 미역을 해서 번 5만 원을 들여 딸 자매에게 주기 위해서 목포에서 구입한 것 가운데 하나다. 고씨 친정어머니는 행원에서 미역을 사서 여수와 목포 등지에 나가 파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딸들에게 주기 위해 사 온 것이다. 고씨는 이 '돌안반'을 이용하여 광목이나 베 등을 다듬이할 때 사용했다. 가로 60cm×세로 20cm×높이 10cm 크기로 옆면은 사선으로 되어 있다. 〈사진 32〉는 하도리 김옥

연 씨가 보관하는 안반이다. 김씨는 이 안반을 '돔베'라고 하였는데, 시할머니, 시어머니에 이어 삼대 째 사용했다. 지금은 가보로 보관하고 있다. 가로 70cm×세로 58cm ×높이 12cm 크기로 되어 있다.

(2) 서답마께/다듬이마께

'서답마께'는 다듬이질을 할 때, 옷감을 두드려서 다듬는 나무 방망이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다듬이마께'라고 하기도 하였다. '마께'는 표준어 '방망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서답마께' 또는 '다듬이마께'는 표준어 '다듬잇방망이'에 해당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서답'은 한자어 '세답(洗踏)'에서 온 말이다. 이와 대비해서 빨래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물마께'라고 한다. '서답마께'는 둥근 막대 모양인데 반해 '물마께'는 납작하게 만들어져 있다.

한동리 강순자 씨의 "이제 팔월 나가민 광목 발래근에, 옛날에 광목 막 양잿물에 ᄉᆞᆷ으멍 헤옇게 발래멍 다듬이마께로 두드령 손질 다허여.(이제 팔월 되어 가면 광목 바래서, 옛날에 광목 마구 양잿물에 삶으면서 하얗게 바래며 다듬잇방망이로 두들겨서 손질 다해.)"라는 구술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다듬잇마께'는 추석 전에 많이 사용하였다. 추석을 앞둔 팔월에 한동리에서는 집집마다 추석빔을 만들기 위하여 광목을 사다가 양잿물에 광목을 삶아 깨끗이 빨아 바랜 후 '다듬이마께'로 두들기며 손질하였다고 한다.

"엿날은이 멩지옷이고 광목옷이고 허민이 뿔아근에 풀 헤영 영헌 돔베에 놩 두드려근에 반질반질허게. 멩지도 헹 허민 뿔민 그거 풀 헤여근에 막 돔베에 놩 ᄒᆞ루 ᄌᆞ물앙 뒷날도록 두드려. 두드려가민 민짝허게 벤질벤질허게 입어낫주게. 엿날엔 경허난 나도 친정 있을 땐 서답마께로 허여낫주게.(옛날은 명주옷이고 광목옷이고 하면 빨아서 풀 해서 이런 도마(안반)에 놓아서 두들겨서 반질반질하게. 명주도 해서 하면 빨면 그거 풀 해서 막 도마에 놓아서 하루 저물어서 뒷날이 되도록 두들겨. 두들겨가면 전부가 밋밋하게 반질반질하게 입었었지. 옛날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친정에 있을 때는 다듬잇방망이로 했었지.)"[12]

방망이질을 할 때는 양손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12) 홍수선 씨 구술.

"엿날은 뿔레 두드리지 아녀서? 풀 헤영 엿날은 이거 돔베로 막 두드리멍, 이거 상당히 오랜 거여. 우리 친정어멍네가 옛날에 쓰던 건디이, 친정아바지 친정어머니 돌아가난에 이걸 그냥 창고에 앗아단 쓰레기레 데껴베션게. 친정에 눈 익은 거난 아까완 나가 담아당 놔둔 거. 나가 보관헨 놔둔 거라. 우리 아바지가 이제 살암시민 백이십이나 뒘실 건디. 첨 백년 다 뒘실 거라.(옛날은 빨래 두들기지 않았니? 풀 해서 옛날은 이거 안반으로 막 두들기면서, 이거 상당히 오랜 거야. 우리 친정어머니네가 옛날에 쓰던 것인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것을 그냥 창고에 가져다가 쓰레기에 버려 버렸었어. 친정에 눈 익은 것이니까 아까워서 내가 담아다가 놔둔 거. 내가 보관해서 놔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살았으면 백이십이나 되고 있을 것인데. 참 백년 다 되고 있을 거야.)"[13]



〈사진 33〉 홍수선 씨의 '서답마께'



〈사진 34〉 강순자 씨의 '다듬이마께'

〈사진 33〉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듬잇방망이로, 친정어머니가 쓰던 것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품으로 가져와 곱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동백나무로 만든 이 '서답마께'를 홍씨는 "아버지 보듯 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34〉는 한동리 강순자 씨가 다듬이질을 할 때 사용했던 '서답마께'이고, 〈사진 35〉와 〈사진 36〉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사용했던 것이다. 김씨가 감을 빻을 때 사용해서 '마께' 색깔이 갈색을 띠고 있다. 〈사진 37〉은 한동리 고미생 씨가 사용하던 '서답마께'로 할머니가 다듬이를 할 때 사용하던 방망이다. 지금은 '절구'에서 참깨를 빻을 때 방망이로 사용하고 있다.

13) 홍수선 씨 구술.



〈사진 35〉 김윤생 씨의 '서답마께'



〈사진 36〉 김윤생 씨의 '서답마께'



〈사진 37〉 고미생 씨의 '서답마께'



〈사진 38〉 고재인 씨의 '서답마께'

"그 마께는 막 오랜 거여. 할망 서답 풀헤영 두드리는 마께라. 이거 두 개 셔난 거 하난 창옥이 각시 줘 불고 하난 나 꿰 뿟는 거. 이거 백년도 넘은 거라. 다듬이 헤난 거.(그 방망이는 막 오랜 거야. 할머니 세답 풀해서 두들기는 방망이야. 이거 두 개 있었던 거 하나는 창옥이 각시 줘 버리고 하나는 나 참깨 빻는 거. 이것 백년도 넘은 거야. 다듬이 했던 거.)"[14]

〈사진 38〉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서답마께'로 앞의 다른 '서답마께'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3) 홍짓대

'홍짓대'는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에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도구'다.

14) 고미생(한동리) 씨 구술.

표준어 '홍두깨'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듬이질은 할 때는 '홍짓대'에 다듬이질할 천 따위를 감아 '안반' 위에서 '서답마께'로 두들기면서 한다. '다듬이질'을 하지 않게 되자 '홍짓대'는 떡이나 칼국수 등을 밀 때 사용하는 밀방망이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사진 39〉 강순자 씨의 '홍짓대'

〈사진 39〉는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던 '홍짓대'로, 지금은 떡이나 국수 등을 만들 때 반죽을 미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1.2.2. 다림질 도구

(1) 다리웨와 다리웨판

'다리웨'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이고, '다리웨판'은 '다리미판'을 말한다. 다리미판 대신 헝겊 안에 종이 등을 담아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다리웨'는 표준어 '다리미'를 구좌 지역에서 일컫는 말이다. 〈사진 40〉은 하도리 해녀박물관에 전시된 '다리웨'와 '윤디'다. '윤디'는 '인두'의 제주어다.


〈사진 40〉 '다리웨'와 '윤디' (해녀박물관)

(2) 윤디와 윤디판, 화리, 불제붐, 불숟까락

'윤디'는 표준어 '인두'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윤디'는 보통 한복을 지을 때 '짓(깃)'이나 '섭(섶)'을 다릴 때 사용한다. '윤디'는 화롯불에 묻어두었다가 그 열기를 이용하여 옷깃 등을 다린다. 〈사진 41〉은 한동리 고미생씨의 친정어머니가 할아버지 옷을

만들 때 사용했던 '윤디'를 고 씨가 물려받아서 썼던 것이다.

"건 바농질헐 때민 화리에 놩 숫불 살롸근에 옷 멩길앙 실밥 영 누르뜨는 거 윤디. 우리 어머니 쓰던 거 나가 앗아오난. 우리 어머니가 ᄋᆞ든다섯에 죽으난 이거 어멍 죽건 디가 십이 년 뒈서. 우리 어머니 써난 거 나 앗아당 써낫주. 이 실밥을 영 놔근에가 윤디판에 놩 똣똣허게시리 영 쑥쑥허민 이디가 페와져. 숫불 살롱 영 불 신 더레 영 찔렁 놔두민 윤디가 막 뜨뜻허주게. 뜨뜻허민 영 헤영 이 실밥더레 영 헤영. 우리 시아방 ᄃᆞ령 사난 하르방 옷 헐 때민 기자 화리에 숫불 살롱. 저 다리웨 신 건 데껴불고. 하도 오랜 거난.(그것은 바느질할 때면 화로에 넣어서 숯불 살라서 옷 만들어서 실밥 이렇게 누르는 거 인두. 우리 어머니 쓰던 거 내가 가져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든다섯에 죽으니까 이것 어머니 죽은 지가 십이 년 됐어. 우리 어머니 썼던 거 내가 가져다가 썼었지. 이 실밥을 이렇게 놔서 인두판에 놓아서 따뜻하게끔 이렇게 쑥쑥하면 여기가 펴져. 숯불 살라서 이렇게 불 있는 데로 이렇게 찔러서 놔두면 인두가 매우 따뜻하지. 따뜻하면 이렇게 해서 이 실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아버지 데려서 사니까 할아버지 옷 할 때면 그저 화로에 숯불 살라서. 저 다리미 있는 것은 던져버리고. 하도 오랜 것이니까.)"[15]

'화리'는 표준어 '화로'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화리'는 전래적인 난방 기구의 하나로, 화로에 불잉걸을 담고 그 위에 재를 덮어두며 불씨를 오래 보존할 수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해준다. '윤디(인두)'를 사용할 때는 화롯불에 '윤디'를 묻어 두었다가 사용하면 된다. 화로의 불을 묻거나 헤집을 때는 '불제붐'과 '불수까락'을 이용했다.


〈사진 41〉 고미생 씨의 '윤디'


〈사진 42〉 이삼년 씨의 '정동화리'

15) 고미생 씨 구술.

'불제붐'은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으로 표준어 '부젓가락'에 대응하는 말이고, '불수까락'은 '화로에 꽂아 두고 쓰는 작은 부삽.'으로 숟가락 모양을 하고 있다. 표준어 '부손'에 해당하는 말이다.

〈사진 42〉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바느질할 때 '윤디'를 묻었다가 썼던 '정동화리(청동화로)'다. 이씨는 "이 놋화리에 윤디를 질렀다가 옷을 다릴 때 사용했다."고 구술했다.

1.2.3. 세탁도구

(1) 물마께

'물마께'는 빨래를 할 때 옷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빨랫감을 두드려서 빠는 데 쓰는 방망이를 말한다. 달리 '서답마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좌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다듬잇방방망이'를 '서답마께'라고 하고 있었다. '물마께'는 물을 이용하여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마께'에서 얻은 이름이다. 표준어 '빨랫방망이'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사진 43〉은 하도리 이삼년 씨가 요즘도 사용하는 '물마께'이고, 〈사진 44〉는 세화리 부안일 씨가 사용하는 '물마께'다. 〈사진 45〉는 송당리 김석봉 씨 집에서 걸레 등을 빨 때 사용하는 '물마께'로 김씨가 직접 나무를 오려 만든 것이다. 〈사진 46〉은 송당리 홍태휴 씨가 결혼하자 살림 도구의 하나로 '종낭(때죽나무)'으로 직접 만든 '물마께'로 최근까지도 사용했다고 한다. '종낭'으로 '물마께'를 만드는 것은 나무가 가벼


〈사진 43〉 이삼년 씨의 '물마께'


〈사진 44〉 부안일 씨의 '물마께'


〈사진 45〉 김석봉 씨의 '물마께'


〈사진 46〉 홍태휴 씨의 '물마께'


〈사진 47〉 김양근 씨의 '물마께'


〈사진 48〉 홍영애 씨의 '마께'들

워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사진 47〉은 한동리 김양근 씨 어머니가 사용했던 '물마께'이고, 〈사진 48〉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하는 마께들이다. 〈사진 48〉의 왼쪽의 두 개는 '물마께', 감을 빻을 때 사용해서 갈색을 띠는 것은 '덩드렁마께', 맨 오른쪽 것은 다듬이질 할 때 사용했던 '서답마께'이다.

(2) 뽈레판/빨래판

'뽈레판/빨래판'은 빨래할 때 쓰는 판이다. 넓적한 나무판을 물결같이 울퉁불퉁하게 파서 만들었다. '뽈레판'은 '빨래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예전에는 '빨래판' 대신에 넓적한 돌이나 '그레착(맷돌)'을 땅속에 박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거 혼 오십 년이나 뒀주. 다라에 영헤근에 줄근줄근 영허곡 허난게. 세탁기 난 후제

사 이거 썻어? 세탁기 나기 전에 다라에 물 놩 요거에 영영 허멍 헤신디 세탁기 난 후젠 세탁기만.(이거 한 오십 년이나 됐지. 대야에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세탁기 난 후에야 이거 썼어? 세탁기 나기 전에 대야에 물 넣어서 요것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세탁기 난 후에는 세탁기로만.)"[16]

〈사진 49〉는 세화리 부안일 씨가 사용했던 '빨래판'으로, 오래 사용하여 닳고 달았다. 〈사진 50〉은 송당리 홍태휴 씨 부인이, 〈사진 51〉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사용했던 '빨레판'으로 세탁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 49〉 부안일 씨의 '빨래판'


〈사진 50〉 홍태휴 씨의 '빨래판'


〈사진 51〉 홍수선 씨의 '빨래판'

(3) 대야, 장태

'대야'와 '장태'는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빨래판을 이용하여 빨래를 할 때는 '대야' 등에 빨래판을 얹어서 손으로 주무르면서 빨래를 하게 되는데, 빨래하는 행위를 '빨레 놀린다'고 한다. '빨레를 놀리면서' 빨래의 때를 벗기는 것이다.

16) 홍수선 씨 구술.

(4) 세답줄과 세답작데기

'세답줄'은 '세답(洗踏)'을 널 때 사용하는 줄이다. '세답'은 빨래의 한자어로, '세답줄'은 '빨랫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세답'을 널면 줄이 늘어지는데, 이 줄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위하여 받치는 게 '세답작데기'다. '세답작데기'는 표준어 '바지랑대'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사진 52〉는 김녕리 한재병 씨 집에서 촬영한 '세답줄'과 '세답작데기'다.



〈사진 52〉 한재병 씨의 '세답줄'과 '세답작데기'

1.3. 옷감과 의복

(1) 미녕과 미녕옷, 광목과 광목옷

'미녕'은 '무명실로 짠 천'을 말한다. 표준어 '무명'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미녕'을 옷감으로 쓰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빨고 삶은 후에 하얗게 바랜 후에 사용한다. 바래지 않은 '미녕'을 '짓차미녕'이라고 한다. '짓차미녕'은 '깃째무명'을 말한다. '짓차미녕'으로 옷을 하면 나중에 빨아 가면 옷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옷 만들기 전에 빨고 삶아서 바랜 후에 사용한다. '짓(깃)'은 '바래지 않은 무명이나 광목 등의 풀기'를 말한다.

"옛날 미녕 이거. 이거 막 좀진 미녕 곤 거이 이거 헤근에 뿔아근에 숢앙 헤영케 발레여근에이 저 바지도 허고 저고리도 허고 두루막, 후리메도 허고. 게난 이거 후리메 허젠 헷단에 그냥 어떵헨 그 시기 넘으난 그냥 아니 헨. 지찻미녕 그거 막 엿날 거. 나 그거 미녕 사건디가 멧 년 뒈어시? 그 미녕 사건 디가 혼 육십년 뒌 거 닮다. 미녕 혼 빌 허민 혼 서른 자 마흔 자 헐 거라. 미녕 저거 막 일등 미녕이라, 막 좀진 거. 홁은 것도 잇주게.(옛날 무명 이것. 이것 매우 자잘한 무명 고운 거 이거 해서 빨아서 삶아서 하얗게 바래여서 저 바지도 하고 저고리도 하고 두루마기, '후리메'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후리메' 하려고 했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 시기 넘으니까 그냥 아니 했어. '깃째무명' 그거 매우 옛날 것. 나 그거 무명 산 지가 몇 년 되었니? 그 무명 산 지가 한 육십년 된 것 같다. 무명 한 필 하면 한 서른 자

마흔 자 할 거야. 무명 저거 막 일등 무명이야. 매우 자잘한 거. 굵은 것도 있지.)"[17]



〈사진 53〉 홍수선 씨의 '미녕'



〈사진 54〉 홍수선 씨의 '광목'



〈사진 55〉 허정순 씨의 '광목적삼'



〈사진 56〉 홍수선 씨의 '복치메'

〈사진 53〉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두루마기를 하려고 샀다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미녕'으로, 폭 33cm의 필로 된 무명이다. 〈사진 54〉는 홍씨가 보관하고 있는 광목이다. 〈사진 55〉는 한동리 허정순 씨가 스무살 경에 손으로 직접 만든 '광목적삼'이다. '적삼'은 '홑저고리'를 말한다. 〈사진 56〉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광목으로 만든 '복치메'로, '복치메'는 장사가 났을 때 여자들이 입었던 상복의 한 가지다. 표준어 '복치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17) 홍수선 씨 구술.

(2) 멩지와 멩지옷

'멩지'는 '명주실로 짠 무늬 없이 천'을 말한다. 표준어 '명주'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예전에 '멩지'는 최고의 천이었는데 결혼할 때는 신랑신부에게 '멩지바지저고리(명주바지저고리)'와 '멩지치메저고리(명주치마저고리)'를 해주었다고 한다. 〈사진 57〉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시집올 때 시어머니가 해주었다는 '멩지저고리'다.



〈사진 57〉 홍수선 씨의 '멩지저고리'

이 저고리는 전체 길이가 143cm이며, 몸통 폭 34cm, 소매 길이 47cm, 소매폭 22cm, 소매부리 14cm, 질소미 11.5cm, 진동 20cm, 저고리 폭 길이 38cm, 바깥 섶 길이 바깥쪽 20cm 안쪽 16cm, 안섶 15cm, 안깃 24cm, 동정 폭 2cm, 동정 왼쪽 길이 16cm, 동전 안쪽 길이 18cm, 안곰 길이 15.5cm, 목 고대 22cm, 목 고대 폭 3cm, 옷고름 긴 고름 81cm, 짧은 옷고름 60cn로 이루어졌다.

(3) 베와 베옷

'베'는 삼베의 다른 말이다. '베'는 주로 상복을 지을 때 많이 사용했는데, 여름철에 남자들의 중의적삼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진 58〉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베이고, 〈사진 59〉는 홍씨가 여름

에 입기 위해 직접 만든 '베적삼'이다. 〈사진 60〉은 한동리 허정순 씨가 70년 전인 열일곱 살 경에 고구마를 주워서 판돈으로 구입한 베를 이용하여 동생들을 돌보면서도, 손바느질로 직접 만든 '베적삼'이다.


〈사진 58〉 홍수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베'


〈사진 59〉 홍수선 씨의 '베적삼'


〈사진 60〉 허정순 씨의 '베적삼'

"이거 아인 때 헌 거여게. 베옷. 제국시절에 헌 거. 저고리도 헌 거 오고셍이 혼번 못 입어봔에. 이거 벵정실 끈엉 저 허리띠 싯지 안 허느냐. 저 훤헌 디 강 보라만은. 그거 씰 허리띠 닮은 거 이제 베 닮은 거 나오지이. 그것에서 뽑아내여근에 제국시절에 씰 막 막아지고 전장통에 광목도 시꺼오지 못허고 베도 시꺼오지 못헐 때. 거 시꺼오지 못헐 때 아기 둘멍 동싱덜 둘멍게 이걸 멘들아져라게. 손으로 멘드난, 우리 호야불 엇으난에 올레집이 강 저 동경 육지덜 뎅기난에 호야불을 돌아라게, 그 할망은. 그 할망 호야불 둘민 그 집이 가근에가 "저디 강 허라, 허라." 허민 이녁집거추룩 가근에가 호야불에 멘들앗주게. 경헌 거 데껴불지 안 헤영. 전인 앞섭이 넙어나신디 이 철에, 이거 멘든 철에 좁아나서. 겨난 이 준동 지레기 이거 보라, 지레기 질고 허난에 아이고, 이거 데껴불지 말앙 놔두주. 우리 동싱덜 둘멍 저 뒷밧디 간에 감저 줏언에 풀안에 베 바꽝 경헨에 혼 건디 이 베를 아까우난 이거 다 만들어세. 이거 손으로 멘든 거.(이거 아인 때 한 거야. 베옷. 일제강점기에 한 거. 저고리로 한 거. 그대로 한번 못 입어봤어. 이거 '병정실' 끊어서 저 허리띠 있지 안 하느냐. 저 환한 데 가서 봐라만, 그거 실 허리띠 같은 거 이제 베 닮은 것 나오지. 그것에서 뽑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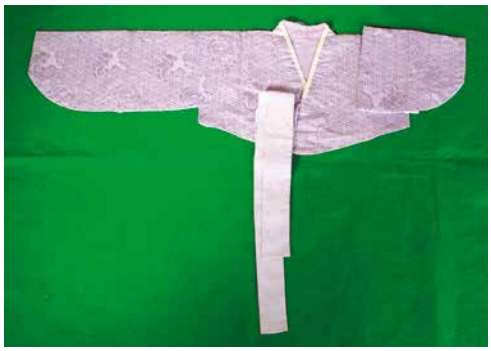
어서 일제강점기에 실 막 막아지고, 전쟁통에 광목도 실어오지 못하고, 베도 실어오지 못할 때. 거 실어오지 못할 때 아기 보면서 동생들 돌보면서 이것을 만들어졌어. 손으로 만드니까, 우리 등핏불 없으니까 골목집에 가서 저 동경(東京) 육지들 다니니까 등핏불을 달더라,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 등핏불 달면 그 집에 가서 "저기 가서 하라, 하라." 하면 이녁집처럼 가서 등핏불에 만들었지. 그런 거 던져버리지 안 해서. 전에는 앞섶이 넓었었는데 이 철에, 이거 만든 철에 좁았었어. 그러니까 이 잔등 길이 이거 봐라, 길이 길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던져버리지 말아서 놔두지. 우리 동생들 돌보면서 저 뒷밭에 가서 고구마 주워서 팔아서 베 바꿔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이 베를 아까우니까 이거 다 만들었어.)"[18]

허씨의 베적삼 크기는 가로 132cm, 길이(지레기) 38cm, 소매폭 21cm, 소매길이 40cm, 끝동 6cm, 짓(깃) 4.5cm, 앞섭 5.7cm, 안앞섭 3cm, 짓(깃) 3.5cm, 짓바데(등바대) 9cm로 되어 있다.

(4) 호박단과 호박단옷

'호박단'은 '이긴 실을 써서 두둑바닥에 무늬를 놓은 비단천의 하나.'다. 양단이나 모본단과 비슷하고, 겉보기가 좋아 여자들의 치마저고리 감으로 많이 애용되었다.

〈사진 61〉과 〈사진 62〉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45년 전에 자신이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든 호박단저고리와 호박단치마로



〈사진 61〉 홍수선 씨의 '호박단저고리'



〈사진 62〉 홍수선 씨의 '호박단치메'

18) 허정순(한동리) 씨 구술.


〈사진 63〉 홍수선 씨의 '호박단보선'


〈사진 64〉 홍수선 씨의 '보선'들

보라색 저고리와 쑥색 치마가 세련되어 보인다. 〈사진 63〉은 홍씨가 직접 만들어 신는 '호박단보선'이다. 〈사진 64〉는 홍씨의 '보선'들로, 나일론천으로 만든 왼쪽의 버선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홍씨가 직접 만든 것이다.

(5) 뉴똥과 뉴똥옷

'뉴똥'은 비단의 일종이다. 예전에 혼인할 때 여자들의 치마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사진 65〉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육십육년 전에 시집올 때 시어머니가 해줘서 입었다는 '뉴똥치마'다. 친정에서는 분홍색 '뉴똥치마'를 입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해준


〈사진 65〉 홍수선 씨의 '뉴똥치메'


〈사진 66〉 홍수선 씨의 '치메저고리'



〈사진 67〉 홍수선 씨의 '치메저고리'



〈사진 68〉 홍수선 씨의 '치메저고리'

것은 회색 치마다. 〈사진 66〉은 홍씨가 육십육년 전 결혼해서 처음 입은 시어머니가 해 준 '멩지저고리'와 '뉴똥치마'이고, 〈사진 67〉은 홍씨의 큰며느리가 시집올 때 예단으로 해준 '치메저고리'이고, 〈사진 68〉은 작은며느리가 시집올 때 해준 '치메저고리'다. 〈사진 67〉과 〈사진 68〉의 '치메저고리'도 30년 가까이 되었다.

(6) 감옷/갈옷, 갈중의, 갈적삼

'감옷/갈옷'은 감물을 들인 옷을 말한다. 옷에 감물을 들일 때는 제주 토종 감인 '풋감'을 이용한다. '감옷/갈옷'은 땀이 차지 않고 쉬 더럽지 않아 노동복으로 제격이었다. '감옷'은 주로 여름철에 많이 입기 때문에 중의 적삼에 감물을 많이 들여서 입었다. 감물을 들인 바지는 '갈중의', 감물을 들인 적삼은 '갈적삼'이라고 한다.

(7) 소중이와 고무옷

'소중이'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물옷이다. 흰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미역 등의 해조류 등의 물이 들자 검은 물을 들여서 입기도 하였다. 머리에는 '물수건'을 쓰고, 눈에는 '눈'(물안경)을 써서 물질을 하였다. '물수건' 대신에 모자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는데, 그 모자를 '까부리' 또는 '풍뎅이'라고 하였다. '소중이' 위에는

'물적삼'을 입어 추위를 달랬다. 물질을 하고 나오면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턱'에서 불을 쬐게 되는데, 그때 방한용으로 '뚜데기'를 둘러써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였다.

'고무옷'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옷이다. 1970년 이후에 무명으로 만든 '소중이' 대신에 '고무옷'과 고무모자, 오리발이 나오면서 잠녀들은 추위에 떨지 않고 물질을 할 수 있었다. 하루 두세 번씩 물에 들고 나던 것을, 고무옷이 등장하자 한번 물에 들면 바다에서 서너 시간 이상을 물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69〉는 하도리 김일선 씨가 예전에 입었던 '소중이'를 재현해 만든 것이고, 〈사진 70〉은 하도리 김옥연 씨가 물질할 때 입었던 고무옷이다. 〈사진 71〉은 동복리에서 물질을 끝내고 갓 나온 때의 잠녀의 모습으로 잠녀들의 최근의 복장을 엿볼 수 있다.



〈사진 69〉 김일선 씨의 '소중이'



〈사진 70〉 김옥연 씨의 '고무옷'



〈사진 71〉 고무옷을 입은 해녀

(8) 우장

'우장'은 표준어 '도롱이'에 해당하는 구좌 지역 말로, 예전에 조상들이 비 올 때 입었던 띠로 만든 옷이다. '우장'은 보통 농촌 지역에서 소나 말을 보는 목동들이 많이 입었다고 한다. 송당리 김병현 씨는 "비 올 때 소를 보러 갈 때는 우장을 쓰고 머리에는 페렝이나 대페렝이 삿갓을 쓰고 다녔다."라고 했다. 김석봉 씨도 "비 올 때는 새

로 우장을 짚아(짜서) 쓰고, 우장 쓰고 삿갓을 쓰면 물이 들지 않는다. 삿갓은 대나무로 만들어 썼다."고 구술했다.

〈사진 72〉의 '우장'은 송당리복지회관에 전시하고 있는 이 마을 출신 김성길(작고) 씨가 20여 년 전에 만든 것이다.


〈사진 72〉 송당리복지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우장'과 '테우리차반지'

(9) 삿갓과 페렝이

'삿갓'은 농촌에서 밭일을 할 때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썼던 모자의 일종이다. 김을 맬 때 '삿갓'을 쓰고 일을 하면 얼굴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목동들이 마소를 돌보러 다닐 때도 '삿갓'을 쓰고 다녔다.

'페랭이'는 여름철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모자다. 보통 밀짚이나 보릿짚으로 엮어 만드는데, 이를 구좌 지역에서는 '밀낭페렝이'라고 하였다.

〈사진 73〉은 송당리 조명순 씨가 3, 4년 전에 시장에서 구입해 일할 때 쓰고 있는 '삿갓'이다. 예전에 대나무로 만든 '삿갓'과 달리 질기지가 않다고 한다. 〈사진 74〉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하고 있는 '삿갓'이다. 〈사진 75〉는 세화리 김윤생 씨가 집에서 밭일할 때 썼던 '페렝이'들로, 지금은 자녀들이 벌초할 때 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페렝이'는 재료에 따라 밀짚으로 만들면 '밀낭페렝이'(밀짚모자), 대로 만들면 '대페렝이'이라고 한다. 밀을 갈지 않으면서는 밀짚 대신에 보릿대를 이용하여 '페렝이'를 결어 사용하였다.


〈사진 73〉 조명순 씨의 '삿갓'


〈사진 74〉 홍영애 씨의 '삿갓'


〈사진 75〉 김윤생 씨의 '페렝이'

(10) 꼴레이불

'꼴레이불'은 '미녕'(무명) 안에 솜을 넣어 얇게 누벼 만든 여름용 이불이다. 보통 검푸른 물을 들인 '청목'과 분홍색으로 염색한 무명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촘촘하게 누벼 만든 '꼴레이불'은 분홍물을 들인 천을 이용해서 '짓(이불깃)'도 만드는 데 여간 손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

〈사진 76〉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64년 전에 시집올 때 만들어 온 '꼴레이불'이다. '바농질와치(바느질아치)'에게 부탁해 재봉틀로 촘촘하게 누벼 만들었는데, 이 '꼴레이불'은 아직도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 〈사진 77〉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꼴레이불'이다. 홍씨가 깨끗하게 빤다고 세제에 하룻밤을 담근다고 한 것이 분홍빛이던 깃이 허옇게 바랬다고 한다. 두 사진을 보면 '꼴레이불'도 만드는 사람만의 개성을 읽을 수 있다.


〈사진 76〉 이삼년 씨의 '꼴레이불'


〈사진 77〉 홍수선 씨의 '꼴레이불'

Ⅱ 조사 내용

2. 식생활

인간이 살아가면서 식생활 도구처럼 발달한 것도 없을 것 같다. 식생활 도구는 생활환경의 바뀌면서 그 모습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나무 그릇, 질그릇, 대그릇, 사기그릇, 알루미늄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유리 그릇, 종이그릇 등 다양한 변천 과정 속에 우리의 옛 그릇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사회에서 구좌 지역 주민들이 사용했던 식생활 관련 도구를 그릇,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사 관련 도구 등으로 나눠 기술하려고 한다.

2.1. 그릇

2.1.1. 밥사발과 국사발, 독사발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밥사발'은 밥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한다. 놋으로 만든 밥사발은 '놋밥사발'이라고 하고, 사기로 만든 밥그릇은 '사기밥사발'이라고 한다. '국사발'은 국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한다. 국사발도 재질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

〈사진 1〉과 〈사진 2〉는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이다. 일제강점기에 공출할 때 숨겨 놓았던 그릇들로, 시부모에게 물려받아 100년 이상이 되었다


〈사진 1〉 고재인 씨의 '놋밥사발'과 '놋국사발'


〈사진 2〉 고재인 씨의 '놋낭푼'과 '놋사발'(오른쪽)


〈사진 3〉 고재인 씨의 '사기밥사발'과 '사기국사발'


〈사진 4〉 강순자 씨의 '사기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5〉 고재인 씨의 '이모노' 그릇


〈사진 6〉 강순자 씨의 '이모노 국사발'

고 한다. 스물한 살에 시집왔을 때 시집에서 사용하던 그릇이다. 〈사진 3〉은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사기밥사발과 국사발이고, 〈사진 4〉는 한동리 강순자 씨 집에서 촬영한 밥사발과 국사발이다. 〈사진 3〉은 문양이 없는데 반해 〈사진 4〉는 문양이 있는 점이 다르다.

〈사진 5〉는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서 썼던 '이모노 그릇'이다. 〈사진 6〉은 한동리 강순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이모노 국그릇'이다. '이모노'는 '주물'의 뜻으로, 이 국그릇은 주물로 떠낸 그릇이다. 강 씨는 '이모노 그릇' 장사를 한 적도 있어 집안에 '이모노 그릇'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다. 동네에서 큰일이 있을 때 강씨 집에서 그릇을 빌려다 쓸 정도였다고 한다. 강씨는 자기 그릇인지 알기 위하여 그릇 밑에 표시를 해두었다. 50년 전에 사용했던 그릇이다.

'독사발'은 질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요즘의 뚝배기와 모양이 비슷한 그릇으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였다.

2.1.2. 접시류

접시류에는 쟁반과 접시가 있다. '쟁반'과 '접시'는 반찬 따위를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사진 7〉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제사 때 콩나물 등 채소를 담아서 올렸던 '눈돋은접시'다. '눈돋은 접시'는 그릇 구울 때 다른 그릇을 올려 놓았던 흔적이 접시 표면에 눈처럼 박혀 있어서 붙은 명칭이다. 그릇을 구울 때 겹쳐졌던 부분이다. 〈사진 8〉은 한동리


〈사진 7〉 홍영애 씨의 '눈돋은접시'


〈사진 8〉 강순자 씨의 '사기접시'


〈사진 9〉 고재인 씨의 '사기접시'

강순자 씨, 〈사진 9〉는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사기접시로, 콩나물 등의 반찬을 뜰 때 사용했던 사기그릇으로 접시의 변천을 읽게 해준다.

2.1.3. 종지류

(1) 보시

'보시'는 반찬 등을 떠놓는 그릇으로 표준어 '보시기'에 해당한다. 요즘은 '보시' 대신에 '젭시/접시'를 많이 사용한다. "탕수 놓을 보시 아정오라(탕수[19] 넣을 보시기 가져와라.).", "탕수 놓을 접시 아정오라(탕수 넣을 접시 가져와라.)."처럼 말한다.

〈사진 10〉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ᄆᆞ물보시'다. 제사 때 콩나물 등의 채소를 떠서 넣었던 '보시기'다. 〈사진 11〉과 〈사진 12〉는 세화리 김윤생 씨 집에 보



〈사진 10〉 고재인 씨의 'ᄆᆞ물보시'



〈사진 11〉 김윤생 씨의 '사기보시'



〈사진 12〉 김윤생 씨의 '사기보시'



〈사진 13〉 강순자 씨의 '사기보시'

19) '탕수'는 제사 때 올리는 채소를 김녕리에서 이르는 말이다. 달리 '탕쉬'라고도 한다.

관되어 있는 '사기보시'로 그릇 바깥 면의 테두리 등에 문양이 그려 있다. 〈사진 13〉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사기보시'들로 이 '보시'들은 때로는 술잔으로도 사용되었다.

(2) 종제기

'종제기'는 간장이나 술잔 등으로 사용하는 종지를 말한다. '종제기'는 또 '종지'라고 부른다. 제주에서는 윷놀이를 할 때도 '종제기'를 이용하는데, 이런 윷놀이를 '종지윳'이라고 한다.

〈사진 14〉는 한동리 강순자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종제기'다. 간장을 넣을 때 사용하거나 술잔으로도 활용하였다. '종지' 테두리에 문양이 그려 있다.



〈사진 14〉 강순자 씨의 '종제기'

2.1.4. 밥자와 남술

(1) 밥자

'밥자'는 밥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다.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지



〈사진 15〉 강순자 씨의 '놋밥자'



〈사진 16〉 강희숙 씨의 '놋밥자'

만 놋쇠로 만들기도 하였다. 놋쇠로 만든 것을 따로 '쒜밥자'라고 하였다. 〈사진 15〉는 한동리 강순자 씨가 보관하는 '놋밥자'로 오래 사용하여 자루가 잘려 있고, 밥자끝이 많이 닳아 있다. 50년은 족히 넘었다고 한다. 〈사진 16〉은 한동리 강희숙 씨가 보관하고 '놋밥자'로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사용했던 것이다. 두 '놋밥자'의 모습이 대비된다.

(2) 남술

'남술'은 밥이나 죽을 저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길게 만든 도구다.

"국자가 아니주. 거 남술허고 국잔 틀리주. 국잔 요로콤 생긴 게 국자고 남술은 그냥 구짝허게. 국자처럼 납작허게 헤영 고망 막 뚤라진 거 그것?라 곰박이엔 허고.(국자가 아니지. 거 죽젓개 하고 국자는 다르지. 국자는 요처럼 생긴 게 국자고 죽젓개는 그냥 곧게. 국자처럼 납작해서 구멍 마구 뚫어진 거 그것보고 '곰박'이라고 하고.)"[20]

〈사진 17〉과 〈사진 18〉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남술'로, 60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남술'은 표준어 '죽젓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17〉 이삼년 씨의 '남술'



〈사진 18〉 이삼년 씨의 '남술'

20) 김복남(김녕리) 씨 구술.

(3) 곰박

'곰박'은 삶은 떡을 건질 때 사용하는 국자 비슷한 도구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떡을 건질 때 국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였다.

2.1.5. 낭푼류

'낭푼'은 양푼의 방언형이다. 재료가 놋이면 놋낭푼, 알루미늄이면 '아르미낭푼', 주물로 뜬 것이면 '이모노낭푼'이라고 한다. '이모노(いもの)'는 주물의 일본어로, 일본어가 그릇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사진 19〉는 강순자 씨, 〈사진 20〉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이모노낭푼'이다. '낭푼'은 쌀을 씻거나 식구가 많은 집에서 밥을 떠서 온식구가 둘러앉아 밥



〈사진 19〉 강순자 씨의 '이모노낭푼'



〈사진 20〉 홍영애 씨의 '이모노낭푼'



〈사진 21〉 고재인 씨의 '아르미낭푼'



〈사진 22〉 홍영애 씨의 '아르미낭푼'

을 먹었던 그릇이다. 〈사진 19〉는 강씨가 시집왔을 때 이미 시집에서 사용하던 '낭푼'으로 50년 이상은 족히 되었다고 한다. 〈사진 21〉은 한동리 고재인 씨, 〈사진 22〉는 세화리 홍영애 씨의 '아르미낭푼'으로, 이 '낭푼'은 '이모노낭푼' 이후에 나온 그릇이다.

2.1.6. 차롱

'차롱'은 가는대오리로 네모나게 만든 뚜껑 있는 그릇이다. 표준어 '채롱'에 해당한다. 제주에서 '채롱'은 '수리대'라 불리는 이대를 가느다랗게 쪼갠 대오리로 만들었다. '차롱'은 주로 밥이나 떡, 고기 등을 넣을 때 사용하는 대그릇이다. 밭에 갈 때 점심을 싸고 가는 도시락의 기능을 하였고, 제사 등 큰일 때는 떡이나 적(炙)을 해서 담는 용기로 사용했다. '차롱'보다 작은 것을 세화리에서는 '고령'이라고 불렀다.

밥을 넣고 다니면 '밥차롱', 떡을 담으면 '떡차롱', 고기 산적을 넣으면 '적차롱'이라고 불렀다. 음식을 넣는 부분은 '이몸'이라 하고, '이몸'을 덮는 물건은 '차롱 뚜껑'이라고 하였다.

(1) 밥차롱

'밥차롱'은 밭에 점심을 싸고 갈 때 밥을 넣어서 가지고 가는 대그릇이다. 주로 '수리대'라 불리는 이대를 가느다랗게 쪼개 만들었다. 점심을 주로 싸고 다니는 그릇이어서 '점심바구리'라고도 하였다.

〈사진 23〉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보관하는 '밥차롱'이다. '이몸'이 가로 30cm×세로 24cm×높이 10cm, 뚜껑이 가로 34cm×세로 27cm×높이 8cm 크기다. '이몸'을 '알착', '뚜껑'을 '우착'이라고 한다. 이 '밥차롱'은 강씨가 소 먹이인 꼴을 베러 다닐 때 밥이 쉬지 말라고 해서 밥을 넣고 다녔던 '차롱'이다. 강씨는 '밥차롱'을 '점심바



〈사진 23〉 강순자 씨의 '밥차롱'

구리'라고도 하였다. 밥 한 '차롱'이면 서너 명은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40년 전인 1980년대까지도 사용했던 '점심바구리'다.


〈사진 24〉 강순자 씨의 '떡차롱', '적차롱', '밥차롱' (왼쪽부터)

"이건 촐 비레 갈 때 밥 쉬지 말렌 이것에 담앙 지엉 뎅겨세게. 이건 점심바구리. 저 밥 헤근에 물구덕에 놔근에. 옛날 이걸로 헤근에 허민 서너이 먹나. 7뜩 담앙 녹디 놓곡 헤근에 막 맛잇게 헹 가민 우리 아덜덜이 낫질 허단 먹어 불어. 점심 먹젠허민 밥이 엇어. 다 들러먹어 불언.(이것은 꼴 베러 갈 때 밥 쉬지 말라고 이것에 담아서 지어서 다녔어. 이것은 점심바구니. 저 밥 해서 '물구덕'[21]에 넣어서. 옛날 이것으로 해서 하면 서넛은 먹지. 가득 담아서 녹두 넣고 해서 매우 맛있게 해서 가면 우리 아들들이 낫질 하다가 먹어 버려. 점심 먹으려고 하면 밥이 없어. 다 들이먹어 버려서.)"[22]

송당리 김석봉 씨는 소 먹이러 다닐 때 '밥차롱'에 점심을 넣어서 다녔다고 한다. '차롱' 크기에 따라서 '큰차롱', '족은차롱'이라 부르기도 하고, 용도에 따라서 '밥차롱'에 끈을 매달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옛날은 밥차롱. 양펜으로이 영 끈 둔 밥차롱 잇어. 그 밥차롱에 밥 담앙 가. 또 그냥 식구 많은 집은 ᄒᆞ꼼 큰차롱에. 큰차롱에 두껑 더껑 밥 담앙 가고.(옛날은 밥 채롱. 양편으로 이렇게 끈 단 밥 채롱 있어. 그 밥 채롱에 밥 담아서 가. 또 그냥 식구 많은 집은 조금 큰 채롱에. 큰 채롱에 뚜껑 덮어서 밥 담아서 가고.)"[23]

'테우리차반지'는 '테우리(목동)'들이 소를 보러 다닐 때 점심을 싸고 다녔던 대오리

21) '물구덕'은 물을 긷는 허벅, 즉 물동이를 넣어서 다닐 때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22) 강순자(한동리) 씨 구술.
23) 김복남 씨 구술.

로 결어 만든 대그릇이다. 보통 1~2인용 도시락으로, 제보자에 따라 '밥당석'이라고 불렀다. '테우리차반지'는 보통 '채롱' 양쪽에 끈을 매달았는데, 이는 '테우리'들이 소 보러 다닐 때 지거나 어깨에 매달아 다닐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들에 나가면 이 끈을 이용하여 '밥당석'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가 점심에 먹었다고 한다. 구좌읍 한동리 김옥연 씨는 이 바구니를 '소리바구리'라고 하였다.

"테우리차반지. 우리 하르방 옛날에 써난 거. 우리 서방 나 다 써났주. 밧 볼릴 때, 농ᄉᆞ헐 때, 또 밧디 검질메레 가민 이것에 보리밥 톡허게 싸근에 ᄑᆞ리 궤지 말고 쉬지 말렌 톡 더껑 나무에 톡 돌아멧당 검질메당 열두 시 뒈믄 ᄂᆞ려왕 밥 먹엉.('테우리차반지'. 우리 남편 옛날에 썼던 거. 우리 서방 나 다 썼었지. 밭 밟을 때, 농사할 때, 또 밭에 김매러 가면 이것에 보리밥 톡하게 싸서 파리 괴지 말고 쉬지 말라고 톡 덮어서 나무에 또 매달았다가 김매다가 열두 시 되면 내려서 밥 먹었어.)"

〈사진 25〉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보관하고 있는 '테우리차반지'로, 남편과 함께 사용했던 것이다. 크기는 가로 20cm×세로 17cm× 높이 9cm(아래), 가로 23cm×세로 20cm×높이 7cm(위)다. 〈사진 26〉은 하도리 김옥연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2인용 '소리



〈사진 25〉 홍영애 씨의 '테우리차반지'



〈사진 26〉 김옥연 씨의 '소리바구리'



〈사진 27〉 송당리복지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 테우리차반지'(김성길 작)

바구리'다. 차반지 양쪽에 '쒜'로 만든 고리가 달려 있어 끈을 달아 지거나 매고 다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27〉은 구좌읍 송당리복지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테우리차반지'다. 이 '차반지'는 이 마을 김성길 씨(작고)가 만든 것이다. '테우리차반지'는 통기성이 좋아 '차반지'에 밥을 넣어두면 여름에도 잘 쉬지 않는다고 한다.

(2) 적차롱

'적차롱'은 제사 때 상에 올리는 '적'을 해서 담아 두는 채롱이다. 한동리 강순자 씨는 제사 때 소고기적, 돼지고기적 등 세 가지 적을 만들어 담아서 뚜껑을 덮어 두었다가 진설할 때 썼다고 한다.


〈사진 28〉 강순자 씨의 '적차롱'


〈사진 29〉 홍영애 씨의 '적차롱'

〈사진 28〉은 강씨가 사용했던 '적차롱'으로, 아래쪽 가로 43cm×세로 36cm×높이 13cm, 뚜껑 가로 48cm×세로 39cm×높이10cm의 크기다. 장례 등 큰일이 있을 때 수고한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 등을 담아서 가져 갈 때 사용하는 '차롱'은 이것보다 조금 작은 것을 이용했다고 한다. 큰일 때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차롱에 떡과 고기 등을 넣어서 가지고 가는 것을 구좌 지역에서는 '공정 설르다'라고 한다. 〈사진 29〉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제사 때 적과 묵을 넣었던 '적차롱'이다.

(3) 떡차롱

'떡차롱'은 제사 등 큰일이 있을 때 떡을 해서 넣는 대그릇이다. 한동리 강순자 씨

의 “차롱은 식게 때 쓰는 거. 적차롱, 곤떡차롱, 저 친떡차롱 경허여. 같은 차롱이라도 족은 거, 큰 거.(채롱은 제사 때 쓰는 거. 적채롱, 흰떡채롱, 저 시루떡채롱 그렇게 해. 같은 채롱이어도 작은 것, 큰 것.”이라는 구술에서 보듯이 ‘차롱’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름과 크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곤떡차롱’은 흰쌀로 만든 떡을 넣는 채롱이고, ‘친떡차롱’은 ‘친떡을 넣는 채롱’이라는 의미다. ‘친떡’은 ‘시루떡’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친떡’ 가운데 제사 때 쓰는 흰쌀로만 만든 시루떡을 달리 ‘제펜’이라고 부른다.



〈사진 30〉 강순자 씨의 ‘떡차롱’



〈사진 31〉 강순자 씨의 ‘떡차롱’

〈사진 30〉은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떡차롱’으로 ‘차롱’ 아래짝이 가로 38cm×세로 33cm×높이 15cm, 뚜껑 44cm×세로 35cm×높이 12cm 크기이며, 〈사진 31〉은 강씨가 사용했던 또 다른 ‘떡차롱’으로 가로 43cm×세로 37cm×높이 13cm 크기로, 쌀을 넣으면 한 말 반이 들고 ‘제펜(제편)’ 여덟 ‘빗’이 들어간다고 한다. ‘제펜’ 여덟 빗은 쌀 한 말 분량이다. ‘제편’은 제사 때 사용하는 흰쌀가루로 만든 시루떡이고, ‘빗’은 시루떡을 알맞은 크기로 오려낸 시루떡의 낱개를 말한다. 강씨는 자신의 ‘차롱’임을 알기 위하여 ‘이몸’ 왼쪽에 파란 실을 감아 표시해 두었다.

김녕리 김복남 씨도 ‘떡차롱’을 떡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불렀다.

“친떡차롱이 크주게. 그 다음은 곤떡. 곤떡차롱은 저 반착은 곤떡 놓고 반착은 만뒤떡 놓고. 세화장에서 사다 썻주게. 두말떼기시리의 반 정도는 들어가지.(시루떡채롱이 크지. 그 다음은 흰떡. 흰떡채롱은 저 반쪽은 흰떡 넣고 반쪽은 만두떡 넣고. 세화장에서

사다 썼지. 두 말들이 시루의 반 정도는 들어가지.)"[24]


〈사진 32〉 조명순 씨의 '떡차롱'

〈사진 32〉는 송당리 조명순씨가 세화장[25]에서 구입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떡차롱'이다. 조씨는 이 떡차롱에 대하여, "저 당할망신디 ᄆᆞ슬칼 때, 제ᄉᆞ 멩질헐 때 떡헹 그레 놓고 헤낫주.(저 당할머니한테 마을갈 때, 제사 명절을 할 때 떡을 해서 그리로 넣고 했었지.)"라며 '떡차롱'의 용도를 설명해 주었다.

〈사진 33〉은 김녕리 한재병 씨가 제사 때 사용했던 '떡차롱'으로, 주로 '시리떡(시루떡)'이나 '상웨떡'[26]을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했던 '떡차롱'이다. 〈사진 34〉는 세화리 김윤생 씨가 제사를 시작하면서 구입해 떡 등을 만들어 넣는 용기로 사용했던 '떡차롱'이다. '떡차롱'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 만든 사람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사진 33〉 한재병 씨의 '떡차롱'


〈사진 34〉 김윤생 씨의 '떡차롱'

24) 김복남 씨 구술.

25) '세화장'은 구좌읍 세화리에서 서는 오일장을 가리킨다. '세화장'은 매달 5일과 10일에 선다.

26) '상웨떡'은 '밀가루에 기주를 넣어 반죽한 후 부풀어 오르면 둥글거나 네모나게 만들어 솥에 넣어서 쪄낸 떡'이다.

2.1.7. 구덕

'구덕'은 대오리로 결은 바구니를 말한다. 용도와 재료 등에 따라 '질구덕', '물구덕', '동이구덕', '[illegible]는대구덕', '풀[illegible]른구덕', '애기구덕' 등으로 나뉜다.

(1) 질구덕

'질구덕'은 물건을 집어넣어서 지고 다니게 만든 대오리로 결어서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구덕' 가운데 가장 크다. '질구덕'은 밭에 다닐 때 점심을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바닷가에 물질하러 갈 때 '테왁'을 넣어서 다니기도 하였다.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등의 채취물을 담아서 져올 때도 썼다.

"질구덕이라도 메역헐 땐 큰 구덕인디 우미 주물 때 조그만헌 질구덕. 족은 질구덕으로 허고.(질구덕이라도 미역할 때는 큰 바구니인데 우뭇가사리 채취할 때는 자그마한 '질구덕', 작은 '질구덕'.)"[27]



〈사진 35〉 강순자 씨의 '질구덕'과 '질빵'



〈사진 36〉 강순자 씨의 '질구덕'

〈사진 35〉는 한동리 강순자가 보관하고 있는 '질구덕'으로, 성산읍 수산에 사는 외사촌 동생에게 선물로 받은 것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질구덕'을 질 때는 사진에서처럼 '질빵'을 이용한다. 〈사진 36〉은 강씨가 제사 때 '상웨떡'을 쪄서 넣어둘

27) 홍수선(구좌읍 하도리) 구술.



〈사진 37〉 조명순 씨의 '?는대질구덕'



〈사진 38〉 김윤생 씨의 '질구덕'



〈사진 39〉 김복만 씨 친정어머니의 '질구덕'



〈사진 40〉 강순자 씨의 여러 구덕

용도로 조천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크기는 가로 50cm×세로 46cm×높이 27cm이다. 〈사진 37〉은 송당리 조명순 씨가 마을에 있는 '구덕쟁이'한테 부탁해서 30년 전에 만든 '질구덕'으로, 재료는 집에 심어 있던 이대를 사용해서 만든 '?'는대질구덕'이다. '?'는대질구덕'은 '큰일' 때 먼 곳에 다닐 때 '떡동이' 따위를 넣어서 지고 다녔다.

"옛날 질구덕게. 떡동이 헤여근에가 식게칩이 갈 때민 떡동이 들여놩 지영 가난 거주게. 구덕 말앙 또 놋동이가 잇어이. 옛날이 둥글랑헌 놋동이 이만이헌 놋동이에 떡 헤여근에가 저것에 놩 지영 간다게. 옛날 듬북허레 갈 때도게 저런 구덕에 메영 가곡 경 헷주.(옛날 '질구덕'. '떡동이' 해서 제삿집에 갈 때면 '떡동이' 들여놓아서 져서 갔던 거지. 바구니 말고 또 놋동이가 있어. 옛날 둥근 놋동이 이만한 놋동이에 떡 해서 저것에 넣어서 지고 가. 옛날 듬북하러 갈 때도 저런 바구니에 매어서 가고 그렇게 했지.)"[28]

28) 이삼년 씨 구술.

(2) ᄀᆞ는대구덕

‘ᄀᆞ는대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결은 바구니다. ‘ᄀᆞ는대+구덕’ 구성으로, ‘ᄀᆞ는대’는 표준어 ‘가는대’, ‘구덕’은 바구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올이 가는 대오리로 결은 ‘ᄀᆞ는대구덕’은 당에 다닐 때나 제사나 잔치 때 쌀 등의 부조를 넣어서 다니는 용도로 사용했다. ‘ᄀᆞ는대바구리’, ‘떡바구리’, ‘동이구덕’이라고도 한다.

“ᄀᆞ는대구덕. 그냥 영 졍 당이 갈 때나 쪼글락헌 식게 먹으레 갈 때 이런 낭푼에다가 옛날엔 쏠 놓아근에 영 제사 먹으레. 그추룩헨 제사 먹으레 가는 게 ᄀᆞ는대구덕이고 그 질구덕보단 ᄒᆞ꼼 족아.(가는대바구니. 그냥 이렇게 져서 당에 갈 때나 작은 제사 먹으러 갈 때 이런 양푼에다가 옛날에 쌀 넣어서 제사 먹으러. 그렇게해서 제사 먹으러 가는 게 가는대바구니이고, 그 ‘질구덕’보다는 조금 작아.)”[29]

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ᄀᆞ는대구덕’은 제사나 당에 다닐 때만 사용했던 귀한 물건이었다.

〈사진 41〉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ᄀᆞ는대구덕’으로 50년 이상 사용했는데, 당에 갈 때 밥 등의 메를 넣고 다녔던 바구니다. 크기는 가로 40cm×세로 38cm ×높이 21cm이다. 〈사진 42〉는 강순자 씨가 제삿집에 ‘메쏠(메쌀)’[30]을 넣어서 갈 때 사용했던 ‘ᄀᆞ는대구덕’이다. 또 장에 갈 때도 갖고 다니는데 이때에는 바구니를 허리



〈사진 41〉 강순자 씨의 ‘ᄀᆞ는대구덕’



〈사진 42〉 강순자 씨의 ‘ᄀᆞ는대구덕’

29) 김복남 씨 구술.
30) ‘메쏠’은 ‘제사 때 메를 지을 쌀’이다.



〈사진 43〉 김윤생 씨의 'ᄀᆞ는대구덕'



〈사진 44〉 홍영애의 'ᄀᆞ는대구덕'

에 끼워서 사용했다. 크기는 가로 42cm×세로 33cm×높이 17cm/가로 42cm×세로 40cm×높이 22cm다. 〈사진 43〉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사용했던 'ᄀᆞ는대구덕'으로 제사 먹으러 갈 때 제물을 넣고 다녔던 것이다. 〈사진 44〉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굿을 할 때 북을 넣어서 다니거나 '요왕멕임'[31]을 할 때 제물 따위를 넣어서 다녔던 'ᄀᆞ는대구덕'이다. 제주시 도련2동 '멘촌마을'에서 구입한 것이다.

'ᄀᆞ는대구덕'은 제보자에 따라 'ᄀᆞ는대바구리'라고도 하였다. 보통 떡을 넣고 다니는 용도여서 '떡바구리'라고도 한다. 'ᄀᆞ는대구덕' 짠 모습이 조금씩 달라 제작자마다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사진 45〉는 한동리 강순자가 60년 전에 세화장에서 구입한 'ᄀᆞ는대바구리'로 제삿집에 다닐 때 제물로 빵을 구입해서 넣고 다녔다고 한다. 크기는 가로 28cm×세로 28cm×높이 15cm다. 〈사진 46〉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ᄀᆞ는대바구리'로, 이씨 역시 제사 먹으러 다닐 때 이 'ᄀᆞ는대바구리'에 떡 등을 넣어서 다녔다고 한다. 크기는 가로 28cm×세로 28cm×높이 15cm다. 'ᄀᆞ는대구덕'보다 크기가 작아서 '~바구리'가 붙은 것이다.

'동이구덕'은 제사 때 제물을 넣은 동이를 넣어서 다니는 바구니다. '동이구덕'은 '동이'라는 그릇을 넣어서 다녔던 바구니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나중에는 '동이'를 넣어서 다니지 않아도 '동이구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동이구덕'은 'ᄀᆞ는대구

31) '요왕멕임'은 용왕에게 제물을 싼 '지'를 던져 넣으며 가족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말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진 45〉 강순자 씨의 'ᄀᆞ는대바구리'


〈사진 46〉 이삼년의 'ᄀᆞ는대바구리'

덕'보다 크기가 작은 바구니로, 제보자에 따라서 'ᄀᆞ는대바구리'의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다.

"동이구덕 이것에이 떡 헤근에 ᄌᆞ근ᄌᆞ근 ᄒᆞ나썩 헤근에 앗아갓주게. 친척집에 무신 사름 뭐허민 경헤낫주게. 옛날 빵떡도 상 가고 상웨떡도 헹 가고 친떡도 헹 가고, 송펜도 헹 하고. 이것에 친떡 열 빗은 들 거라.('동이구덕' 이것에 떡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가져갔지. 친척집에 무슨 사람 뭐하면(돌아가시면) 그렇게 했었지. 옛날 빵도 사서 가고 상화떡도 해서 가고 시루떡도 해서 가고 송편도 해서 가고. 이것에 시루떡 열 조각은 들 거야.)"[32]

송당리 조명순 씨는 '동이구덕'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조씨는 가는 대오리로 만든 'ᄀᆞ는대구덕'을 "동이구덕 큰 것"(〈사진 47〉)과 "동이구덕 작은 것"(〈사진 48〉)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동이구덕 큰 것'은 달리 '서대구덕'이라고도 하는데, 송당리 '구덕쟁이'[33]한테 부탁해서 직접 만들었다.


〈사진 47〉 조명순 '동이구덕'(큰 것)

32) 홍수선 씨 구술.
33) '구덕쟁이'는 바구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라는 의미다.



〈사진 48〉 조명순 '동이구덕'(작은 것)



〈사진 49〉 홍수선 씨의 '동이구덕'

'서대구덕'은 '세대' 즉 가는 대오리로 결은 바구니라는 의미다. 〈사진 49〉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사용했던 동이구덕으로, 크기가 가로 35cm×세로 33cm×높이 19cm 다. 세화리오일장에서 구입해 썼는데, 40년 이상 되었다.

"질구덕은 큰 거고 ᄉᆞᆼ키구덕은 ᄒᆞ꼼 족은 거고, 또 족은 구덕은 동이구덕. 어디 저 제사 먹으레 갈 때나 당에 갈 때나 쓰는 게 ᄀᆞ는대구덕. ᄀᆞ는대구덕은 ᄒᆞ꼼 족주. 동이구덕은 커. 동이 놓젠 허민 질구덕만이 헤. 동이구덕은 식게 먹으레, 아부지 식게 먹으레 가젠 허민 동이 헤야주.('질구덕'은 큰 것이고, '조키구덕'은 조금 작은 것이고, 또 족은 바구니는 '동이구덕'. 어디 저 제사 먹으러 갈 때나 당에 갈 때나 쓰는 게 'ᄀᆞ는대구덕'. 'ᄀᆞ는대구덕'은 조금 작지. '동이구덕'은 커. 동이 넣으려고 하면 '질구덕만큼'해. '동이구덕'은 제사 먹으러, 아버지 제사 먹으러 가려고 하면 동이 해야지.)"[34]

위의 김녕리 김복남과 조명순의 구술을 보면, '동이구덕'은 원래 바구니 안에 '동이'를 넣고 다니는 바구니였다가 '떡을 넣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까지 아우르는 용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옹동바구리'는 구덕 가운데 크기가 작은 바구니다. 구좌읍 한동리 고재인 씨는 '옹동바구리'는 제사 때 제물을 가지고 다닐 때 사용했다고 한다. '동이구덕' 작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34) 김복남 씨 구술.

'당구덕'은 '당(堂)에 다닐 때 제물 따위를 넣고 다니는 바구니'를 말한다. '당'에 다닐 때 주로 사용하는 바구니여서 '당구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보통 이 바구니는 가는 대오리로 만든 '가는대구덕'을 이용하였다.



〈사진 50〉 이삼년의 '당쿠덕'



〈사진 51〉 이삼년 씨의 '구덕'과 '소쿠리'

〈사진 50〉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당구덕'이다. 가로 34cm×세로 32cm×높이 18cm 크기로 한 말들이 바구니다. 구입한 지 60년이 넘었다.

이씨는 당에 갈 때 이 바구니에 술, 메, 제숙 구운 거, 계란 삶은 것, 과일 따위를 넣고 다녔다. 또 '낭푼'에 밥을 뜨고 지전, 소지, 헝겊도 함께 넣고 가서 올렸다. 메 대신에 '백시리(백설기)'를 쪄서 가기도 하는데, 이때 '백설기'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올렸다. 당에 갈 때는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하여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물로도 올리지 않는다. 〈사진 51〉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선반 위에 보관하고 있는 '구덕'이다.

(3) 촐구덕/숭키구덕

'촐구덕'은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바구니다. 보통 밭이나 바다에 다닐 때 허리에 차서 나물이나 해산물 등을 캘 때 사용했다.

〈사진 52〉는 하도리 손성추 씨의 '촐구덕'으로, 바닷일을 다닐 때 들고 다녔다고 한다. 〈사진 53〉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촐구덕'으로, 크기는 가로 48cm×세로 44cm×높이 27cm다.

'숭키구덕'은 채소를 캐러 다닐 때 사용했던 바구니다. '숭키'는 푸성귀를 뜻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푸성귀를 넣고 다닐 때 사용하는 바구니라는 의미다. 하도리 김옥연


〈사진 52〉 손성추 씨의 '촐구덕'


〈사진 53〉 강순자 씨의 '촐구덕'


〈사진 54〉 김옥연 씨의 '촐구덕'


〈사진 55〉 김복만 씨 친정어머니 '촐구덕'

은 '촐구덕'에 '테왁'과 '망사리'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사진 54〉). 〈사진 55〉는 김복만 씨 친정 어머니가 사용했던 '촐구덕'으로 구덕 앞쪽에 허리에 찰 때 사용하는 '허리끈'이 달려 있다. '촐구덕'은 'ᄉᆞᆼ키'를 하거나 바닷일을 할 때 허리에 차서 하는 바구니라는 의미다.

(4) ᄇᆞ른구덕

'(풀)ᄇᆞ른구덕'은 헐어 쓸모없게 된 바구니에 종이나 헝겊 따위를 발라 구멍이 나지 않게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ᄇᆞ른구덕'은 곡식이나 가루 등을 넣을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용도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여 만들었다. '(풀)ᄇᆞ른'은 '(풀을) 바른'의 의미다.

〈사진 56〉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ᄉᆞᆼ키구덕'이 헐자 헝겊을 발라서 만든 'ᄇᆞ른구덕 새끼'로, 좁쌀이나 메밀쌀 등 가루 갈 쌀을 넣고 다닐 때 썼다고 한다. 〈사진 57〉은


〈사진 56〉고재인 씨의 '부른구덕새끼'


〈사진 57〉 고재인 씨의 '부른구덕'


〈사진 58〉 강순자 씨의 '부른구덕'


〈사진 59〉 이삼년 씨의 '부른구덕'

고씨가 '질구덕'이 헐 자 헝겊을 발라서 만든 '부른구덕'이다. 〈사진 58〉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불림질할 곡석들을 봉 들고 다녔던(불림질을 곡식들을 넣어서 들고 다녔던)" 바구니다. 고씨는 '부른구덕' 가운데 작은 것을 '부른구덕새끼'라고 하였다. 〈사진 59〉는 이삼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부른구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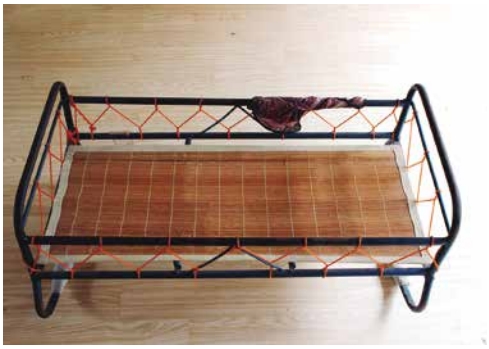
(5) 애기구덕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바구니다. 예전에는 대오리로 결어 사용하다가 차차 철사를 이용해 만든 구덕을 사용했다.

〈사진 60〉은 세화리 홍영애 씨 집


〈사진 60 〉 홍영애 씨의 '애기구덕'

에 보관되어 있는 '애기구덕'으로 구덕 몸체만 남아 있다. 〈사진 61〉은 송당리 조명순 씨의 손자가 사용했던 쇠로 만든 '애기구덕'이다. '댓자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한 지 오래 되지 않은 것 같다.


〈사진 61〉 조명순 씨의 '애기구덕'

2.1.8. 소쿠리

'소쿠리'는 대나 싸리로 엮어 만든 그릇으로, 떡 등을 만들어 넣거나 채소 등을 씻어 건질 때 사용하였다. 제주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소쿠리는 삼태기 모양으로 만들었다. 둥근 모양의 소쿠리는 육지에서 들어온 것이다.

"옛날은이 제ᄉᆞ헐 때 멩질헐 때 큰솟듸로 밥 하나썩 허주게. 이젠 그냥 전기밥솟에. 이것에 쏠 씻엉 건지고 제ᄉᆞ 멩질에도 쏠 씻엉 건지고 따시 떡허민 이것에서 영 헤근에 물랑 둠고. 큰일 때만 썻주.(옛날은 제사할 때 명절할 때 큰솥으로 밥 하나씩 하지. 이젠 그냥 전기밥솥에. 이것에 쌀 씻어서 건지고 제사 명절에도 쌀 씻어서 건지고 다시 떡하면 이것에서 이렇게 해서 말려서 담고. 큰일 때만 썼지.)"[35]


〈사진 62〉 이삼년 씨의 '소쿠리'

〈사진 62〉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소쿠리로, 50여 년 전에 세화 오일장에서 구입한 것이다. 제사 때 떡 건지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ᄉᆞᆼ키(푸성귀)'나 '콩나물' 등을 씻어서 건질 때 사용하였다. 소쿠리 가장자리의 나무는 '어음'이라고 하는데, '어음(에음)'은 '상동낭(상동나무)'을 이용해서 만

35) 홍수선 씨 구술.


〈사진 63〉 송당리복지회관의 '모형 소쿠리'


〈사진 64〉 강순자 씨의 '소쿠리'


〈사진 65〉 홍수선 씨의 '소쿠리'


〈사진 66〉 이삼년 씨의 '둥근소쿠리'

들었다. 크기는 가로 44cm×세로 37cm×높이 21cm다. 〈사진 63〉은 송당리복지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소쿠리다. 김윤호 송당리 노인회장은 "이 소쿠리는 이 마을 고여봉 씨가 '수리대(이대)'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전승 차원에서 노인회관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소쿠리는 보통 국수를 삶아서 건질 때, 채소를 씻어 넣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소쿠리는 용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다양하다. 〈사진 64〉는 한동리 강순자씨가 사용했던 소쿠리로, 둥근 모양의 소쿠리다. 강 씨는 "언제 구입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제사 때 곤떡(송편), 지름떡(기름떡)을 만들어서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65〉는 하도리 홍수선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소쿠리로 둥근 것이다. 세화리 오일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가로 47cm×세로 47cm×높이 19cm 크기다. 제사 때 떡을 할 쌀을 씻어서 건지거나 떡을 삶아서 건질 때 사용하였다. 〈사진 66〉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둥근소쿠리'다.

2.1.9. 도고리와 남박

'도고리'는 나무를 둥글납작하게 파서 만든 그릇이다. '남박'은 나무로 파서 만든 작은 함지박이다. '도고리'는 쓰임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 크기가 큰 '도고리'는 떡을 반죽할 때 사용하거나 가루를 빻을 때 맷돌을 안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용도에 따라서 떡을 만들 때 사용하면 '떡도고리', '맷레(맷돌)'를 얹어서 가루를 갈 때 사용하는 도고리는 '멧도고리', 밥을 떠서 먹는 도고리는 '밥도고리'이다. '밥도고리'를 달리 '남박'이라고도 한다. '양푼'과 대야가 나오면서 '도고리'와 '남박'은 자취를 감췄다. '남박'은 나무바가지로 밥 등을 떠서 먹을 때 사용하였다.

'남도고리'는 나무로 만든 '도고리'라는 의미인데, 이는 돼지 먹이를 줄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도고리'인 '돌도고리'에 빗대서 쓰는 말이다. '돌도고리'는 돼지 먹이통이라는 의미로 '돗도고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돗'은 '돼지'의 방언형이다.

"도고리 남박 우린 초상덜안티 안 물려부난 엇어. 건 아주 옛날. 남박 남으로 만든 거. 도고리 그런 것에 떡 몰아. 막 옛날에 우리 그거 봐나긴 헤도 헤나진 안 헤서.(함지박 나무바가지 우린 조상들한테 안 물려버리니까 없어. 그것은 아주 옛날. '남박' 나무로 만든 것. '도고리' 그런 것에 떡 반죽해. 막 옛날에 우리 그것 봐었긴 해도 하지는 않았었어.)"[36]

김녕리 이삼년 씨는 떡을 할 때 사용하였던 '남도고리'를 "감을 빳아서(빻아서) 감물 들일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2.1.10. 기타

(1) 동이

'동이'는 굽이 있게 만든 둥그런 그릇이다. 떡을 넣고 다닐 때 사용한다고 해서 '떡동이'라고도 한다. 김녕리 김복만 씨의 "식게 먹으레 갈 때민 그 떡 동이 헤여.(제사 먹으러 갈 때면 그 떡동이 해.)"라는 구술에서 보듯이 예전에는 제사 때 '떡동이'를 이

36) 김복남 씨 구술.

용해 제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김씨는 부모 제사 때 한 말들이 유기로 만든 '동이'에 떡을 담고 바구니에 넣어서 져서 갔었다고 한다.

"동이 봐낫나? 떡 놓는 동이. 옛날은 유기로 동이를 만들주. 이만이헌 굽 돋아근에이 동일 만들주. 영 중간으로 굽 돋으게 허연 동이를 만들민, 동이에 떡을 육십 개꺼정 들어가. 부모 제사 먹으레 갈 때민 동이에 떡을 이만이헤. 이만이 허영 그 큰 구덕에 놔근에 지어근에 부모 제사 먹으레 가거든. 옛날엔 동이가 잇어. 혼 말짜리 동이엔 헤. 굽 요만이 노프고 동글락허게 허연. 바위는 또 이렇게 납작허게 헷어. 유기로 멘들안.(동이 봤었나? 떡 넣는 동이. 옛날은 유기로 동이를 만들지. 이만큼한 굽 돋게 해서 동이를 만들지. 이렇게 중간으로 굽 돋게 해서 동이를 만들면, 동이에 떡을 육십 개까지는 들어가. 부모 제사 먹으러 갈 때면 동이에 떡을 이만큼 해. 이만큼 해서 그 큰 바구니에 넣어서 져서 부모 제사 먹으러 가거든. 옛날에는 동이가 있어. 한 말짜리 동이라고 해. 굽 요만큼 높고 둥글게 해서. 가장자리는 또 이렇게 납작하게 했어. 유기로 만들었어.)"[37]

(2) 뒈약세기와 작박

'뒈약세기'는 쌀 등의 곡식을 뜨기 위해서 '쏠항(쌀독)' 등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나무 그릇이다. 집안에 따라 큰 것도 쓰고 작은 것도 쓴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뒈약세기'로 세 개 분량이면 '혼 관뒈(한 관되)'가 된다고 하고, 하도리 홍수선 씨는 '큰 뒈약세기'로 두 개면 한 관되가 된다고 하였다.


〈사진 67〉 오문봉 씨의 '뒈약세기'


〈사진 68〉 홍영애 씨의 '뒈약세기'

37) 김복남 씨 구술.



〈사진 69〉 홍영애 씨의 '뒈약세기'



〈사진 70〉 김양근 씨의 '작박'

〈사진 67〉은 한동리 오문봉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뒈약세기'로 50년 이상 된 것이다. '폭낭(팽나무)'으로 만들었는데, 쌀을 뜰 때 주로 사용하였다. 〈사진 68〉은 세화리 홍영애 씨의 '쏠항'에 있던 '뒈약세기'고, 〈사진 69〉도 홍씨가 보관하고 있는 '뒈약세기'다.

'작박'은 부엌에서 솥에 물을 떠 놓거나 솥의 물을 뜨거나 할 때 사용하는 나무 그릇이다. '뒈약세기' 크기 정도의 나무 그릇이다. 솥의 물을 떠낼 때 주로 사용해서 '작박'의 한쪽 끝과 바닥이 많이 닳아 있다. 〈사진 70〉은 한동리 김양근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작박'으로, 김씨 부모가 사용했던 것이다.

(3) 콕박세기

'콕박세기'는 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사진 71〉은 세화리 홍영



〈사진 71〉 홍영애 씨의 '콕박세기'



〈사진 72〉 홍영애 씨의 '플라스틱 바가지'와 '콕박세기'

애 씨가 요즘도 사용하고 있는 'ᄒᆞ박세기'다. 플라스틱 바가지와 함께 물을 뜨거나 쌀 등을 씻을 때 사용하고 있었다. 이 'ᄒᆞ박세기'는 물 길러 다닐 때 '허벅'에 물을 담는 그릇이었다. 〈사진 72〉는 홍씨의 집 세면장 한 쪽 벽에 걸려 있는 'ᄒᆞ박세기'와 '플라스틱 바가지'의 모습이다.

(4) 반합과 도시락

'반합'을 세화리 홍영애 씨는 '항고'라고 하였다. '항고(ハンゴウ)'는 '반합'의 일본어로 직접 밥을 지을 수 있게 만든 그릇이다. 군인들이 훈련 나갈 때 허리에 차서 다니는 도시락의 일종이다.

〈사진 73〉은 홍씨가 밭에 다닐 때 갖고 다니며 밥을 해 먹을 때 사용했던 '반합'이다. 〈사진 74〉는 홍영애 씨가 자식들을 위해 쌌던 알루미늄 '벤또[38](도시락)'들이다. 〈사진 75〉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벤또'와 '찬합'이다. 제보자들은 도시락이라는 명칭 대신에 일본어 '벤또'를 사용하였다.



〈사진 73〉 홍영애 씨의 '반합'



〈사진 74〉 홍영애 씨 집에서 사용했던 '벤또'



〈사진 75〉 이삼년 씨 집에서 사용했던 '벤또'와 '찬합'

38) 일본어 'べントウ'로 '도시락'을 말한다.

2.2. 조리 도구

2.2.1. 솟류

'솟(솥)'은 크기와 재료에 따라 그 명칭이 발달해 있다. '쒜'로 만든 솟은 '쒜솟(쇠솥)'이라고 하고, '이모노'로 만든 솥은 '이모노솟', 알루미늄으로 만든 솥은 '아르미솟'이라고 한다.

솥은 보통 '정제(부엌)' 안에 4~5개를 걸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크기가 작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부엌에 '서말떼기-두말떼기-웨말치-닷뒈치기-냄비' 등의 순으로 '솟덕'(봇돌)을 안쳤다고 한다.

'서말떼기'는 서 말어치의 쌀을 넣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크기의 솥이다. '두말떼기'는 쌀 두 말어치를 넣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솥을 말한다. 달리 '두말치'라고 한다. 한 말들이 솥은 '웨말떼기' 또는 '웨말치솟', '웨말치'라고 한다. '닷뒈치기'는 쌀 두 되를 넣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크기의 솥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쌀 석 되를 넣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크기의 '석뒈들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냄비'는 가장 작은 용기로, 예전에는 냄비 대신에 '족은솟'을 사용했다. '족은솟'은 크기가 작은 솥을 말하는데, 특별히 '동자'를 했던 작은 솥을 구좌 지역에서는 '동솟'이라고 하고 있다. '동솟'은 표준어 '옹달솥'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청구영언』의 "還上에 볼기 셜흔 맛고 ᄃᆞ니 갑셰 동솟츨 뚝 ᄯᅥ여 닌다."(고시조, 還上에~)에 수록된 문헌어가 구좌 지역에 남아 있는 경우다.

'서말떼기'는 주로 경조사에 '상웨떡'을 치거나 메주를 삶을 때 사용하였고, '두말떼기'는 제사 때 메를 할 때 이용하였다. '웨말떼기/웨말치'는 평소에 밥을 하거나 제사 때 국을 끓일 때 사용하였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웨말치솟'에 '고소리'를 안쳐서 술을 고았었다고 한다. '고소리'에 술을 고아 '등덜펭'에 술을 받는데, 잘 나오면 두어 되는 나왔다고 한다. '닷뒈치기'는 반찬 등을 할 때 이용했던 솥이다.

"큰솟. 두말떼기. ᄒᆞ꼼 족은 건 웨말떼기. 두말치, 웨말치. 석뒈들이, 족은솟, 동솟. 아이고 우리 집인 수정 하부난 두말떼기에 밥헤도 족앗져게.(큰솥, 두말떼기, 조금 작은 것

은 '웨말떼기'. 두말치, 웨말치, 석뒈들이, 족은솟, 동솟. 아니고, 우리 집에는 숫자 많아 버리니까 '두말떼기'에 밥을 해도 적었어.)"[39]

'가매솟'은 아주 크고 우묵한 솥이다. 무쇠로 만든 솥이라고 해서 '무쇠솟'이라고도 한다. '가매솟'은 평소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큰일이 나거나 장 담그는 콩을 삶을 때 주로 이용하는데 부엌의 맨 왼쪽에 설치하는 솥이다. 표준어 '가마솥'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이모노솟'은 이모노(いもの, 鑄物)로 만든 솥을 말한다.

〈사진 76〉은 김녕리 백규삼 씨 집 '정지(정지)'에 놓여 있는 가마솥이다. 〈사진 77〉은 김녕리 김복만 씨가 삼십년 전에 구입한 솟으로 떡 찔 때만 사용했던 솥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이 솟을 '아르미솟'이라고 하였다. '아르미솟'은 알루미


〈사진 76〉 백규삼 씨 부엌의 '가마솟'


〈사진 77〉 김복만 씨의 '아르미솟'


〈사진 78〉 고춘자 씨의 '아르미솟'과 '쒜솟뚜께'


〈사진 79〉 김병희 씨의 '아르미솟'

39) 김복남 씨 구술.



〈사진 80〉 허기생 씨 집 '정지'의 '솟덕'



〈사진 81〉 백규삼 씨 집 '정지'의 '솟덕'과 '솟'



〈사진 82〉 홍영애 씨 집 '정지'의 '지들커'와 '솟덕'과 '솟'



〈사진 83〉 홍영애 씨 소장 '간데기'

늄으로 만든 솥이라는 의미다. 〈사진 78〉은 김녕리 고춘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아르미솟'으로 뚜껑은 '쒜솟' 뚜껑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79〉는 세화리 김병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아르미솟'이다.

'솟'은 '솟덕(봇돌)'에 안쳐서 사용된다. 보통 부엌에는 4~5개의 솥을 안칠 수 있는 봇돌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진 80〉은 한동리 허기생 씨가 사용했던 '솟덕'이고, 〈사진 81〉은 김녕리 백규삼 씨가 사용했던 '솟덕'과 '솟'이다. 〈사진 82〉는 세화리 홍영애 씨의 '솟덕'으로, 홍씨는 지금도 참깻대로 불을 지펴 밥을 하고 있다. 〈사진 83〉은 홍영애 씨가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화로인 풍로이다. 홍 씨는 이를 '간데기'라고 하였는데 '간데기(カンテキ)'는 '풍로'에 해당하는 일본어이다. 홍 씨는 여기에 숯불을 피워 고기나 생선을 굽고 있다고 하였다.

2.2.2. 시리

'시리'는 떡을 찔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표준어 '시루'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예전에 떡을 찔 때 질흙으로 만든 옹기 시루를 이용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루미늄시루,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만들기도 한다. '시리'도 '검은굴'[40]에서 구웠느냐 '노랑굴'에서 구웠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검은굴'에서 구워낸 시루는 '지새시리'라고 하고, '노랑굴'[41]에서 구운 시루는 '노랑시리'라고 한다. '지새'는 '기와'의 제주어다. 용적에 따라서는 쌀 두 말어치의 떡을 할 수 있는 시루는 '두말떼기시리'라고 하고, 한 말들이 시루는 '한말치'라고 한다.


〈사진 84〉 강순자 씨의 '지새시리'


〈사진 85〉 홍영애 씨의 '노랑시리'


〈사진 86〉 김복만 씨의 '아르미시리'


〈사진 87〉 이삼년 씨의 '아르미시리'

40) '검은굴'은 회색을 띠는 질그릇을 구워내는 제주지역의 전통 가마의 하나다.
41) '노랑굴'은 붉은 색을 띠는 황토색 질그릇을 구워내는 제주지역의 전통 가마다.

〈사진 84〉는 한동리 강순자 씨 집에서 사용했던 '두말떼기' '지새시리'이고, 〈사진 85〉는 세화리 홍영애 씨 집에서 사용했던 '노랑시리'다. 〈사진 86〉은 김녕리 김복만 씨, 〈사진 87〉은 이삼년 씨 집에서 떡을 찔 때 사용하는 '아르미시리'다.

'시리'는 용도에 따라서도 이름을 구분하고 있었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당(堂)'에 다닐 때 시루떡을 치는 시루를 '당시리'리고 하였다. '당시리'에는 쌀 한 되 정도 들어간다. 이씨는 시어머니가 다녔던 '성세기당'과 '일뤠당'을 3년 전까지 다녔다. 요즘은 당에 가지 않고 정월 열사흘에 집에서 비념을 하면서 소원을 기원하고 있다.

2.2.3. 고소리

'고소리'는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로, 질흙으로 구워서 위아래 두 짝을 겹쳐 만든다. 표준어 '소줏고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제주에서는 '고소리'로 뽑아낸 술을 '고소리술'이라고 한다. '고소리술'은 발효된 '오메기술' 따위를 솥에 넣어서 끓이면 솥 위의 '고소리'를 통해 술이 증류되어 나온다. '고소리' 위에는 장태에 찬물을 넣어 얹는데, 솥의 뜨거운 기운과 장태의 찬 기운이 합쳐지면 뜨거운 기운이 자연스럽게 합쳐져 '고소리'를 통해서 소주가 증류되어 나온다.

2.2.4. 돔베

'돔베'는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에 밑에 받치는 도구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돔베'는 크기가 작지만 큰일 때 사용하는 '돔배'는 보통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컸다. '돔베'는 표준어 '도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88〉은 한동리 김양근 씨 집에서 사용했던 '돔베'이고, 〈사진 89〉는 한동리 김예음 씨가 사용했던 '돔베'다. 이 두 '돔베'는 쇠못으로 박아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못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사진 90〉은 한동리 강순자가 떡을 만들 때 반죽을 밀거나 국수를 만들 때 사용했던 '돔베'와 '미레깃대'다. 많은 가정에서는 다듬이질 할 때 사용했던 '안반'을 도마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진 91〉은 송당리 조명순 씨가 큰딸(63)을 결혼시킬 때 목수


〈사진 88〉 김양근 씨의 '돔베'


〈사진 89〉 김예음 씨의 '돔베'


〈사진 90〉 강순자 씨의 '돔베'와 '홍짓대'


〈사진 91〉 조명순 씨의 '돔베'

에게 부탁해서 만든 '돔베'다. 이 '돔베'로 네 명의 자식의 결혼 잔치를 치를 때 사용했다고 한다. 평상 시에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돔베'는 크기가 작은데 반해 '큰일' 때 사용하는 '돔베'는 크다.

2.2.5. 다라

'다라'는 대야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구좌 지역에서는 '대야'를 거의 일본어 '다라(たらい)'로 표현하고 있다. 예전에는 '다라' 대신에 나무로 만든 '도고리'를 이용하였다. 제보자들은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스뎅다라',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아르미다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고무다라'라고 불렀다.

〈사진 92〉와 〈사진 93〉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아르미다라'다. 〈사진



〈사진 92〉 이삼년 씨의 '다라'



〈사진 93〉 이삼년 씨의 '다라'



〈사진 94〉 강순자 씨의 '다라'



〈사진 95〉 강순자 씨의 '다라'

92〉는 김씨가 시집 온 후에 긴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주고 바꿔 온 것으로, '상웨떡'을 반죽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용한 지는 5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사진 94〉와 〈사진 95〉는 한동리 강순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아르미다라'다.

2.2.6. 기타

(1)방에혹과 방엣귀

'방에혹(방아확)'은 쌀을 찧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기구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방에혹'은 보통 남방아 한가운데 설치해 사용하던 것이다. 구술자에 따라서 마늘이나 깨 등을 빻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스테인리스 등으로 만든 절구를 사다 사용하고 있다.


〈사진 96〉 김윤생 씨의 '방에혹'과 '절굿공이'


〈사진 97〉 강순자 씨의 '방에혹'과 '방엣귀'


〈사진 98〉 홍영애 씨의 '방에혹'


〈사진 99〉 김병희 씨의 '방에혹'

〈사진 96〉은 세화리 김윤생 씨의 '방에혹'과 '절굿공이'로 마늘 등을 빻을 때 사용했었다. 이 절굿공이는 김 씨가 '서답마께(다듬잇방망이)'로 썼던 것이다. 〈사진 97〉은 한동리 강순자 씨의 '방에혹'과 '방엣귀'로, '방에혹'은 30년 전에 강 씨가 직접 시멘트로 만든 것이다. 〈사진 98〉은 세화리 홍영애 씨의 '방에혹'으로, 홍 씨는 지금도 감이나 깨 등을 빻을 때 이 확을 사용하고 있다. 확 안에 시멘트를 발라 현무암의 구멍을 막았다. 〈사진 99〉는 세화리 김병희 씨 부인이 사용했던 '방에혹'으로, 김 씨 부인이 마늘 등을 빻을 때 사용하다가 얼마 전부터 개밥 그릇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릇 무게가 있어 개가 밥그릇을 엎지 않아 좋다고 한다.

"이건 연대로 말허면은 아메도 나의 증조 적부터 쓴 것 닮은디 이게 왜 잇냐허면 내가 젊었을 때 축산을 많이 헷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료통으로 남방에 썻어. 남방에 그 구멍

잇어부니까 그것에 놩 쓰다가 이거 남은 거지. 할망 산 때는 이걸로 고운 돌 헤영 참꿰 ᄀᆞ튼 거 뽓당 이젠 개 그릇으로 썸주. 아르미그릇은 엎어 부는디 이건 엎어 불지 아녀니까 좋아.(이건 연대로 말하면 아마도 나의 증조 적부터 쓴 것 같은데 이게 왜 있냐면 내가 젊었을 때 축산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료통으로 남방아 썼어. 남방아 그 구멍 있어버리니까 그것에 넣어서 쓰다가 이것 남은 것이지. 할머니 살았을 때는 이것으로 고운돌 해서 참깨 같은 것 빻다가 이제 개 그릇으로 쓰고 있지. 알루미늄 그릇은 엎어버리는데 이것은 엎어버리지 않으니까 좋아.)"[42]

'방엣귀'는 '방에혹'에서 쌀 등을 찧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기구다. 표준어 '방앗공이'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사진 100〉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지금도 감물을 들이기 위해서 감을 빻을 때 사



〈사진 100〉 강순자 씨의 '방엣귀'



〈사진 101〉 고재인 씨의 '방엣귀'



〈사진 102〉 이삼년 씨의 '절구'와 '절굿공이'



〈사진 103〉 이삼년 씨의 '절구'와 '절굿공이'

42) 김병희(세화리) 씨 구술.

용하는 '방엣귀'이다. '방엣귀'에 감물이 들어 갈색을 띠고 있다. 〈사진 101〉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세콜방에'를 찧을 때 사용했던 '방엣귀'다. '세콜방에'는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찧었던 남방아를 말한다.

〈사진 102〉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참깨 등을 빻을 때 사용하는 '꿰 ᄲᅳᆺ는 절구'와 '절굿공이'로,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을 때 사다준 것이라고 한다. 〈사진 103〉은 이삼년 씨가 '방에혹' 대신에 참깨나 마늘 등을 빻을 때 사용하는 절구와 '절굿공이'다.

(2) 바드렝이

'바드렝이'는 떡을 찔 때 솥 밑에 받쳐서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겅그레'에 해당하는 말이다. 떡을 찔 때는 솥 안에 '바드렝이'를 넣은 다음 그 위에 헝겊을 깔아서 그 위에 송편이나 상웨떡 따위를 넣어서 찌면 된다. 나무나 대나무, 철사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바드렝이'를 달리 '떡징'이라고도 한다.

"상웨떡 치젠 허민 두말치에 치주. 두말치에 저 징, 떡징. 저 대나무, 왕대헤근에 영 두 개를 쪼개여근에 만들아. 두 칭 놩 한 번 쳐나민 스무 개, 스물두 개.(상화떡 찌려고 하면 '두말치(두 말들이 솥)'에 찌지. '두말치'에 저 겅그레, 떡겅그레. 저 대나무, 왕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만들어. 두 층 넣어서 한번 쪄나면 스무 개, 스물두 개.)"[43]

〈사진 104〉는 송당리 홍태휴 씨 집에 보관하던 '바드렝이'다. 홍씨 부인이 생전에



〈사진 104〉 홍태휴 씨의 '바드렝이'



〈사진 105〉 김옥연 씨의 '바드렝이'

43) 김복만 씨 구술.

'수리대'라 불리는 이대를 나일론 줄을 얽어매어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바드렝이'다. 〈사진 105〉는 하도리 김옥연 씨가 사용했던 '바드렝이'로, 왕대를 가지런하게 늘어놓아 만들었다. '바드렝이' 양쪽에 끈을 달아 만든 손잡이도 보인다.

(3) 지름떡 뜨는 거

'지름떡 뜨는 거'는 기름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떡본'이다. '지름떡'은 기름떡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106〉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30년 이상 사용한 '지름떡 트는 거'다. 강씨는 이 도구를 제사 때 주로 '지름떡(기름떡)'을 만들거나 밀가루에 찹쌀가루를 섞어서 '도넛'을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한다. '지름떡'은 떡을 고일 때 가장 위에 고이는 '웃기떡'으로 사용한다.


〈사진 106〉 강순자 씨의 '지름떡본'

(4) 우동족바지

'우동족바지'는 국수를 삶아서 건질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멸치 등을 뜰 때 사용하는 '족바지(뜰채)' 모양이어서 한동리 강순자 씨는 '우동족바지'라고 불렀다. 〈사진 107〉은 강 씨가 큰일이 있을 때 가마솥에서 삶은 고기를 건지거나 국수를 삶아서 건질 때 사용했던 '우동족바지'이다. '우동(ウドン)'은 '국수'의 일본어다.


〈사진 107〉 강순자 씨의 우동족바지

(5) 겁넝

'겁넝'은 '접복껍질'을 가리키는 구좌 지역 말이다. 그릇이 변변치 않을 때는 전복 껍

질의 구멍을 솜으로 막고 '자리젓(자리돔젓)'이나 '멜첫(멸치젓)' 따위를 넣어 불에 지져서 먹었다고 한다. 전복 껍질을 냄비 대용으로 활용하였던 셈이다. 〈사진 108〉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예전에 '멜젓(멸치젓)'을 지져 먹을 때 사용했던 '겁넝'이다.



〈사진 108〉 강순자 씨의 '겁넝'

(6) 적쒜

'적쒜'는 쇠로 젓가락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 화로에 걸칠 수 있게 만든 도구다. 적을 구울 때는 '돌화리(돌화로)'에 얹어서 그 위에 산적을 걸쳐 굽는다. 이때 사용하는 '돌화리'는 현무암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파서 만든다. 이 '화리'는 주로 마루에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제사 때 '돌화리'에 불을 피워 그 위에 '적쒜'를 걸쳐 놓고 고기를 구웠다. 평소에는 겨울철에 마루에서 짚신을 삼거나 노를 꼬는 일을 할 때 숯불을 살라 난방용으로 썼다.

"적쒜가 영 두 개 잖아이. 돌화리에다가 두 개 걸쳐 경헨 궤기 영 영 걸쳥 구워. 경허고 또 물른 거[44] 굽젠 허민 것도 적쒜엔은 허주만은 좀질게 헹 네모나게.('적쒜'가 이렇게 두 개 잖아. 돌화로에다가 두 개 걸쳐. 그렇게 해서 고기 이렇게 이렇게 걸쳐서 구워. 그렇게 하고 또 마른 거 구으려고 하면 그것도 '적쒜(석쇠)'라고 하지만 자잘하게 해서 네모나게.)"[45]

김녕리 이삼년 씨는 "적 할 때는 돌화리를 이용했고, 적 다 구우면 정동화리에 숯불을 옮겨 놓고 불초았다.(적을 할 때는 돌화로를 이용했고, 적을 다 구우면 청동화로에 숯불을 옮겨 넣어 불을 쬐었다."고 한다. 이 구술을 보면, '돌화로'는 고기를 구울 때 사용했지만 방안에서 불을 쬘 때는 '정동화리'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44) 여기에서 '물른 거'는 제수로 쓰이는 마른 생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45) 이삼년 씨 구술.



〈사진 109〉 이삼년 씨의 적쒜



〈사진 110〉 백규삼 씨의 '시발쒜'

예전에 '화리'에서 '적'을 굽는 일은 남자들의 몫이었다. 〈사진 109〉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적쒜'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밖에 방치해 놓고 있어 녹이 슬어 있다.

(7) 시발쒜

'시발쒜'는 둥근 쇠 테두리에 발이 세 개 달린 기구로, 화로(ㅅ爐)에 주전자, 냄비, 작은 솥, 번철 따위를 올려놓고 음식물을 끓이는 데 사용한다. 표준어 '삼발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사진 110〉은 김녕리 백규삼 씨가 사용했던 '시발쒜'다.

(8) 바드렝이

'바드렝이'는 '받-+-으렝이' 구성으로, 물건 따위를 받치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다.



〈사진 111〉 고재인 씨의 '바드렝이'



〈사진 112〉 김옥연 씨의 '멜 말리는 플라스틱 채반'

표준어 '채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진 111〉은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 보관하는 생선 널 때 사용했던 '바드렝이'다. 시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정동줄(댕댕이덩굴)'로 채반 모양으로 만들었다. 멸치나 생선 등을 말릴 때 양쪽에 끈을 달아 빨랫줄 등에 매달아 사용했다. 〈사진 112〉는 하도리 김옥연 씨가 멸치를 말릴 때 사용하는 '바드렝이'다. 예전에는 대나무나 정동줄 따위로 만들어 썼는데 요즘은 플라스틱 채반, 그물 등을 이용해 만들어 쓰고 있다. 〈사진 113〉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생선을 말릴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빨랫줄에 매달아서 사용하고 있다.



〈사진 113〉 이삼년 씨의 '생선 말리는 망'

2.3. 저장과 운반

2.3.1. 살레

'살레'는 그릇이나 반찬 따위를 넣을 때 사용하는 가구다. '정지(부엌)'에서 사용하는 '살레'라고 해서 '정짓살레'라고도 한다. 표준어 '살강'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살레'는 보통 부엌 한 구석에 놓아서 "사발도 어프고 작박도 어프고 남술도 싯고.(사발도 엎고 '작박'도 엎고 죽젓광이도 있고.)"[46]에서 보이듯 그릇 등 식기류를 넣어두는 가구다. '살레' 한쪽에는 '수꾸락통'이라고 부르는 수저통을 매달았다.

"살레 옆에 수제통, 수꾸락통. 저 왕대로 만든 거로 수꾸락 놓고. 우리 아부진 목쉬니까 저 나무헤영 만들어. 나무헤영 만들앙 영 걸게 만들아. 이제 우리 아부지 짠 살레 잇

46) 이삼년 씨 구술.

어. 정짓살레. 저 집이 할망 사는 집이. 이제 그냥 솟덕도 잇어. 살레도 잇고 솟덕도 있고 솟도 그냥 놓은냥 다 잇어.(살강 옆에 수저통. 숟가락통. 저 왕대로 만든 것으로 숟가락 넣고. 우리 아버지는 목수니까 저 나무 해서 만들어. 나무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걸게 만들어. 이제 우리 아버지 짠 살강 있어. 부엌 살강. 저 집에 할머니 사는 집에. 이제 그냥 봇돌도 있어. 살강도 있고 봇돌도 있고 솥도 그냥 놓은 대로 다 있어.)"[47]

〈사진 114〉는 김녕리 백규삼 씨 집 부엌에 남아 있는 '살레'다. 이 '살레'는 목수였던 김 씨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으로, 예전의 전통적인 '살레'의 문이 여닫이로 된 것과 달리 미닫이로 되어 있다. '살레' 앞에 '물항'으로 썼던 항아리가 두 개 놓여 있다. 이 '살레'는 가로 87cm×세로 137cm×폭 44cm 크기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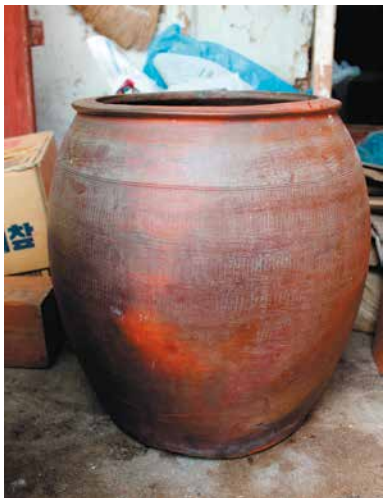

〈사진 114〉 백규삼 씨의 '살레'

2.3.2. 항류

(1) 쏠항과 물항

'쏠항'은 보리쌀 등의 쌀을 넣어 보관할 때 사용했던 항아리이고, '물항'은 예전에 부엌에서 사용했던 물을 넣는 항아리다.

〈사진 115〉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했던 '쏠항'으로 항아리 입구가 넓다. 〈사진 116〉은 김녕리 백규삼 씨 집 '정지'에 놓여 있는 '물항'이다. 백씨의 정지에는 '살레' 양쪽으로 두 개의 '물항'이 놓여 있었다. 〈사진 117〉은 김녕리 이삼년 씨의 '장항'으로 '너럭지'(왼쪽)와 '솥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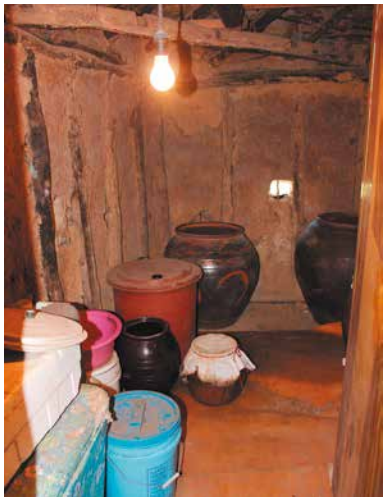

〈사진 115〉 홍영애 씨의 '쏠항'

47) 김복남 씨 구술.


〈사진 116〉 백규삼 씨의 '물항'


〈사진 117〉 이삼년 씨의 '장항'과 '장항 두껑'


〈사진 118〉 홍태휴 씨 집의 '장독대'


〈사진 119〉 강순자 씨 '고팡'

껑'을 '장항' 뚜껑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118〉은 송당리 홍태휴 씨 집의 '장독대'인데, 지금은 '장항(장독)'으로 사용하지 않아 항아리들을 모두 엎어 놓고 있었다. 〈사진 119〉는 강순자 씨의 전통 가옥의 '고팡'이다. '술항'으로 썼던 항과 '멜치젓'을 담근 단지 등이 보관되어 있다. 정면의 벽 가운데 흰 부분은 '창굼(창구멍)'이다.

(2) 추니/술춘/술추니

'추니'는 술을 빚어서 넣는 술 항아리다. 표준어 '준(樽)'의 의미로 보통 술 공장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3) 오가리

'오가리'는 멸치젓 등 젓갈을 담글 때 사용하는 오지그릇이다.

〈사진 120〉은 이삼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큰오가리'로, 이 씨의 시할머니가 사용하던 것이다. '오가리'는 육지에서 생산된 옹기다. 〈사진 121〉은 세화리 김병희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오가리'로, 김 씨 부인이 '멸치젓' 등의 젓갈을 담글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20〉 이삼년 씨의 '큰오가리'



〈사진 121〉 김병희 씨의 '오가리'

(4) 단지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를 말한다. '단지'는 보통 젓갈이나 고추장, 또는 장아찌를 담글 때 사용하는 질그릇이다.



〈사진 122〉 고재인 씨의 '단지'



〈사진 123〉 부안일 씨의 '단지'


〈사진 124〉 강순자 씨의 '단지'


〈사진 125〉 강순자 씨의 '단지'

〈사진 122〉는 한동리 고재인 씨가 '멜젓(멸치젓)'을 담글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이 단지는 '감주' 만들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고 씨는 단지 뚜껑을 '단지 뚜께'라고 하였다. 〈사진 123〉은 세화리 부안일 씨가 사용했던 단지다. 〈사진 124〉와 〈사진 125〉는 한동리 강순자 씨가 '자리젓(자리돔젓)'을 담글 때 사용했던 단지로, 육지에서 배가 들어왔을 때 구입했다고 한다. 50년 정도 되었다.

(4) 장텡이

'장텡이'는 옹기로 된 대야다. 보통 '장황(장독)' 등을 덮는 뚜껑으로 쓰였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설거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옛날엔 장텡이 냉국도 헹 먹고이 자리훼도 헹 먹고. 이거 사기 그릇이난 경헨에 혼 사발씩 줫주. 요새거치 쩨끄만 사발에 줘사? 아기덜 밥 먹을 때라도 우리집이 쌍둥이덜은 혼 사발씩 더 먹곡.(옛날에는 장태 냉국도 해서 먹고 자리돔회도 해서 먹고. 이거 사기 그릇이난 그렇게 해서 한 사발씩 줬지. 요새같이 자그마한 사발에 줬니? 아이들 밥 먹을 때도 우리 집의 쌍둥이들은 한 사발씩 더 먹고.)"[48]

〈사진 126〉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냉국 등을 해 먹을 때 사용했던 '장텡이'다. 이 '장텡이'는 '군벗(군부)' 껍질 벗길 때도 사용하였다. 〈사진 127〉은 세화리 김윤생 씨

48) 강순자 씨 구술.



〈사진 126〉 강순자 씨의 '장텡이'



〈사진 127〉 김윤생 씨의 '장텡이'



〈사진 128〉 홍영애 씨의 '장텡이'



〈사진 129〉 홍영애 씨의 '장텡이'

가 사용했던 '장텡이'이고 〈사진 128〉과 〈사진 129〉는 세화리 홍영애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장텡이'다. 홍씨의 '장텡이'는 항아리 뚜껑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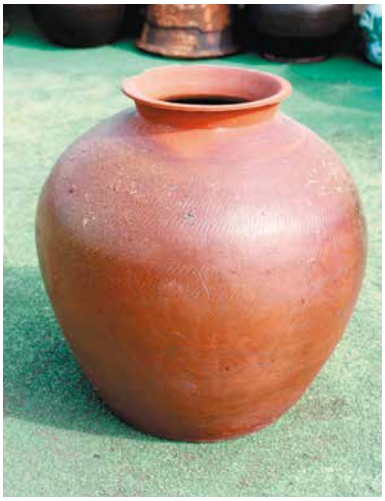
김녕리 이삼년 씨는 항아리의 뚜껑을 '너럭지'라고 표현하였다.

2.3.3. 허벅류

'허벅'은 물을 긷거나 곡식 따위를 보관할 때 사용했던 그릇이다. 예전에는 질흙으로 만들어 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양철허벅'으로 교체해 쓰다가 '플라스틱허벅'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허벅'에 상대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작은 '허벅'을 '대바지'라고 한다.

'허벅'은 보통 제주에서 질흙으로 만들어 유약을 칠하지 않고 구워낸 질그릇을 말


〈사진 130〉 고재인 씨의 '허벅'


〈사진 131〉 이삼년 씨의 '허벅'

한다. 주로 수도가 없던 시절을 우물 따위에서 물을 길어 나를 때 사용했던 물동이다. '허벅'은 또 '장'을 담아 보관하거나 사돈집에 상이 났을 때 팥죽을 쑤어서 담아서 지고 다녔다. '허벅'을 달리 구좌 지역에서는 '허베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사진 130〉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허벅으로, 부리가 깨져 있다. 〈사진 131〉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보관하고 있는 '허벅'이다. 허벅 부리가 '물허벅'보다 넓다. '허벅'은 씨앗을 보관할 때도 썼다고 한다. 〈사진 132〉와 〈사진 133〉은 한동리 강순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양철허벅'과 '양철대바지'다. 예전에는 물 길어 나를 때


〈사진 132〉 강순자 씨의 '양철허벅'


〈사진 133〉 강순자 씨의 '양철대바지'

사용하다가 지금은 씨앗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134〉는 한동리 허정순 씨가 70년대 초에 구입해 1년 정도 사용했던 '플라스틱허벅'이다. 〈사진 135〉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세화장에서 구입해서 물길을 때 사용했던 '허벅'과 '물구덕'이다. 홍씨 집에는 '허벅'으로 물 길을 때 사용했던 '물팡'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어른들이 물을 길을 때 '허벅'을 이용하여 물을 길었다면, 아이들은 '허벅'보다 작은 '대바지'를 사용했다. '허벅'이나 '대바지'는 보통 '물구덕'이라 불리는 바구니에 넣어 지고 다니면서 물을 길었다. '물구덕'을 졌을 때 등 쪽에 닿는 부분에 '등태'라 불리는 물건을 바구니에 달아서 사용하였다. '물구덕받침'은 왕대를 쪼개서 바구니 밑에 붙여 사용했는데, 이는 바구니 밑이 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덕' 밑에는 '깡에기'라 불리는 물건을 덧대서 '허벅'의 물이 등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다. '깡에기'는 '허벅'을 졌을 때 등뼈가 아프지 않도록 헝겊이나 가죽 등으로 만들었다. 〈사진 136〉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물을 길을 때 사용했던 '물구덕받침'으


〈사진 134〉 허정순 씨의 '플라스틱허벅'


〈사진 135〉 홍영애 씨의 '허벅'과 '물구덕'


〈사진 136〉 고재인 씨의 '물구덕 받침'

로, 왕대로 만들었다.

2.3.4. 병류

(1) 물펭

'물펭'은 물을 길어 나를 때 사용하던 병이다. '펭'은 '병'의 방언형이다. '물펭'은 표준어 '물병'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사진 137〉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밭에 다닐 때 물을 길고 다녔던 '물펭'이다. '물펭'의 부리가 깨져 테이프로 붙여 있다.



〈사진 137〉 고재인 씨의 '물펭'

(2) 술펭

'술펭'은 술병을 말한다. 〈사진 138〉, 〈사진 139〉는 고재인 씨 집에서 사용하던 '술펭'이고, 〈사진 140〉은 고재인 씨의 '백자 술펭'이다. 모두 제주병으로 썼던 '술펭'으로 부리가 상해 있다. 〈사진 138〉의 '술펭'은 보리감주를 넣을 때 사용했던 술병이고, 〈사진 139〉는 후에 밭에 다닐 때 물을 길어 다녔던 것이다. 〈사진 140〉의 백자 술병은 제주를 받아올 때 사용했다. 제주를 받아오면 〈사진 138〉의 술병에 담아서 사용하였다.



〈사진 138〉 고재인 씨의 '술펭'



〈사진 139〉 고재인 씨의 '술펭'



〈사진 140〉 고재인 씨의 '술펭'

"흰 펭엔이 제주 받앙 오민 펭이 놓지 안 허영 저것에 놓고. 이건 보리감주 헤영 놓고. 일개들 멕이고. 이것에 담앙 식지 말렌, 감주 뚜뚯허렌 이 펭에 질주게. 보리감주. 이건 골감주 담아나고. 그건 제주 펭 술 받아단 그레 놩. 그거 우이꺼장 고와낫주게. 그건 혼 백년 뒐 거라. 완 보난 이신 걸 ᄀᆞ자 시난게. 나 완 보난 신 거난 나도 이디 완 칠십 년이 뒈여 간디 이건 백 년이 넘엇주게. 이거 시부모님이 다 씨던 거. 난 게난 시어머님 허던 걸 아까우난 그냥 놔뒁주게. 시어멍네도 영 벌러지멍도 옛날에 에려우니까 이거 다 놔 둔 거. 게난 옛날 거니까 나도 놔둔 거. 이건 밧디 물도 질엉 가고. 큰 거는 제ᄉᆞ 때에 감주 식지 말렌 저것에 질엉 보리감주덜 담앙 먹고. 이디 할망하르방네가 그 전이부떠 씨여난 거주. 그 전이부떠. 이 바위덜이 영 타지멍도 몽골앙 이시난 오죽 오래서. 신식이 뒈여부난 사이다 펭덜 나부난 나가 그때 온 땐 이걸 사용 안 헷주게. 게난 시부모 허던 거난 막 모셔놧주게, 제ᄉᆞ에 쓰던 거난.(흰 병에는 제주 받아서 오면 병에 넣지 안 해서 저것에 넣고. 이것은 보리감주 해서 넣고. 일가들 먹이고. 이것에 담아서 식지 말라고, 감주 따뜻하라고 이 병에 길지. 보리감주. 이것은 골감주 담았었고. 그것은 제주 병 술 받아다가 그리로 넣어서. 그거 위에까지 고왔었지. 그것은 한 백년 될 거야. 와서 보니까 있는 걸 아직까지 있으니까. 나 와서 보니 있는 것이니까 나도 여기 와서 칠십 년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백년이 넘었지. 이거 시부모님이 다 썼던 거. 나는 그러니까 시어머님 하던 것을 아까우니가 그냥 놔뒀지. 시어머니네도 이렇게 깨지면서도 옛날에 어려우니까 이거 다 놔둔 거. 그러니까 옛날 거니까 나도 놔둔 거. 이것은 밭에 물도 길어서 가고. 큰 것은 제사 때에 감주 식지 말라고 저것에 길어서 보리감주들 담아서 먹고. 여기 할머니할아버지네가 그 전에부터 씼던 거지. 그 전에부터. 이 가장자리들이 이렇게 깨지면서도 몽톡해서 있으니까 오죽 오랬어. 신식이 되어버리니까 사이다 병들 나버리니까 내가 그때 올 때는 이걸 사용 안 했지. 그러니까 시부모 하던 것이니까 막 모셔놨지, 제사에 쓰던 것이니까.)"[49]

(3) 등덜펭

'등덜펭'은 '고소리(소줏고리)'로 술을 고을 때 '고소리'에 연결해서 술을 받던 병이다. 〈사진 141〉은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등덜펭'이다. 이 '등덜펭'은 두 되들이로, 예전에 밭에 다닐 때 물을 긷고 다녔다. '등덜펭'에는 물을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등덜펭'의 뚜껑은 'ᄆᆞ물보시'라고 불리는 그릇으로 덮고 있다.

49) 고재인 씨 구술.


〈사진 141〉 고재인 씨의 '등덜펭'


〈사진 142〉 고재인 씨의 '뒛병'


〈사진 143〉 고재인 씨의 '이홉펭'

'등덜펭'의 모양이 울퉁불퉁하여 싸게 구입했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등덜펭'을 '고소리'로 술을 '다끌(고을)' 때 술을 받는 용도로 썼다고 한다. 한 말들이 솥인 '웨말치솟'에 고소리를 안쳐 술을 고면 술이 두어 되 정도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고은 술은 '술춘'(준)에 보관해 두었는데, 한 '춘'이면 술이 스무 되 정도 들었다고 한다. '고소리'는 소줏고리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4) 유리펭

'유리펭'은 술을 담을 때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병이다. 〈사진 142〉는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서 사용했던 '뒛병'이고, 〈사진 143〉은 '이홉펭'이다.

2.4. 제사 관련

2.4.1. 제기

'제기'는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한다. 밥그릇, 국그릇, 쟁반, 술잔, 편대, 향로, 향합, 촛대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 쓰인다. 제기는 제사 때만 꺼내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깨끗이 닦아 정성스럽게 보관해 둔다.

(1) 멧그릇

'멧그릇'은 제사 때 '메'를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메'는 '제사지낼 때 신위 앞에 놓는 밥'을 말한다. 김녕리 김복만 씨는 제사를 시작할 무렵인 스물여덟 살 때 이 마을 유기장이에게 주문해서 '제기'를 마련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제기'를 구입하지 않았을 때는 '큰집'에서 빌려다가 썼다. '멧그릇'은 '멧사발'이라고도 한다. '갱'을 뜨는 그릇은 '멧국사발'이라고 한다. '가짓갱이'는 '밥뚜껑'을 말한다. 김복만 씨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는 '밥그릇'과 '국그릇'도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144〉 이삼년 씨의 '젯그릇'



〈사진 145〉 이삼년 씨의 '숭늉기'

"나 스물한 살에 결혼허연 혼 스물ᄋᆞ덥에쯤 이거 장만헤서. 해마다 다끄거든. 김녕 유기집 헐 때이 장만헌 거. 동김녕[50] 사름이 그디 완 그디 공장허대이. 유기공장. 그때도 쒜가 좋은 셍인ᄀᆞ라 이제나도 이추룩 빈직빈직허는 거 보난 쒜가 좋은 셍이라. 저거 열 개. 촛대 두 개에 상로상납에. 저 쟁반 열 개에, 쌍잔에 웨잔에, 잔대. 그때도 그 전이 식게를 헤신디 아무것도 없어. 요 젭시 하나 숟구락[수꾸락]도 없어. 다 큰집이 강 문딱 하나로 열꺼장 앗아당 허단에 하나둘 장만헌 게 나대로 장만헨 제사헷주. 사십오년, 오십년.(나 스물한 살에 결혼해서 한 스물여덟쯤 이것 장만했어. 해마다 닦거든. 김녕 유기집 할 때 장만한 거. 동김녕 사람이 거기 와서 거기 공장하대. 유기공장. 그때도 쇠가 좋은 모양인지 이제도록 이처럼 반짝반짝하는 것 보니까 쇠가 좋은 모양이야. 저거 열 개. 촛대 두 개에 향로 향납에. 저 쟁반 열 개에, 쌍잔에 외잔에 잔대. 그때도 그 전에 제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요 접시 하나 숟가락도 없어. 다 큰집에 가서 몽땅 하나로 열까지 가져다

50) 동김녕은 김녕리가 합쳐지기 전의 마을 이름이다. 김녕리는 동김녕과 서김녕으로 분동되었다가 2000년 1월 1일에 합쳐졌다.

가 하다가 하나둘 장만한 게 나대로 장만해서 제사했지. 사십오년, 오십년.)"[51]

김녕리 이삼년 씨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물려준 놋그릇을 물려받아 이 마을 유기장이에게 부탁하여 '멧그릇'을 만들었다. '멧그릇'을 새로 만들면서 남편 이름을 그릇 바닥에 새겨 넣어 표시를 해두었다.

〈사진 144〉는 이삼년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멧그릇', '가짓겡이(밥뚜껑)', '국그릇', '숭늉기[숭늉끼]' 등 '젯그릇'이다. '숭늉기'는 제사 때 숭늉을 올리는 그릇이다. 〈사진 145〉는 이씨 집에서 사용하는 '숭늉기'이다. 〈사진 146〉은 한동리 김양근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놋으로 만든 '멧그릇'과 잔대를 받친 술잔이다. 김씨 할머니가 썼던 것이다. 〈사진 147〉은 송당리 김석봉 씨가 사용했던 '젯그릇'과 '잔대'다.



〈사진 146〉 김양근 씨의 '멧그릇'과 '잔대와 술잔'



〈사진 147〉 김석봉 씨의 '젯그릇'

(2) 술잔, 잔대

'술잔'은 술을 따를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제주를 올릴 때 두 개의 술잔에 한꺼번에 술을 따라 올리는 잔을 '쌍잔'이라 하고, 술잔 하나를 이용하여 술을 올릴 때 사용하는 잔은 '웨잔(외잔)'이라고 한다. 술잔은 잔대에 하나씩 받쳐서 술을 따라 올리는데 유인(孺人)이 많으면 여러 개의 잔을 한꺼번에 올리기도 한다. '유인'을 이삼년 씨는 '유씨'라고 하였다.

〈사진 148〉과 〈사진 149〉는 김녕리 김복만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쌍잔'과 '웨잔

51) 김복만 씨 구술.


〈사진 148〉 김복만 씨 소장 '웨잔'


〈사진 149〉 김복만 씨 소장 '쌍잔'

(외잔)'이다. 놋으로 만든 술잔을 '놋술잔'이라고 하고, 술잔을 받칠 때 쓰는 그릇을 '잔대'라고 한다.

(3) 젱반, 펜대

'젱반'은 반찬이나 과일 등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을 말한다. 육지에서 쟁반은 음식 그릇을 받쳐 들고 갈 때 쓰는 그릇이지만 제주에서 '젱반'은 접시 가운데 조금 큰 종류의 접시다. 김녕리 김복만은 '젱반'은 "제사 때 과일을 올리거나 떡 등의 반기를 나눠줄 때 사용했다."라고 한다.

'펜대'는 떡을 괴어 올릴 때 쓰는, 굽이 높은 그릇을 말한다. 예전에는 나무를 이용해 만들었으나 요즘은 스테인리스를 이용해 만들었다. '펜대'는 표준어 '펜틀'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구좌읍 지역에서도 가가례에 따라서 제사에 올리는 떡이 달랐다.


〈사진 150〉 김양근 씨의 '펜대'


〈사진 151〉 홍태휴 씨의 '펜대'

김녕리 김복남 씨 집에서는 '친떡/제펜–만뒤떡–곤떡–지름떡' 등 네 가지 순으로 괴어 올렸다고 한다.

"젤 처음은 친떡 놓고 그 다음은 만뒤떡 놔. 제펜이엔도 허고 친떡이엔도 허고. 제펜이엔 헌 건 제사에 쓰는 거난 제펜. 그 다음은 곤떡 놓고 그 다음은 지름떡 놓고. 네 가지 놓지.(젤 처음은 시루떡 놓고 그 다음은 '만두떡' 놔. 제편이라고도 하고 시루떡이라고도 하고. 제편이라고 한 것은 제사에 쓰는 것이니까 제편. 그 다음은 흰떡 놓고. 그 다음은 기름떡 놓고. 네 가지.)"[52]


〈사진 152〉 고재인 씨의 '쟁반'


〈사진 153〉 김복만 씨의 '쟁반'


〈사진 154〉 고재인 씨의 '쟁반'


〈사진 155〉 홍영애 씨의 '쟁반'

〈사진 150〉은 한동리 김양근 씨 집에 보관 중인 '펜대'다. 이 '펜대'는 김 씨 아버지가 제사를 모실 때 사용하던 것으로, 나무판 밑에 다리가 달려 있다. 지금은 스테인

52) 김복남 씨 구술.

리스로 바꿔 쓰고 있다. 〈사진 151〉은 송당리 홍태휴 씨 집에서 사용하던 '펜대'다. 이 '펜대'는 1983년 홍씨가 집을 지을 때 목수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으로, 10년 전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152〉는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떡이나 과일을 올릴 때 큰 접시를 받쳐 사용하는 그릇이고, 〈사진 153〉은 김복만 씨가 제사 때 떡이나 과일 등을 올리는 쟁반이다. 〈사진 154〉는 고재인 씨 집에서 '반(반기)'을 나눌 때 사용했던 '쟁반'이고, 〈사진 155〉는 홍영애 씨 집에서 사용하던 '쟁반'이다. '쟁반' 바닥의 문양이 다른 게 특이하다.

(4) 상로상납, 촛대

'상로상납'은 '향로'와 '향합'을 구좌 지역에서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상로'는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자그마한 화로'이고, '상납'은 '제사 때 피우는 향을 담는 합'이란 의미로, 제보자들은 '상로'와 '상납'을 아울러 '상로상납'이라고 하였다. '상돌'은 '향돌'의 의미로, 향을 사를 때 사용하는 돌로 된 그릇이다.


〈사진 156〉 김복만 씨의 '상로'


〈사진 157〉 김복만 씨의 '모새접시'

"향로도 잇어, 상돌이 잇어. 이거이 향을 까까근에 놓는 그릇이 있거든. 향 그거 영 벳기멍 놓는 거. 거 까까근에 놓는 게 있어.(향로도 있어. 향돌이 있어. 이거 향을 깎아서 놓는 그릇이 있거든. 향 그거 벗기면서 놓는 거. 거 깎아서 놓는 게 있어.)"[53]

53) 김복만 씨 구술.


〈사진 158〉 홍수선 씨의 '상납'


〈사진 159 〉 김복만 씨의 '상납'

〈사진 156〉은 김녕리 김복만 씨 집에 보관 중인 '상로'이고, 〈사진 157〉은 김녕리 김복만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모새접시'다. 이 '모새접시'는 제사 때에 사용하는 모래와 띠 묶음을 꽂는 그릇이다. 강신할 때에 띠 묶음 위에 술을 따른다. 〈사진 158〉은 하도리 홍수선 씨, 〈사진 159〉는 김녕리 김복만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납(향합)'이다.

'촛대'는 제사 때 제상 위에서 초를 켤 때 사용하는 대이다. 〈사진 160〉은 김복만 씨 집에서 사용하는 유기 촛대다.


〈사진 160〉 김복만 씨의 '촛대'

2.4.2. 제상과 젯자리

(1) 젯상

'젯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제물을 벌려놓는 상을 말한다. 표준어 '제상(祭床)'에 대응하는 말이다. 구좌 지역에서는 상다리가 긴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161〉은 김녕리 김복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제상들이다. 이 제상들은 김씨가 제사를 시작할 때 목수였던 친정아버지가 '멀쿠실낭(먹구슬나무)'을 이용하여 만들어



〈사진 161〉 김복만 씨의 제상들



〈사진 162〉 김복만 씨의 '젯상'



〈사진 163〉 김복만 씨의 '촛상'



〈사진 164〉 김복만 씨의 '문전상'

줬다. 5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사진 162〉는 김복만 씨 집에서 사용하는 '젯상'이다. 가로 108cm×세로 62cm×높이 61cm의 크기다. 〈사진 163〉은 김 씨 집에서 제사 때 사용하는 '촛상'이다. '촛상'은 촛대를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상이다. 가로 52cm×세로 30cm×높이 45cm 크기로 되어 있다. 〈사진 164〉는 김 씨 집에서 사용하는 '문전상이다. '문전상'은 문전신을 위해 제물을 벌여놓는 상으로, 크기가 가로 58cm×세로 38cm×높이 39cm로 되어 있다.

"젯상은 친정 아부지가 헤 준 거라. 옛날 젯상. 친정 아부지가 나 제사험 시작허난 헤 주데. 저거 하난 문전상, 하난 촛상. 이건 제사 때에만 허고 멩질헐 땐 그냥 저 얕은 상 두 개 놩 허고. 저 호꼼 큰 건 문전상으로 허고 저건 이 앞에다 놔 촛상허고. 이건 큰상으로 가운디 놓고 문전상은 문전, 저 옆이 문뚱더레 놓고 촛상은 앞더레 놓고. 친정아부

지가 목수라낫주게."[54]

〈사진 165〉는 김녕리 임기추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제상으로, 마을제가 있을 때도 빌려줬던 제상이다. 〈사진 166〉은 한동리 허정순 씨의 제상으로, 허씨가 40살 경에 만들어 사용해 왔다고 한다. 〈사진 167〉은 세화리 홍영애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제상으로, 삼대가 물려 쓴 것이다. 〈사진 168〉도 홍씨가 보관하고 있는 '제상'이다. 오래 사용해 상다리에 좀이 슬어 있었다.

앞의 사진 자료를 보면, 구좌 지역에서는 제상으로는 다리가 긴 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69〉은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해 있는 제상이다. 이 상은 다리가 낮은



〈사진 165〉 임기추 씨의 '젯상'



〈사진 166〉 허정순 씨의 '젯상'



〈사진 167〉홍영애 씨의 '젯상'



〈사진 168〉 홍영애 씨의 '젯상'

54) 김복남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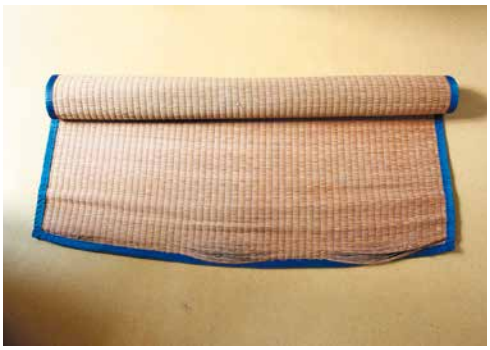

〈사진 169〉 이삼년 씨의 '젯상'


〈사진 170〉 이삼년 씨 남편 '삭망상'

상으로, 주로 조상들을 많이 모시는 명절 때 사용하는 상이다. 가로 157cm×세로 56cm×높이 13.5cm 크기로 되어 있다. 〈사진 170〉은 이삼년 씨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상식을 차린 '삭망상'이다. '삭망상' 앞에는 상주들이 입는 '상복', '방장대(상장)', '짚동' 등이 놓여 있었다. '상복'은 상제들이 입는 옷으로, 예전에는 주로 베로 만들었다. '방장대'는 아들이나 사위가 짚은 상장이며, '짚동'은 상제들이 상중에 몸을 기댈 때 사용하는 짚으로 받는 물건이다. '삭망상' 앞 촛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짚동'과 '방장대'이다.

(2) 젯자리

젯자리는 '제사를 지낼 때 까는 돗자리'를 말한다. 주로 왕골로 만든 것을 사서 쓰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초석과 구분하여 제사 때 사용하는 초석이어서 '젯자리'라고 부른다. 표준어 '제석(祭席)'에 대응하는 말이다. '새'로 엮어서 만든 초석을 제주에서는 '뛰자리'라고 한다. 〈사진 171〉의 '젯자리'는 김녕리 김복만 씨가 10여 년 전에 구입해서 제사 때만 사용하고 있는 왕골자리다.


〈사진 171〉 김복만 씨의 '젯자리'

(3) 독집

'독집'은 위패를 모시는 집이다. 〈사진 172〉는 김복만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독집'으로, 제상을 만들 때 친정아버지가 함께 만들어 준 것이다. 크기는 가로 14cm×세로 8cm×높이 33cm다.



〈사진 172〉 김복만 씨의 '독집'

Ⅱ 조사 내용

3. 주생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집의 변화가 아닌가 한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초가에서, 슬레이트, 기와, 아파트까지 주거 양식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 양식의 변화는 곧 전통 주거 관련 도구들의 사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생활 관련 도구로는 가재도구, 조명과 난방 기구, 연장류, 집줄 관련 도구 등이 조사되었다.

3.1. 가재도구

3.1.1. 궤류

(1) 궤

'궤'는 의복 등을 담아서 저장하는 나무로 만든 도구다. '궤'는 '굴무기(느티나무)'와 '[illegible]쿠실낭(먹구슬나무)', '소남(소나무)', '폭남(팽나무)' 등으로 만든다. '궤'의 문에 쇠로 여러 가지 모양을 해 장식을 달았는데, 이런 '장식'을 구좌 지역에서는 '장석'이라고 하였다. '장석'을 붙이는 것을 '장석 [illegible]다'라고 한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자신이 결혼해서 장만한 궤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궤 등 2개의 궤를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1〉은 이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굴무기(느티나무)'로 만든 궤로 얼추 100년은 넘었다고 한다. 〈사진 2〉

는 이 씨가 스물한 살에 시집온 후에 구입한 궤다.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궤가 조금 작은데, '장석' 모양이 여느 '궤'들과 달라 눈에 띈다. 이 씨가 사용했던 궤도 60년이 넘었다.

〈사진 3〉과 〈사진 4〉는 한동리 강순자 씨가 보관하는 궤이다. 이 궤들은 강 씨가 결혼할 때 혼수로 갖고 온 것이다. 〈사진 3〉은 '굴무기(느티나무)'와 '멀쿠실낭(멀구슬나



〈사진 1〉 이삼년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궤'



〈사진 2〉 이삼년 씨 소장 '궤'



〈사진 3〉 강순자 씨 소장 '궤'



〈사진 4〉 강순자 씨 소장 '궤'



〈사진 5〉 김윤생 씨 소장 '궤'



〈사진 6〉 김복만 씨 소장 '궤'



〈사진 7〉 홍영애 씨 소장 '궤'



〈사진 8〉 임기추 씨 소장 '궤'

무)'을 섞어 만든 '궤'인데, 니스 칠을 해버려 반질반질하다. 〈사진 4〉는 '폭낭(팽나무)'로 만든 궤이다. 한동리에서는 궤 2개를 '혼 바리'라고 한다. '바리'는 '마소의 등에 실을 수 있는 한 짐'을 세는 단위이다.



〈사진 9〉 고재인 씨의 '궤'

〈사진 5〉는 세화리 김윤생 씨 집에서 촬영한 궤로 '굴무기낭'으로 만든 궤이고, 〈사진 6〉은 김녕리 김복남 씨가 결혼할 때 목수였던 아버지가 혼수로 만들어 준 궤로 궤 색깔이 다른 궤들과 다르다. 이 궤는 '물쿠실낭'으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가로 96cm×세로 78cm×폭 42cm이다.

〈사진 7〉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썼던 '굴무기궤'이고 〈사진 8〉은 김녕리 임기추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궤이다. 이 궤는 60년 전에 임씨가 마을 사무장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사진 9〉는 한동리 고재인 씨가 40대에 구입한 궤로 장석 문양과 나무 표면의 색감이 다르다.

(2) 서궤/책궤

'서궤(書櫃)'는 책이나 문서 따위를 넣어두는 함이다. 달리 '책궤(冊櫃)'라고 한다.

〈사진 10〉은 하도리 홍수선 씨의 시아버지가 쓰던 '서궤'로, 70~80년 이상이 되었



〈사진 10〉 홍수선 씨 소장 '서궤'



〈사진 11〉 홍영애 씨 소장 '책궤'

다. 〈사진 11〉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현대식 '책궤'[55]다. '책궤' 모양과 장식 등이 특이한데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남편이 사용하던 것이다.

(3) 먹통 놓는 궤

'먹통 놓는 궤'는 붓글씨 도구를 넣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도구다. 붓과 벼루, 먹통 등을 넣는다고 해서 제보자인 김녕리 이삼년 씨는 '먹통 놓는 궤'라고 하였다. '먹



〈사진 12〉 이삼년 씨 소장 '먹통 놓는 궤'(왼쪽)와 내부.

55) 이 글에서 '서궤'와 '책궤'라는 용어는 제보자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홍수선 씨가 보관하는 '서궤'는 현대식 서랍장 모양을 하고 있고, 홍영애 씨가 보관하는 '책궤'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궤보다는 작은 반닫이다. '서궤'와 '책궤'는 같은 말이다.

통 놓는 궤'는 한자어 '연갑(硯匣)', 우리말 '벼룻집'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씨의 시할아버지가 사용하다가 남편이 물려받아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2〉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보관하는 것으로 시할아버지가 사용했던 '먹통 놓는 궤'다. 이 궤에는 붓과 먹, 벼루 대신에 각종 서류와 도장, 담뱃대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13〉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벼루'와 '먹' 그리고 '붓통'이다. 강씨의 남편이 썼던 것이다.


〈사진 13〉 강순자 씨 소장 '붓통'과 '벼루와 먹'

3.1.2. 책상과 밥상

(1) 책상

'책상'은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볼 때 앞에 놓고 쓰는 상이다. 〈사진 14〉는 한동리 고재인 씨 남편이 사용했던 '굴무기(느티나무)' 로 만든 '앉은뱅이책상'으로, 백년가까이 되었다.


〈사진 14〉 고재인 씨 소장 '앉은뱅이책상'

(2) 웨상과 도리상

'웨상'은 혼자 먹을 때 사용하는 작은 상을 말하고, '도리상'은 둥근 상을 말한다. 둥근 상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 앉아 밥을 먹었다.

〈사진 15〉는 김녕리 김복남 씨가 7, 8년 전에 세화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웨상'이고, 〈사진 16〉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양철로 만든 '도리상'이다. '도리'는 둥근 둘레는 의미하는 말이다. '양철상' 이전에는 나무로 둥글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사진 15〉 김복만 씨 소장 '웨상'



〈사진 16 〉 강순자 씨 소장 '양철 도리상'

3.1.3. 담배 도구 등

(1) 담뱃대와 물부리

'담뱃대'는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다.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17〉과 〈사진 18〉은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담뱃대와 물부리로 60년 전에 이 씨의 시할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7〉 이삼년 씨 소장 '담뱃대'



〈사진 18〉 이삼년 씨 소장 '물부리'

(2) 가짓주멩이

'가짓주멩이'는 주머니를 여러 개 달아 문서나 도구 등을 한 데 모아 넣을 수 있게 만든 천으로 만든 도구다. 〈사진 19〉는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무지로 만든 '가짓주멩이'이다. 이 주머니는 '먹통 놓는 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삼년


〈사진 19〉 이삼년 소장 '가짓주멩이'


〈사진 20〉 이삼년 소장 '도장'과 '도장주멩이'

씨의 남편이 사용하던 것이다. 이 안에는 각종 문서와 담배통과 담뱃대, 도장과 '도장주멩이(도장주머니)'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20〉은 '먹통 놓는 궤' 안에 들어있었던 '도장주멩이'와 도장들이다.

(3) 통쒜와 열쒜

'통쒜'는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를 말한다. 표준어 '자물쇠'에 해당하는 말이다. '통쒜'는 주로 '궤'를 잠글 때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여는 것을 '열쒜'라고 한다.

〈사진 21〉은 김녕리 임기추 씨의 궤, 〈사진 22〉는 세화리 김윤생 씨의 궤를 잠그고 있는 '통쒜'이고, 〈사진 23〉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궤에 잠금 장치를 해 놓을 때 사용하는 '통쒜'와 '열쒜'로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사진 24〉는 세화리 홍영


〈사진 21〉 임기추 씨의 '통쒜'


〈사진 22〉 김윤생 씨의 '통쒜'


〈사진 23〉 강순자 씨의 '통쒜'


〈사진 24〉 홍영애 씨의 '통쒜'와 '열쒜'


〈사진 25〉 부안일 씨의 '열쒜'


〈사진 26〉 홍수선 씨의 '열쒜'

애 씨의 궤에 붙어 있는 '놋통쒜'와 '열쒜'다. '통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열쒜(열쇠)'다. 〈사진 22~24〉의 자물쇠에 끼어 있는 '열쒜'는 달리 '게철(開–)'이라고도 한다. 〈사진 25〉는 세화리 부안일 씨 집에서 촬영한 것으로 번호를 돌려서 여는 '통쒜'이고, 〈사진 26〉은 하도리 홍수선 씨 집에서 촬영한 '통쒜'와 '열쒜'다.

3.2. 조명 기구

조명 기구도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을 밝히기 위하여 접시에 참기름 따위를 넣고 그 안에 심지를 걸쳐 불을 켰는데, 이를 '젭시불'이라고 한다. '젭시불' 이후에는 '각짓불/각제기불'을 사용하였다. '각짓불'은 표준어 '등잔불'에

해당한다. '각지'에 기름과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켜는 도구이다. '각지불' 이후에는 '남폿불'과 '초롱'을 썼다. '남폿불'은 일본어 '호야'로 더 많이 불렸는데, 달리 '등핏불'이라고도 한다. 외출할 때는 '초롱'을 이용하였다. '초롱'은 네모난 상자에 '촛불'을 켜서 밤길을 밝혔다. 70년대 중후반부터는 전깃불이 들어왔다.

"등잔불에 무신 저 바농질 허민 눈도 붉덴 안 헤나사? 이것에 낭으로 짜근에 요만이 노프게, 요 테레비ᄀᆞ치 이추룩 노프게 그 등잔을 놓는 거이. 그것에 놔근에 지름 놔근에 노프민 훤헐 거 아니라게? 경헨 살아세.(등잔불에 무슨 저 바느질 하면 눈도 밝다고 안 했었니? 이것에 나무로 짜서 요만큼 높게 요 텔레비전같이 이처럼 높게 그 등잔을 놓는 거. 그것에 놔서 기름 넣어서 높으면 환할 거 아니니? 그렇게 해서 살았어.)"[56]



〈사진 27〉 강순자 씨 소장 '각지'



〈사진 28〉 송당리복지회관에 있는 '모형 등잔대'

〈사진 27〉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각지'다. '각지' 안에 기름을 넣은 다음 그 안에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켰다. 강씨는 '각짓불'을 '등잔불'이라고도 하였다. 〈사진 28〉은 송당리복지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 등잔대'이다. '등잔대'를 본 따서 깡통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재미있다.

〈사진 29〉는 세화리 홍영애 씨 집 처마 밑에 걸려 있는 '전등'이고, 〈사진 30〉은 한동리 허기생 씨 '정지(부엌)'에 걸려 있는 '전등'이다. 요즘의 형광등과 LED 등과 비교해 볼 때 고풍스러운 느낌이 든다.

56) 강순자 씨 구술.


〈사진 29〉 홍영애 씨 집 '처마 밑의 전등'


〈사진 30〉 허기생 씨 집 '정지의 전등'

3.3. 난방 기구

3.3.1. 화리

'화리'는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이다.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쓴다. 때에 따라서는 제사 때에 '화리'에 숯불을 살라 고기를 굽기도 한다. '화리'는 재질에 따라서 '돌화리', '정동화리', '사기화리', '쒜화리' 등으로 불린다.

(1) 돌화리

'돌화리'는 현무암을 네모나게 파서 만든 화로다. 주로 마루에 설치하여 제사 때 숯불을 피워 '적쒜'를 걸쳐 '적(炙)'을 구울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리' 밑에 다리도 만들었다. 〈사진 31〉은 하도리 김옥연 씨 집에서 사용


〈사진 31〉 김옥연 씨 소장 '돌화리'

하던 '돌화리'로 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까지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동화리와 아르미화리

'정동화리'는 표준어 '청동화로'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숯불을 담아 겨울에 불을 쬐는 난방 기구다. 〈사진 32〉는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서 사용했던 '정동화리'로, 겨울철 방에서 불을 쬐거나 바느질할 때 '윤디(인두)'를 묻어둘 때 사용했던 도구다. 〈사진 33〉은 송당리 김병현 씨 집에서 사용했던 '아르미화리'다.


〈사진 32〉 이삼년 씨 소장 '정동화리'


〈사진 33〉 김병현 씨 소장 '아르미화리'

3.3.2. 난로

'난로'는 난방 도구의 하나다. 난로 위에 물주전자 등을 넣어 물을 끓일 수 있게 하였다. 나무 난로, 연탄 난로, 기름 난로, 가스 난로, 전기 난로 순으로 발달해 왔다.


〈사진 34〉 김병희 씨 소장 '석유난로'


〈사진 35〉 허정순 씨 소장 '석유난로'

〈사진 34〉는 세화리 김병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석유난로로 일본에 사는 형제들을 방문했을 때 선물로 받고 가지고 온 것이다. 〈사진 35〉는 한동리 허정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석유난로로, 일본에서 시누이가 보내준 것이라고 한다. 두 난로 모양이 다르다.

3.4. 연장류

3.4.1. 톱류

(1) 큰톱/대톱

'톱'은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 쓰는 연장이다. 크기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물건을 자를 때 사용하는 날이 있는 부분은 '톱날'이라고 하고, 손잡이는 '톱자루'이라고 한다. '톱'은 크기에 따라 '큰톱', '족은톱(작은톱)', '나무오리는 톱'이라고 한다. 날이 양쪽으로 있어서 '양날톱'이라고도 한다.

'큰톱'은 두 사람이 마주 잡고 켜는 내릴톱을 말한다. 한자어로는 '대톱'이라고 한다. 큰 나무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톱이다. 톱 길이는 '한 발가웃'에서 '두 발' 정도 된다고 한다.

"아주 큰 나무는 그것은 톱이 어떻게 뒛는고 허니 이렇게 이렇게 와꾸[57]거치 뒈가지고 이 가운디 놀이 잇주. 가운디 놀이 잇이니까 이렇게 와꾸 헌 것은 여기 다 총베[58]로다 이렇게 단단허게 헷저. 그거에 헤가지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 쓰게끔 헤가지고 이제 뗑기고 밀고 뗑기고 밀고. 이렇게 짜젼 가운디가 놀인데 여기 사름 앚앙 손잡이 잡고 여기 잡고. 막 거 진다. 한 발가웃 내지 두 발 정도. 그거는 집에서 뭐 문이나 대판이란 게 잇저, 대판. 그리고 널 오릴 때 주로 그 대톱으로 사용허주. 저디 강 나무 끊는 것은 큰톱으로.(아주 큰 나무는 그것이 톱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같이 돼 가

57) '와꾸(わく)'는 테두리를 가리키는 일본어다.
58) '총베'는 말총으로 만든 바를 말한다.

지고 가운데 날이 있지. 가운데 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자 한 것은 여기 다 '총바'로 이렇게 단단하게 했지. 그것에 해가지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 쓰게끔 해가지고 이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이렇게 짜져서 가운데가 날인데 여기 사람 앉아서 손잡이 잡고 여기 잡고. 매우 그거 길다. 한 발가웃 내지 두 발 정도. 그것은 집에서 뭐 문이나 대판이라는 게 있다, 대판. 그리고 널 오릴 때 주로 그 대톱으로 사용하지. 저기 가서 나무 자르는 것은 큰톱으로.)"[59]

(2) 족은톱, 거두/거뒤/거디

'족은톱'은 크기가 작은 톱이다. 한자로 '거두(거도, 鋸刀)'라고 한다. '거도'는 '한쪽에 자루가 박혀있는 혼자서 쓰는 톱'으로써 칼처럼 잡고 쓰게 되어 있다. 한동리 고재인은 '거디'라고 발음하였다.

"톱은 큰톱 족은톱 경 허주게. 족은 거ᄀᆞ라 거두엔 허주.(톱은 큰톱 작은톱 그렇게 하지. 작은 것보고 거도라고 하지.)"[60]

"목수가 사용허는 거는 많주게. 우선 거뒤가 잇고이, 톱도 잇고, 거뒤가 잇고이. 또 다시 도치가 잇고이. 집 짓젠 허민 나물 깨끗이 깎아야 뒐 거 아니라. 대패란 것이 잇고이. 또 끌이란 게 잇고. 끌이란 건 구녕 뚤루는 거. 그러고 또 먹통이란 게 잇어야 뒈. 먹통은 왜냐허면 나무 줄을 바루기 위해서 그 줄 긋어가지고 나무 그치는 거. 나무 거세기 헐 적에 선을 긋으면은 나무 멧 센치 놓면은 그대로 줄을 먹통으로 영헨 딱허게 줄이 짝 긋어지면 나무 우에 그대로.(목수가 사용하는 것은 많지. 우선 거도가 있고, 톱도 있고, 거도가 있고. 또 다시 도끼가 있고. 집 지으려고 하면 나무를 깨끗이 깎아야 될 것 아닌가. 대패라는 것이 있고. 또 끌이라는 게 있고. 끌이라는 것은 구멍 뚫는 거. 그리고 또 먹통이라는 게 있어야 돼. 먹통은 왜냐하면 나무 줄을 바루기 위해서 그 줄 그어가지고 나무 자르는 거. 나무 거세기 할 적에 선을 그으면 나무 몇 센티미터 놓으면 그대로 줄을 먹통으로 이렇게 해서 딱하게 줄이 쫙 그어지면 나무 위에 그대로.)"[61]

〈사진 36〉은 김녕리 이삼년 씨, 〈사진 37〉은 세화리 김윤생 씨, 〈사진 38〉은 송당

59) 오문봉(한동리) 씨 구술.
60) 오문봉 씨 구술.
61) 오문봉 씨 구술.

리 김병현 씨가 사용했던 '거두'다. 〈사진 39〉는 한동리 강순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거두'이고, 〈사진 40〉은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서 나무 자를 때 사용했던 '거디'다. 〈사진 41〉은 한동리 고미생 씨가 사용했던 톱으로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거두'의 날과 손잡이 등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사진 36〉 이삼년 씨 소장 '거두'


〈사진 37〉 김윤생 씨 소장 '거두'


〈사진 38〉 김병현 씨 소장 '거두'


〈사진 39〉 강순자 씨 소장 '거두'


〈사진 40〉 고재인 씨 소장 '거디'


〈사진 41〉 고미생 씨 소장 '톱'

3.4.2. 도끼류

(1) 도치

'도치'는 나무를 자르거나 팰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도끼'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사진 42〉는 '심방'이었던 세화리 홍영애 씨가 성주굿을 할 때 무구로 활용했던 '도치'다. 〈사진 43〉은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도치'다.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것을 시부모한테 물려받아 나무를 깰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44〉는 한동리 고미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치날(도끼의 날)'로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장작을 팰 때 사용했던 것이다. 자루가 잘린 채 보관되고 있는데, 자루가 박힌 곳에 못을 박아 두었다. 〈사진 45〉는 세화리 김병희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도치'로 김씨가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나무 가지를 자를 때 사용했던



〈사진 42〉 홍영애 씨가 사용했던 '도치'



〈사진 43〉 고재인 씨 소장 '도치'



〈사진 44〉 고미생 씨 소장 '도치날'



〈사진 45〉 김병희 씨 소장 '도치'

것이다. 용도에 따라서 '도치'의 날과 자루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2) 자귀

'자귀'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 크기나 모양, 쓰임새에 따라 '귀자귀', '번자귀', '손자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제재소란 나무 오리는 공장 잇지 안 허여. 그거 나기 전에는 목수가 그 도치와 그 번자귀엔 헌 거 그걸로 집 짓기 전이 자기 혼자 나무를 다 다듬앗주. 목수가 다 전적으로 그 귀자귀허고 그런 걸로 다 치목을 헷주.(제재소라는 나무 자르는 공장 있지 안 해. 그거 나기 전에는 목수가 그 도끼와 그 '번자귀'라고 한 거 그것으로 집 짓기 전에 자기 혼자 나무를 다 다듬었지. 목수가 다 전적으로 그 '귀자귀'하고 그런 것으로 다 치목을 했지.)"[62]

〈사진 46〉은 송당리 김석봉 씨가 사용했던 자귀로, 20년 전에 나무를 깎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47〉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사진 48〉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자귀로, '자귀날(자귀날)'과 손잡이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사진 46〉 김석봉 씨 소장 '자귀'


〈사진 47〉 김윤생 씨 소장 '자귀'


〈사진 48〉 강순자 씨 소장 '자귀'

62) 오문봉 씨 구술.



〈사진 49〉 홍영애 씨 소장 '장호미'



〈사진 50〉 고재인 씨 소장 '장호미'와 '호미장호미'(오른쪽)



〈사진 51〉 김병희 씨 소장 '장호미'



〈사진 52〉이삼년 씨 소장 '장호미'

(3) 장호미

'장호미'는 나무 따위를 찍어서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손잡이 부분을 나무 자루 대신에 헝겊이나 고무 따위로 감아서 쓰는 게 특이하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일본어에서 온 '나다(なた)'라고도 불렀다.

〈사진 49〉는 구좌읍 세화리 홍영애 씨가 당(堂)에 다닐 때 길가 나무를 가지치기할 때 사용했던 '장호미'다. 〈사진 50〉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했던 '장호미'로 자루가 벗겨져 날만 남아 있다(가운데). 〈사진 50〉의 오른쪽에 있는 '호미'는 '호미장호미'다. 〈사진 51〉은 세화리 김병희 씨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사용했던 '장호미'이고, 〈사진 52〉는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호미장호미'로 '지들커(땔감)'용으로 나무를 베어 올 때 사용했던 것이다.

3.4.3. 망치류

(1) 마께, 메

'마께'는 못을 박거나 두드릴 때 쓰는 연장의 한 가지로, 표준어 '망치'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망치는 '쒜(쇠)'나 나무로 만드는데, '쒜'로 만든 것은 '쒜망치', 나무로 만든 것은 '낭망치'라고 부른다. 또 크기와 용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돌을 깰 때 사용하는 방망이는 '돌 두드리는 마께'(세화 김윤생) 또는 '돌망치'(송당 김석봉)라고 하는데, 송당리 홍태휴 씨는 이를 '돌마께', '돌메' 등으로 불렀다. '메'는 돌 따위를 깨기 위해서 내리칠 때 사용하는 큰 망치다.

〈사진 53〉은 송당리 김석봉 씨가 돌을 깰 때 사용했던 '돌망치'이고 〈사진 54〉는 홍태휴 씨가 사용했던 '돌마께', 〈사진 55〉는 세화리 김윤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돌



〈사진 53〉 김석봉 씨 소장 '돌망치'



〈사진 54〉 홍태휴 씨 소장 '돌마께'



〈사진 55〉 김윤생 씨 소장 '돌 두드리는 마께'



〈사진 56〉 김병현 씨 소장 '마께'



〈사진 57〉 김병희 씨 소장 '마께'



〈사진 58〉 김병희 씨 소장 '마께'

두드리는 마께'다. 〈사진 56〉은 송당리 김병현 씨, 〈사진 57〉은 세화리 김병희 씨가 사용했던 '쒜마께'다. '쒜마께'를 김씨는 '함마'라고 하였다. '함마'는 해머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사진 58〉도 세화리 김병희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마께'로, 망치 모양이 다르다.

(2) 못빼기

'못빼기'는 나무 따위에 박힌 못 따위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못뽑이'를 말한다. '못빼기'는 못을 뺄 때 사용하는 것도 있고, 못 같은 것을 쳐서 박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도록 망치대가리와 못뽑이가 함께 붙어있는 것도 있다.



〈사진 59〉 고미생 씨 소장 '못빼기'



〈사진 60〉 김윤생 씨 소장 '못빼기'

〈사진 59〉는 한동리 고미생 씨 집에서 '못'을 뽑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대대로 물려온 것으로, 자루가 없다. 〈사진 60〉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사용하고 있는 '못빼기'다.

3.4.4. 기타

(1) 쒜손

'쒜손'은 집을 지을 때 흙이나 시멘트 등을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쒜(쇠)'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해서 '쒜손'이라고 한다. 나무로 만든 것은 '낭손'이라고 한다. '쒜손'은 표준어 '쇠손', '낭손'은 '나무손'을 가리키는 방언형이다. '쒜손'은 크기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큰 것은 주로 시멘트를 떠 놓을 때 사용하고, 작은 것은 시멘트 바른 것을 반반하게 펴 바를 때 사용한다.

〈사진 61〉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했던 '쒜손'으로 고씨는 '세멘솔'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사진 62〉는 강순자 씨가 사용하는 '쒜손'으로, 강 씨는 집 안팎의 간단한 것은 직접 시멘트를 발라 수리했다고 한다.



〈사진 61〉 고재인 씨 소장 '쒜손'



〈사진 62〉 강순자 씨 소장 '쒜손'

(2) 대패, 끌, 줄

'대패'는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연장이다. 쓰임에 따라 나무를 깎는 용도로도 쓰이고, 나무의 골을 파는 용도로도 쓰인다. 그 쓰임에 따라 명칭이 분화해 나타난다. 〈사진 63〉은 송당리 김석봉 씨가 나무 깎을 때 사용했던 '대패'다.



〈사진 63〉 김석봉 씨 소장 '대패'


〈사진 64〉 김윤생 씨 소장 '끌'(위)과 '정'


〈사진 65〉 고재인 씨 소장 '끌'

'끌'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이다. 〈사진 64〉는 세화리 김윤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끌(맨 위)'과 '정'이다. 끌은 나무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다듬는 데 사용하고, '정'은 돌 따위에 구멍을 낼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도구다. 〈사진 65〉는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끌'이다.

'줄'은 쇠붙이를 쓸어 깎는, 도틀도틀한 날이 있는 도구의 한 가지로, 쇠붙이를 다듬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사진 66〉은 김윤생 씨, 〈사진 67〉는 고재인 씨가 보관하는 '줄'이다.

〈사진 68〉은 세화리 홍영애 씨 집에서 촬영한 것으로, 각종 못과 작은 연장을 보관하는 '연장통'이다. '연장통'은 톱이나 메 호미, 마께 따위를 담아두는 용기다. 홍 씨 아들이 만들어 준 것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사진 69〉는 세화리 김윤생 씨가 망치, '마께', 호미 등의 연장을 보관하고 있는 '연장통'이다.


〈사진 66〉 김윤생 씨 소장 '줄'


〈사진 67〉 고재인 소장 '줄'



〈사진 68〉 홍영애 씨 소장 '연장통'



〈사진 69〉 김윤생 씨 소장 '연장통'

3.5. 집줄 관련

(1) 집줄

'집줄'은 초가지붕을 동여맬 때 사용하는 줄이다. '집줄'은 보통 '띠' 가운데 길이가 짧고 가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를 제주에서는 '각단'이라고 한다. 지붕을 일 때 사용하는 띠를 가리켜서는 '새'라고 한다.

"각단이옌 헌 건 젠젠헌 샌데 복작헌 거 그걸로 줄 내는 거. 각단은 쫄라부난이 집을 못 일주게. 새는 덮을 걸로 허고 제일 거기서 쫄른 거 잇주게. 복작허게 쫄른 거 그건 줄 낼 때. 각단은 줄 내고 새로는 지붕을 일고.('각단'이라고 한 것은 자잘한 띠인데 '복작한'[63] 거 그것으로 줄 내는 거. '각단'은 짧아버리니까 집을 못 이지. 띠는 덮을 걸로 하고 제일 거기서 짧은 거 있지. '복작하게' 짧은 거 그것은 줄 낼 때. '각단'은 줄 내고 띠로는 지붕을 이고.)"[64]

구좌 지역에서 집은 보통 2년에 한 번 인다. 비가 많이 오는 동남쪽 지역에서는 일 년에 한번 집을 인다고 한다. 지붕을 일 때는 삼간집의 경우 130~150 단 정도의 '새'(띠)가 필요한데 보통 20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집줄을 묶게 된다. 긴 줄을 '진

63) 여기에서 '복작한'은 '부드러운'의 의미를 담고 있다.
64) 오분봉 씨 구술.

줄', 짧은 줄을 'ᄌᆞ른줄'이라고 하고, 집줄은 처마 밑의 기다란 나무인 '거왕대'에 맨다. '집줄'은 집 앞의 처마 밑은 가지런히 정돈하지만, 비가 많이 들이치는 곳의 '집줄'은 잘라내지 않고 기다랗게 늘어뜨려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한다.

"농ᄉᆞ가 ᄒᆞᆫ 시월 말경에 끝나면은 ᄒᆞᆫ 십이월에 보리 다 갈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허는 게 동짓돌에 새를 헌다. 새를 우선 헤다가 집에 쌓아둘 거 아냐이. 거 이젠 허면 보통 삼간집은 ᄒᆞᆫ 백 내지 백오십 뭇이 든다. 삼간집 하나 이젠 허민 처음 준비헐 게 새를 준비헤야 뒈고 그 다음에 줄은 내야 뒈. 줄이란 것은 새로 영 집을 일어가지고서 등돌을 메야 뒈니까이 줄을 내야 뒈. 줄도이 진줄, ᄌᆞ른줄이 잇저. 영 옆으로 진진헌 건 진줄이엔 허고 영 모로 오는 건 ᄌᆞ른줄이엔. 그 줄을 미리셍이 내영 놧다가 집 일 때는 날 봥 날이 좋은 때 화일(火日)이 아닌 날을 택헤가지고서 집을 인다. 왜 화일을 택허는고 허면은 화일에는 불이 난다는 속설이 잇기 때문에 화가 안 들어간 날.(농사가 한 시월 말경에 끝나면 한 십이월에 보리 다 갈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동짓달에 띠를 한다. 띠를 우선 해다가 집에 쌓아둘 것 아냐. 거 이젠 하면 보통 삼간집은 한 백 내지 백오십 뭇이 든다. 삼간집 하나 이제 하면 처음 준비할 게 띠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줄을 내야 돼. 줄이란 것은 띠로 이렇게 집을 이어가지고 '등돌'을 매야 되니까 줄을 내야 돼. 줄도 긴줄, 짧은줄이 있지. 이렇게 옆으로 기나긴 것은 긴줄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로 오는 것은 짧은줄이라고. 그 줄을 미리 내어 놨다가 집 일 때는 날 봐서 날이 좋은 때 화일이 아닌 날을 택해가지고서 집을 인다. 왜 화일을 택하는가 하면 화일에는 불이 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화가 안 들어간 날.)"[65]


〈사진 70〉 집줄 놓기


〈사진 71〉 '집줄'

65) 오문봉 씨 구술.


〈사진 72〉 '거왕대'


〈사진 73〉 홍영애 씨의 초집

집은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해의 마지막에 하는 일이다. 집을 다 이어야 한 해의 일이 갈무리되는 것이다. 집은 '화일(火日)'을 피해서 인다. '화일'에 지붕을 이면 집에 불이 난다는 속설이 전해지다.

〈사진 70〉은 집을 이을 때 사용하다 남은 '집줄'이다. 〈사진 71〉처럼 '집줄'은 처마 밑에 길게 놓이는 '거왕'에 매게 된다. '거왕'은 처마 끝 서까래 아래에 집을 인 띠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집줄'을 매기 위하여 장치해 놓은 긴 막대기다. 보통 왕대나 가시나무, '가마귀폭남' 등을 이용한다.

(2) 호렝이와 뒤치기/뒤치개

'호렝이'는 '집줄'을 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집줄'은 '각단'(키가 작은 짧은 띠)을 이용해 '호렝이'를 돌리면서 꼬게 된다. 그렇게 줄을 꼬는 것을 '줄 비다'라고 한다. 줄은 보통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꼬게 된다. '각단'을 집어 주는 사람을 '줄 놓는 사람'이라고 하고 줄을 꼬는 사람은 '줄 비는 사람'이라고 한다.

"줄 낼 땐 그 호렝이란 게 필요허주. 호렝이 거 나무로 만든 건데이 중간에 철로 만든 것도 잇고. 옛날은 주로 나무로 만들엇저. 그 각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헐 땐 각단 양쪽이 이렇게 질게 헤가지고 물앙 이거 호렝이에 끼울 거 아냐. 끼우민 여ᄌᆞ든 남ᄌᆞ든 호렝일 비는 사름이 잇어야 뒈. 호렝이 영 비여 가민 이디선 영 거 줄 놓는다고. 그레 각단으로 이렇게 손에 심엉 베ᄀᆞ치 쭉 일정허게 나게끔 것도 기술이 필요허다. 처음에는 경 헤가지고서 그 줄을 다 비어 놓면은 이것 또 줄 어울려야 뒈여. 이걸 이제 두 개

를 합쳐가지고서 이젠 또 다시 줄을 만든다. 비어 놩. 경헨 줄 그거 헤가지고서 보관헷당 줄 그렇게 어울리고 줄을 만드는 거. 경헨 놧당 일자 봐가지고 새로 집을 이는 거지.(줄 낼 때는 그 '호렝이'라는 게 필요하지. '호렝이' 거 나무로 만든 것인데 중간에 철로 만든 것도 있고. 옛날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지. 그 '각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단' 양쪽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말아서 이거 '호렝이'에 끼울 것 아니니? 끼우면 여자든 남자든 '호렝이'를 꼬는 사람이 있어야 돼. '호렝이' 이렇게 꼬아 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거 줄 놓는다고. 그리로 '각단'으로 이렇게 손에 잡아서 바처럼 쭉 일정하게 나게끔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줄을 다 꼬아 놓면은 이것 또 줄 어울려야 되어.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서 이젠 또 다시 줄을 만든다. 꼬아 놓아서. 그렇게 해서 줄 그거 해가지고서 보관했다가 줄 그렇게 어울리고 줄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놨다가 일자 봐가지고 집을 띠로 이는 것이지.)"[66]

'비어' 놓은 줄은 두 개씩 합쳐서 '집줄'을 만들 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일을 '줄 어울린다'라고 한다. '줄을 어울릴 때'는 '뒤치기'가 필요하다. '뒤치기'는 '집줄'을 꼴 때 두 개의 줄이 꼬아지도록 도와주는 기구다. 표준어로는 '돌물레'라고 한다. 두 개의 줄을 '뒤치기'에 연결한 후 그 뒤에서 다른 한 명이 그것을 돌려주고, '줄을 비었던' 사람은 '호렝이'를 가지고 양쪽에서 계속 돌려준다. 이때 두 개의 줄을 합쳐서 꼬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줄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따라서 집줄을 완성할 때는 모두 4명이 들어야 한다.

"그 베 만들 때 무꺼 두는 건이 뒤치개란 게 잇주. 뒤치갠 뒤에서 앚아가지고서 뭐인가 뒤치개를 막 돌려줘야 뒈. 경헤야 배가 이렇게 거세기 허는디 안 돌려지민 거 줄이 안 뒈주게. 뒤치개로 막 돌려줘야. 줄을 허젠 허민 뒤치개가 반드시 필요헌다. 줄 낼 때에는 혼 사람이 주로 허고이, 줄 어울릴 때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줄 어울릴 때는 사람이 하나, 둘, 서이, 너이가 들어야 뒈여. 한 사람은 뒤치개에 앚이고, 또 가운디 줄을 양쪽에 헤영 손으로 심어가지고서 걸 일정하게끔 돌아가게끔 이렇게 허고. 또 이짝에 두 사람이 줄 비여 줘야 줄이 딱딱 네 사람이 필요허여. 그땐 동네 사람 다 놉 빌엉 허주. 그 줄 어울릴 때만.(그 바 만들 때 묶어 두는 건 '뒤치개'라는 게 있지. '뒤치개'는 뒤에서 앉아가

66) 오문봉 씨 구술.

지고서 뭐인가 '뒤치개' 막 돌려줘야 돼. 그렇게 해야 배가 이렇게 거세기 하는데 안 돌리면 거 줄이 안 되지. '뒤치개'로 막 돌려줘야. 줄을 하려고 하면 '뒤치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줄 낼 때는 한 사람이 주로 하고, 줄 어울릴 때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줄 어울릴 때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이 들어야 돼. 한 사람은 '뒤치개'에 앉고, 또 가운데 줄을 양쪽에 해서 손으로 잡아가지고서 그것을 일정하게끔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두 사람이 줄 꼬아 줘야 줄이 딱딱. 네 사람이 필요해. 그땐 동네 사람 다 놉 빌려서 하지. 그 줄 어울릴 때만.)"[67]



〈사진 74〉 홍영애 씨가 요즘도 쓰고 있는 '호렝이'



〈사진 75〉 홍영애 씨의 '뒤치기'

〈사진 74〉와 〈사진 75〉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렝이'와 '뒤치기'다. 홍 씨는 지금도 초가에 살고 있어 2년에 한 번씩은 집을 인다고 한다.

3.6. 기타

(1) 발걸이와 사다리

'발걸이'는 김녕리에서 높은 데 물건을 올려놓거나 꺼낼 때 등에 사용하는 발판이다. '사다리'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를 말한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사다리'를 'ᄃᆞ리판'이라고 하였다.

67) 오문봉 씨 구술.


〈사진 76〉 이삼년 씨 소장 '발걸이'


〈사진 77〉 김병현 씨 소장 '사다리'

〈사진 75〉는 김녕리 이삼년 집에 보관되어 있는 '발걸이'이고, 〈사진 76〉은 송당리 김병현 씨 집에서 촬영한 '사다리'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 따위의 위에 올라간다.

(2) 지직

'지직'은 보릿짚이나 띠 등으로 엮은 깔개를 말한다. 표준어 '기직'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지직'은 깔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타작을 할 때 마당 둘레를 치거나 산모가 있는 방 앞에 가려 사람들이 함부로 산모가 있는 방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상이 났을 때도 송장이 밖으로 보일까봐 '지직'을 임시로 쳤다가 나중에 병풍을 쳐서 영정을 모시고 제상을 차렸다.

"마당에 지직 다 펴 놔서 ᄀᆞ스락이 어디 가지 못허게 그 지직을 다 쳐. 지직이란 거 빙허게 돌아가면서. 거 뭐인가 곡식ᄀᆞ튼 거 어디 튀지 못허게 경 다헹 도께로 태작허는 거. 맨땅에서. 멍석 안 꼴앙 헷주게. 지직은 것도 여라 가지로 만들주게. 지직이란 건 아까 억새 있지 안 허여? 그런 것도 비여다가 그 익은 거 비여다가도 만들고, 이 새로도 만들고, 조칩으로도 만들고 허엿주게. 초석 그런 식으로 뒈주게. 질게 짜민 막 질게도 짤 수 있고. 또 혼 댓 자씩 헤근에 영 부쪄근에 지직 영 칠 때는 경헐 수도 있고. 또 이제 옛날엔 산모가 있으면은 것도 바깟디 지직을 쳐낫주. 무시거 몸 비린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시

기 허카부덴. 난간 창문에 영 치고, 이제 상이 나도 지직을 영 임시 쳣다가 거 가져 두고 상 싱그고 경허는 거주. 창문 무뚱에. 거 몸 비린 사름 다니면은 산모가 막 거 등 올르주게. 거 우리가 저 미신이라고 허주만은이 옛날에는 여기 종기가 많이 나낫어.(마당에 기직 다 펴놓아서 까끄라기 어디 가지 못하게 그 기직을 다 쳐. 기직이란 거 뱅하게 돌아가면서. 거 뭐인가 곡식같은 거 어디 뛰지 못하게 그렇게 다해서 도리께로 타작하는 거. 맨 땅에서. 멍석 안 깔아서 했지. 기직은 그것도 여러 가지로 만들지. 기직이란 것은 아까 억새 있지 안 해? 그런 것도 베어다가 그 익은 거 베어다가도 만들고, 이 띠로도 만들고, 조짚으로도 만들고 했지. 초석 그런 식으로 되지. 길게 짜면 매우 길게도 짤 수 있고. 또 한 댓 자씩 해서 이렇게 붙여서 기직 이렇게 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옛날에 산모가 있으면 그것도 바깥에 기직을 쳤었지. 무슨 몸 비린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시기 할까봐. 난간 창문에 이렇게 치고, 이제 상이 나도 기직을 이렇게 임시 쳤다가 거 가져두고 상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창문 문앞에.)"[68]



〈사진 78〉 이삼년 씨의 '지직'



〈사진 79〉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지직 알받추기'

〈사진 78〉은 김녕리 이삼년 집에서 사용했던 '지직'으로, 이 씨는 이 '지직'을 마당의 깔개로 사용하였다.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살아 있었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제삿날에 마당에 지직을 펴 놓고 그 위에서 밥도 먹고 놀기도 했었다고 한다. '새'로 만들었는데, 가로 320cm×세로 125cm 크기로 되어 있다. 〈사진 79〉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지직'을 짤 때 받침대로 사용했던 도구인 '알받추기'다.

68) 오문봉 씨 구술.

(3) ᄉᆞ레비/쉠사리비/싸리비



〈사진 80〉 오문봉 씨의 'ᄉᆞ레비'



〈사진 81〉 홍태휴 씨의 '싸리비'



〈사진 82〉 오문봉 씨 마당에서 촬영한 'ᄉᆞ레비'

'ᄉᆞ레비'는 싸리로 만든 빗자루를 말한다. '싸리'를 'ᄉᆞ레' 또는 '쉠사리'라고 하였다. '빗자루'를 구좌 지역에서는 '비치락'이라고 하였다. 방을 쓰는 비는 '방비', 부엌을 쓰는 빗자루는 '정제비치락'이라고 한다. '정제비치락'은 주로 '쉠시리' 또는 'ᄉᆞ레비'라 불리는 싸리를 이용하였고, 방비는 '느렁이대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느렁대축'은 이삭이 길게 아래로 휘늘어지는 수수의 한 가지이고, '쉠시리'는 '싸리'의 일종이다.

"ᄉᆞ레비란 것은 주로 이 마당도 쓸고 뭐허고 청소헐 때 허는 거주게. ᄉᆞ레비가 왜 필요헷는고 허민 옛날에 마당에 눈이 많이 오면은 날렛군데 잇어이. 날렛군데로 눈을 이렇게 헤가지고 눈을 거 옮길 거 아니라이. 밑에는 눈이 잇거든. 걸 ᄉᆞ레비로 다 쓸어내고.('ᄉᆞ레비'라는 것은 주로 이 마당도 쓸고 뭐허고 청소할 때 하는 거지. 'ᄉᆞ레비'가 왜 필요했는가 하면 옛날에 마당에 눈이 많이 오면 고무래 있어. 고무래로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옮길 거 아니니. 밑에는 눈이 있거든. 걸 ᄉᆞ레비로 다 쓸어내고.)”[69]

〈사진 80〉은 한동리 오문봉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ᄉᆞ레비’이고 〈사진 81〉은 송당리 홍태휴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싸리비’이다. 〈사진 82〉는 오씨가 비를 만들기 위해 심어 놓은 ‘ᄉᆞ레비’다. 오씨는 집에서 ‘ᄉᆞ레비’를 키워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83〉과 〈사진 84〉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비치락’이다.


〈사진 83〉 홍영애 소장 ‘ᄉᆞ레비’


〈사진 84〉 홍영애 소장 ‘비치락’

(4) 방석(줄방석, 낭방석/남방석)

‘방석’은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를 말한다. ‘집줄’을 하다 남은 것으로 만든 방석을 ‘줄방석’이라고 하고, 나무를 네모나게 쪼개서 만든 것을 ‘낭방석/남방석’이라고 한다. ‘낭’은 나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부엌에서 주로 사용하다고 하여 ‘정젯방석’이라고 한다.

“그 앚는 거 저 방석. 옛날 집 일어나민 줄 잇잖아. 거 기찻다근에 그 놈을 벵벵벵벵 헤근에 그 방석을 멘들앗주. 겡헨 그것을 앚아신디 울 아부지 목쉬니까 나무로 방석을 다 만들아. 줄로 멘든 방석은 줄방석. 남으로 만든 건 남방석이엔 허고.(그 앉는 거 저 방석. 옛날 집 이어나면 줄 있잖아. 그것 잘라다가 그 놈을 뱅뱅뱅뱅 해서 그 방석을 만들었지. 그렇게 해서 그것에 앉았는데 우리 아버지 목수니까 나무로 방석을 다 만들어. 줄로 만든 방석은 ‘줄방석’, 나무로 만든 것은 ‘남방석’이라고 하고.)”[70]

69) 오문봉 씨 구술.
70) 김복남 씨 구술.



〈사진 85〉 홍영애 씨의 '줄방석'



〈사진 86〉 홍태휴 씨가 30년 전에 만든 '남방석'



〈사진 87〉 김복만 씨 친정어머니의 '남방석'



〈사진 88〉 김병현 씨의 '남방석'

〈사진 85〉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3년 전에 집을 이다 남은 줄을 이용해 만든 '줄방석'이고, 〈사진 86〉는 송당리 홍태휴 씨가 30년 전에 집을 지을 때 목수에게 부탁해서 만든 '남방석'이다. 〈사진 87〉은 김녕리 김복남 씨 친정아버지가 만든 '남방석'으로 친정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88〉은 송당리 김병현 씨 집에서 사용했던 '남방석'이다.

(5)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덩드렁'은 짚 따위를 납작하게 두들길 때 밑에 받치는 돌을 말한다. '덩드렁' 위에 짚 따위를 올려 넣고 두들기는 것을 '마께(방망이)'라고 한다. '마께'를 달리 '덩드렁마께'라고 한다.

〈사진 89〉는 한동리 김예임 씨 집 뒤에 놓여 있는 덩드렁이다. 시아버지가 직접 '멍


〈사진 89〉 김예임 씨의 '덩드렁'


〈사진 90〉 홍영애 씨의 '덩드렁'


〈사진 91〉 김병희 씨의 '손덩드렁'


〈사진 92〉 홍영애 씨의 '덩드렁마께'

석'이나 '멕(멱서리)' 등을 만들 때 '산듸찍(밭벼짚)'을 두들길 때 받침돌로 사용했던 '덩드렁'이다. 〈사진 90〉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하는 '덩드렁'이고, 〈사진 91〉은 세화리 김병희 씨가 사용했던 '손덩드렁'이다. '손덩드렁'은 '덩드렁'보다 작은 것으로, 소소하게 노끈을 꼴 때 사용하는 '미(억새 속껍질)' 등을 두들길 때 사용했다고 한다. 김씨는 '멕' 등을 짤 때 사용하는 '덩드렁'을 '손덩드렁'에 상대해서 '큰덩드렁'이라고 하였다.

"이건 그런 식으로 쓰단 거. 덩드렁은 저거보다 ᄒᆞ꼼 더 큰디 이건 손덩드렁이라고 그래서 조그만헌 거 헐 때 이거 쓰고. 옛날은 멩텡이 줄고 멍석 줄을 때 허는 돌은 크고. 큰덩드렁. 그건 큰 마께로 헤서 힘나는 대로 치는 거고, 요거는 방안에서도 독독독독허게. 뭐 깰 게 만허여. 옛날 살다보면 미 꼬젠 허민, 미라는 거 알지, 미? 어웍. 그거 헤서 헐 때는 큰덩드렁 안 헤도 뒈니까 방안에서 그거 헤야 이 노꼿 꼬는디 거칠지 안 헤영 좋주. 게난 손덩드렁으로 헤서 방안에서 주로 많이 쓰고.(이것은 그런 식으로 쓰던 거. '덩드렁'

은 저것보다 조금 더 큰데 이것은 '손덩드렁'이라고 그래서 조그만한 것 할 때 이것 쓰고. 옛날은 멱둥구미 겯고 멍석 결을 때 하는 돌은 크고. '큰덩드렁'. 그것은 큰 망치로 해서 힘나는 대로 치는 것이고, 요것은 방안에서도 독독독독하게. 뭐 깰 게 많아. 옛날 살다 보면 '미' 꼬려고 하면, '미'라고 하는 것 알지, 미? 억새. 그것 해서 할 때는 '큰덩드렁' 안 해도 되니까 방안에서 그것 해야 이 노끈 꼬는데 거칠지 안 해서 좋지. 그러니까 '손덩드렁'으로 해서 방안에서 주로 많이 쓰고".)[71]

〈사진 92〉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요즘도 사용하고 있는 '덩드렁마께'다. 이 '덩드렁마께'는 옷에 감물을 들이는 감을 빻을 때 사용하고 있어, '마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였다. 이 '마께'는 홍 씨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이다.

(6) 세숫대야와 바가쓰

'세숫대야'는 세수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바가쓰'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단 들통'으로 표준어 '양동이'에 대응한다. 일본어 '바케츠(バケツ)'에서 온 말이다. '세숫대야'가 나오기 전에는 '장탱이'를 이용하여 세수를 하였다.


〈사진 93〉 김윤생 소장 '세숫대야'


〈사진 94〉 이삼년 소장 '세숫대야'


〈사진 95〉 홍영애 소장 '아르미 바가쓰'

71) 김병희 씨 구술.

〈사진 93〉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숫대야'이고, 〈사진 95〉는 세화리 홍영애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르미 바가쓰'이다. '아르미 바가쓰'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대야를 말한다. 김씨는 이 '바가쓰'를 물을 나르거나 빨래를 삶을 때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94〉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하고 있는 '세숫대야'다.

(7) 요강

'요강'은 오줌을 누울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기나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다. 예전에 여자가 시집갈 때는 반드시 혼수품으로 요강을 장만해 갔다.

〈사진 96〉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하는 요강이고, 〈사진 97〉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50년 전에 구입한 요강으로, 다리가 좋지 않아 요즘도 가끔 사용하고 있다. 〈사진 98〉과 〈사진 99〉는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사기요강과 스테인리스 요강이다.


〈사진 96〉 홍영애 씨의 '요강'


〈사진 97〉 강순자 씨의 '요강'


〈사진 98〉 이삼년 씨의 '요강'


〈사진 99〉 이삼년 씨의 '요강'

(8) 부세와 부돌, 화곽

'부세'는 부싯돌을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쇳조각을 말한다. 표준어 '부시'에 대응하는 말이다. '부돌'은 '부세'를 쳐서 불을 일어나게 하는 돌로, '부싯돌'을 말한다. '화곽'은 성냥을 말하고, 살 하나하나를 가리켜서는 '화곽살' 또는 '곽살'이라고 한다.



〈사진 100〉 홍영애 씨의 '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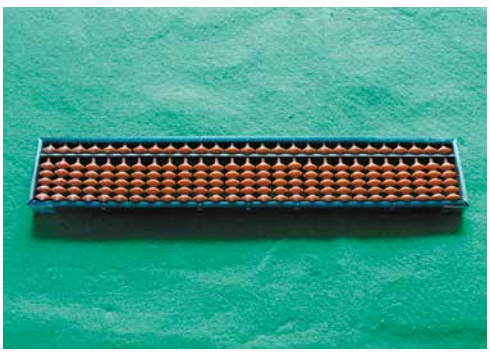
〈사진 101〉 홍영애 씨의 '화곽'

〈사진 100〉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부세'로, 홍 씨는 깨진 사기 조각 등을 쳐서 불을 피웠다고 한다. 〈사진 101〉은 홍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곽'이다.

(9) 주판

'주판'은 '셈을 놓는 데 쓰는 기구의 하나'다.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주판으로 셈을 했다.

〈사진 102〉는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주판'으로 고 씨의 남편과 아들이 사용했던 것이다. 최근의 주판이 알이 네 개인 것과는 다르게 아래알이 다섯 개로 되어 있다.



〈사진 102〉 고재인 소장 '주판'

(10) 솟

'솟'은 새끼줄을 말한다. 여기에서 '솟'은 금줄로 맸던 '새끼줄'을 의미한다. 〈사진

103〉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3년 전에 '조왕제'를 하면서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하여 집 앞에 맸던 '숫'을 보관해 둔 것이다. '숫'은 표준어 '새끼'의 방언형으로, 여기에서는 '금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진 103〉 이삼년 씨가 금줄로 사용했던 '숫'

(11) 자전거, 뽐뿌

〈사진 104〉의 '자전거'와 〈사진 105〉의 '뽐뿌'는 김녕리 이삼년 씨 남편이 사용했던 것이다. '뽐뿌(ポンプ)'는 펌프를 일본어 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사진 104〉 이삼년 소장 '자전거'와 '뽐뿌'


〈사진 105〉 이삼년 씨 소장 '뽐뿌'

Ⅱ 조사 내용

4. 농업 관련

농작물의 변화와 농기계의 발달은 제주의 농업 구조를 바꿔 놓았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의 농가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보리, 조, 콩, 고구마 등 곡식 위주의 농업이었다. 그러나 농업의 발달과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제주의 농촌에서는 특용 작물로 전환했고, 전통 방식의 농업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전통 방식의 농사 도구 등도 잊혀가는 유물이 되고 있다.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로 나눠 정리하였다.

4.1. 파종 관련

4.1.1. 밭갈이 도구

(1) 잠대와 멍에

'잠대'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밭은 소의 어깨에 짊어진 멍에와 연결된 '잠대'를 운용하여 갈게 된다. '잠대'는 표준어 '쟁기'에 대응하는 어휘로, 구좌 지역에서는 '잠대, 장기, 잠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잠대'는 양주머리, 설칫, 돌벵이뿔, 성에, 몽클, 벳칼, 설칫세역, 벳받이, 보



〈사진 1〉 이삼년 씨의 '잠대'



〈사진 2〉 손성추 씨 소장 '잠대'.
이 마을 강영실 씨가 밭갈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 3〉 김양근 씨 소장 '잠대'



〈사진 4〉 김병희 씨 소장 '경운기 잠대'

섭, 벳 등으로 이루어졌다. 밭을 갈 때 소의 머리에 씌어진 긴 고삐는 '가린석'이라고 하는데, 밭을 갈 때 이 '가린석'을 이용하여 소를 부린다.

〈사진 1〉은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잠대'로, 천장 선반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사진 2〉는 하도리 손성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잠대'로, 쟁기 위쪽의 '성에'와 '보섭'과 '벳' 등이 없는 모습이다. 〈사진 3〉은 한동리 김양근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잠대'로, '보섭'과 '벳'이 끼어 있지 않다. 〈사진 4〉는 세화리 김병희 씨 집에 보관해 있는 '경운기잠대'로, 경운기에 연결해 밭을 갈 때 이용했던 것이다. 이 '경운기 잠대'는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이용했다고 한다.

"저건 경운기잠대. 저건 뭐 근간에 나서 칠십 년대에 유행헤시난. 칠십 년대부터 지금꺼지 써십주게. 금년부터 내 농ᄉᆞ 안 헤버리니까 저것도 이젠 고물뒘수다. 뭐 일개 부락 안에서 잘허민 혼 사름쯤 장난헤 뎅기나마나. 나는 작년까지도 썻는디.(저것은 경운기쟁기. 저것은 뭐 근간에 나와서 칠십 년대에 유행했으니까. 칠십 년대부터 지금까지 썼습지요. 금년부터 내가 농사를 안 해버리니까 저것도 이제는 고물되고 있습니다. 뭐 한 개 마을 안에서 잘하면 한 사람쯤 장만해 다니나마나. 나는 작년까지도 썼는데.)"[72]

밭은 주로 소 한 마리를 이용해서 가는데, 소 두 마리가 앞뒤로 이끌면서 갈기도 한다.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가는 밭을 '저리왓'이라고 한다. '저리'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한다. 표준어 '겨리'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잠대'를 만드는 것을 '잠대 서끈다'라고 한다.

"암쉐 두 마리 멘 것을 저리 메여서 간다고 헤서 저리왓. 쎈밧 갈 때, 밧 이길 때 저리 메왕 밧 갈아. 저리 멜 때 앞뒤로 메우는 데 앞의 쉐는 익숙은 쉐, 잠대는 뒤의 새쉐에 연결허주게. 밧을 갈 때는 괜찮지만 에염에 갈 땐 새쉐가 빠져 나가젠 헹 갈기 힘들어.(암소 두 마리 맨 것을 겨리 매어서 간다고 해서 '겨리밭'. 센밭[73] 갈 때, 밭 일굴 때 겨리 매워서 밭 갈아. 겨리 맬 때 앞뒤로 매는데 앞의 소는 익숙한 소, 잠대는 뒤의 '새쉐'[74]에 연결하지. 밭을 갈 때는 괜찮지만 가장자리 갈 때는 '새쉐'가 빠져나가려고 해서 갈기 힘들어."[75]

'멍에'는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 소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멍에'는 '쉐멍에', 말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멍에'는 '말멍에'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소나 말의 목에 걸치는 막대를 '접게'라고 한다.

"밧 갈젠 허믄 쟁기가 필요허주. 쟁기 쉐 갈젠 허민 쉐멍에. 그 쟁기 또 이제 가린석. 거 쉐 이레 갓당 저레 갓당 허는 거 양쪽에 있는 거. 멍에 메와근에 그걸 땡기는 거 한줄 필요허고. 그 한줄 뒤에 쟁기에 메우는 거 오리목. 쟁기에 이렇게 헤영 멍에에 영 돌아진

72) 김병희 씨 구술.
73) '쎈밧'은 한번도 일구어보지 않는 밭을 말한다.
74) '새쉐'는 길들이지 않는 소를 말한다.
75) 김석봉(송당리) 씨 구술.

것이 오리목이라.(밭 갈려고 하면 쟁기가 필요하지. 쟁기 소 갈려고 하면 '소멍에'. 그 쟁기 또 이제 '가린석'. 거 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거 양쪽에 있는 거. 멍에 메워서 그것을 당기는 거 '한줄' 필요하고. 그 '한줄' 뒤에 쟁기에 메우는 거 '오리목'. '쟁기'에 이렇게 해서 멍에에 이렇게 매달린 것이 '오리목'이야.)"[76]



〈사진 5〉 이삼년 씨 소장 '멍에'



〈사진 6〉 홍영애 씨 소장 '멍에'

〈사진 5〉는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멍에'이고 〈사진 6〉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했던 '멍에'다. 심방이었던 홍영애 씨가 '병굿'을 할 때 방법으로 환자의 목에 걸고 사용했던 것이다. 이 '멍에'는 '쉐멍에'를 환자 목에 걸고 굿을 하는 이유는 소처럼 굳세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저거이 옛날이 목걸이. 옛날엔 이거 굿헤난이. 아판 노래영 헌 사름 이것 가근에 머리맛 데가리 탁 씌왕 굿허난 벵 딱 떨어져난 거 아니가? 거 방법으로 구신 돌아나렌. 쉐멍에라부난 쉐거치 살라, 쉐거치 무정허게 잘 뒈라. 겐 그 쉐멍엘 이레 씌우멍. 새풀이헐 때 그렇지.(저거 옛날에 목걸이. 옛날에는 이것 굿했었어. 아파서 놀래서 한 사람 이것 가서 머리맡 대가리에 딱 씌워서 굿하니까 병 딱 떨어졌던 거 아니니? 거 방법으로 귀신 달아나라고. 소멍에니까 소같이 살아라, 소같이 무정하게 잘 되어라. 그래서 그 소멍에

76) 오문봉 씨 구술.

를 이리로 씌우면서. 새풀이[77]할 때 그렇지.)"[78]

(2) 보섭과 벳

'보섭'은 표준어 '보습', '벳'은 '볏'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보섭'은 밭갈이할 때 '잠대' 끝에 끼워 사용하고, '벳'은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으로, '보섭'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보섭'과 '벳'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 주로 만들었는데, 대정 지역 사람들이 직접 구좌 지역까지 '보섭'과 '벳'을 팔러 다녔다고 한다.

"벳이고 보섭이고. 다 무쉐로 멘든 건디 이 동네 엇어. 이딘 없어가지고 주로 대정서 이디 많이 만들엉 왕 풀주. 잠대는 이 동네에서 멘드는 사람도 잇엇주만은이. 쟁기 만드는 걸 쟁기 서끈덴 허주. 쟁기 서끄는 거. 게난 주로 우리 듣기론이 안덕면 덕수리가이 큰 저기. 대정에서 많이 이디 오랑 풀앗주. 잠대는이 목시베끼 못 멘들아."[79]

"옛날은 쉐로 밧을 갈앗지. 쟁기로. 쟁기 보섭 끗뎅이 좁작헌 건 보섭. 또 그 다음 건 벳. 이디 나무 헌 거 멍에. 또 그 줄 이만이허는 것ᄀᆞ란 한줄. 멍에 줄 헤여근에 쟁기더레 허는 거.(옛날은 소로 밭을 갈았지. 쟁기로. 쟁기 보습 끝에 뾰족한 거 보습. 또 그 다음 것은 볏. 여기 나무 하는 거 멍에. 또 그 줄 이만큼한 것보고는 '한줄', 멍에 줄 해서 쟁기로 하는 거.)"[80]

〈사진 7〉은 송당리 홍태휴 씨가 사용했던 '벳'과 '보섭'이다. 이 '벳'은 홍씨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것으로 3대가 사용했던 것이고, '보섭'은 홍씨가 직접 구입해서 썼던 것이다. 〈사진 8〉은 김녕리 이삼년 씨, 〈사진 9〉는 한동리 강순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벳'이다. 〈사진 10〉은 한동리 김양근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골벳'이다. '골벳'은 이랑에 흙을 올려주기 위해서 밭고랑의 흙을 양쪽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벳'을 말한다.

77) '새풀이'는 사(邪)를 풀어내는 굿을 말한다.
78) 홍영애(세화리) 씨 구술.
79) 오문봉 씨 구술.
80) 김복만 씨 구술.



〈사진 7〉 홍태휴 씨 소장 '보섭'과 '벳'



〈사진 8〉 이삼년 씨 소장 '벳' (앞면)



〈사진 9〉 강순자 씨 소장 '벳' (뒷면)



〈사진 10〉 김양근 소장 '골벳'



〈사진 11〉 송당리복지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모형 잠대'(정상리 작)

〈사진 11〉은 송당리 정상리 씨(작고)가 만든 '잠대 모형'이다.

- **양주머리**
  쟁기의 손잡이를 말한다. 표준어 '양지머리'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양주머리'는 어떤 나무라도 이용할 수 있다.
-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를 말한다. 곧은 나무여야 하는데, 성에의 재료는 '가시낭(가시나무)'이 좋다.
- **몽클**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하게 뻗어나간 나무. 표준어 '쟁깃술'에 대응하는 말로, 굽은 나무를 이용한다.
- **설칫세역**
  쟁기 성에에 꿰어진 한마루에 찌르는 나뭇조각을 말한다.
- **설칫**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긴 나무. 표준어 '한마루'에 대응하는 말이다.
- **돌벵이뿔**
  마소의 어깨에 짊어진 멍에와 쟁기에 연결하는 봇줄을 매기 위하여 성에 끝에 박은 비녀 모양의 나무를 말한다. 쟁기와 마소를 연결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여야 한다.
- **벳**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 보습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 **벳칼**
  쟁기의 볏에 연결해 있는 나뭇조각. 볏에 붙은 흙을 긁어내는 역할을 한다.
- **벳받이**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 ㄱ자 모양의 나무를 이용한다.
- **보섭**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구다. 쇠로 만드는데, 쟁기의 끝에 끼워 사용한다.

4.1.2. 땅 파는 도구

(1) 갈레죽/낭갈레죽/삽

'갈레죽'은 '삽'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나무로 만든 것을 일컬을 때는 '낭갈레죽'이라고 한다. '낭'은 나무, '갈레죽'은 '가래'를 의미하는데, 구좌 지역에서는 '삽'의 의미로 쓰인다. '갈레죽'은 밭의 흙을 파거나 흙이나 모래 따위를 용기에 담을 때 사용하였다.

〈사진 12〉는 송당리 김병현 씨가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갈레죽'이고, 〈사진 13〉은 고재인 씨가 사용했던 '갈레죽'이다.



〈사진 12〉 김병현 씨 소장 '갈레죽'



〈사진 13〉 고재인 씨 소장 '갈레죽'

(2) 궹이

'궹이'는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괭이'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궹이'는 밭을 새로 일구거나 땅을 팔 때, 그리고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도



〈사진 14〉 김윤생 씨 소장 '궹이'



〈사진 15〉 고재인 씨 소장 '궹이'

구다. 송당리 김석봉 씨는 띠밭을 일굴 때 쟁기로 밭을 일군 후에 괭이로 흙을 골랐다고 한다.

〈사진 14〉는 세화리 김윤생 씨가 사용했던 '궹이'다. 〈사진 15〉는 한동리 고재인 씨, 〈사진 16〉은 한동리 박창식 씨가 사용했던 '궹이'인데, 사진 위의 것은 땅을 팔 때 사용하는 '궹이'이고, 아래의 것은 땅을 고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진 16〉 박창식 씨 소장 '궹이'

(3) 못궹이

'못궹이'는 쇠로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


〈사진 17〉 고재인 씨 소장 '못궹이'


〈사진 19〉 김양근 씨 소장 '못궹이'


〈사진 18〉 이삼년 씨 소장 '못궹이'


〈사진 20〉 김병현 씨 소장 '못궹이'


〈사진 21〉 김석봉 씨 소장 '못궹이'

를 박은 괭이를 말한다. 단단한 땅을 파거나 땅 속에 묻혀 있는 돌을 파낼 때 사용한다. 표준어 '곡괭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사진 17〉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했던 '못궹이'이고, 〈사진 18〉은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서 사용했던 '못궹이'로 자루가 없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사진 19〉는 한동리 김양근 씨 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이고, 〈사진 20〉은 송당리 김병현 씨, 〈사진 21〉은 송당리 김석봉 씨가 나무나 돌을 팔 때 사용했던 '못궹이'다.

(4) 따비

'따비'는 단단한 땅을 파거나 일굴 때 사용하는 도구다. 보습이 양 갈래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직접 손과 발을 이용하여 판다. 화전을 일구거나 쟁기로 갈 수 없는 밭이나 돌이 많은 밭을 일굴 때, 밭을 개간할 때 썼던 원시적인 도구다.


〈사진 22〉 송당리복지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모형 따비'

"새왓 이길 때 밧갈쉐 이신 사름은 밧갈쉐로 갈고 궹이로 두드령 ᄆᆞ물이나 조, 피를 갈앗주게. 따비로는 쉐로 갈지 못허는 디 사름 힘으로만 일구엉 씨를 삐여. 따비왓이라고.(띠밭 일굴 때 황소 있는 사람은 황소로 갈고 괭이로 두들겨서 메밀이나 조, 피를 갈았지. 따

비로는 소로 갈지 못하는 데 사람 힘으로만 일구어서 씨를 뿌려. '따비밭'이라고.)"[81]

〈사진 22〉는 송당리복지회관에 전시 중인 '따비'이다. 하나의 긴 자루에 날이 양쪽으로 박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5) 지렛대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에 쓰는 막대기.'를 말한다. 밭에 묻혀 있는 돌을 일으킬 때 사용하던 도구이다.

〈사진 23〉은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서 밭의 돌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지렛대'다.



〈사진 23〉 고재인 씨 소장 '지렛대'

(6) 쉐스렁, 호크/호꼬

'쉐스렁'은 '쇠스랑'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쉐스렁'은 거름을 내거나 땅을 파거나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보통 갈퀴가 세 개로 되어 있으나 용도에 따라서 두 개 또는 여러 개로 되어 있다.



〈사진 24〉 고춘자 씨 소장 '쉐스렁'과 '두발쉐스렁'



〈사진 25〉 김병희 씨 소장 '쉐스렁'

81) 김석봉 씨 구술.



〈사진 26〉 박창식 씨 소장 '쉐스렁'



〈사진 27〉 고재인 씨 소장 '쉐스렁'

〈사진 24〉는 김녕리 고춘자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쉐스렁'이다. 위쪽의 발이 두 개 달려 있는 것은 '두발쉐스렁'이라 불렀다. 〈사진 25〉는 세화리 김병희 씨가 사용하던 '쉐스렁'이고, 〈사진 26〉은 한동리 박창식 씨 집에서 사용하는 '쉐스렁'이다. 〈사진 27〉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했던 '쉐스렁'이다. 고씨는 이 '쉐스렁'으로 쟁기로 갈지 못하는 밭을 찍어 일궈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쉐스렁'은 또 거름 낼 때도 사용하였다. '쉐스렁'의 자루는 '돔박낭(동백나무)'으로 만들었다.



〈사진 28〉 김병희 씨 소장 '현대식 쉐스렁'



〈사진 29〉 고재인 씨 소장 '현대식 쉐스렁'

〈사진 28〉에서 〈사진 30〉까지는 흙은 고를 때 사용하는 '쉐스렁'으로, 최근에 나온 '현대식 쉐스렁'이다. 예전에 사용했던 '쉐스렁'과 모양이 다르다. 〈사진 28〉은 세화리 김병희 씨, 〈사진 29〉는 한동리 고재인 씨, 〈사진 30〉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1〉에서 〈사진 33〉은 앉아서 손으로 땅을 팔 때 사용하는 '쉐


〈사진 30〉 김윤생 씨 소장 '현대식 쉐스렁'


〈사진 31〉 고재인 씨 소장 '땅파는쉐스렁'


〈사진 32〉 김병현 씨 소장 '손쉐시렁'


〈사진 33〉 김윤생 씨 소장 '손쉐시렁'

스렁'이다. 〈사진 31〉은 고재인 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고씨는 '땅파는쉐스렁'이라고 하였다. 〈사진 32〉는 송당리 김병현 씨가 보관하는 것이고, 〈사진 33〉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김 씨는 이를 '손쉐스렁'이라 하였다.

'호크/호꼬'는 영어 '포크(fork)'를 차용한 일본어(フォーク)식 발음으로 농기구 이름으로 정착한 경우다. 모양이 포크 모양이어서 '호크'라고 하는데, 거름을 내거나 거름 따위를 밭에 흩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34〉 박창식 씨 소장 '호크'

"이건 호꼬. 저 콩 헐 때민 영영 내치는 거. 남뎅이 내치는 거. 콩 태작허민



〈사진 35〉 김병희 씨 소장 '호크'



〈사진 36〉 김석봉 씨소장 '호크'

콩꼬질 영 내치는 거. 도새기걸름도 허민 내치고 쉐걸름도 내민 내치곡. 혼 십년 뒛주.(이것은 포크. 저 콩을 할 때면 이렇게 이렇게 내치는 것. 나무 내치는 것. 콩 타작하면 콩깍지 이렇게 내치는 거. 돼지거름도 하면 내치고 소거름도 하면 내치고. 한 십년 됐지.)"[82]

〈사진 34〉는 한동리 박창식 씨가 사용하던 '호크'인데, 박씨는 '호크'를 거름을 흩거나 콩이나 메밀 타작 후 짚을 밖으로 내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5〉는 세화리 김병희 씨, 〈사진 36〉은 송당리 김석봉 씨가 사용했던 '호크'이다.

4.1.3. 기타 농기구

(1) 곰베

'곰베'는 밭을 갈 때 나오는 흙덩어리를 부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곰방메'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조를 갈기 위해서 밭을 갈 때 나온 흙덩어리를 부술 때 '곰베'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7〉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흙덩어리를 부술 때 사용했던 '곰베'로, 평생을 썼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38〉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곰베'이다. 전체 길이가 95cm인데, 방망이 길이 21cm, 폭 6cm, 높이 6cm 크기로, 방망이 뒷부분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

82) 박창식(한동리) 씨 구술.


〈사진 37〉 고재인 씨 소장 '곰베'


〈사진 38〉 강순자 씨 소장 '곰베'

(2) 글겡이

'글겡이'는 솔잎 등을 긁어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밭의 자갈을 긁어모을 때도 사용하였다. '쐐(쇠)'로 만든 것은 '쐐글겡이', '왕대'로 만든 것은 '대글겡이'라고 한다. 표준어로는 '갈퀴'라고 한다.

"솔입 걷으는 건 그 솔입 걷으는 글겡이 잇잖아. 글겡이 강 그 소낭밧디 가근에 막 긁어모아.(솔가리 걷는 것은 그 솔잎 걷는 갈퀴 있잖아. 갈퀴 가서 그 소나무밭에 가서 막 긁어모아.)"[83]

〈사진 39〉는 한동리 박창식 씨가 사용했던 '글겡이'이고, 〈사진 40〉은 세화리 김윤


〈사진 39〉 박창식 씨 소장 '글겡이'


〈사진 40〉 김윤생 씨 소장 '글겡이'

83) 김복만 씨 구술.

생 씨 집에 보관해 있는 '글겡이'다. 김씨는 "글겡이는 예전에 솔잎 걷을 때 사용했지만, 요즘은 벌초할 때 풀을 걷어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씨멩텡이/씨망텡이

'씨멩텡이'는 '씨+멩텡이' 구성으로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멱둥구미다. '씨멩텡이'는 씨를 뿌릴 때 어깨에 메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멩텡이' 양쪽에 끈을 달았다. '멩텡이'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멱둥구미'다.

한동리 오문봉 씨는 '씨멩텡이'는 주로 '산듸찍(밭벼짚)'과 억새의 속껍질인 '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주로 '좁씨(조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데 씨 뿌리는 것을 제주에서는 '씨 삐다'라고 한다.

"씨멩텡이라고 씨 삐는 멩텡이가 만들앙 잇주. 거는 저 산듸찍으로 놀은 그 밋놀로 헤근에. 미가 저 미삐쟁이라고 있지 안 허냐? 억새 그걸 꽃 피기 전에 부룩이 영 사민 그걸 빠 가지고. 그걸 빠다가 집이서 물류와 가지고서, 물류민 그 꼿을 빠불 거 아니라. 물류민 그거 팍 퍼지민 그걸 빠 불민 그걸로 이제 놧다가 노 꽈서 신도 삼고, 쉐얏배도 허고, 물 지는 허벅 베도 허고, 다 그렇게 헷주.(씨 멱둥구미라고 씨 뿌리는 멱둥구미가 만들어서 있지. 그것은 저 밭볏짚으로 날은 그 '밑날'로 해서. '미'가 저 억새꽃이라고 있지 않으냐? 억새 그것을 꽃 피기 전에 배동이 이렇게 서면 그것을 뽑아 가지고. 그것을 뽑아다가 집에서 말려 가지고서, 말리면 그 꽃을 뽑아버릴 것 아닌가. 말리면 그것 팍 퍼지면 그것을 뽑아 버리면 그것으로 이제 놔두었다가 노 꼬아서 신도 삼고, 참바도 하고, 물 긷는 물동이 바도 하고, 다 그렇게 했지.)"[84]

'씨망텡이'는 달리 어깨에 메고 사용한다고 해서 '멜망텡이'라고도 한다.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바구니는 '씨바구리'이다.

(4) 씨부게, 씨허벅

'씨부게'는 씨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짚으로 만든 도구다. 밭볏짚이나 볏짚으로 허벅

84) 오문봉 씨 구술.

모양으로 작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씨허벅'은 씨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허벅을 말한다.

(5) 남테와 끄슬퀴

'남테'는 조나 밭벼를 갈 때 씨앗을 묻고 밭을 다져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예전에 조나 밭벼를 갈 때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소나 말을 이용하여 씨앗을 덮고 단단히 밟아 주었다. 이를 제주에서는 '밧 볼리다(밭 밟다)'라고 한다. 밭을 밟을 때는 주로 소나 말을 이용하는데, 마소가 없거나 빌리지 못하면 '남테'나 '끄슬퀴'를 이용하여 밭을 밟았다. '남테'는 '씨 뿌린 땅을 다지는 데 쓰는 농기구'로, 둥근 통나무에 반 뼘 길이의 나무토막들을 둘러 박아 만든다. '남테' 양쪽에 줄을 매달아 사람의 어깨 힘을 이용하여 질질 끌어가면 씨가 묻히고 밭이 단단하게 된다. '끄슬퀴'는 소나무나 쥐똥나무 등을 겹쳐 놓아 부챗살 모양으로 만든 도구다. 그 위에 돌을 얹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표준어 '끙게'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4.2.1. 골겡이와 호미류

(1) 골겡이/골게

'골겡이/골게'는 김을 매거나 고구마 따위를 수확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호



〈사진 41〉 강순자 씨가 사용하는 '골겡이'



〈사진 42〉 고재인 씨의 '골겡이'와 '호멩이골겡이(아래)'


〈사진 43〉 김윤생 씨가 사용하는 '골겡이'


〈사진 44〉 김병현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섭골겡이'


〈사진 45〉 이삼년 씨의 '골겡이'와 '호미'

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호미도 쓰임에 따서 잎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랐다.

〈사진 41〉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김맬 때 사용했던 '골겡이'이고, 〈사진 42〉는 고재인 씨가 사용하는 '골겡이'이다. 모양과 용도에 따라 '호멩이골겡이', '땅파는골겡이', '돌멩이파는호멩이'로 구분하고 있다. 〈사진 42〉의 아래쪽 잎이 넓적한 호미가 '호멩이골겡이'다. 〈사진 43〉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농사지을 때 사용했던 '골겡이'이고, 〈사진 44〉는 송당리 김병현 씨 소장 '섭골겡이'이다. 〈사진 45〉는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 중인 '골겡이'와 '호미'다.

(2) 호미, 비호미, 좁호미

'호미'는 낫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보리나 꼴 등을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바다에서 미역 등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중게호미'에 빗대어서 밭에서 보리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낫을 '비호미'라고 하였다. '비호미'를 송당리에서는 '좁호미'라고 하였다.

"중게호미는 덩체기가 ᄒᆞ꼼 부풀어이. 거 바당에서 미끌락허지 말렌 경헌 셍이라. 비



〈사진 46〉 임기추의 '비호미'와 '중게호미'(위). 날 모양이 조금 다르다.



〈사진 47〉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호미'

호미엔 허는 거, 밧듸서 쓰는 건 그자 이제 호미나 마찬가지. 그런 걸로 쓰고 경헤낫주.('중게호미'는 둥치가 조금 부풀어. 그것 바다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한 모양이야. '비호미'라고 하는 것은, 밭에서 쓰는 것은 그저 이제 낫이나 마찬가지. 그런 걸로 쓰고 그렇게 했었지.)"[85]

〈사진 46〉은 김녕리 임기추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호미'다. 〈사진 47〉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호미'이다. 〈사진 47〉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했던 '호미류'이고, 〈사진 49〉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호미'를 보관하고 있는 '호미 가방'이다.



〈사진 48〉 고재인 씨가 사용했던 '호미'



〈사진 49〉 이삼년 씨의 '호미'와 '가방'

85) 이삼년 씨 구술.

4.2.2. 타작 도구

(1) 도께

'도께'는 콩이나 조 등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도리깨'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도께'는 '도께어시'와 '도께아덜', '도께ᄐᆞᆯ레'로 구성되어 있다. '도께어시'는 표준어 '도리깨채'에 해당하는데,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를 말한다. '도께아덜'은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말한다. 표준어 '도리깻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ᄐᆞᆯ레'는 '도리깨꼭지'를 말한다.

"조를 고고리를 톹아서 멜망텡이에 담으멍 져와. 기계로 두드리고, 그 이전에는 마당에서 도께로 두드려.(조를 이삭을 따서 '멜망텡이'에 담으면서 져와. 탈곡기로 두들기고. 그 이전에는 마당에서 도리깨로 두들겨.)"[86]

'도께'로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두드린다'라고 하고, 타작하는 일을 '마당질'이라고도 하였다.



〈사진 50〉 김윤생 소장 '도께'



〈사진 51〉 이삼년 소장 '도께'

〈사진 50〉은 세화리 김윤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도께'로, '도께아덜'이라고 불리는 '도리깻열'을 고정시키기 위해 끈으로 묶어 놓았다. 〈사진 51〉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하던 '도께'이다.

86) 이삼년 씨 구술.

(2) 홀테/보리클


〈사진 52〉 허정순 씨 소장 '보리클'

'홀테'는 보리나 밭벼 등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제보자에 따라 '보리클' 또는 '산듸클'이라고도 한다. '보리클'은 보리를 타작할 때 쓰는 도구이고, '산듸클'은 밭벼를 타작할 때 사용하는 기구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보리와 밀 등을 베어서 '홀테'로 훑어서 수확했다고 했다. 한동리 허정순 씨는 보리는 '보리클'로 훑어서 장만했다고 한다. 〈사진 52〉는 한동리 허정순 씨가 사용했던 '보리클'로, 나무 부분에 좀이 많이 슬어 있다.

"보리클 이거 판찍헤넨이 아까완 나뒀주게. 이거 나 마흔에. 그 전이는 저 헌 걸로 써나고 이거 마흔에 산에 보릴 목차게 가난, 우리 그 보리 다 헤난 후젠 태작기 썬. 홀타 놔사 태작을 해줜. 겡 헨 그 보리 그디서 다 이젠 날르멍덜 다 홀탄 들이난 열일곱 섬이라라. 열일곱 섬 알아지크냐? 혼 섬이 열닷 말. 경헨 이 창고에 수박이 비완 동세, 그때 시아주방 시껑온 거난 혼 섬 줘불고 그거 우리 두어 해 먹엉. 그 후젠 보릴 안 갈아서. 보리클 쓸 때, 그 보리 헤난 후젠 다른 사름들토 이제 태작기계로 허고, 허단에 멧 해 안 헨 보리 설러벳주게. 이 당근을 나오라가난. 새로 장만헹 그 보리만 홀타봣주. 게난 아까우난에 그냥 놔둔 거.(그네 이거 깨끗해서 아까워서 놔뒀지. 이거 나 마흔에. 그 전에는 저 헌 것으로 썼었고. 이거 마흔에 사서 보리를 많이 가니까, 우리 그 보리 다 한 후에 탈곡기 썼어. 훑어 놔야 타작을 해줬어. 그렇게 해서 그 보리 거기서 다 이제는 나르면서 다 훑어서 들이니까 열일곱 섬이더라. 열일곱 섬 알겠니? 한 섬이 열닷 말. 그렇게 해서 이 창고에 가득 비워서 동서, 그때 시아주버니 실어온 것이니까 한 섬 줘버리고 그거 우리 두어 해 먹었어. 그 후에는 보리를 안 갈았어. 그네 쓸 때, 그 보리 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탈곡기로 하고, 하다가 몇 해 안 해서 보리 그만둬버렸지. 이 당근이 나와가니까. 새로 장만해서 그 보리만 훑어봤지.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뇌둔 거.)"[87]

87) 허정순 씨 구술.

(3) 태작기, 작데기

'태작기'는 보리나 밭벼, 조, 콩 등을 장만할 때 사용하는 기계이다. '태작기'는 주로 경운기의 엔진을 이용하여 탈곡하는데, 제보자들은 '태작기' 외에도 '기계'라고 하였다. 표준어 '탈곡기'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호미로 조 비영 혼 이틀 몰르민 이젠 고고리 톤아. 고고리 톤앙 모두아근에 옛날은 도께로 두드렷주. 아주 옛날은 도께로 두드련에 그걸 장만헤신디 그거 우리 세대 나난 기계로 헷잖아. 우리 두린 때 한 열 살, 열다섯 살까지는 도께로 헷저, 마당질.(낫으로 조 베어서 한 이틀 마르면 이제는 이삭 따. 이삭 따서 모아서 옛날은 도리께로 두들겼지. 아주 옛날은 도리깨로 두들겨서 그것을 장만했는데 그거 우리 세대 나난 기계로 했잖아. 우리 어릴 때 한 열 살, 열다섯 살까지는 도리깨로 했지, 마당질.)"[88]

〈사진 53〉은 한동리 허기생 씨 집에 보관 중인 '태작기'로, 허 씨 남편이 사용하던 것이다. '태작기'가 나오면서 '보리클'은 자취를 감추었다. '태작기'로는 보리는 물론이고, 밭벼, 콩, 메밀 따위를 빠른 시간 안에 장만할 수 있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사진 53〉 허기생 씨 소장 '태작기'



〈사진 54〉 홍태휴 씨의 '작데기'

88) 김복남 씨 구술.

"태작기 저거 아방 산 때 헤시난 혼 육십년 뒈실 거여. 보리클 앗아부난 태작기 나와신디. 보리 헐 때영, 두드리는 건 다 헷주. 콩도 두들고 산디도 두들고.(탈곡기 저거 남편 살 때 했으니까 한 육십년 됐을 거야. 그네 가져버리니싸 탈곡기 나왔으니까. 보리 할 때랑, 두들기는 것은 다 했지.)"[89]

〈사진 54〉의 '작데기'는 송당리 홍태휴 씨가 3년 전에 콩 타작하면서 만들어 썼던 도구로, 콩 타작할 때 나오는 콩깍지를 탈곡기에서 꺼내 치울 때 사용했다.

(4) 마께

'마께'는 방망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조나 팥 등의 곡식알을 떨어낼 때 사용한다. 이 '마께'는 '덩드렁'과 함께 짚 등을 두들길 때 사용하여 '덩드렁마께'라고도 한다. 〈사진 55〉은 한동리 김양근 씨 집에서 사용했던 '덩드렁마께'다. 조 이삭을 두들겨서 낱알을 떨어낼 때 사용하였다. 오래 되어 부분 부분 좀이 슬어 구멍이 나 있다.


〈사진 55〉 김양근 씨 소장 '덩드렁마께'

4.3. 건조와 손질 관련

4.3.1. 건조 도구

(1) 멍석/날레멍석

'멍석'은 곡식을 널어 말릴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주로 볏짚이나 밭볏짚으로 결어

89) 허기생(한동리) 씨 구술.

만들었다. 멍석에 말리는 곡식을 '날레'라고 하는데, '날레를 널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해서 '날레멍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김녕리 김복만 씨는 "농사를 지을 때 '멍석'을 여섯 개까지 써봤고, 멍석 하나에는 보리 다섯 말 정도를 널 수 있다."고 하였다.

"멍석. 혼 여섯 개꺼정 헤봣어. 멍석 하나에는 보리 혼 다섯 말 정돈 널지. 거 산디찍으로 다 헤.(멍석 한 여섯 개까지 해봤어. 멍석 하나에는 보리 한 다섯 말 정도는 널지. 거 밭볏짚으로 다 해.)"[90]

송당리 홍태휴 씨는 "최근까지도 멍석을 이용해 곡식을 말렸다."면서 "지금까지 수확한 곡식을 널 때 '가빠'[91]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씨의 창고 한쪽 켠에는 홍 씨가 사용하였던 '멍석'이 가지런히 세워 있었다. 이 '멍석'들은 4·3사건 이후인 1950년대에 결은 것이다.

〈사진 56〉은 김녕리 고춘자 씨 집 헛간에 보관되어 있는 '멍석'인데, '멍석' 양쪽에 끈을 달아 공중에 매달았다. 이는 습기를 머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진 57〉은



〈사진 56〉 고춘자 씨 소장 '멍석'



〈사진 57〉 홍태휴 씨 소장 '멍석'

90) 김복남 씨 구술.

91) 일본어 'かっぱ'로 '비를 막기 위해서 짐 따위에 씌우는 기름 먹인 종이나 천'을 말한다. 포르투갈어 'capa'에서 온 말이다.



〈사진 58〉 홍영애 씨 소장 '멍석'



〈사진 59〉 김예임 씨 소장 '멍석'

홍태휴 씨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멍석'이고 〈사진 58〉은 세화리 홍영애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멍석'이다. 〈사진 59〉는 한동리 김예임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멍석'인데 이들 '멍석'은 말아서 세워 놓고 있는 게 특이하다.

(2) 날렛군데, 군데

'날렛군데'는 곡식을 긁어모으거나 펴는 데 쓰는 丁자형의 도구인데, 한쪽 끝을 톱니처럼 만들어 곡식을 펴는 데 좋게 하였다. 표준어 '고무래'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날레군데'를 '군데'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군데'는 방에 불을 때는 아궁이인 '굴묵'을 땔 때도 사용한다. 곡식을 널 때 사용하는 '군데'가 '날렛군데'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불을 땔 때 사용하는 '군데'는 '굴묵군데'라고 한다. '굴묵군데'는 땔감을 집어넣거나 재를 꺼낼 때 사용했던 도구다. 표준어로는 '고무래'라고 하는데, '날렛군데'와 '굴묵군데'는 쓰임에 따라 도구 명칭이 분화된 경우이다. '날렛군데'가 널판 한쪽에 톱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서서 사용하는 만큼 크고 긴 반면 '굴묵군데'는 톱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앉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작고 짧다.

"이것도 오래 뒛저. 저건 날레 젓는, 곡석 젓는 군데. 물린 건 아니고 그 전이 하난 신거 꺼꺼먹엉 멘들엇주. 이거 남이 옛날 남 아닌게. 옛날 군데덜은 춤나무로 헌다. 이거 똑 폭남닮다, 폭낭. 아무 남이라도 뒐 거여게. 주룩은 숙대낭인 셍이여. 굴묵 짇는 군데. 똥, 까시락 디물랴근에 꿍꿍 밀령 불부쪙. 군데 이거 오래뒌. 날레 젓는 건 혼엇이 오래뒈지 안 헷저.(이것도 오래 됐지. 저것은 날레 젓는, 곡식 젓는 고무래. 물린 것은 아니고 그 전에 하나 있는 거 꺾어먹어서 만들었지. 이거 나무가 옛날 나무 아닌데. 옛날 고무래들은 참나무로 한다. 이거 똑 팽나무 같다, 팽나무. 아무 나무라도 될 거야. 자루는 삼나무인 모양이야. 굴묵 짇는 고무래. 똥, 까끄라기 들이밀어서 꿍꿍 밀려서 불붙여서. 고무래 이거 오래됐어. 곡식 젓는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안 했지.)"[92]

〈사진 60〉은 송당리 김석봉 씨가 사용했던 '날렛군데'로, 위의 군데 가운데 가장 오랜 것으로 보인다. 〈사진 61〉은 송당리 홍태휴 씨가 15년 전에 유채농사를 할 때 직접 만든 '군데'다. 〈사진 62〉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아들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한다.


〈사진 60〉 김석봉 씨의 '날렛군데'


〈사진 61〉 홍태휴 씨의 '날렛군데'


〈사진 62〉 홍영애 씨의 '날렛군데'

92) 허기생 씨 구술.



〈사진 63〉 허기생 씨 소장 '날렛군데'와 '굴묵군데'(위)



〈사진 64〉 고재인 씨의 '굴묵군데'

〈사진 63〉은 한동리 허기생 씨가 사용했던 '날렛군대'와 '굴묵군데'로, '굴묵군데'가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보통 '군데'는 단단한 참나무로 만드는데, '날렛군데'의 머리 부분은 팽나무로 만들었고, 손잡이는 '삼나무'로 만들었다. '날렛군데'는 머리 길이가 가로 33cm, 세로 14cm, 자루 부분이 손잡이가 잘렸는데, 남은 부분이 86cm였다. '굴묵군데'는 머리 길이 가로 19cm, 세로 12cm, 손잡이 84cm였다.

〈사진 64〉는 한동리 고재인 씨가 굴묵 땔 때 사용했던 '굴묵군데'로, 50년 전에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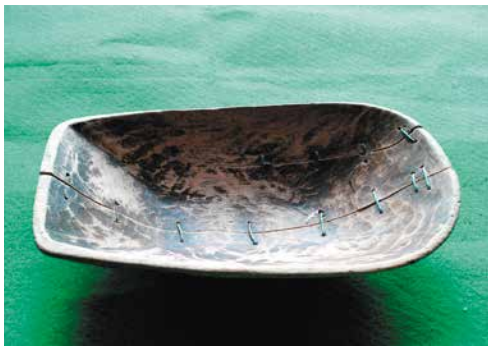
(3) 솔박/속박

'솔박'은 둥그스름하면서도 납작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도구다. 곡식을 퍼 담거나 곡식의 쭉정이 등을 없애기 위하여 불림질을 할 때 사용했던 나무 그릇이다. 예전에는 나무로 파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판다. '솔박'도 크기에 따라 '큰 솔박', '족은 솔박'이라고 한다. '큰 솔박'으로 하나 가득하면 관되로 하나 분량이 된다.

"저 엿날에 보리도 허민 영영 담아 놓고, 또 ᄇᆞ름에 보리 영영 불리고, 조도 영영 담아 놓고 불리고 경헷주. 경 헤단에 장ᄉᆞ허난에 이걸 안 썬 그냥 내부난에 이제 막 저 부영허게 추접헷길레 이젠 요 ᄒᆞᆫ 핸 뒈영 이거영 헨에 다깐에 니스 칠 헨 놔뒷주. 이걸로 하나 허민 관뒈 하나 뒈여.(저 옛날에 보리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담아 놓고, 또 바람에 보리 이렇게 이렇게 불리고, 조도 이렇게 이렇게 담아 놓고 불리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다

가 장사하니까 이것을 안 써서 그냥 내버리니까 이제 마구 저 부옇게 더러웠기에 이젠 요한 해는 되랑 이것이랑 해서 닦아서 니스칠 해서 놔뒀지. 이것으로 하나 하면 관되 하나 돼.)"[93]

〈사진 65〉는 김녕리 임기추 씨 집에서 사용하던 '솔박'인데 동백나무로 만든 것이다. 가운데로 쪼개진 것을 철사로 꿰매서 사용하고 있는데, 꿰매서 사용한 지도 40여 년이 지났다고 한다. '솔박'은 '날레'를 널고 들일 때 곡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사진 66〉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하는 '솔박'으로 이것은 마을에서 '남박 파는 하르방' 한테 부탁해서 판 것이다. 〈사진 67〉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하는 '솔박', 〈사진 68〉은 한동리 허정순 씨가 사용하던 '솔박'이다. 〈사진 69〉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60년 넘


〈사진 65〉 임기추 씨의 '솔박'


〈사진 66〉 고재인 씨의 '솔박'


〈사진 67〉 이삼년 씨의 '솔박'


〈사진 68〉 허정순 씨의 '솔박'

93) 홍수선 씨 구술.



〈사진 69〉 홍수선 씨의 니스를 칠한 '솔박'



〈사진 70〉 홍수선 씨의 '플라스틱 솔박'

게 사용한 '솔박'이다. 홍씨는 이 '솔박'을 깨끗하게 보관해 두기 위하여 4~5년 전에 니스를 칠했다. 〈사진 70〉은 홍씨가 사용했던 '플라스틱 솔박'이다. 김녕리 김복만 씨는 '솔박'을 '속박'이라고 발음했다. '플라스틱 솔박'은 '나이롱 속박'이라고도 하였다.

4.3.2. 체류

(1) 얼멩이

'얼멩이'는 곡식의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촛불 구멍이 큰 체이다. 대나무오리로 네모나게 만들어 사용하다가 철사를 이용하여 촛불을 만들고, 촛바퀴를 둥그렇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준어 '어레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얼멩이'는 타작한 곡식을 갈무리할 때 검불 따위를 걸러낼 때 사용한다. '얼멩이'로 검불을 걸러낸 후에 '대체'로 다시 쳐서 검불 따위를 걸러낸 후, '속박'을 이용하여 곡식을 바람에 불림질을 해 깨끗하게 손질한다. '얼멩이'로 쳐서 남은 부분은 '무게기'라고 한다. 이 '무게기'는 다시 두들겨서 알곡을 깨끗하게 장만하였다.

"도께로 두드린 후 얼멩이로 쳐서 무게기[94] 우에 것은 다시 두드리고 아랫것은 불려.(도리깨로 두들긴 후 어레미로 쳐서 '무게기' 위에 것은 다시 두들기고 아래 것은 불려.)"[95]

94) '무게기'는 곡식을 체로 칠 때 체 위에 남는 것을 말한다.
95) 이삼년 씨 구술


〈사진 71〉 박창식 씨의 '얼멩이'


〈사진 72〉 오문봉 씨의 '얼멩이'

"불림질헐 땐 속박허고 얼멩이가 꼭 필요헌 거고. 체도 필요허주. 얼멩이로 치고 대체로 치주.(불림질헐 땐 '속박허고 어레미가 꼭 필요한 것이고. 체도 필요하지. 어레미로 치고 대체로 치지.) "[96]

〈사진 71〉은 한동리 박창식 씨, 〈사진 72〉는 한동리 오문봉 씨, 〈사진 73〉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얼멩이'로, 손떼가 많이 묻어 있다.


〈사진 73〉 강순자 씨의 '얼멩이'

(2) 체

'체'는 곡식이나 가루, 액체 따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곡식 따위를 넣고 양쪽으로 흔들며 사용하는 도구다. 말총이나 철사, 나일론 줄로 만든다. 크기에 따라 '대체〉대거름체〉(총)거름체〉ᄀᆞ는체' 순으로 쳇불의 크기가 작다. '대체'는 '얼멩이'를 사용한 이후에 굵은 찌꺼기를 걸러내는 도구다. '거름체'를 크기에 따라 '중간 크기' 또는 '중간에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중체'라고 하기도 한다. 'ᄀᆞ는체'는 가루 따위를 치거나 액체를 밭을 때 사용한다. 예전에는 말의 꼬리인 '말총'으로 만들어 썼는데, 시간

96) 오문봉 씨 구술.

이 흐르면서 철사, 또는 나일론줄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이건 중체, 요건 대거름체, 저것도 ᄀᆞ는체. 이거 점빵을 ᄉᆞ십오년 헌 거난 점빵허기 전의 헌 거난 오랜 거주. 이 ᄀᆞ는체 막 줌진 거로. 대거름첸 또 저 대체 아레 훍게 나오는 거. 이거 쳇망. 대거름체 쳇망, 거름체 쳇망. 옛날은 물총으로 헷저.(이것은 중체, 요것은 대거름체, 저것도 고운체. 이거 점방을 사십오년 한 것이니까 점방하기 전에 한 것이니까 오랜 것이지. 이 가는체 막 가는 것으로. '대거름체'는 또 저 대체 아래 굵게 나오는 거. 이거 쳇바퀴. 대거름체 쳇바퀴, 거름체 쳇바퀴. 옛날은 말총으로 하지.)"[97]

체는 쓰는 사람과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옛날은 우리가이 ᄆᆞ물쏠 받아다근에 ᄆᆞ물 헤다근에 장ᄉᆞ허멍 그거 검피난 체를 막, 경허난 저거 헨 봉가 놔두고.(옛날은 우리가 메밀쌀 받아다가 메밀 해다가 장사하면서 그거 거피하니까 겨를 막, 그렇게 하니까 저거 해서 주워 놔두고.)"[98]

"체는 ᄀᆞ는체,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네 가지. 제일 훍은 거 대체, 그 다음 대거름체, 그 다음 거름체, 그 다음 ᄀᆞ는체. ᄀᆞ는체가 제일 ᄀᆞ는 거. 대체 우이 얼멩이. ᄀᆞ는첸인 옛날은 총으로 만들더라고. 그 물총이나 그런 거로 만들앗어. 이제는 쒜로 만들지. 옛날은 총으로. ᄀᆞ는첸 엇인디 거름체허고 대거름체허고 대체 세 가진 잇어.(체는 고운체,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네 가지. 제일 굵은 거 '대체', 그 다음 '대거름체', 그 다음 '거름체', 그 다음 고운체. 고운체가 제일 가는 거. '대체' 위에 어레미. 고운체는 옛날은 총으로 만들더라고. 그 말총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었어. 이제는 쇠로 만들지. 옛날은 총으로. 고운체는 없는데 '거름체'하고 '대거름체'하고 '대체' 세 가지는 있어.)"[99]

〈사진 74〉는 한동리 허기생 씨 전통 부엌인 '정지' 벽에 걸려 있는 체들이다. 〈사진 75〉는 세화리 김윤생 씨가 썼던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ᄀᆞ는체'(왼쪽부터)다. 이 체들은 사용한 지 50~60년 정도 됐다고 한다. 〈사진 76〉은 하도리 홍수선 씨가 사용

97) 홍수선 씨 구술.
98) 강순자 씨 구술.
99) 김복만 씨 구술.


〈사진 74〉 허기생 씨의 부엌에 걸려 있는 체들


〈사진 75〉 김윤생 씨 소장 체들


〈사진 76〉 홍수선 씨의 ‘고는체’와 ‘거름체’


〈사진 77〉 강순자 씨의 ‘거름체’


〈사진 78〉 박창식 씨의 ‘거름체’


〈사진 79〉 김복만 씨의 ‘거름체’와 ‘대거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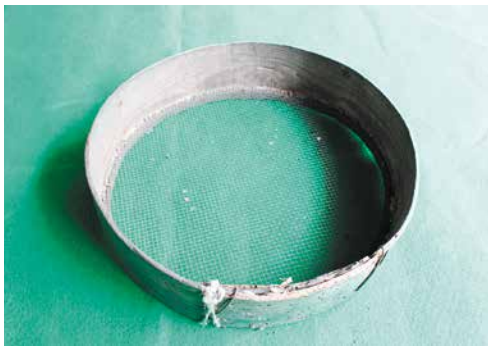
했던 것이고, 〈사진 77〉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유채를 칠 때 사용했던 ‘거름체’다. 강 씨는 예전에 장사할 때 메밀쌀을 거피한 후 겨를 칠 때 ‘고는체’를 사용하였다. 〈사진 78〉은 한동리 박창식 씨의 ‘거름체’이고, 〈사진 79〉는 김녕리 김복남 씨가 요즘도 사



〈사진 80〉 이삼년 씨의 '거름체'와 '대거름체'



〈사진 81〉 고재인 씨의 '대체'



〈사진 82〉 조명순 씨의 '대체'



〈사진 83〉 김병현 씨의 '대체'



〈사진 84〉 홍영애 씨의 '대체'



〈사진 85〉 오문봉 씨의 '대체'

용하고 있는 '거름체'와 '대거름체'다. 〈사진 80〉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50년 전에 구입한 '거름체'와 '대거름체'이다. 〈사진 81〉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대체'로 '쳇바퀴'가 좀이 많이 슬어 있다. 〈사진 82〉는 송당리 조명순 씨의 '대

체'다. 〈사진 83〉은 송당리 김병현 씨, 〈사진 84〉는 세화리 홍영애 씨, 〈사진 85〉는 한동리 오문봉 씨 집에서 사용하던 '대체'다.

(3) 푸는체

'푸는체'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표준어 '키'에 해당한다. '푸는체'에 갈무리할 곡식을 넣어 양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면 까끄라기 등이 밖으로 나가 곡식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푸끄다'라고 한다. '푸는체'는 손을 이용하여 '푸끄면서(흔들면서)' 치기 때문에 얻은 명칭이다. '푸는체'의 몸통은 주로 '자골'을 이용하여 만들고, 손잡이 부분인 '어음'은 왕대를 쪼개서 만든다.


〈사진 86〉 조명순 씨의 '푸는체'


〈사진 87〉 홍영애 씨의 '푸는체'


〈사진 88〉 박창식 씨의 '푸는체'

〈사진 86〉은 송당리 김병현 씨 집에서 사용하는 '푸는체'다. 천을 발라 덕지덕지 바느질을 하고, 실로 얽어 매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 87〉은 홍영애 씨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푸는체'가 헐어가니까 헝겊 등으로 덧발라서 쓰고 있다. 〈사진 88〉은 박창식 씨의 '푸는체'로, 메밀쌀이나 참깨에 섞여 있는 검불 따위를 불릴 때 사용했다고 한다. '푸는체'로 불리는 것을 '푸다'라고 말한다. '푸다'는 표준어 '까부르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푸는체. 막 오래뒌 거. 혼 오십년 뒈실 거라. 푸는체 ᄆᆞ물쏠 골민 푸는 거. ᄆᆞ물쏠 골민 영영 푸닥푸닥. 옛날은 저 선풍기도 안 나와부난 푸는체로만 펀. 다른 거 헐 때도 풀 건다 써야주. ᄆᆞ물쏠도 푸고, 꿰도 푸고. 송당서 서화장에 풀레 완 이거 산 거. 만드는 사름 다 죽어베실 거라, 옛날이난. 게난 이제 그런 거 안 나, 이젠.(키. 매우 오래된 거. 한 오십 년 됐을 거야. 키 메밀쌀 갈면 까부르는 것. 메밀쌀 갈면 이렇게 이렇게 '푸닥푸닥'. 옛날은 저 선풍기도 안 나와버리니까 키로만 까불렀어. 다른 것 할 때도 까부를 것은 다 써야지. 메밀쌀도 까부르고, 참깨도 까부르고. 송당에서 세화장에 팔러 와서 이거 산 거. 만드는 사람 다 죽어버렸을 거야,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나, 이제는.")[100]

〈사진 89〉는 송당리 조명순 씨의 '푸는체'이다. 조 씨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푸는체'는 오래 사용하여 헝겊으로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보인다. 요즘도 참깨를 손질할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90〉은 허기생 씨의 '푸는체'로, '정당(댕댕이덩굴)'으로 만든 것이다. 허씨의 '푸는체'는 전통 가옥의 '정지' 벽에 걸려 있어 옛 풍치를 더해주고 있다. 종이와 헝겊으로 덧발라 '푸는체'가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91〉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하는 '푸는체'로, '정동(댕댕이덩굴)'으로 만든 것으로 오래 사용하면서 헝겊을 발랐다 뜯었다를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푸는체'를 엮었던 '정당줄'과 '에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사진 89〉 조명순 씨의 '푸는체'



〈사진 90〉 허기생 씨의 '푸는체'

100) 박창식 씨 구술.



〈사진 91〉 고재인 씨의 '푸는체'



〈사진 92〉 백규삼 씨의 '푸는체'

"푸는체 나가 이디 왕 보난, 스물두 설에 오난 멧 헤 뒈시? 근때 시집이 완 보난 이신 거라. 게난 이제 그 푸는체가 안 나와부난 이걸로만 이제꺼장 유지헹 왓주게. 이런 푸는체 푸는 디 엇어부난 이제 이걸로 죽장헌 거주. 볼르고, 볼르고. 튿어다가 볼랏다가. 이거이 머세덜 옛날엔 정당 나무 벋주게. 약도 안 치곡 허난 그거 걷어당 짠 거. 정당줄.(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스물두 살에 오니까 몇 해 됐니? 그때 시집에 와서 보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키가 안 나와버리니까 이것으로만 이제까지 유지해서 왔지. 이런 키 파는 데 없어버리니까 이제 이것으로 계속 한 것이지. 바르고, 바르고. 뜯었다가 발랐다가. 이거 돌무더기 옛날에는 댕댕이덩굴 나무 뻗지. 약도 안 치고 하니까 그거 걷어다가 짠 거. 댕댕이덩굴.)"[101]

〈사진 92〉는 김복만 씨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키'로 손잡이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육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만든 '푸는체'는 손잡이가 없지만, 육지에서 사용하는 '키'는 손잡이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푸는체'는 '자골'과 '왕대'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자골'은 '차풀'의 방언형이다. '자골'은 콩과의 식물로 소가 먹으면 살이 쪄서 축산 농가에서는 일부러 목초로 갈기도 하였다.

(4) 큰체[102]

〈사진 93〉은 보리 등의 곡식을 칠 때 사용하던 '체'로, 쳇불이 철로 되어 있다. 양

101) 고재인 씨 구술.

102) 이 체는 조사 자료에서 명칭이 조사되지 않았다. 편의상 '큰체'로 명명하여 특징을 기술하였다.

쪽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어 두 명이 서서 손을 앞뒤로 번갈아가면서 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체질을 할 수 있다.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쳇불 사이에 곡식 알갱이가 붙어 있다.


〈사진 93〉 이삼년 소장

4.3.3. ᄀᆞ레 관련

(1) 몰ᄀᆞ레

'ᄀᆞ레'는 곡식을 빻거나 찧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말이나 소를 이용하여 곡식을 찧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몰ᄀᆞ레'라고 한다. '몰ᄀᆞ레'는 표준어 '연자매'에 해당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방앗간이 나오기 전에 제주의 마을마다에는 골목을 기준으로 하여 '몰ᄀᆞ레'가 있었다. 보통은 '접(계)'으로 운영했는데, 이를 '몰ᄀᆞ레접'이라고 한다.

"조 불려가지고서 멕에 담앙 놧다가. 그 항상 밧듸 나가기 때문에 그 틈을 타가지고서 쏠이 떨어지민 밤에도 영 헐 수 있고. 경 안 허민 비 온 날 몰ᄀᆞ레에 강 골고 그렇게. 사름 수눌엉. 푸는체도 필요허고, 거 뭐인가 비차락. 비차락은 항상 쓸어근에 그 몰ᄀᆞ레더레 올려줘야 헤. 이레 나오는 걸 자꾸 이렇게. ᄀᆞ렛비라고 헌 거 쪼금 둔둔헌 거라야 뒈. ᄀᆞ렛비 ᄉᆞ레비로 주로 멘들앗주. 대축낭으로도 허고. 그 종지대축이라고 잇주. 그 범벅헹 먹고 허는 거. 그 대축이 그 뭐인가 딱딱허주게. 그걸로 주로 많이 헷주.(조 불려서 멱서리에 담아서 놨다가. 그 항상 밭에 나가기 때문에 그 틈을 타가지고 쌀이 떨어지면 밤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비온 날 연자매에 가서 갈고 그렇게. 사람 품앗이해서. 키도 필요하고, 거 뭐인가 빗자루. 빗자루는 항상 쓸어서 그 연자매로 올려줘야 해. 이리로 나오는 것을 자꾸 이렇게. 'ᄀᆞ렛비' 'ᄉᆞ레비'로 주로 만들었지.)"[103]

'몰ᄀᆞ레'에 곡식을 찧은 후에는 '푸는체'와 '체' 등을 이용해 깨끗하게 손질한다. 방

103) 오문봉 씨 구술.

아를 찧을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을 맷돌 안으로 쓸어 담기 위해서는 빗자루가 필요한데, 이 비를 가리켜 'ᄀᆞ렛비'라고 한다. 'ᄀᆞ렛비'는 'ᄀᆞ레(맷돌)'에서 사용하는 비로, 한동리에서는 '종지대축'이라 불리는 수수의 알곡을 떨어낸 후에 남은 것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사진 94〉 김녕리의 자연마을의 하나인 용두동 마을공원에 쉼터로 설치되어 있는 연자매

〈사진 94〉는 김녕리의 자연마을의 하나인 용두동 마을공원에 쉼터로 설치되어 있는 'ᄇᆞᆯᄀᆞ레'다. 옆에 커다란 누룩나무가 심어 있어 'ᄇᆞᆯᄀᆞ레'는 주민들의 쉼터인 '팡돌'로 이용되고 있었다.

(2) ᄀᆞ레/앚은ᄀᆞ레/돌ᄏᆞ레

'ᄀᆞ레'는 곡식을 쪼개거나 찧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맷돌'에 해당한다. 앉아서 가는 'ᄀᆞ레'여서 '앚은ᄀᆞ레'라는 명칭도 붙었다. '돌ᄀᆞ레'는 돌로 만들어진 맷돌이라는 의미다.

"돌ᄏᆞ레 아래에 ᄀᆞ렛방석 깔고 보리를 갈면 좀쏠과 보리쏠이 나오주게. 좀쏠도 밥헹 먹곡, ᄀᆞ루는 ᄌᆞ베기도 허고 떡도 헤 먹고.(맷돌 아래에 맷방석 깔고 보리를 갈면 '좀쌀'과 보리쌀이 나오지. '좀쌀'도 밥해서 먹고, 가루는 수제비도 하고 떡도 해먹고.)"[104]

ᄀᆞ레'는 'ᄀᆞ렛ᄌᆞ룩', 'ᄀᆞ레우착', 'ᄀᆞ레알착', 'ᄀᆞ레차경'으로 구성되었다. 'ᄀᆞ렛ᄌᆞ룩'은 맷돌의 손잡이로 '맷손'을 가리키고, 'ᄀᆞ레우착'은 맷돌의 위짝, 'ᄀᆞ레알착'은 맷돌의 아래짝을 말한다. 'ᄀᆞ레차경'은 기다란 맷손을 가리킨다.

〈사진 95〉는 송당리 홍태휴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ᄀᆞ레'로, 100년 이상 사용한 것이다. 손잡이 부분인 'ᄀᆞ레차경'은 새로 만들어 끼운 것이다. 〈사진 96〉은 한동리

104) 이삼년 씨 구술.



〈사진 95〉 홍태휴 씨의 'ᄀᆞ레'



〈사진 96〉 박창식 씨의 'ᄀᆞ레'

박창식 씨 집에서 사용하던 'ᄀᆞ레'다. 얼마 전까지도 메밀 농사를 지었다는 박씨는 이 'ᄀᆞ레'로 메밀을 갈았다고 한다. 자신이 썼던 'ᄀᆞ레'는 잃어버리고, 20년 전에 고물 장수한테 4만원을 주고 사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ᄀᆞ레, 돌ᄏᆞ레. 옛날에 이런 거로만 헨 살앗주게. 밧디 강오민 밤이 막 이거 골아근에 먹곡. 보리쏠 거평 먹고. 보리쏠도 거피고 ᄆᆞ물쏠 골앙 ᄆᆞ물도 검피고 ᄆᆞ물도 ᄀᆞ루 골앙 묵 쑤고 경헨. 콩도 골아근에 먹고, 보리 보깡 개역도 골고. 나 썼던 건 누게 가져가불고. ᄆᆞ물 골젠 이거 삿주게. 고물 장시 이디 오난. 집이 거 그냥 ᄀᆞ물 장시덜 오란 문 앗아가부난. ᄆᆞ물 ᄒᆞ쏠 가난에 골 거 엇이난 저거 ᄉᆞ만 원 줜 삿주. 산 것도 저거 혼 이십년벳긔 안 뒈서. 보리 물ᄀᆞ레에 골아 놓면 그거 물령 저런 거로 거펴근에 먹어. 그 ᄀᆞ루 거펴난 ᄀᆞ룬 바당에 강 ᄑᆞ레 헤다근에 헤영케 발랭 그거 서끄멍 썰어근에가 보리 서껑 먹곡. 톨 헤다가 밥 헹 먹곡. 우리 시절은 잘도 고생헷어. 채경, 이거 엇이민 안 뒈주게. 이거 셔사 영영 돌리멍, ᄀᆞ레에. 혹에 ᄂᆞ려가는 거 영 놔근에 ᄂᆞ려가는 혹.(맷돌. '돌맷돌.' 옛날에 이런 것으로만 해서 살았지. 밭에 가오면 밤에 막 이거 갈아서 먹고. 보리쌀 거피해서 먹고. 보리쌀도 거피하고 메밀쌀도 갈아서 메밀도 거피하고 메밀도 가루 갈아서 묵 쑤고 그렇게 했어. 콩도 갈아서 먹고, 보리 볶아서 미숫가루도 갈고. 내가 썼던 것은 누가 가져가버리고. 메밀 갈려고 이것 샀지. 고물 장수 여기 오니까. 집에서 그냥 고물 장수덜 와서 몽땅 가져가버리니까. 메밀 조금 가니까 갈 것 없으니까 저거 사만 원 줘서 샀지. 산 것도

저것 한 이십년밖에 안 됐어. 보리 연자매에 갈아 놓으면 그것 말려서 저런 것으로 거피해서 먹어. 그 가루 거피했던 가루는 바다에 가서 파래 해다가 하얗게 바래서 그거 섞으면서 썰어서 보리 섞어서 먹고. 톳 해다가 밥 해서 먹고. 우리 시절은 잘도 고생했어. 맷손, 이것 없으면 안 되지. 이거 있어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맷돌에. '확(맷돌 구멍)'에 내려가는 것은 이렇게 놔서 내려가는 거 '확'.)"[105]


〈사진 97〉 김윤생 씨의 'ᄀᆞ레'


〈사진 98〉 김병희 씨 마당에 놓여 있는 'ᄀᆞ레 알착'

〈사진 97〉은 세화리 김윤생 씨가 사용했던 'ᄀᆞ레'이고, 〈사진 98〉은 세화리 김병희 씨 집 정원 한 구석에 보관되어 있는 'ᄀᆞ레알착'이다. 이들 'ᄀᆞ레'들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데 크기와 모양, 손잡이가 제각각이다.

(3) ᄀᆞ렛방석

'ᄀᆞ렛방석'은 'ᄀᆞ레'를 넣고 곡식 따위를 갈 때 썼던 도구다. 표준어 '맷방석'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곡식을 너는 멍석이 네모난 형태라면, 'ᄀᆞ렛방석'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멍석, 멕, ᄀᆞ렛방석이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헷주게. 그때는이 밧베 잇잖아. 밧베 낭으로 겨울뒈면은 그걸로다. 규격이 거의 ᄀᆞ트지. 날레 너는 것은 그 ᄀᆞ렛방석만 제외허고는 거의 ᄀᆞ타.(멍석. 멱서리, 맷방석이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했지. 그때는 밭벼 있잖

105) 박창식 씨 구술.


〈사진 99〉 오문봉 소장 '그렛방석'


〈사진 100〉 오문봉 씨의 '그렛방석'과 '방에혹'

아. 밭볏짚으로 겨울되면 그것으로. 규격이 거의 같지. '날레' 너는 것은 그 맷방석만 제외하고는 거의 같아.)"[106]

〈사진 99〉는 한동리 오문봉 씨 집에서 사용하는 '그렛방석'으로, 오씨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렛방석' 가운데 부분은 천을 이용하여 문양을 넣었는데 60년 이상 되었으며 '남방에(남방아)'를 찧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00〉은 오씨 집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남방에' 가운데에 박았던 '방에혹'이다. 이 '방에혹'은 마늘 등을 빻을 때 사용되었다.

4.3.4. 바농류

(1) 멕바농

'멕바농'은 가마니를 꿰매거나 멱서리, 멍석 따위가 헤졌을 때 기울 때 사용하는 바늘이다. 예전에 보리 따위를 가마니에 넣어 판매할 때 짚 따위로 가마니를 봉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01〉은 한동리 고재인


〈사진 101〉 고재인 씨의 '멕바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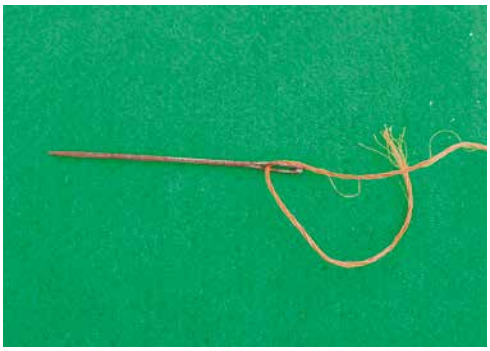
106) 오문봉 씨 구술.

씨가 사용하던 '멕바농'이다. 고 씨가 스무두 살에 시집왔을 때 시아버지가 사용했던 바늘이다. '멕'은 '멱서리', '바농'은 '바늘'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멕바농 이거 멍석 튿어져도 줍고, 따시 멩텡이 튿어져도 줍고. 영 씨어가민 고망 나민 옛날에는 그걸 노꼿 꼬앙, 이레 노꼿 꼬아근에 디물령 영영 얽어메엿주게. 그 멩텡이 덜 터지민 그걸 데껴불지 안 헤영 영 꼬멩 써나세. 나가 이디 시집올 때가 스물두 설에 오난 그때부터 셔난 거. 그자 하르방 때부터 잇어난 거.('멕바농' 이거 멍석 뜯어져도 기우고, 다시 멱둥구미 뜯어져도 기우고. 이렇게 써가면 구멍 나면 옛날에는 그것을 노끈 꼬아서, 이레 노끈 꼬아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얽어맸지. 그 멱둥구미 터지면 그것을 던져버리지 안 해서 이렇게 꿰매서 썼었어. 내가 여기 시집올 때가 스물두 살에 오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거. 그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107]

(2) 푸대바농

'푸대바농'은 '푸대' 즉 '부대'를 기울 때 사용했던 바늘이다. 예전에 농촌에서 '유채'나 '콩' 등을 부대에 넣어서 판매했는데, 그때 '부대'를 봉할 때 사용했던 바늘이다. 〈사진 102〉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했던 '푸대바농'으로, 홍씨는 '마다리바농'이라고 하였다. '푸대바농'에는 예전에 '나일론줄'로 부대를 기울 때 사용하다 남은 주황색 나일론 줄이 끼워 있었다.


〈사진 102〉 홍영애 씨의 '푸대바농'

107) 고재인 씨 구술.

4.4. 운반 도구

4.4.1. 지게류

(1) 지게

'지게'는 등에 짐을 질 수 있게끔 나무로 만든 재래식 도구의 한 가지다. 김녕리 등지에서는 예전에 짐을 나를 때는 지게를 이용하여 등짐으로 지어 날랐다고 한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예전에는 집집마다 소를 길렀는데, 가을이면 소 먹이인 '촐(꼴)'을 베어 나르는 게 일이었다고 한다. 보통 지게로 한 번 나를 수 있는 '촐뭇(꼴뭇)'은 스무 뭇 정도인데, 이 분량을 '혼 짐'이라고 한다. '쉐질메(소길마)'에는 두 짐, 즉 '마흔 뭇'을 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소길마'에 한번 실을 수 있는 양의 물건을 '한 바리'라고 한다.

"촐 비엉 혼 사흘 물령 무껑 쉐로 시꺼오는 사름, 또 짐으로 지여오는 사름, 또 질메 메왕 구루마 질 난 디 지게로 다 지어 내쳥 놈의 구루마 빌엉 시꺼오는 사름, 이녁 쉐, 짐 시끄는 쉐 이시민 쉐로 막 시꺼오는 사름 경. 지어올 때는 지게로. 스무남은 뭇 정도 지곡 질메에 시꺼올 때 두 짐 져. 혼 바리가 마흔 뭇이라.(꼴 베어서 한 사흘 말려서 묶어서 소로 실어오는 사람, 또 짐으로 져오는 사람, 또 길마 메워서 달구지 길 난 데 지게로 다 져내서 남의 달구지 빌려서 실어오는 사람, 이녁 소, 짐 싣는 소 있으면 소로 마구 실어오는 사람 그렇게. 져올 때는 지게로. 스무남은 뭇 정도 지고 길마에 실어올 때 두 짐 져. 한 바리가 마흔 뭇이야.)"[108]

김녕리 김복만 씨는 들에 나가 땔감으로 솔잎을 긁어서 묶음을 만든 것을 '지게'를 이용해서 지어 날랐다고 한다. 솔잎 한 덩어리를 김녕리에서는 '솔입 복닥(솔가리 묶음)'이라고 하고, 지게에 솔잎 묶음을 올려놔서 져 오는 것을 '복닥 차다'라고 한다.

"그 솔입 걷으는 글겡이 잇잖아. 글겡이로 그 소낭밧디 가근에 막 긁어모아. 긁엉 산디찍 줄 잇잖아. 또 칙 걷엉 강 이제 세 줄 놔. 줄 세 개 놩 솔입을 톡톡 모두멍 줄 우틔레 톡톡 놔. 이레 모으멍 톡톡 두들멍 경헤근에 이만이 헤영 막 두들멍 둘이가 막 잡아뎅기

108) 이삼년 씨 구술.

멍 그놈을 무껑 이따만이. 이따만이 겡헤영 덩어리 만들아. 혼 덩어리가 혼 지게. 덩어리 만들앙 혼 지게 졍 와. 솔입 복닥. 복닥 찻덴 헹 지영 와세, 지게에. 김녕은이 벳짐은 안 져. 우린 지게로만 져. 이만이 헌 거를 지게로 올려놩 져. 떼꾸리 메영. 김녕은이 요만헌 아이도 다 지게져. 지게 떼꾸리 메여, 떼꾸리.(그 솔잎 긁는 갈퀴 있잖아. 갈퀴로 그 소나무밭에 가서 막 긁어모아. 긁어서 밭볏짚 줄 있잖아. 또 칡 걷어 가서 이제 세 줄 놔. 줄 세 개 놓아서 솔잎을 톡톡 모으면서 줄 위로 톡톡 놔. 이레 모으며 톡톡 두들기며 그렇게 해서 이만큼 해서 막 두들기면서 둘이 막 잡아당겨서 그놈을 묶어서 이만큼하게. 이만큼은 하게 그렇게 해서 덩어리 만들어. 한 덩어리가 혼 지게. 덩어리 만들어서 한 지게 져서 와. '솔잎 복닥'. '복닥' 찼다고 해서 지어서 왔어, 지게에. 김녕은 질빵 짐은 안 져. 우리는 지게로만 져. 이만한 것을 지게로 올려놔서 져. '떼꾸리' 메영. 김녕은 요만한 아이도 다 지게 져. 지게 '떼꾸리' 메어, '떼꾸리'.)"[109]



〈사진 103〉 이삼년 씨의 지게



〈사진 104〉 김양근 씨의 지게



〈사진 105〉 고재인 씨의 지게작데기

109) 김복만 씨 구술.

〈사진 103〉은 김녕리 이삼년 씨 집에 보관 중인 '지게'로, 보관 상태가 양호했다. 〈사진 104〉는 한동리 김양근 씨 집에서 사용했던 '지게'다. 〈사진 105〉는 구좌읍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 보관 되어 있는 '지게작데기'다. '지게작데기'는 지게를 받혀서 세울 때 사용하는 나무막대기다.

(2) 바지게

'바지게'는 발채를 얹어서 거름 따위를 져 나를 때 사용하는 운반 도구다.

〈사진 106〉은 송당리복지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모형 바지게'로, 이 마을 정상리 씨가 만든 것이다. 송당리에서 '바지게'는 거름이나 고구마, 돌 따위를 담아서 나르는 데 유용하게 썼다고 한다.



〈사진 106〉 송당리복지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모형 바지게'(정상리 작)

4.4.2. 베류

(1) 질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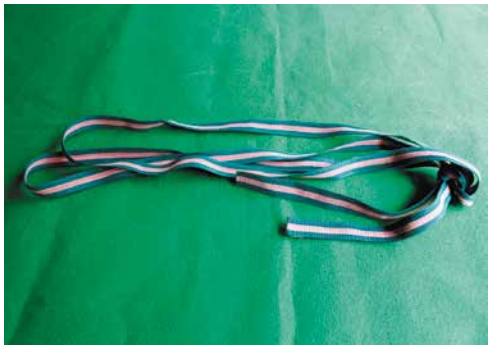
'질빵'은 물건을 져 나를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밭에 다닐 때 "점심을 '구덕(바구니)'에 넣어 '질빵'이나 '베(참바)'로 져서 다녔다."고 한다.



〈사진 107〉 강순자 씨의 '질빵'

"이 질빵은 짐 지엉 뎅겨서게. 밥도 놔근에 옛날은 밧듸 졍 뎅기지 안 헤사게. 저 물도 허벅 졍 뎅기고. 사돈칩이 죽도 쒕 가젠 허민 이 질빵으로 졍 가곡. 거 멘든지 오죽 오래샤? 거 오십년도 넘엇주. 옛날에 수도 엇어부난 빨래도 이것에 헤근에 잔뜩 지

엉 저 갯것디 강 뿔아 와세. 이것에 서답졍.(이 질빵은 짐 져서 다녔어. 밥도 넣어서 옛날은 밭에 져서 다니지 안 했니? 저 물도 동이 져서 다니고. 사돈집에 죽도 쒀 가려고 하면 이 질빵으로 졍 가고. 거 만든 지 오죽 오랬냐? 거 오십년도 넘었지. 옛날에 수도 없어버리니까 빨래도 이것에 해야 잔뜩 져서 저 바닷가에 가서 빨아왔어. 이것에 세답 져서.)"[110]



〈사진 108〉 조명순 씨의 '질빵'



〈사진 109〉 김일선 씨의 '질빵'

〈사진 107〉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점심 바구니 등을 지고 다닐 때 사용했던 '질빵'이다. 강 씨가 직접 검은물 들인 무명천을 재봉틀로 누벼 만든 것으로 50년 이상 사용했다. 〈사진 108〉은 송당리 조명순 씨가 'ᄂᆞ슬 뎅길 때' 제물을 넣은 바구니를 지고 다녔던 '질빵'이다. 여기에서 'ᄂᆞ슬 뎅길 때'는 '신당(神堂)에 다닐 때'라는 말로, 제주 신들의 본향인 송당(松堂)을 가리킨다. 20년 넘게 사용하는 '질빵'이다. 〈사진 109〉는 하도리 김일선 씨가 물질 갈 때 '테왁'와 망사리를 얹은 '질구덕'을 지고 다닐 때 사용했던 '질빵'이다.

(2) 베, 쉐얏베, 짐페

'베'는 표준어 '참바'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짐을 지거나 짐을 동여맬 때 사용하는 바다. '쉐얏베'는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 묶는 조금 굵직하고 기다란 밧줄을 말한다. 예전에는 '칙(칡)'을 걷어다가 꼬아 참바를 드려 쓰기도 하고, 노끈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했다. '짐페'는 짐을 고정시키거나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바이다.

110) 강순자 씨 구술.



〈사진 110〉 이삼년 씨 소장 '질구덕'과 '베'



〈사진 111〉 고재인 씨 소장 '쉐얏베'



〈사진 112〉 김양근 씨 소장 '짐페'



〈사진 113〉 백규삼 씨가 사용했던 '짐페'

〈사진 110〉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질구덕'과 나일론 줄로 엮은 '짐페'다. '짐페'는 짐을 지고 다니는 바라는 의미다. 〈사진 111〉은 한동리 고재인 씨 집에서 짐을 실어 나를 때 사용했던 '쉐얏베'이고 〈사진 112〉는 김양근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짐페'다. 사진 속 둥근 나무는 바를 단단하게 묶어줄 때 이용하는 '도르레'다. 〈사진 113〉은 김녕리 백규삼 씨가 짐을 질 때 사용했던 베로, 머리를 닿는 것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4.4.3. 골체 등

(1) 골체

'골체'는 '흙이나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골체'는 표준어

'삼태기'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재료에 따라서 '졸ᄀᆞᆯ체, 정동ᄀᆞᆯ체, 찍ᄀᆞᆯ체, 대ᄀᆞᆯ체, 칙ᄀᆞᆯ체' 등으로 부른다. '졸ᄀᆞᆯ체'는 으름나무덩굴을 이용하여 만든 ᄀᆞᆯ체이고, '정동ᄀᆞᆯ체'는 '정동' 즉 댕댕이덩굴을 이용하여 만든 삼태기다. '찍ᄀᆞᆯ체'는 짚으로 엮어서 만든 삼태기이고, '대ᄀᆞᆯ체'는 대오리로 엮은 삼태기, '칙ᄀᆞᆯ체'는 칡줄로 엮은 삼태기다. 또 돌을 나를 때 주로 썼다고 하여 '돌ᄀᆞᆯ체'라고도 한다.

〈사진 114〉는 한동리 허기생 씨 집에 있는 것으로 같은 마을의 오태수(작고) 씨가 '너덩줄'로 만들어 준 것으로, 거름 낼 때도 쓰고, 밭에 가서 돌 치울 때도 썼다고 한다.



〈사진 114〉 허기생 씨의 '너덩ᄀᆞᆯ체'

"ᄀᆞᆯ체 오래 썻저게. 이거 너덩줄. 젤 질긴 거주. 이 남은 상동나무. 너덩줄이 저이 밧디 가민 벡담에 ᄋᆞᄂᆞᆫ 거. 질게 욜아 가멍 줄 벋엉 허민 상고고리만 헤당 ᄀᆞᆯ체 ᄌᆞ느네. 이거 상윤이 아방 준 거주. (오)태수. 쉐걸름 낼 때도 쓰고, 돗걸름 낼 때도 쓰고, 밧디 강 일헐 때도 쓰고, 돌 치울 때도 쓰고, 이거 아이 쓰는 건 엇나.(삼태기 오래 썼지. 이거 '너덩줄'. 젤 질긴 거지. 이 나무는 상동나무. '너덩줄'이 저 밭에 가면 담벼락에 여는 거. 길게 열어 가면서 줄 뻗어서 하면 '상고고리(윗부분)'만 해다가 삼태기 겯잖니. 이거 상윤이 아버지 결은 거지. (오)태수. 소거름 낼 때도 쓰고, 돼지거름 낼 때도 쓰고, 밭에 가서 일할 때도 쓰고, 돌 치울 때도 쓰고, 이것 아니 쓰는 것은 없어.)"[111]

〈사진 115〉는 한동리 강순자 씨의 '정동ᄀᆞᆯ체'와 '플라스틱 ᄀᆞᆯ체'이고, 〈사진 116〉은 한동리 김예임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정동ᄀᆞᆯ체'이다.

〈사진 117〉에서 〈사진 119〉는 '대ᄀᆞᆯ체'로, 〈사진 117〉은 김녕리 고춘자 씨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118〉은 송당리 홍태휴 씨 집에 보관되어 있는 '대ᄀᆞᆯ체'로, 작고한 이 마을 정상리 씨가 생전에 만든 것이다. 주로 밭에 있는 자갈을

111) 허기생 씨 구술.



〈사진 115〉 강순자 씨의 '정동골체'와 '플라스틱골체'



〈사진 116〉 김예임 씨의 '정동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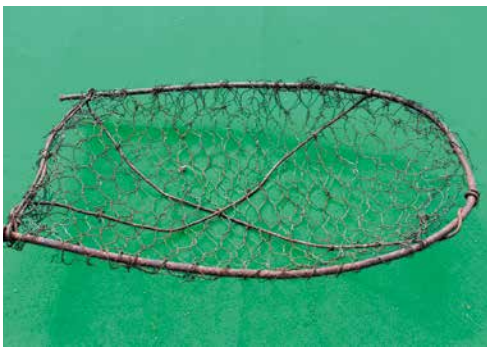
〈사진 117〉 고춘자 씨의 '대골체'



〈사진 118〉 홍태휴 씨의 '대골체'



〈사진 119〉 김병현 씨의 '대골체'



〈사진 120〉 홍태휴 소장 '돌골체'

주워 내다버릴 때 사용했다. 〈사진 120〉은 송당리 홍태휴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돌 골체'로, 철사를 얽어서 만들었다. '골체' 위에 놓여 있는 '쉐스렁'은 밭의 돌 등을 팔 때 소용되는 물건이다.

(2) 멩텡이, 멜망텡이

'멩텡이'는 표준어 '멱둥구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산듸찍(밭볏짚)'으로 짠 짚 그릇으로, 소 똥 등을 주울 때 사용하거나 밭에서 딴 조 이삭을 집으로 져올 때도 사용하였다. '멜망텡이'는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망텡이' 양쪽에 끈을 매달아 만든 것이다.

"조를 고고리를 톹아서 멜망텡이에 담으멍 져 왕 기계로 두드리고, 그 이전에는 마당에서 도께로 두드려.(조를 이삭을 따서 '멜망텡이'에 담으면서 져 와서 탈곡기로 두들기고, 그 이전에는 마당에서 도리께로 두들겨.)"[112]

김녕리 이삼년 씨는 조 농사를 지을 때 조를 베면 이삭만 잘라서 '멜망텡이'에 담아서 운반했다고 한다.

'멜말텡이'보다 큰 것은 '멕'이다. '멕'은 표준어 '멱서리'에 대응하는데, 짚으로 날을 촘촘히 결어서 만든 그릇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멕'은 주로 곡식이나 농산물을 담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이용하는 그릇이다. 크기가 큰 것은 '창멕'이라고 부르고, 예전에 '돼지거름'인 '돗걸름'을 집에서 밭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멕'을 '착부지' 또는 '돗걸름착'이라고 명명하였다. '돗걸름'은 물기가 많아 무겁기 때문에 '착부지'가 작아야 한다. 반면 '쉐걸름(외양간에서 생산된 거름)'은 물기가 없고 잘 썩지 않아 가벼워서 '돗걸름'을 나를 때보다는 '큰 멕'을 사용하였다.

"걸름 밧듸 운반허젠 허민 멕허고 뭔가 그 사람 지게허고. 쉐에 시끄젠 허민 그 멕에 담을 거이. 돗걸름착이엔 헷주게. 돗걸름착은 족아야 뒈고 물 나는 거기 때문에. 쉐걸름 시끄는 건 막 커야 뒈고. 혼 섬짜리라야 뒈어. 돗걸름은 물이 차부난 무거웁주게. 게난 쉐걸름은 막 몰라부니깐이 큰 거로 열 말들이 이상, 혼 섬들이라야. 양쪽에 ᄒᆞ나씩 걸 혼 바리엔 허주.(거름 운반하려고 하면 멱서리하고 뭔가 그 사람 지게하고. 소에 실으려고 하면 그 멱서리에 담을 거. '돗걸름착'이라고 했지. '돗걸름착'은 작아야 되고, 물 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거름 싣는 것은 매우 커야 되고. 한 섬들이어야 돼. 돼지거름은 물

112) 이삼년 씨 구술.

이 차버리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소거름은 매우 말라버리니까 큰 것으로 열 말들이 이상, 한 섬들이어야. 양쪽에 하나씩 그것을 한 바리라고 하지.)"[113]

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구좌 지역에서는 '돗걸름'은 보통 지게에 져서 나르거나 '쉐질메(소길마)'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질메' 한쪽에 '돗거름착' 하나씩을 매달아 한꺼번에 두 개씩 날랐는데, 이를 두고 '혼 바리(한 바리)'라고 한다. '바리'는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가리키는데, 이 짐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4.5. 계량 도구

(1) 뒈

'관뒈'는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을 말한다. 네모난 모양으로, 전날 관청에서 곡식을 되던 '관되'의 이름을 빌려온 방언형이다. 구좌읍 지역에서 조사된 '관뒈'는 용적이 2리터들이다. '관뒈'로 네 개면 한 말이라고 한다. 육지의 '한 말'은 열 되를 가리키지만, 제주에서는 '넉 뒈'를 한 말이라고 한다. 육지의 한 말은 '대두 한 말', 제주의 한 말은 '소두 한 말'이라고 한다.

〈사진 121〉은 송당리 조명순 씨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는 '관뒈'



〈사진 121〉 조명순 씨 소장 '관뒈'



〈사진 122〉 임기추 씨 소장 '관뒈'

113) 오문봉 씨 구술.



〈사진 123〉 오문봉 씨 소장 '관둬'



〈사진 124〉 홍수선 씨 소장 '관둬'

로 50년 이상 되었고, 〈사진 122〉는 김녕리 임기추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관둬'다. 〈사진 123〉은 한동리 오문봉 씨 집에서 촬영한 '관둬'다. '관둬'는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쓴다. 〈사진 124〉는 하도리 홍수선 씨가 50년 전에 장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관둬'로, 한 되짜리와 반 되짜리(앞쪽)이다.



〈사진 125〉 홍영애 씨 소장 '관둬'

홍씨는 이 반 되짜리를 '반싱'이라고 하였다. '반싱'은 한자어 '반승'(半升)에서 온 말이다. 홍씨는 이 되들을 4, 5년 전에 깨끗하게 보관한다고 니스칠 하였다. 〈사진 125〉는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했던 관둬로, 옅은 색깔의 '관둬'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홉제기'는 곡식의 분량을 잴 때 사용하기 위해 네모나게 만든 도구로, 한 홉들이 열 홉이면 한 되가 된다.

(2) 손저울, 앚은배기저울/앚은뱅이저울

'저울'은 무게를 다는 도구다. '손저울'은 '손으로 쥐고 물건의 무게를 다는 작은 저울'을 말하고, '앚은배기저울'은 들거나 메지 않고 바닥에 놓은 채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대에서 저울추로 무게를 다는 저울을 말한다.

〈사진 126〉은 한동리 고미생 씨 집에 보관하는 있는 '손저울'과 20kg짜리 '저울추'



〈사진 126〉 고미생 씨 '손저울'과 '저울추'



〈사진 127〉 고춘자 씨의 '저울추'

다. 고씨는 '손저울'을 '들르는 저울'이라고 했는데 '고사리'를 사고팔 때 사용했다.

"이 저울, 막 오랫저. 이거 나 혼 쉰 뒈난 산에 이거 고사리 받으레 뎅겨나세. 받안 솖으멍 풀아세. 이거 들르는 저울, 들르는 저울 헌다. 서른 근짜리. 나 다리 안 아플 때 꺼꺼당 느량 풀앗주만은. 족영 뜰 땐 열두 근, 요건 서른 근.(이 저울, 막 오랬다. 이거 나 한 쉰 되니까 사서 이거 고사리 받으러 다녔었어. 받아서 삶으면서 팔았어. 이거 드는 저울, 드는 저울 한다. 서른 근짜리. 나 다리 안 아플 때 꺾어다가 늘 팔았지만. 적게 뜰 때는 열두 근, 요것은 서른 근.)"[114]



〈사진 128〉 김병희 씨 소장 '앞은배기저울'과 '저울추'



〈사진 129〉 김석봉 씨 소장 '앞은배기저울'



〈사진 130〉 고미생 씨 소장 '앞은배기저울'

114) 고미생 씨 구술.

〈사진 127〉은 김녕리 고춘자 씨가 사용했던 '저울추'로 60kg까지 무게를 잴 수 있다. 〈사진 128〉은 송당리 김석봉 씨가 보관하는 '앚은배기저울(앉은뱅이저울)'과 '저울추'이다. 저울추의 무게에 따라 무게 다는 물건의 무게도 달라진다. 〈사진 129〉는 세화리 김병희 씨 집에서 사용했던 저울로 송당 지역에서 조사된 저울보다 크기가 작다. 〈사진 130〉은 한동리 고미생 씨가 사용했던 '앚은배기저울'이다.

Ⅱ 조사 내용

5. 어업 관련

5.1. 어로 도구

구좌 지역의 어부 관련 도구는 '멸치잡이'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낚시와 얼레, 미끼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려고 한다.

구좌 지역의 멸치잡이는 '갯담'을 이용하거나 모래밭이 있는 해수욕장에서 '후리그물'을 이용하여 잡았다. 멸치잡이는 마을마다 '접(계)'을 구성해 이루어졌다. 멸치잡이는 구좌읍 하도리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하도리는 동동, 서동, 서문동, 신동, 굴동, 창흥동, 면수동 등 7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어로 활동은 서동과 면수동을 제외하고 5개의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동동과 서문동, 신동, 굴동 등 4개 마을에서는 '갯담'을 이용하여 멸치잡이를 하였고, 모래밭이 있는 창흥동에서는 '후리그물'을 이용하여 멸치를 잡았다. 마을마다 크고 작은 '갯담'이 많아 예로부터 멸치잡이가 성행하였다. '갯담' 가운데는 '멜터는개'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다.

5.1.1. 멸치잡이 도구

(1) 갯담

'갯담'은 바닷가에 돌을 쌓아 둥그렇게 만든 돌 그물이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식의 하나인데, 주로 멸치잡이에 이용되었다. '도리산돌'이

나 '맞재비' 등을 이용하여 '갯담'에서 멸치를 잡는 것을 '멜 거린다(멸치 뜨다)'라고 한다. 멸치잡이를 할 때 남자들은 '맞재비' 등을 이용하여 멸치를 뜨고, 여자들은 한쪽에서 '솔박'을 이용하여 그물 쪽으로 멸치를 몰아넣거나 그물로 뜬 멸치를 '질구덕'에 퍼놓는 역할을 한다. '갯담'을 이용하여 멸치를 잡는 시기는 보통 유월에서 팔월 사이인데, '멜 거리는' 일은 '여섯물(여섯무날) 밤부터 아홉물(아홉무날)' 밤까지 하게 된다. '갯담'의 허물어진 돌을 잘 쌓는 일을 '갯담일'이라고 한다. '갯담'은 지역에 따라 '원, 원담'이라고 하기도 한다.

(2) 도리산돌/도리산둘

'도리산돌/도리산둘'은 하도리에서 '갯담'에 들어온 멸치를 뜰 때 사용했던 그물의 한 종류이다. 그물 바깥에 왕대로 둥그렇게 만들고 기다란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물로, '사둘'의 한 형태다. '도리산돌'을 이용하여 멸치를 뜰 때는 그물을 물속에 집어넣어 멸치가 들어오면 그물 둘레의 줄과 손잡이를 들어올리면 된다. 그렇게 잡은 멸치들은 여성들에 의해서 '솔박'으로 '질구덕' 등의 용기에 담아 옮겨진다.

'도리산돌'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만드는데 보통 그물 둘레 지름이 1m 정도 된다고 한다. 멸치잡이 그물의 하나인 '맞재비'를 보관하고 있는 하도리 손성추 씨는 '도리산돌'은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자신은 이용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 '도리'는 '둥근 물건의 둘레'라는 의미로, 둥근상을 일컫을 때 '도리상'이라고 하는 데서도 '도리'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산돌이엔 헌 거 맞재비는 벌린 거고 도리산돌은 동글락헌 거. 족바지는 족은 거. 족바지는 집집마다 잇어.(사둘이라고 한 거 '맞재비'는 벌린 것이고 '도리산돌'은 둥근 것. 뜰채는 작은 거. 뜰채는 집집마다 있어.)"[115]

(3) 맞재비

'맞재비'는 '갯담'에서 멸치를 뜰 때 사용하는 그물의 한 종류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맞재비'는 그물 양쪽에 기다란 왕대를 붙이고 그 안에 그물을 매달아 만드는데,

115) 강영실(하도리) 씨 구술.

왕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가로로 연결한다. 그물 양쪽의 왕대는 '맞재비대'로써, 손잡이 역할을 한다. '맞재비'는 양손을 이용하여 멸치를 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맞재비'를 이용하여 멸치를 뜰 때는 '맞재비대'를 양손으로 벌려 물속으로 집어넣어 멸치가 들어오면 '받침대'를 들어 올리면 된다. '받침대'는 양쪽의 손잡이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물속에 들어간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한다. '맞재비대' 길이는 발가웃 정도로 하고, 벌리면 2m 50cm 정도가 되게 만든다.

"멜은 남자들이 거려. 맞재비로 대서 거려. 여자들은 옆에 잇다가 털어서 구덕디레 비우고. "멜 털라, 털라.". '맞재비'에 멜 안 들어오면 여자들이 솔박으로 몰아와. "멜 훌쳐오라." "멜 몰아오라." 허는 말. 물 지치면서 몰아오는 거.(멸치는 남자들이 떠. '맞재비'로 대고서 떠. 여자들은 옆에 있다가 떨어서 바구니로 비우고. "멸치 떨어라, 떨어라." '맞재비'에 멸치가 안 들어오면 여자들이 '솔박'으로 몰아와. '멸치 훌쳐오라.". "멸치 몰아와라." 하는 말. 물 끼얹으면서 몰아오는 거.)"



〈사진 1〉 손성추 씨 소장 '맞재비'



〈사진 2〉 손성추 씨가 '맞재비' 사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맞재비'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여자들은 멸치를 몰아오거나 멸치를 퍼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멸치가 그물에 잡히면 '떨어내고', 그물에 멸치가 안 걸릴 때는 '솔박'으로 물을 끼얹으며 '맞재비' 쪽으로 몰아오는 것을 '멜 훌치다'라고 말한다. 〈사진 1, 2〉는 하도리 손성추 씨가 사용했던 '맞재비'다. 손씨가 보관하고 있는 '맞재비'는 30년 전에 만들어 최근까지도 사용했는데, '받침대'는 '가시남(가시나무)'으로 만들었다.

(4) 족바지

'족바지'는 '갯담'에 들어온 멸치를 뜰 때 사용하는 '뜰채'다. '도리산돌'과 '맞재비'를 이용해 멸치를 잡을 때는 힘이 많이 들지만 '족바지'로 멸치를 뜰 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사진 3〉 허정순 씨의 '멜 족바지'



〈사진 4〉 한재병 씨의 '방어 족바지'

〈사진 3〉은 한동리 허정순 씨가 멸치를 뜰 때 사용했던 '족바지'다. 허 씨는 이 '족바지'를 국수 삶아서 건질 때 사용했던 뜰채의 쇠를 이용하여 그물과 손잡이를 만들어 멸치 뜨는 '족바지'로 활용하고 있다. 만든 지 30년이나 되었다. 허씨는 멸치가 많이 들면 재에 섞어서 '불치통'에 가리어 두었다가 보리밭의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말려서 반찬으로 먹기도 했는데, 열두 말 드는 항아리에 멸치 마른 것을 담아뒀다가 일 년 내내 반찬으로 볶아서 먹었다고 한다.

"족바지 이거 육십 대에 써난 거여. 다 뒈연에 족바지 다 거뒈벤 엇으난 혼 번 갯곳바위 가보난 멜이 수망수망 하서. 경허난 저거 옛날 우둥 건져난 쒜주게. 그거 조룩 엇이난 저거 박안에 나냥으로 멘든 거. 이제 거 육짓아이덜 족바지거추룩 멘듦도 허고, 또 낭 그차당이 소나무가 이렇게 크지 안 허냐? 요디 건 끊어불고 요디 거 가까단에 요렇게 부쪄근에가 그물 메왕 멜을 영 허민 영 목 짓어진 더레 저 그물을 대여, 영 헤영 대민이 이디서 누게가 막 몰아가는 거라. 몰아가민 멜이 들어낫어. 멜 거릴 때 새벽 두 시 뒈영 물싸민 두 시 뒈영 가고, 또 세 시 뒈영 물쌀 때민 세 시 뒈영 가근에가 막, 아이고 옛날은 멜이 반찬이난이 별일이 셔도, 밧디 일이 셔도 일 내벼뒁 멜 거리레 가는 거라. 저 족바지덜 뚜러메멍 사름 두어이 허고, 질구덕 짊어지고. 질구덕 엇은 사름은 또 촐바구리 ᄒᆞ나 허민

멕도 졍 가고 저 고리, 요만이헌 구덕 것도 앗아가근에가 막. 고린 거디 강 놓아둠수룩 멜이 하영 들 땐 막 그레 거려놔근에 덜멍 지영 와난. 그걸 이젠 풀지 못허민 이젠 ᄀᆞ스락에 뭉경 불치 허끄멍 뭉겨근에 눌엇단 보리 갈고 경헤낫주. 놀차 ᄀᆞ스락에 뭉겨근에 불치 허꺼근에 뭉경 막 쌓엿다근에 불칫막에. 불치막이엔 헌 디가 싯주게. ᄯᅮ로 영 짓엉. 경허민 그디 막 데몃다근에 그거 들영 보리 갈민 보리가 그렇게 좋아. 몰랑은 이녁 반찬 먹고. 우리도 열두 말 뒌 항 벌겅헌 항에 하나 몰려낭 일년 내낭 지져먹엇어.(뜰채 이거 육십 대에 썼던 거야. 다 되어서 뜰채 다 걷어버려서 없으니까 한번 갯가에 가보니까 멸치가 '수망수망' 많아. 그렇게 하니까 저거 옛날 국수 건졌던 쇠지. 그거 자루 없으니까 저거 박아서 나대로 만든 것. 이제 육지 아이들 뜰채처럼 만듦도 하고, 또 나무 잘라다가 소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니? 여기 것은 잘라버리고 여기 것은 여기 것 깎아다가 요렇게 붙여서 그물 메워서 멸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 지어진 데로 저 그물을 대. 이렇게 해서 대면 여기서 누가 막 몰아가는 거야. 몰아가면 멸치가 들었었어. 멸치 뜰 대 새벽 두 시 되어서 물 써면 두 시 되어서 가고, 또 세 시 되어서 물썰 때면 세 시 되어서 가서 마구, 아이고, 옛날은 멸치가 반찬이니까 별일이 있어도, 밭에 일이 있어도 일 내버려둬서 멸치 뜨러 가는 거야. 저 뜰채 둘러매서 사람 두어 명 하고, '질구덕' 짊어지고. '질구덕' 없는 사람은 또 '찰바구리' 하나 하면 멱서리도 져서 가고 저 고리, 요만큼한 바구니 그것도 가져가서 마구. 고리는 거기 가서 놓아두고서 멸치가 많이 들 때는 마구 그리고 떠놔서 덜면서 지어서 왔었어. 그것을 이젠 팔지 못하며 이젠 까끄라기에 뭉개서 재 섞으면서 뭉개서 가리었다가 보리 갈고 그렇게 했어지. 날째 까끄라기에 뭉개서 재 섞어서 뭉개서 마구 쌓았다가 재거름통에. 재거름통이라고 한 데가 있지. 따로 이렇게 지어서. 그렇게 하면 거기 막 쌓았다가 그거 들여서 보리 갈면 보리가 그렇게 좋아. 말려서 이녁 반찬 먹고. 우리도 열두 말 되는 항아리 벌건 항아리에 하나 말려놓아서 일년내내 지져먹었어.)"[116]

〈사진 4〉는 김녕리 한재병 씨가 방어 뜰 때 사용하는 '족바지'이다. 고기 종류에 따라 '족바지'의 크기를 달리해서 만든다.

(5) 후리그물, 그물베, 닷베, 당선

하도리의 '멜 후리'는 창흥동에서 이루어졌다. 창흥동 거주 오만종 씨에 의하면, 창흥동에는 동접, 신접, 구접 등 세 개의 '접(계)'이 있었다고 한다. '후리그물'은 '멜 후

116) 허정순 씨 구술.

리’를 할 때 이용하는 대형 그물로, ‘멜 후리’는 멸치잡이를 하는 일을 말한다. 창흥동의 ‘멜 후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었는데, 3개의 ‘접’이 사흘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였다.

멸치 철이 돌아오면 ‘당선’이 바다에 나가 멸치가 있는지 돌아본다. 멸치떼가 보이면 ‘그물배’, ‘닻배’, ‘당선’을 준비한다. 그물을 실은 ‘그물배’와 닻을 실은 ‘닻배’가 일정한 장소에 가서 닻을 내리면 ‘그물배’는 그물을 친다. 당선에서 그물에 멸치가 들면 그물을 뭍으로 끌어와 ‘멸치고리’에 떨어놓으면 ‘질구덕’이나 ‘산태’ 등을 이용하여 모래밭으로 옮긴다. 이렇게 잡은 멸치 등은 멸치가 없는 산간마을 등지에 나가 메밀과 피 등과 물물교환해 온다. 남은 것은 말려서 밭의 거름으로 썼다.

“멜후리헐 때는 봄부터 가을까지. 봄멜 여름멜 가을멜 허여. 그때 당시는 거름용, 젓갈 담는 거. 멜 잡으면 문 마차 싣고 송당 가서 무물도 바꽈오고 산듸도 바꽈오고 멜 장시 나가서. 잡는 거는 베가 세 척 들어. 구물베, 닷베, 당선. 그물베는 구물 실르고 구물베에 뗑기는 사름 실르고, 또 닷베는 닷 실르고 사름 실르고, 닷 뗑길 사름. 당선은 주위 돌아봐. 멜이 잇다! 구물베로 닷베 세와놓고 구물 놔가. 당선이 나가서 구물 싣고, 당선이 바다 고동 불면은 들어사서 끌어오는 거라. 멜고리라고 잇어. 끌고 와서 가이 와서. 한 접에 삼사십 명. 반썩 갈라서 당선 두 사람, 반썩 갈라. 그물베 반, 닷베 반 구물 놓면 뗑겨오는 거라. 구물베 닷을 그물 쭉쭉 놔오면은 멜 가둬질 거 아니여. 그물에 가두와 놓고 뗑경 후리는 거 멜후리는 거. 당선은 베에 그물이 까라앉지 못허게 딱 지켜 잇고. 가에로 끌어오는 거 닷베허고 구물베허고 닷가지가 큰 게 잇어. 닷가지를 실러가지고 바다에 들이치는 거라. 베 우에서 닷을 뗑경 막 조여오는 거라. 게민 긋디 오면은 내려가지고 양쪽에서 고리에 담는 거라.(멸치 후리할 때는 봄부터 가을까지. 봄멸치 여름멸치 가을멸치 해. 그때 당시는 거름용, 젓갈 담그는 거. 멸치 잡으면 몽땅 마차에 싣고 송당 가서 메밀도 바꿔오고 밭벼도 바꿔오고 멸치 장사 나가서. 잡는 것은 배가 세 척 들어. 그물배, 닻배, 당선. 그물배는 그물 싣고 그물배에 (그물) 당기는 사람 싣고, 또 닻배는 닻 싣고 사람 싣고, 닻 당길 사람. 당선은 주위를 둘러봐. 멸치다! 그물배로 닻배 세워놓고 그물 놓아가. 당선이 나가서 그물 싣고, 당선이 바다 고둥 불면 들어서서 끌어오는 거야. 멸치 고리라고 있어. 끌고 와서 가에 와서. 한 ‘접’에 삼사십 명. 반씩 갈라서 당선 두 사람, 반씩 나눠. 그물배 반 닻배 반 그물 놓으면 당겨오는 거야. 그물배가 닻을 그물 쭉쭉 놔오면 멸치 가둬질 것 아닌가. 그물 가둬 놓고 당겨서 후리는 것 멸치 후리는 것. 당선은 배에 그물이 가라앉지 못하게 딱 지켜 있고. 가로 끌어오는 거 닻배하고 그물배하고. 닻가지가

큰 게 있어. 닻가지를 실어가지고 바다에 들이치는 거야. 배 위에서 닻을 당겨서 막 조여 오는 거야. 그러면 가에 오면 내려가지고 양쪽에서 고리에 담는 거야.)"[117]

이렇게 잡은 멸치는 공동으로 나누는데, '접'을 책임지는 '공원'이 두 깃, 소임이 한 깃반, 그물배 다섯 깃, 닻배 세 깃, 당선 두 깃, 계원 각각 한 깃씩 나눈다. '멜고리'의 멸치는 '걸체(삼태기)'로 '질구덕'에 담아서 균등하게 분배한다. '고리'는 대나무와 '너덩' 이라 불리는 개머루덩굴 등을 엮어서 크게 결어 만들었고, '걸체'는 대나무로 만든 '대걸체'를 이용한다. 멸치잡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봄에 잡은 멸치는 '봄멸치', 여름에 잡은 멸치는 '여름멸치', 가을에 잡은 멸치는 '가을멸치'라고 한다.

"나눌 때는 공원 두 찍, 소임은 한 찍반, 접원 한 찍. 구물베는 크니까 다섯 찍, 닷베는 세 찍, 당선 두 찍. 한 접당 그물베 하나, 닷베 하나, 당선 하나, 베 세 개 필요헤. 한 접당 세 개. 테우도 헷어. 테우도 보조 역할. 것도 지원받아서 혼 찍 주고. 많이 들엇을 때 지원받아서 혼 찍. 터베. 멜 모아진 거 고리에 다 담아. 멜고리 구덕 닮은 건디 커. 둘레가 이만이 아주 크지. 두 발 너비 뭴 거라. 움직거리지 못해. 둥그렁헤. 내가 구접에 잇을 때 젤 많이 잡을 때 스무 고리 잡아서. 서른 고리도 잡아서. 처분 못해서 밧듸 거름햇어. 모살판에 널어가지고 보리 가는 데 걸름해서. 멜컬름이라고.(나눌 때는 공원 두 깃, 소임 한 깃 반, 계원 한 깃. 그물배는 크니까 다섯 찍, 닻배는 세 찍, 당선 두 찍, 한 접당 그물배 하나, 닻배 하나, 당선 하나. 배 세 개 필요해. 한 접당 세 개. 떼배도 했어. 떼배도 보조 역할. 것도 지원받아서 한 깃 주고. 많이 들었을 때 지원받아서 한 깃. 떼배. 멸치 모아진 거 고리에 다 담아. 멸치고리 바구니 닮은 것인데 커. 둘레가 이만이 아주 크지. 두 발 넓이 될 거야. 움직이지 못해. 둥글어. 내가 구접에 있을 때 젤 많이 잡을 때 스무 고리 잡았어. 서른 고리도 잡았어. 처분 못해서 밭에 거름했어. 모래판에 널어가지고 보리 가는 데 거름해서. 멸치거름이라고.)"[118]

'후리그물'은 멸치후리 할 때 사용하는 그물이다. 보통 한 접에 15개의 그물을 연결하여 쓴다. 2명이 1조가 되어 그물을 붙이고, 기우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그물은

117) 오만종(하도리) 씨 구술.
118) 오만종 씨 구술.

‘후리그물’이라고 한다. ‘접원’이 30명이면 ‘후리그물’은 그물 열다섯 개를 이어서 만든다. 그물과 그물을 잇는 것은 ‘연폭’이라고 하고, 그물 잇는 줄을 ‘연폭줄’이라고 한다. 그물을 붙이는 것을 ‘연폭줄 잣으라’라고 한다. 그물을 잇지 않은 폭은 ‘불폭’이라고 한다. ‘불폭’은 후리그물의 마지막 남은 폭으로 그곳에 멸치가 가둬지는 것이다.

“멜 후림이라는 건 거 구물이 한 개뿐이 아니고 열다섯 개 부찌는 거라. 삼십 명 사십 명 인원은 한 구물에 두 사람씩. 산태해서 놔서 들러오는 거, 앞뒤에 사서 널어서 몰리는 거, 깨진 디 구물바농대 대로 만든 거 잣는 거. 둘이가 책임. 그물 하나가 도막도막 연결뒌 거라. 세 발 정도. 세 발 넓이 길이가 오 메타, 높이는 3~6메다. 그 그물에는 두 사람만 책임지믄 뒈는 거. 연결헐 때 다같이 허는 거고.(멸치 후림이라는 것은 거 그물이 한 개만이 아니고 열다섯 개 붙이는 거야. 삼십 명 사십 명 인원은 한 그물에 두 사람씩. ‘산태’해서 놔서 들어오는 거, 앞뒤에 서서 널어서 말리는 거, 깨진 데 그물바늘대 대로 만든 것 잣는 거. 둘이 책임. 그물 하나가 토막토막 연결된 거야. 세 발 정도. 세 발 넓이 길이가 오 미터, 높이는 3~6미터, 그 그물에는 두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 거. 연결할 때 다같이 하는 것이고.)”[119]

“멜 후리젠 허면은 그렇게 나갈 시점에 그물 다 여놓고. 연폭 그 한 폭 연폭 사이가 책임 다 잇어. 옛날에 모면으로 연폭줄. 연결허는 행위를 연폭줄 잣으라. 연폭잣다. 구물 터지면 바농대로 즛곡. 마지막 단계에서 구물 가운데 폭 걸로 가돠놓는 거. 불폭이라고. 구물 안에 고리에 그 그물을 책임진 사름은 연폭헌 거 다 풀어가지고 허고. 구물 밑에 불돌이라고 헤가지고 돌을 고망 뚧어가지고 구물 밑에 돌아매는 거라. 그디 쭉 돌아매면은 물속에 까라앚이는 돌. 물속에 돌아매는 돌을 불돌, 우에는 뛧박이엔 헌디. 그때는 나무로 다 만들어서. 버국이 없엇으니까. 그물 하나에 불돌 다섯 개 이상 돌아매.(멸치 후리려고 하면 그렇게 나갈 시점에 그물 다 이어놓고. 연폭. 그 한 폭 연폭 사이가 책임 다 있어. 옛날에 목면으로 연폭줄. 연결하는 행위를 연폭줄 자아라. 연폭 잣다. 그물 터지면 바늘대로 잣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물 가운데 폭 그것으로 가둬놓는 거. 불폭이라고. 그물 안의 고리에. 그 그물을 책임진 사람은 연폭한 것 다 풀어가지고 하고. 그물 밑에 ‘불돌’이라고 해가지고 돌을 구멍 뚫어가지고 그물 밑에 매다는 거야. 거기 쭉 매달면 물속에 가라앉는 돌. 물속에 매다는 돌을 ‘불돌’, 위에는 ‘뛧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나무로 다 만들어. ‘스티로폼’이 없었으니까. 그물 하나에 ‘불돌’ 다섯 개 이상 매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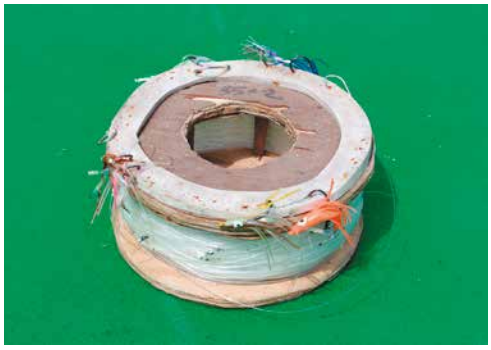
119) 오만종 씨 구술.

'후리그물'은 한쪽은 물 아래로, 한 쪽은 물 위로 떠오르게 해서 쳐야 한다. 그물 한쪽이 물 아래로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그물 아래쪽에 '불돌'을 매달고, 위로 떠오르는 쪽에는 '뗏박'을 매단다. '불돌'은 그물 한 폭마다 5개 정도 단다. 그물이 터지면 '그물바농대(그물바늘대)'로 기우는데, 이를 가리켜 '그물 ᄌᆞ다(잣다)'라고 한다. 이밖에도 '멜후리'를 할 때에는 후리그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산태'와 '질구덕', 그물을 보관하는 '그물막' 등의 시설도 필요하다.

5.1.2. 정술 등 기타

(1) 정술

'정술'은 고기잡이할 때 사용하는 낚싯줄을 말한다. 어종에 따라 낚싯줄의 굵기가 40호, 50호, 100호 등 다르다. 〈사진 5, 6〉은 한재병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정술이다.



〈사진 5〉 한재병 씨 소장 '정술'



〈사진 6〉 한재병 씨 소장 '정술'

(2) 거짓말미끼, 삼봉낚시

〈사진 7, 8〉의 '거짓말미끼'는 김녕리 한재병 씨가 방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로, '호로'라고도 한다. '호로'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한다. '새우' 등의 미끼 모양을 하고 있다. '삼



〈사진 7〉 한재병 씨 소장 '거짓말미끼'


〈사진 8〉 한재병 씨 소장 '거짓말미끼'


〈사진 9〉 한재병 씨 소장 '삼봉낚시'

봉낚시'는 '한치(화살오징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낚시로 〈사진 9〉는 한 씨가 '한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삼봉낚시'다.

(3) 얼레

'얼레'는 낚싯줄을 감는 도구이다.

〈사진 10, 11〉은 김녕리 한재병 씨가 고기잡이 할 때 사용하는 '얼레'다. 〈사진 12〉는 하도리 김영수 씨가 사용하던 '얼레'로 사용자에 따라 '얼레' 모양이 다르다.


〈사진 10〉 한재병 씨 소장 '얼레'


〈사진 11〉 한재병 씨 소장 '얼레'


〈사진 12〉 김영수 씨 소장 '얼레'

5.2. 물질 도구

'물질 도구'는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테왁과 망사리, 조락, 비창, 호멩이 등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1) 테왁/테왁박세기, 망사리/망아리, 조락/그물수대

'테왁'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예전에는 박의 씨를 파내어 만들었는데, 요즘은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테왁'을 '태왁박세기'라고 하였다. 바가지를 이용해 만들어서 붙여진 이름인 셈이다.

"테왁박세기는 물에 들 때, 메역 ᄌᆞ물 때, 구젱기 ᄌᆞ물 때도 허고게 아무 때라도. 저거나 써난 디가 ᄒᆞᆫ 칠년 뒈신디 안 썬 내부난. 어음은 저 상동낭으로 헌 거.('테왁바가지'는 물에 들 때, 미역 채취할 때, 소라 채취할 때도 하고 아무 때라도. 저거 내가 섰던 데가 한 칠년 됐는데 안 써서 내버리니까. 에움은 저 상동나무로 한 것.)"[120]

〈사진 13〉은 하도리 제주해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ᄀᆞᆨ테왁'과 '미망사리'이다. 'ᄀᆞᆨ테왁'은 'ᄀᆞᆨ', 즉 '박'으로 만든 '테왁'이고, '미망사리'는 억새의 속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망사리'를 말한다. 〈사진 14〉는 하도리 김옥연 씨가 물질가기 위해 준비



〈사진 13〉 'ᄀᆞᆨ테왁'과 '미망사리'(해녀박물관)



〈사진 14〉 김옥연 씨의 '솔구덕'과 '테왁', '망사리'

120) 이삼년 씨 구술.



〈사진 15〉 김옥연 씨의 '테왁'과 '망사리'



〈사진 16〉 고재인 씨의 '테왁'과 '망사리'



〈사진 17〉 고춘자 씨의 '테왁'과 '망사리'



〈사진 18〉 이삼년 씨의 '테왁'과 '망사리'

한 것으로 '종구덕' 위에 '테왁'을 얹은 모습이다. 〈사진 15〉는 하도리 김옥연 씨가 사용하는 '테왁'과 '망사리'다. 김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멀리 물질을 나가도 한눈에 환히 알 수 있게 '테왁' 위에 주홍색 천을 감아 표시를 해 두었다. 망사리 에움은 '노렛줄'을 사용하였다. 자기의 '테왁'을 구분하기 위해서 헝겊 따위로 '테왁' 위를 감싸기도 한다. 〈사진 16〉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사용하던 '테왁'과 '망사리'로 색동천으로 테왁을 감싸 놓았다. 〈사진 17〉은 김녕리 고춘자 씨의 '테왁'과 '망사리'이고, 〈사진 18〉은 이삼년 씨가 7년 전까지 썼던 '테왁박세기'와 '망사리'다.

'망사리'는 미역이나 소라, 전복 따위를 따서 넣기 위해서 만든 그물주머니다. 달리 '망아리'라고도 한다. '망사리'는 짚이나 억새 속잎을 꼬아 만들었다. '짚'으로 꼬아 만든 것은 '찍망사리', 억새 속잎을 꼬아 만든 것은 '미망사리'라고 한다. 종려나무 잎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망사리는 '남총망사리'이다. '남총망사리'는 대마도 등지로

물질 나갔던 잠녀 등이 가져온 남총 줄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요즘은 나일론 줄을 꼬아 만들고 있다. '망사리'의 둘레는 '어음(에움)'이라고 하는데, 보통 '상동낭(상동나무)'이나 'ᄃᆞ렛줄(다래나무 줄기)'을 이용해 만든다.

"옛날 그물망아리 허기 전이 저 나룩찝 꼬앙 허고, 웃드르 가근에이 미 있는 거. 미 뽑아다근에 그거 두드려근에 꼬앙 허고. 우리 두린 땐 미 뽑아다근에 그거 꼬아근에 망사리 멘들앙 허고. 나룩찝 두드령 만들앙 허고 허단에 이 좋은 시상이 나오란 나이론으로 흙은 건 흙은망사리, 좀진 건 좀진망사리 그추룩 헤낫주.(옛날 그물망사리 하기 전에 저 볏짚 꼬아서 하고, '웃드르' 가서 '미' 있는 거 뽑아다가 그거 두들겨서 꼬아서 하고. 우리 어린 때는 '미' 뽑아다가 그거 꼬아서 망사리 만들어서 하고. 볏짚 두들겨서 만들어서 하고 하다가 이 좋은 세상이 나오니까 나일론으로 굵은 건 '굵은 망사리', 자잘한 것 '자잘한 망사리' 그렇게 했었지.)"[121]

'테왁'과 '망사리'는 하나로 연결해서 쓴다. 요즘은 해안가에 탈의실이 있어서 그곳에 '테왁'과 '망사리'를 보관해 두고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질구덕'에 넣어서 지고 다녔다. 바다에서 채취한 소라나 미역 등도 '질구덕'에 넣은 후 그 위에 '테왁'과 '망사리'를 넣어서 지고 다녔다. '질구덕'의 등이 닿는 부분에는 'ᄀᆞ에기'라고 해서 가죽으로 된 등바대를 받쳤다. 'ᄀᆞ에기'는 보통 쇠가죽으로 만들기도 하고, 절은 장판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절은 장판으로 만든 'ᄀᆞ에기'는 '절룬ᄀᆞ에기'라고 하였다. 이렇게 'ᄀᆞ에기'를 대는 이유는 옷이 젖는 것도 방지하지만, 등이 아픈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테왁'을 얽는 줄은 '관제'라고 한다. '테왁' 위의 '관제'는 '우읫관제', 아랫부분은 '아랫관제'라고 한다.

"옛날에 우미 헐 땐 큰 구덕 헤여도 여름에이 성게나 구젱기나 ᄒᆞ꼼 잡으레 갈 땐 조그만 거 허영 지영 뎅긴디 나가 얼만 안 뎅겻주게. 이 구덕 아래 ᄀᆞ에기 바트고 경헨 경 뎅기단 ᄀᆞ에기 데껴불고 이걸 영 논 거. 옛날은이 쉐가죽. 옛날 쉐가죽으로 뭐헤나신디, 글후젠 이젠 육지덜 뎅기난에 무신 절룬ᄀᆞ에기 허단에 또 글후젠 비니루 장판 닮은 건디 ᄀᆞ에기로 나온 거가 잇어서.(옛날에 우뭇가사리 할 때는 큰 바구니 해도 여름에 성게나

121) 홍수선 씨 구술.

소라나 조금 잡으러 다닐 때는 자그마한 것 해서 져서 다녔는데 내가 얼마는 안 다녔지. 이 바구니 아래 등바대 받치고 그렇게 져서 다니다가 등바대 던져버리고 이것을 이렇게 놓은 거. 옛날은 쇠가죽. 옛날 쇠가죽으로 뭐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육지들 다니니까 무슨 '절은등바대' 하다가 또 그 이후에는 비닐 장판 같은 것인데 등바대로 나온 것이 있었어.)"[122]

'조락'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에 매단 망사리 외에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작은 그물주머니다. '우뭇가사리'를 채취해 넣기도 하고, 전복이나 '오분제기' 따위의 해산물을 따로 담기도 한다. '조락'을 김녕리 이삼년 씨는 '그물수대'라도 하였다.

"물질헐 때 저 헛물에 헐 적엔 빗창도 앗이고 호멩이도 앗이고 경헨 갓주게. 테왁 앗이고 그물수대도 담앙 가곡. 잇당이 뭉게ᄀᆞ튼 거나 무시거 필요헌 거 허민 그레 담아놔 낫저. 망사리레 안 허영 그물수대에 담앗저. 것ᄀᆞ라 조락이엔도 곧주게. 그물수댄 막 옛날말.(물질할 때 저 '헛물'에 할 적에는 비창도 가지고 '호멩이'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지. '테왁' 가지고 '그물수대'도 담아서 가고. 있다가 문어같은 거나 무슨 것 필요한 것 하면 그리로 담아놨었지. 망사리에 안 해서 '그물수대'에 담았지. 그것보고 '조락'이라고도 말하지.)"[123]

〈사진 19〉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그물수대'다. 〈사진 20〉은 하도리 김옥



〈사진 19〉 이삼년 씨의 '그물수대'



〈사진 20〉 김옥연 씨의 '조락'

122) 홍수선 씨 구술.
123) 이삼년 씨 구술.


〈사진 21〉 김일선 씨의 '조락'


〈사진 22〉 이삼년 씨 소장 '남총줄'

연 씨가 사용하던 '조락'이고, 〈사진 21〉은 하도리 김일선 씨의 '조락'이다. 〈사진 22〉는 '남총망사리'를 만들었던 '남총줄'로 이삼년 씨 집에서 촬영한 것이다.

(2) 비창/빗창

'비창'은 잠녀들이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된 기다란 도구이다. '비창'의 '비'는 전복을 뜻하는 고유어로, '비창'은 '전복을 따는 창'이라는 의미이다. 구좌읍 지역은 잠녀들이 사용하는 '전복 따는 비창'을 응용하여 '당근 파는 비창', '삼마 파는 비창'등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근 파는 비창'은 당근을 파거나 당근 밭에 김을 맬 때도 사용하였다. 김녕리 이삼년 씨는 '당근 파는 비창'을 '밧듸 하는 비창'이라고 하였다. 물질할 때 사용하는 비창이 일자형으로 한쪽 끝에 고무줄 고리를 만들어 손목에 끼워서 사용했다면 '당근 파는 비창'은 T자 모양으로 손잡이를 만들었다. '삼


〈사진 23〉 김일선 씨의 '비창'


〈사진 24〉 강순자 씨 소장 '삼마 비창'과 '당근 비창'



〈사진 25〉 이삼년 씨 소장 '당근 비창'



〈사진 26〉 고춘자 씨 소장 '당근 비창'

마 파는 비창'도 비창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예전에 '삼마' 즉 반하를 캐러 다닐 때 사용했던 농기구다.

〈사진 23〉은 하도리 김일선 씨가 물질할 때 썼던 '비창'이고, 〈사진 24〉는 한동리 강순자 씨의 '비창'으로 위는 강 씨의 자식들이 '삼마(반하)' 팔 때 가지고 다녔던 비창이고, 아래는 '당근 파는 비창'이다. 〈사진 25〉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당근 팔 때 사용했던 비창이고, 〈사진 26〉은 김녕리 고춘자 씨가 사용했던 '당근 비창'이다.

(3) 호멩이와 까꾸리, 중게호미

'호멩이'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오분제기'나 성게, 문어 따위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illegible]겡이' 또는 '[illegible]게'라고 불리는 '호미'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호미날'이나 '호미등' 부분에서 차이난다. 또 잡는 물건에 따라서도 모양이 다르다. '뭉게(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호멩이'는 날 부분이 둥그렇게 생겼고 '오분제기'를 딸 때 사용하는 '호멩이'는 호미의 끝이 납작하게 되어 있다. 제보자에 따라서 '호멩이'를 '까꾸리'라고 하였다.

"이건 저 뭉게호멩이. 통통헌 건 뭉게 잡을 때 쓰는 뭉게호멩이. 이건 ᄒᆞ썰 납작허다이. 납작헌 건 오분제기도 떼고.(이것은 저 문어호멩이. 통통한 것은 문어 잡을 때 쓰는 '뭉게호멩이'. 이것은 조금 납작하네. 납작한 것은 오분제기도 떼고.)"[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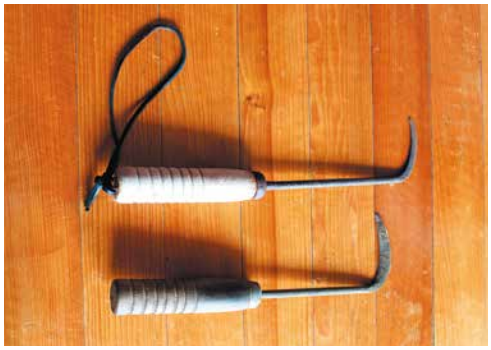
124) 이삼년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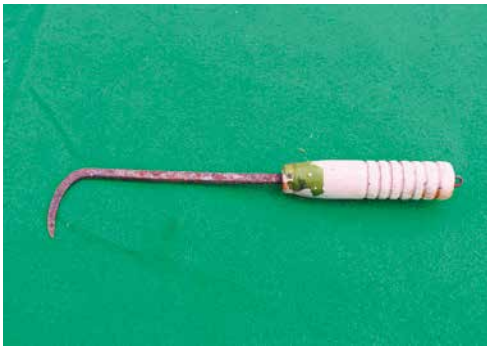
〈사진 27〉 김일선 씨의 '호멩이'와 '종게호미'



〈사진 28〉 이삼년 씨 소장 '오분제기호멩이'(위)와 '뭉게호멩이'(아래)



〈사진 29〉 김영수 씨 소장 '호멩이'(위)와 '골겡이'(아래)



〈사진 30〉 고춘자 씨 소장 '성게까꾸리'

'종게호미'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가지고 다니는 낫을 일컫는 말이다. 미역이나 톳, 모자반 등을 벨 때 사용한다. 예전에는 낫의 슴베를 나무 밖으로 끼운 후 철사로 단단하게 동여맨 '종게호미'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밭에서 사용하는 '비호미'를 가지고 다닌다. '종게호미'와 대비하여 밭에서 사용하는 낫을 김녕리에서는 '비호미'라고 하였다. 송당리에서는 '꼴' 등을 벨 때 사용하는 기다란 '낫'에 대비하여 '짬호미'라고 하였다.

〈사진 27〉은 하도리 김일선 씨가 사용하는 '호멩이'와 '종게호미'다. 왼쪽에서부터 오분제기, 성게, 뭉게를 잡을 때 사용했던 '호멩이'다. 〈사진 28〉은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오분제기호멩이'와 '뭉게호멩이'다. 〈사진 29〉는 하도리 김영수 씨 부인이 사용하는 '호멩이'이고 아래는 일반적으로 들에서 사용하는 '골겡이'이다. 〈사진 30〉은 김녕리 고춘자 씨가 사용하던 '성게까꾸리'다. 잠녀들이 물속에 들어가 '뭉게'

따위를 딸 때 사용하는 '호멩이' 자루 끝에 고무줄을 매달았는데, 이는 물질할 때 호미를 손에 감아서 사용하기 쉽게 한 것이다.

(4) 눈과 눈곽

'눈'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눈에 쓰는 물안경이다. 예전에는 작은 알이 두 개인 '족은눈'을 사용했다면 요즘은 알이 하나인 '큰눈'을 사용한다. '눈'의 테두리가 '쐐(쇠)'이면 '쐐눈'이라고 하고, 고무이면 '고무눈'이라고도 한다.

'눈곽'은 '눈'을 보관하는 상자다.

〈사진 31〉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족은눈'과 '고무눈'이다. 이 '고무눈'은 크기가 커서 '큰눈'이라고도 하는데, 고씨가 마흔 즈음에 썼던 물안경이다. 〈사진 32〉는 한동리 고미생 씨의 '족은눈'으로 고씨는 이 눈을 콩 타작할 때 눈에 티가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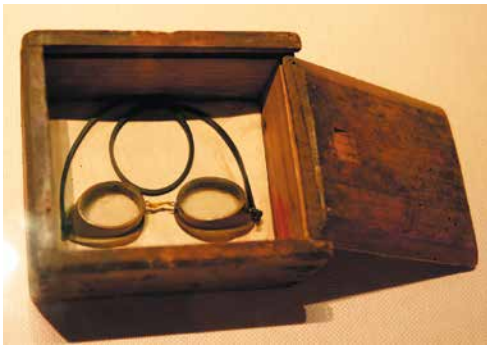

〈사진 31〉 고재인 씨의 '족은눈'(왼쪽)과 '고무눈'


〈사진 32〉 고미생 씨의 '족은눈'


〈사진 33〉 허정순 씨의 '큰눈'


〈사진 34〉 김옥연 씨의 '큰눈'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3〉은 한동리 허정순 씨가 사용했던 '큰눈'으로, 이 눈은 허씨가 열아홉 살부터 물질할 때 썼던 물안경이다. 〈사진 34〉는 하도리 김옥연 씨가 사용하던 '큰눈'이다. 〈사진 35〉는 하도리 해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족은눈'과 눈을 넣어 보관하는 '눈곽'이다.


〈사진 35〉 '족은눈'과 '눈곽'(해녀박물관)

(5) 소살

'소살'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고기를 쏘기 위해 갖고 다녔던 도구다. 표준어 '작살'에 대응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고기를 쏘는 부분을 '비늘(미늘)'이라고 하는데, '비늘'이 두 개이면 '두소살', 세 개이면 '삼소살'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비늘'이 하나인 '소살'을 이용한다.

〈사진 36〉은 하도리 김일선 씨가 물질할 때 사용했던 '소살'이고, 〈사진 37〉은 '소살'의 고기를 쏘는 부분인 '비늘(미늘)'이다.


〈사진 36〉 이일선 씨 소장 '소살'


〈사진 37〉 '소살 비늘'

(6) 귀마개

'귀마개'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다. 예전에는 꿀 찌꺼기를 끓여 만든 '밀'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고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다. 〈사진 38〉은 하도리 김일선 씨가 물질할 때 사용했던 '귀마개'이다.


〈사진 38〉 김일선 씨 소장 '귀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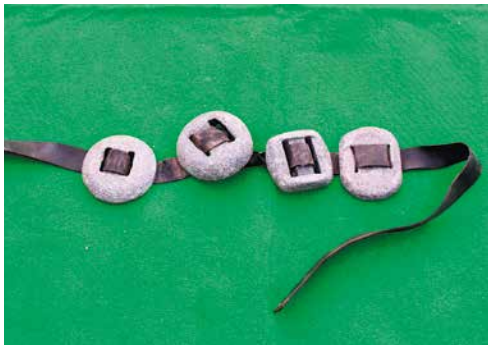
(7) 연철과 뽕돌

'연철'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고무옷의 허리에 차는 물건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철의 무게는 더해진다. 이는 나이 든 사람들이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갈 때 힘이 부치기 때문에 '연철' 무게에 의지하여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뽕돌(봉돌)'은 낚시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낚싯줄 끝에 매어 다는 작은 쇳덩이나 돌덩이를 말한다. 잠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에 낚시줄을 매어 물고기를 낚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 뽕돌. 낚시 헌 것이 아니라이 물에 들레 갈 때 저 뽕돌이영 줄이영 헤영 가민 물알러레 영 헤여근에 무시거 먹을 거 허민 근때 코셍이 닮은 궤기가 먹을 거. 엿날은 물에 들엉 그 우럭덜 많이 신 디 강 들이치민 먹으레나 오민 둥경 테왁 우이서 탁허게 먹젠 허민 잡아뎅기민 걸려시민 이젠 망사리에 놩 궤기 나까와난 거. 줄 헤영근에 테왁에 헤영 혼 서너 발 뒌 바당에 허민 우럭 ᄀᆞ튼 거 물어. 거 물에 들엉 헤난 거.(이 봉돌. 낚시 한 것이 아니라 물에 들러 갈 때 저 봉돌이랑 줄이랑 해서 가면 물 아래로 이렇게 해서 무슨 것 먹을 것 하면 그때 고생놀래기 같은 고기가 먹을 거. 옛날은 물에 들어서 그 우럭들 많이 있는 데 가서 집어넣으면 먹으러나 오면 당겨서 '테왁' 위에서 탁하게 먹으려고 하면 잡아다니면 걸렸으면 이젠 망사리에 넣어서 고기 낚아왔던 거. 줄 해서 '테왁'에 해서 한 서나 발 된 바다에 하면 우럭 같은 거 물어. 거 물에 들어서 했던 거.)"[125]

〈사진 39〉는 김녕리 고춘자 씨가 물질할 때 허리에 찼던 '연철'이다. 〈사진 40〉의

125) 고재인(한동리) 씨 구술.



〈사진 39〉 고춘자 씨 소장 '연철'



〈사진 40〉 고재인 씨 소장 '뽕돌'

'뽕돌'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물질하다가 고기가 많은 곳에서 '테왁'에 의지하여 '뽕돌'을 매단 낚시줄을 물 아래로 드리워 고기를 낚았던 도구이다.

5.3. 제염 관련[126)]

구좌 지역의 염전은 종달리 소금밭이 대표적이다. 김상헌(1602)의 『남사록』에 "조선 중엽 1573년 강려 목사가 종달리 해안 모래판을 염전 적지로 지목하고, 이 마을 유지를 육지부로 파견하여 제염술을 전수하게 하여 제염을 장려한 것이 제주 제염의 효시"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종달리에서 소금 생산은 1600년대 전후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수산지』에 의하면, "1900년대에는 종달리에서 353호 가운데 제염에 종사하는 사람은 160여 명에 달했고, 소금을 생산하는 가마가 46개 있었다"고 한다.[127)]

종달리에서는 1957년 소금밭의 간척 사업을 하기 전까지 소금을 생산하였다. 소금 생산은 3~4월, 7~8월, 11~12월에 이루진다. 일 년에 세 번 정도 집중적으로 소금을 생산하게 되는데, 소금 생산을 할 때는 집안 식구가 다 동원되어서 한다.

126) '제염 관련 도구'는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1987), 『地尾의 脈-終達里誌』와 종달리 현지 조사 내용(조규철, 1935년생)을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종달리 소금밭에 대해 구술해준 조규철은 9~10살 때 부모를 도와 소금 생산을 경험하였다.

127)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1987), 『地尾의 脈-終達里誌』, 70쪽에서 재인용.

"종달리의 큰애기덜은 소금장시가 제격이여"라는 민요 구절에서 보이듯, 종달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염전지대였다. 종달리 염전은 천일염이 아니라 모래밭에서 생산한 '모살소금'을 끓여서 만든 '화염(火鹽)'이다. 『한국수산지』의 내용에서처럼 종달리에서는 소금을 굽는 가마터가 40여 군데가 있었다고 한다. 소금을 굽고 만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가마터에서 다섯 집에서 일곱 집 정도가 접(계)을 구성하여 하나의 가마터를 운영하였다. '가마터'를 종달리에서는 '가망터'라고 한다. 종달리 주민들은 소금 생산은 물론 판매도 소나 등짐, 돛단배 등을 이용하여 동아리를 지어 직접 팔러 다녔다.

5.3.1. 제염 과정

종달리 소금은 모래에 바닷물을 뿌려 '□'이 피면, 그 모래를 녹인 소금물을 솥에다 넣고 불을 때어 만드는 '화염'이다. 만드는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바닷가 모래를 '산태'로 운반하여 모래밭의 '모래판'에 골고루 뿌린다.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래밭은 보통 500~600평 정도 된다. 이때 산태에는 '어욱(억새)을 깔아 모래가 흘리지 않도록 한다.
2) 모래밭에 옮겨진 모래는 '낭갈레죽(나무삽)'으로 흩으면서 잘 넌다.
3) '모살부지땡이'로 덩어리진 모래들을 풀어낸다.
4) '소금물'은 '소금밧' 한 구석에 웅덩이(물통)를 파서 그 웅덩이에 들어온 바닷물을 '물지게'에 져다가 '박세기'를 이용하여 모래판에 골고루 뿌린다. 이 물은 '아끈줴기'부터 서물까지의 조금 기간 일주일 정도에 들어온 물을 이용한다.
5) 다음날 햇볕을 받으면 모래가 '□'이 피어 하얗게 된다.
6) '□'이 핀 모래를 '서레'를 이용해 가로 세로 열십자로 갈며 덩어리를 풀어낸 후 다시 바닷물을 골고루 뿌려준다.
7)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서레'로 모래밭을 일으켜서 '군데'를 이용하여 한 '산태' 분량씩 모아 놓은 다음 2인 1조가 되어 '모살소금'을 '모살눌터'로 옮겨 쌓아 두고 '□람지(이엉)'를 덮는다. 비가 올 때는 '□람지' 위에 '주젱이(주저리)'를 덮어둔다.

이렇게 모아진 모랫더미를 '모살눌'이라고 한다. '모살눌'은 바닷물이 밀려와도 간이 빠지지 않게 '둑'을 높게 만든 후 그 위에 쌓았다.

8) 사리 때 모아 놓은 '간' 핀 모래를 '서슬('간' 핀 모래를 녹이는 장소)'에 넣어 바닷물을 붓고 '간'을 뺀다. '물자으리(물저울)'로 '간물'의 염도를 측정한 후에 물지게로 '가망터집'의 나무통에 운반하여 채워 넣는다. 이때 처음 '간'을 뺀 물을 '간물', 두 번째 녹인 물을 '모둠물'이라고 하여 따로 보관한다. '소금밧'에서 가마터까지는 거리는 대략 200~300m 정도가 된다.

9) 나무통에 넣은 '간물'과 '모둠물'이 가라앉으면 '모둠물'을 가마솥에 넣어 불을 때고 끓인다. 이때 수증기가 증발하여 가마솥에 소금이 생기기 시작하면 '간물'을 3, 4회 정도 부어가며 계속 끓여 주면 가마솥에 소금이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끓여낸 소금은 '중뎅이'('구덕'의 소금물이 떨어지게 만든 기다란 나무 그릇) 위에 얹어 놓은 '구덕(바구니)'에 '갈레죽(삽)'으로 '구덕'에 퍼놓는다. '중댕이'에 떨어진 물은 '춘물'이라고 해서 두부 공장에 내다 팔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대략 10~12시간이 소요된다. 한 가마의 소금을 생산할 때 드는 '짇을거(땔깜)'는 30뭇 정도다.

10)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육지부에도 내다 팔았으나 주로 제주도 일원에서 소비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이나 오일장을 돌아다니면서 '메밀', '산뒤(밭벼)', 피 등의 곡식과 나막신, '솔박', '구덕' 등의 생활용품과 교환하였다. 현금을 받아 팔기도 하였다. 소금을 팔 때는 바가지나 관되를 이용하였으며, 소금과 쌀을 1대 1 비율로 교환했다.

11) 소금의 생산은 주로 3~4월, 7~8월, 11~12월에 생산하고, 5~6월, 9~10월, 1~12월에 판매하는 1년 3주기의 생산·판매 과정을 거쳤다. 판매는 보통 10~15일 동안 이루어졌다.

5.3.2. 제염 도구[128)]

(1) 산태, 물산태

'산태'는 물건을 담아 나를 수 있게 만든 도구다. 기다란 나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에 몇 개의 살을 받아 앞뒤로 두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들것'의 한 종류다. '산태' 위에는 가마니때기나 억새 등을 깔고 물건을 운반하기도 하였다. '종달리 소금밭'에서 사용하는 '산태'는 나무 위에 '어욱(억새)'을 깔아 만들었다. '어욱'을 깔지 않은 '산태'는 '물산태'라고 따로 이름 지었다. '어욱'을 깐 '산태'는 모래를 운반할 때 사용하였고, '물산태'는 바닷물이나 소금 '구덕'을 나를 때 이용하였다.


〈사진 41〉 '산태'

'산태'는 길이 1m50, 폭 80cm 정도 크기로 만드는데, 손잡이는 소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지만 폭의 나뭇가지는 '퀏가시낭(구지뽕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2) 낭갈레죽, 쒜삽

'낭갈래죽'은 나무 삽을 말한다. 바닷가에서 '산태'로 옮겨온 모래를 소금밭에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전체 길이가 1m 정도 된다. '쒜삽(쇠삽)'은 가마에서 구워진 소금을 '구덕'으로 옮겨놓을 때 사용한다.


〈사진 42〉 '낭갈레죽'

128) 종달리의 소금밭 관련 제염 도구는 '종달리 웰빙 소금밭 체험 시설'에 전시된 자료들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43〉 '물지게'


〈사진 44〉 '물통'

(3) 물지게

'물지게'는 '물을 길어 나르는 데 쓰는 지게'이다. 종달리 소금밭에서는 '바닷물'을 져 나를 때 '물지게'를 사용했다.

(4) 모살부지땡이

'모살부지땡이'는 모래 덩어리를 부술 때 사용하는 기다란 나무막대기다. 2~2.5m 정도의 길이로 만든다. 불을 때는 '부지땡이(부지깽이)'와 모양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살'은 '모래'의 방언형이다.

(5) 서레, 군데

'서레'는 표준어 '써레'에서 온 말이다. '[illegible](간)'이 핀 모래밭을 긁는 데 사용하는 도구


〈사진 45〉 '서레'


〈사진 46〉 '군데'

다. 몸통은 소나무로 만들고 '서레'의 발은 참나무로 만든다.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자루 길이가 길다. '군데'는 'ㄱ'이 핀 모래를 한 곳에 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곡식을 널 때 사용하는 '날렛군데'나 '굴묵'에 불을 땔 때 사용하는 '굴묵군데'와 모양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의 판자는 70cm, 손잡이는 2m 정도 크기로 길게 만든다.

(6) 물박세기, 콕박세기

'물박세기'는 '콕(박)'을 쪼개서 만들었다. 바닷물을 모래에 뿌릴 때 사용하였다.



〈사진 47〉 '콕박세기'



〈사진 48〉 자루를 단 '콕박세기'

(7) 누래미, 주젱이

'누래미'는 'ㄱ'이 핀 모래를 모아놓은 '모살눌'을 덮는데 사용하는 '이엉'이고, '주젱이'는 비가 올 때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래미' 위에 덮는 '주저리'를 말한다.



〈사진 49〉 '누래미'와 '주젱이'

(8) 서슬, 서슬받침대

'서슬'은 간이 핀 모살의 간수를 녹이기 위해 만든 장치이다. 이 웅덩이는 진흙으로 만든 둑으로, 둑 밑은 구멍을 뚫러 간수가 빠지게 하였다. '서슬'은 가로 세로 각각 1m, 깊이 20~25cm 규모로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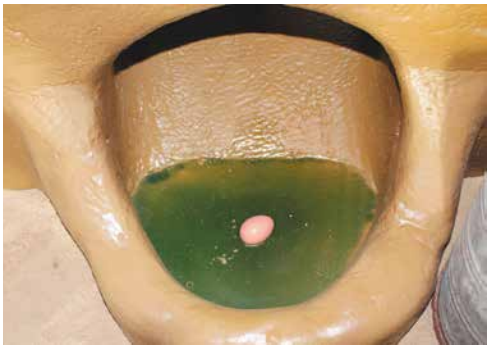
그 위에 '서슬받침대'를 놓은 다음에 볏짚을 깔고 그 위에 '곤펀(간펀)' 모래를 채운다. 그 다음에 웅덩이의 물을 물지게로 지어 올려 그 위에 채우면 '곤물'이 '곤물통'으로 빠져나온다. '서슬'은 모래에 묻은 '곤'을 녹이는 물통과 그 위에 까는 대나무와 '새(띠)'를 통틀어서 칭하는 이름이다. 초집을 지을 때 지붕에 대나무 따위로 '서슬'을 까는 것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서슬 받침대'는 모래에 묻은 '곤'을 녹이기 위해서 볏짚을 깔 수 있게 받치는 도구다.



〈사진 50〉 '서슬'과 '서슬 받침대'

(9) 물자으리/물저울

'물자으리'는 소금의 염도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달리 '물저울'이라고도 한다. '물자으리'는 송진을 뭉쳐 만드는데, 송진으로 만든 '물자으리'가 없으면 달걀을 이용하였다. 송진이나 달걀이 물 위에 뜨면 소금의 염도가 알맞은 것이다.


〈사진 51〉 염도를 측정하는 달걀

(10) 남통, 수통/곤물통

'남통'은 나무로 만든 통으로 '곤물'을 보관하는 통이다. 달리 물을 보관한다고 해서 '수통'이라고 하고, '곤물'을 보관하는 통이어서 '곤물통'이라고 한다. 열 말들이, 오 십 말들이가 되게끔 나무로 크게 만들었다.

(11) 가망집, 가매, 가매덕

'가망집'은 소금을 굽거나 '곤물'을 보관하는 집이다. '소금 가마'가 있는 집이라는 의


〈사진 52〉 '가매'와 '가매덕'


〈사진 53〉 '가매덕'

미다. '가매'는 소금을 굽는 가마솥으로, 철판으로 네모나게 만든다. 보통 '가매'의 길이는 2.5m, 폭 1.5m, 높이 15cm 크기로 만든다. '가매덕'은 소금을 구울 가마를 얹는 덕으로, 돌과 진흙으로 만드는데, 종달리 염전체험장에는 돌을 쌓아 만들었다. 한 번 소금을 구울 때는 48시간을 계속 불을 땐다. 중간 중간 간수가 잦아들면 간수를 더해가며 소금을 구운다. '가매'에서 한번 소금을 구워내면 '질구덕'으로 다섯 개 정도는 나온다고 한다. '가매'는 '가마'의 방언형이다.

(12) 가매부지땡이, 쒜글겡이

'가매부지땡이'는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가마솥에 불을 땔 때 사용하는 쇠로 된 부지깽이이고, '쒜글겡이'는 가마솥에 달라붙어 있는 소금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갈퀴다. 가마솥에 달라붙었던 소금은 바닷물에 다시 녹여서 재활용하였다.


〈사진 54〉 '가매부지땡이'


〈사진 55〉 '쒜글겡이'

(13) 구덕

'구덕'은 구워진 소금을 담는 그릇으로, 주로 커다란 '질구덕'을 이용한다. '구덕'은 바구니를 뜻하고, '질구덕'은 지고 다니는 바구니라는 의미다. 종달리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천일염으로 굵은 소금이 아니라 불에 구워낸 화염으로, 가는 소금으로 맛이 있었다고 한다.

〈사진 56〉은 소금을 져 나를 때 사용했던 '구덕'이다.



〈사진 56〉 '구덕'



〈사진 57〉 '중댕이' 위 소금을 담은 '질구덕'

(14) 중댕이

'중댕이'는 가마의 소금을 건져 물기를 빼기 위해 나무 속을 파서 만든 그릇이다. 통나무를 파서 구유 모양으로 기다랗게 만든다. 보통 길이 2m, 높이 60cm, 폭 70cm 크기로 만든다.



〈사진 58〉 소금을 담은 질구덕은 얹은 '중댕이'



〈사진 59〉 소금을 담은 '질구덕'을 얹은 '중댕이' 옆면

Ⅱ 조사 내용

6. 축산 관련

축산 관련 도구는 송당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도구 내용은 구좌 지역의 다른 곳에서 조사된 축산 관련 내용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송당리는 1소장이 있던 목장 지대로, 예로부터 축산이 발달하였다. 요즘도 마을에는 소나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 송당리에서 소를 키울 때는 여름에는 '케' 또는 '어음'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소를 몰아넣어 '간목'하고, 농사가 끝난 시월 중순에 방목했다가 겨울이 되면 집에 몰아다가 키웠다.

'간목'은 목장의 일정한 구역에 가둬놓고 주인의 관리 하에 소를 키우는 것을 말한다. 간목할 때는 낮에는 산에 가서 먹이다가 어두워지면 데려다 어음에 가둔다. 들에 나가 소를 먹이는 일을 '쉐 ᄀᆞ꾼다(소 가꾸다)'라고 말한다.

말은 사철 방목해서 키웠다. '타는 말'이나 일하는 말은 줄을 매서 키웠다. 부잣집에서는 'ᄆᆞᆯ테우리'를 데려서 말을 돌보게 하였다.

송당리는 토질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령'을 들였다. '바령'은 일정 기간에 소 떼를 밭에 몰아넣어 오줌과 똥을 싸게 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바령 들인 밧'은 '바령팟'이라고 하고, 바령을 들이는 소떼를 일러서는 '바령테'라고 하였다. 목장 지대인 송당리에서는 해안 지역에서 맡긴 소를 키워주기도 한다. 두세 명이 한 조가 되어 100여 마리의 소를 돌봐주는데, 그런 소를 '모돔테'라고 한다. '모돔테'는 낮에는 들에 나가 'ᄀᆞ꾸고' 밤에는 '바령 들일 밧'에 몰아넣어 '바령'을 들였다. '바령'을 들일 때는 소가 남의 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데, 밤

에는 '우장'에 의지하여 추위와 비바람을 피했다. 그렇게 '바령을 들인 밧'은 주로 보리 농사를 지었다.

6.1. 마소 가꾸기

6.1.1. 쉐막

'쉐막'은 소를 키울 때 사용하는 시설로 '쉐마귀, 마귀, 오양간'이라고도 한다. '물막'은 말을 키울 때 사용하는 공간이다. '쉐막'은 표준어 외양간, '물막'은 표준어 '마굿간'에 해당한다.

목장이 발달한 구좌읍 송당리에서는 청명에 목장에 소를 올려 '간목'하고, 가을걷이가 끝나면 '방목'하다가 겨울철에 집에 몰아와 '쉐마귀'에서 기른다. '쉐막' 공간이 좁으면 '쉐막' 밖에 시멘트벽에 고리를 만들어 매어두거나, 집 안 나무 등에 매어 두기도 하였다.

겨울철 소를 집에 몰아오면 새끼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쉐막' 입구에 '살체기'를 세워 놓기도 하였다. 〈사진 1〉는 송당리 김병현 씨가 '쉐막' 벽에 붙여서 시멘트를 발라 쇠고리를 만들어 소를 매었던 시설이다. 〈사진 2〉는 한동리 김양근 씨 쉐막 입구에 세워 놓았던 '살체기'다.



〈사진 1〉 김병현 씨의 '쉐마귀' 앞에 설치된 소를 매는 '쒜고리'



〈사진 2〉 김양근 씨 집 쉐막 입구 '살체기'

말은 별도의 '말막'이 필요 없이 사철 방목하거나 겨울철에 마을 한쪽 밭에 '말통'을 만들어서 몰아넣어서 길렀다.

"옛날이 손당이 일소장이라이. 거기 소를 방목해서 그 축산이 뒈니까 걸로 헨 살아왓고. 겐디 여기서 조금 색다른 게 여름에는 목장에 가서 풀어놓고 멕이는디 유월절 뒈면은 풀어놧단 소를 전부 간목허는 거라이. 겨을리는 집의다 오양간에다 메고. 몰은 사철 방목해서 드르에 사는 거고, 야생으로.(옛날 송당이 일소장이야. 거기 소를 방목해서 그 축산이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살아왔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색다른 게 여름에는 목장에 가서 풀어놓고 먹이는데 유월절 되면 풀어놨던 소를 전부 간목하는 거야. 겨울에는 집에다 외양간에다 매고. 말은 사철 방목해서 들에 사는 것이고, 야생으로.)"[129]

(2) 메낭

'메낭'은 외양간의 소를 맨 앞쪽 옆 기둥과 가운데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지른 나무를 말한다. '메낭'은 소가 '쉐막' 밖으로 뛰어 나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준다. '메낭' 사이로 먹이인 '촐(꼴)'을 던져 주었다. 〈사진 3〉은 송당리 김석봉 씨 집 외양간에 남아 있는 '메낭' 모습이다.


〈사진 3〉 김석봉 씨 '쉐막'의 '메낭'과 '구시통'

(3) 구시통, 먹이통

'구시통'은 소나 말의 먹이를 주었던 통이다. 세화리 김병희 씨는 쓰지 않은 '남방에'를 이용하여 '구시통(구유)'으로 사용하고, 시멘트 따위로 별도의 통을 만들어 먹이통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 외양간 한쪽에 시멘트로 '구시통'을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사진 3〉은 송당리 김석봉 씨 외양간의 '메낭'과 '구시통'이다. 김씨는 지금은 이 외양간에서 소를 키우지 않아 '헛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소의 먹이를 주던 '구시통'

129) 홍태휴(송당리) 씨 구술.

은 〈사진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장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송당리 김병현 씨는 예전에 소를 키울 때는 집에서 여물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구시통'을 만들어 여물을 주며 소를 키운 것은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4〉는 송당리 김병현 씨 축사에 있는 소들이다.


〈사진 4〉 김병현 씨의 '축사'와 '소'

6.1.2. 고삐류

(1) 쉐석, 석

'쉐석'은 '소의 머리를 걸려 잡아매서 끄는 줄'을 말한다. '석'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고삐'에 해당하는 말이다. '쉐석'은 칡이나 억새의 속껍질인 '미'를 이용하여 바를 드려서 만들어 사용하다가 나중에 나일론으로 만들어 썼다. '쉐석'은 보통 발가웃에서 두 발 정도의 길이로 만든다. '코뚤'을 박을 때 '쉐석'과 연결하는 '쉐줄'은 닷발 정도의 길이가 소용되었다.

"옛날에는 칙 걷어당 베 멘들앙도 허고. 미엔 헌 건 어욱 속에 그거 삥이 세여갈 때 베 드령 쉐석 헤낫주. 칙은 저런 저 벵뒤왓 머세 가면은 쭉쭉 벋주게. 그거를 걷어당은 에 숢아가지고 뿔아. 칙도 어린 거라사. 그걸 뿔아근에. 칙 냄새 나지 아녀게 잿물허영 뿔앗주. 마께로 두드령 뿔면은 희영허여. 거적 다 벗어불면은 그걸 초가지붕 우의 널엉 물령 베 드려. 끊지 못허게 세 겁으로 드리주. 술지게. 쉐가 끊지 못허거든. 베 드릴 때는 호렝이로 비여. 호렝이로 비여 가지고 세 등분 해가지고 처음에 손으로 영 드령 한번 더 허는 거. 세 갑으로 드려.(옛날에는 칡 걷어다가 바 만들어서도 하고. '미'라고 한 것은 억새 속에 삘기 세어갈 때 바 들여서 고삐 했었지. 칡은 저런 저 벌판 밭에 돌무더기에 가면은 쭉쭉 뻗지. 그것을 걷어다가 삶아가지고 빨아. 칡도 어린 거라야. 그것을 빨아서. 칡냄새 나지 않게 잿물해서 빨았지. 방망이로 두들겨서 빨면 하얘. 껍질 다 벗어버리면 그것을

초가지붕 위에 널어서 말려서 바 드려. 끊지 못하게 세 겹으로 드리지. 굵게. 소가 끊지 못하거든. 바 드릴 때는 '호렝이'로 꼬아. '호렝이'로 꼬아 가지고 세 등분 해가지고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드려서 한번 더 하는 거. 세 겹으로 드려.)"[130]

'쉐석'을 드릴 때 칡을 삶아서 잿물에 빠는 것은 소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줄을 꼴 때는 집줄을 꼴 때 사용하는 '호렝이'로 꼰 다음에 손으로 직접 세 겹을 만들어 '쉐석'을 완성하였다.

(2) 쉐줄/쉐줄레

'쉐줄'은 소를 맨 '쉐석'에 연결하는 기다란 줄을 말한다. 들판에 나가 소를 먹일 때는 '쉐석'에 '쉐줄'을 연결하여 '말뚝(말뚝)'을 박아 놓는다. 그러면 소가 일정한 공간에서 풀을 뜯어 먹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다란 줄이 '쉐줄'이다. '쉐줄'은 달리 '쉐줄레'라고도 한다.

'쉐줄'은 칡을 삶아서 장만한 속이나 '미(억새 속껍질)'를 꼬아 만들기도 하고, 여린 칡 줄기를 드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미'는 길이가 짧아 '쉐줄'을 만들려면 공이 더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쉐줄'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 들녘에 소나 말을 매어 두면 도둑을 맞기도 하였다.

"쉐줄레를 헐랴면 옛날은 베가 없으니까 여름나면은 끅을 걷어다가 숢아가지고 물에 강 빨아. 빨민 이렇게 하양케 나거든. 꼬아서 베를 드려 줄레로 멘들고. 쉐석도 만들고. 미는 더 공들어. 밀 뽑아다가 그거 장만해서 거 쫄르잖아. 그놈을 허젠 허민 공이 더 들고, 끅엔 헌 건 질잖아. 그게 쉬와. 지금은 그런 끅이 없어. 봄에 끅이 나면은 소나 몰이 먹어불면은 유월절 간목해 불면 끅이 크는 거라. 겨민 지금쯤 나면은 그게 막 ᄀᆞ늘게 커. 꼬기가 싫으민 줄로 드려. 그건 오래 가지 아녀. 여려. 게고 생 걸로 허민이 꺼꺼지기도 허고 좋지는 아녀도 쉽지. 게난 베가 엇은 디는 도둑도 맞아나서. 줄레를 도둑 맞아. 어디 들녁에 소나 말이나 메어두면 밤의 누게 클러가.('쉐줄레'를 하려고 하면 옛날은 바가 없으니까 여름되면 칡을 걷어다가 삶아가지고 물에 가서 빨아. 빨면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 꼬아서 바를 드려서 줄로 만들고. 고삐도 만들고. '미'는 더 공들어. 미를 뽑아다가

130) 김석봉 씨 구술.

그거 장만해서 거 짧잖아. 그놈을 하려고 하면 공이 더 들고, 칡이라고 한 것은 길잖아. 그게 쉬워. 지금은 그런 칡이 없어. 봄에 칡이 나면 소나 말이 먹어버리면 유월절 간목해 버리면 칡이 크는 거야. 그러면 지금쯤 되면 그게 매우 가늘게 커. 꼬기가 싫으면 줄로 드려.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 여려서. 그러고 생 것으로 하면 꺾어지기도 하고 좋지는 않아도 쉽지. 그러니까 바가 없는 데는 도둑도 맞았었어. 줄을 도득 맞아. 어디 들녘에 소나 말이나 매어두면 밤에 누가 끌러가.)"[131]

'쉐석'과 '쉐줄'을 연결할 때는 나무나 쇠뿔 따위를 이용하여 만든 '도레기'를 이용한다. '도레기'를 만들어 연결하면 '쉐줄'이 꼬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레기' 안에는 나무를 박고 그 안에 양쪽으로 '미(억새의 속껍질)'를 꼬아 만든 줄을 달아 '쉐석'과 '쉐줄레'를 연결하였다. '도레기'는 나무나 쇠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구좌읍 송당리 홍태휴 씨는 쇠뿔로 '도레기'를 만들어 썼었다고 하였다.

"쉐석에 쉐줄 연결허젠 허민 도레기를 멘들아. 그건 쉐뿔이 속이 영 빈 거거든. 뿔이 커도 속이 비엇어. 이걸 톱으로 동그랗게 짤라서 불로 구워서 일로 구멍을 내는 거라. 고무 모냥으로 일로 고릴 담안에 낭을 가까가지고 툭을 지우는 거라. 요게 툭을 지우고 빠지지 아녀게끔 요 고망 나오민 요기에서 요렇게 뱅뱅뱅뱅 구멍을 뚫러서 무신 옛날은 미ᄀᆞ튼 걸로, 찔긴 걸로 헤가지고 요 고망에 끼와서 줄레에 연결허는 거라. 소가 감장허여도 이놈이 돌거든. 겐디 근간에는 이제 발달되니까 쒜로 헤가지고 모든 걸 허연 도레기 멘들고 헌디. 옛날은 그런 거 저런 거 없고 촌에 연장도 없고 허난에 쉐뿔 동글랗게 짤라서. 나도 두릴 때 헤낫어.(고삐에 소줄 연결하려고 하면 바퀴를 만들어. 그것은 쇠뿔이 속이 이렇게 빈 거거든. 뿔이 커도 속은 비었어. 이걸 톱으로 동그랗게 잘라서 불로 구워서 이리로 구멍을 내는 거야. 고무 모양으로 이리로 고리를 담아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턱을 지우는 거야. 요게 턱을 지우고 빠지지 않게끔 요 구멍 나오면 여기에서 요렇게 뱅뱅뱅뱅 구멍을 뚫어서 무신 옛날은 '미'같은 것으로, 질긴 것으로 해가지고 요 구멍에 끼워서 줄에 연결하는 거야. 소가 감장해도 이놈이 돌거든. 그런데 근간에는 이제 발달되니까 쇠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해서 바퀴도 만들고 하는데 옛날은 그런 거 저런 거 없고 촌에 연장도 없고 하니까 쇠뿔 동그랗게 잘라서. 나도 어릴 때 했었어.)"

131) 홍태휴 씨 구술.


〈사진 5〉 김석봉 씨 소장 '쉐줄'


〈사진 6〉 김병현 씨 소장 '쉐줄'과 '쉐얏베'

'쉐줄'은 보통 닷 발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썼다. 〈사진 5〉는 송당리 김석봉 씨가 소를 'ᄀᆞ꿀' 때 썼던 '쉐줄'이고, 〈사진 6〉은 김병현 씨 소장 '쉐줄'과 '쉐얏베'다.

(3) 물툭, 말툭

'물툭'은 소나 말이 일정한 자리에서 풀을 뜯을 수 있게 줄 끝에 매달아 땅에 박아 고정시키는 도구이다. 표준어 '말뚝'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물툭'은 나무로 만들어 쓰다가 쇠로 만들었다. '물툭'은 가시나무로 만들면 돌로 박아도 닳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쉐석으로 묶은 거에 쉐줄레로 연결허영 말툭 박아서. 쉐줄레는 닷 발, 쉐석은 발가웃 정도 길이믄 뒈주게.('쉐석'으로 묶은 것에 쇠줄을 연결하여 말뚝 박았어. 쇠줄은 다섯 발, '쉐석'은 한 발가웃 정도 길이면 되지.)"[132]

"전의 낭으로 말툭 만들앙 쓸 땐 우의 조금 나오게 홈 지왕 그 안에 줄을 맷주게. 낭은 주로 가시남 사용헤서.(전에는 나무로 말뚝 만들어서 쓸 때는 위에 조금 나오게 홈 파서 그 안에 줄을 맸지. 나무는 주로 가시나무를 사용했어.)"[133]

132) 홍태휴 씨 구술.
133) 김석봉 씨 구술.



〈사진 7〉 김병희 씨 소장 '몰툭'



〈사진 8〉 김병현 씨 소장 '몰툭'

〈사진 7〉은 세화리 김병희 씨가 사용했던 '몰톡'이다. 이 '몰톡'은 〈사진 8〉의 송당리 김병현 씨의 '몰톡'보다 가늘면서도 길다. 이는 김씨가 말을 키웠던 곳이 모래밭이어서 '몰톡'이 빠져 나오지 않게 하려면 깊이 박아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몰톡' 길이는 59cm였다.

"이거는 한 육칠십 년 되실 거라. 이거 말뚝허면서 써난 건디, 이거는 모래밧데 쓰는 거. 모래 동산에. 옛날엔 말거튼 건 주로 모래 동산에 헤서 가까운 디. 웨냐면, 남말뚝은 요만이벳긔 안 헤여. 경헌디 이건 웨 기냐면 모래땅에는 약허지 안 허여. 게니까 깊이 박아야 이놈을 못 빼지. 이거는 쒜말뚝 그대로. 남말뚝, 쒜말뚝.(이것은 한 육칠십 년 됐을 거야. 이거 말둑하면서 썼던 것인데, 이것은 모래밭에 쓰는 거. 모래 동산에. 옛날에는 말같은 것은 주로 모래 동산에 해서 가까운 데. 왜냐면 나무말뚝은 요만큼밖에 안 해. 그런데 이것은 왜 기냐면 모래땅에는 약하지 안 한가. 그러니까 깊이 박아야 이놈을 못 뽑지. 이것은 쇠말뚝 그대로. 나무말뚝, 쇠말뚝.)"[134]

(4) 녹대, 몰줄

'녹대'는 말을 부리기 위하여 얼굴에 씌워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표준어 '굴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몰줄'은 말을 일정한 공간에 매어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을 말한다. 표준어 '고삐'에 대응하는 말이다. 임신한 여성은 '몰줄'을 넘지

134) 김병희 씨 구술.

말라는 속설이 있다. 이는 말의 임신 기간이 열두 달이어서 임신부가 '열줄'을 넘으면 출산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다. 말이 남의 밭에 넘어가지 못하게 할 때는 '말 줄 싼다'라고 한다. 이는 말의 다리에 줄을 매어버림으로써 함부로 다른 곳으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소'가 남의 밭에 넘어가지 못하게 한쪽 다리를 묶는 것을 '지달 싼다'라고 한다.

(5) 안장

'안장'은 말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도구를 말한다. 안장을 얹기 전에 말 등에 밭볏짚으로 만든 '도곰'을 깔아야 말의 등을 보호할 수 있었다. 안장은 '도곰', '돌레(말이 움직이거나 달릴 때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 양쪽에 드리우는 둥그런 가리개)', '소꼴레(재갈)', 등지(등자, 말을 타고 앉아서 두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물건으로 쇠로 되어 있음), '등지친(등지를 매달기 위하여 안장에서 내려진 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2. 꼴 베기

6.2.1. 낫류

(1) 낫/큰낫/장낫, 낫집

'낫'은 구좌 지역에서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긴 자루가 달린 낫'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장낫' 또는 '큰낫'이라고 하였다. '낫'의 자루가 길기 때문에 낫질은 서서 한다. '낫'을 집어넣는 도구는 '낫집'이다. '낫집'은 보통 비닐장판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송당 지역에서 낫을 이용해서 '촐(꼴)'을 베는 것은 음력 8월 중순에 이루어진다. 목장이 발달하여 축산을 크게 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는 꼴 베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송당리 김석봉 씨는 30세까지는 '낫'을 이용하여 꼴을 베었다고 한다. '촐'을 빌 때는 이웃과 '수눌면서(품앗이하면서)' 하였는데, 낫질하는 사람만 10여 명이었다고 한다. 남자는 하루에 열 바리 정도 꼴을 베고, 잘 베는 사람은 여자도 7~8바

리 정도는 베었다고 한다. 많이 할 때는 '삼십 바리(1,200뭇) 정도 베었다고 한다. 꼴을 벨 때 낫이 잘 들지 않으면 '신돌(숫돌)'을 이용하여 중간 중간에 낫을 갈며 썼다. 남자들은 베고, 여자들은 묶는 일을 주로 하였다.

'촐'을 베어 삼일 정도 말린 후에 꼴로 '께(매끼)'를 내어 묶어서 소 '질메(길마)'를 이용하여 집으로 날라다 집채처럼 쌓아두었다가 겨우내 소의 양식으로 썼다. 겨울에서 봄까지 다섯 달 동안 소 한 마리가 열 바리(400뭇) 이상의 '꼴' 먹었다고 한다. '혼 바리'는 한번 소에 실어올 수 있는 짐의 분량으로, '촐 혼 바리(꼴 한 바리)'는 40뭇이다.

"촐은 팔월 나면은 건초를 비엿다가 그때는 호미로 비던지 여기는 큰낫. 큰낫 잇어이. 그걸로 무껑 데몃다가 주는 거주. 그때도 촐 비면은 운반 뭐가 엇지 아녀. 무꺼가지고 소에 시끄젠 허민 짐 시끄는 질메. 집의 눌엉 더껏다가 겨을리 주는 거주. 여기는 마흔 뭇이 혼 바리엔 허여. 혼 번 질메에 시끄는디 마흔 뭇 혼 바리. 촐은 잡풀이나 어웍도 잇고 새도 잇고 자골도 잇고. 옛날은 자골 드련도 비고 자연적으로 남도 헌디 지금은 그게 엇어. 자골씨 옛날은 산에 가민 많이 나나서. 것도 멸종. 누게 씨 없애분 것도 아닌디.(꼴은 팔월되면 건초를 비였다가 그때는 낫으로 비든지 여기는 '큰낫'. '큰낫' 있어. 그것으로 묶어서 쌓았다가 주는 거지. 그때도 꼴 베면은 운반 뭐가 없지 않아. 묶어가지고 소에 실으려고 하면 짐 싣는 길마. 집에 가리어서 덮었다가 겨울에 주는 거지. 여기는 마흔 뭇이 한 바리라고 해. 한 번 길마에 싣는데 마흔 뭇 한 바리. 꼴은 잡풀이나 억새도 있고 띠도 있고 차풀도 있고. 옛날은 차풀 들여서도 베고 자연적으로 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차풀씨 옛날은 산에 가면 많이 났었어. 것도 멸종. 누게 씨 없애버린 것도 아닌데.)"[135]

〈사진 9〉는 송당리 김석봉 조명순 씨 부부가 사용했던 '낫'이다. 뒤의 긴 것은 남편 김석봉 씨가 사용했던 낫이고, 앞에 것은 부인 조명순 씨가 사용했던 낫으로 낫 크기가 차이가 있다. 〈사진 10〉은 세화리 홍영애 씨가 사용했던 '낫집'에 끼워진 낫이고, 〈사진 11〉은 한동리 강순자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낫'이다. 〈사진 12〉는 한동리 오문봉 씨가 썼던 낫과 '낫집'이다. 오씨가 20년 전에 세화리 대장간에서 '놀(날)'을 구해다가 오씨가 '종남(때죽나무)'으로 자루를 직접 만들어 끼워서 제작한 것이다. '낫집'도 오씨가 직접 만든 것이다.

135) 홍태휴 씨 구술.


〈사진 9〉 김석봉 조명순 씨 부부 소장 '낫'


〈사진 10〉 홍영애 씨 소장 '낫집'에 끼워진 '낫'


〈사진 11〉 강순자 씨 소장 '낫'


〈사진 12〉 오문봉 씨 소장 '낫'과 '낫집'

(2) 호미

'호미'는 보리나 밭벼 등을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송당리 홍태휴 씨는 '촐'을 벨 때 사용하는 긴 낫과 대비하여 작은 낫을 '좀호미'라고 하였다. '좀호미'로는 낫으로 벨 수 없는 밭가나 돌밭의 꼴을 베어낼 때 사용했다.


〈사진 13〉 홍태휴 씨 소장 '좀호미'

〈사진 13〉은 송당리 홍태휴 씨가 밭 가장자리의 꼴을 벨 때 사용했던 '호미'다.

6.2.2. 신돌 등 기타

(1) 신돌

'신돌'은 '칼이나 낫 같은 것을 갈아 날을 세우는데 쓰는 돌'이다. 표준어 '숫돌'에 해당하는 구좌 지역 말이다.

〈사진 14〉는 김녕리 한재병 씨 집에서 촬영한 '신돌 받침'과 '신돌'이고, 〈사진 15〉는 김녕리 이삼년 씨가 사용했던 '신돌'이다. 〈사진 16〉은 송당리 홍태휴 씨가 일본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신돌'로, 누르스름한 색깔이 다른 회색 '신돌'과 다르다. 〈사진 17〉



〈사진 14〉 한재병 씨 소장 '신돌'과 '신돌 받침'



〈사진 15〉 이삼년 씨 소장 '신돌'



〈사진 16〉 홍태휴 씨 소장 '신돌'



〈사진 17〉 강순자 씨 소장 '신돌'



〈사진 18〉 고재인 씨 소장 '면도칼 신돌'

은 한동리 강순자 씨가 밭에 다닐 때 임시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신돌'이다. 〈사진 18〉은 한동리 고재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면도칼을 갈 때 사용했던 '신돌'로, 포장 상자가 '면도 숫돌'임을 알려주고 있다.

(2) 낵인

'낵인(낙인)'은 표준어 '낙인'을 말한다. '낵인'은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으로, '불도장'인 셈이다. 예전에 소나 말을 기를 때 목장에 올리기에 앞서 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낵인'을 찍었다. 소를 많이 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낙인을 찍지 않기도 한다. '낵인'은 마을과 집안에 따라 다른데, 찍으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글자나 문양을 사용한다. 획수가 많으며 찍었을 때 글자가 선명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송당리 김병현 씨 집에서는 'ㄷ'자를 사용하고, 홍태휴 씨 집안에서는 '巳'자 낙인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ㄱ'자, 'ㄴ'자, '丁' 자 낙인 등을 사용했는데, '낵인'은 보통 '술해[戌年]'에 찍는다.

"낵인 우리집인 베염 ᄉᆞ자라고이. 베염 ᄉᆞ자. 낵인 어떻게 그런 걸 헤엿는고 허니 간단헌, 획수가 많지 않은 거. 획수 많은 건 낵인 찍으면 구별 못해. 우린 베염 ᄉᆞ자고 운문 기역 자 허는 디도 잇고 운문 이자 허는 디도 잇고 ᄋᆞ라 가지라. 낵인은 가을리 찍고 풀어 놓는 거라이. 가을리 못허면은 봄에도 허는디 대개는 가을리 방목허게 뒈니까 다음 촞을 때는 이녁 것을 찾거든.(낙인 우리 집에는 뱀 사(巳)자라고, 뱀 사자. 낙인 어떻게 그런 것을 했는가 하니 간단한, 획수가 많지 않은 거, 획수 많은 것은 낙인 찍으면 구별 못해. 우린 배염 사자고 운문 기역자 하는 데도 있고 운문 이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야. 낙인은 가을에 찍고 풀어 놓는 거야. 가을에 못하면 봄에도 하는데 대개는 가을에 방목하게 되니까 다음 찾을 때는 이녁 것을 찾거든.)"[136]

(3) 글겡이

'글겡이'는 말이나 소 따위의 털을 빗기는 도구를 말한다. 소나 말에 붙은 '진독'(진드기)이나 '부구리'(진드기가 자라서 된 벌레)를 없애기 위하여 긁어줄 때 사용하기도

136) 홍태휴 씨 구술.



〈사진 19〉 김병현 씨 소장 '쒜글겡이'



〈사진 20〉 한재병 씨 소장 '글겡이'

한다. 표준어로는 '글정이'라고 한다. 송당리 김병현 씨는 예전에는 꼴밭에 화입(火入)을 해서 진드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진드기가 많다고 한다. 송당리 홍태휴 씨는 마른 소에 보면 진드기가 많이 붙었는데, 진드기가 많은 소는 죽기도 하였다고 한다. 김석봉 씨는 목장에 있는 소에 진드기가 많고, 집에 매는 소는 진드기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 목장에서는 '글겡이'로 진드기를 긁어주지만, 외양간에 매어서 기르는 소는 순하게 길들이기 위해서 '글겡이'로 긁어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진 19〉는 송당리 김병현 씨가 사용했던 '글겡이'이로, 날이 3층으로 되어 있다. 〈사진 20〉은 김녕리 한재병 씨가 사용하는 '글겡이'다. 개의 털을 빗겨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4) 망울

'망울'은 밭을 갈 때 소가 풀이나 곡식 등을 먹지 못하게 소의 주둥이에 씌우는 물건이다. 예전에는 '짚' 등으로 만들었는데 나일론이 나오자 '나일론'으로 만들어 썼다. 표준어 '부리망'에 해당하는 말이다.

(5) 귀표

'귀표'는 가축의 임자를 밝히기 위하여 가축의 귀에 다는 표지이다.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소의 한쪽 귀에 끼워두면 남의 소와 함께 목장에 올려도 나중에 자기 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6) 질메

'질메'는 짐을 싣기 위하여 소나 말의 등에 안장처럼 얹는 도구를 말한다. 표준어 '길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소에 이용하는 '질메'는 '쉐질메', 말에 사용하는 '질메'는 '물질메'라고 한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쉐질메'보다 '물질메'가 조금 작았다. '질메'는 '자귀낭'(자귀나무)나 '소낭(소나무)'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6.3. 백중제

소나 말을 치는 목축 농가가 많은 송당리에서는 지금도 '백중제'를 지낸다. '백중제'을 송당리에서는 '백중', 또는 '백종'이라고 하는데, 음력 7월 14일 자정에 소와 말의 번성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목장에 가서 '테우리신'에게 지내는 제사다. 송당리 홍태휴 씨는 예전에는 축도 읽고 했으나 지금은 간소화하게 치른다고 한다. 지금도 소를 키우고 있는 김석봉 씨는 예전에는 자정에 제를 지냈으나 요즘은 해가 지면 '백중하르방'에게 제를 지내 잡식을 하고 있다. '백중제'를 지낼 때는 제물로는 메, 떡(상웨떡), 제숙(제수), 닭, 사과, 제주를 '차롱(채롱)'에 넣고 들에 나가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서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홍태휴 씨는 예전에 할아버지를 따라 다닐 때는 축을 고했는데 지금은 간소하게 축은 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메도 원래는 3기였는데, 지금은 양푼 하나에 떠서 수저 세 개를 꽂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수저 대신에 '새(띠)'의 줄기를 잘라서 만든 '새ᄀᆞ람지' 세 개를 꽂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백중제'가 하늘신, 땅신, 소 귀신인 '테우리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물로는 '메, 돌레떡, 우럭, 과일' 등을 준비해 갔다.

"쉐 헐 땐 벡종 헷주게. 벡종은 저 밤의 강은에 원래는 제로, 칠월보름젠디 보통 십ᄉᆞ일날 저녁에 허거든. 많이 헌 사름은 독도 숢앙 정성으로 하고, 간단헌 걸로 제숙으로 헌디 저것도 천제라. 축도 잇어. 축은이 소가 병 안 들게 헹 키와 줍센 기도허는 거주게. 천재로 피해 보지 맙서, 물에 피해보지 맙서. 원래 축 잇는 건디 안 헤서. 그 메가 세 개라. 젠디 보통 사름덜 ᄒᆞ나 헤영 가는디 그 멜 하나 거령 가면은 원래는 세 개 허는 건디 하

나 허영 가민 술을 세 개 꽂아. 수저 대신 젓가락 새ᄀᆞ람지 두 개 해갖고 세 밧듸 꼽아. 메 원래는 세 개라. 하나는 하늘님, 땅님, 소구신. 소구신은 테우리라. 낭푼이라고 잇어. 그것에 메 행 강 밤 열두 시에 허는 건디. 집 이는 새 알지. 고거 뎅가리가 꼬짝 그거 두 개 요만씩 넘게. 새ᄀᆞ람지 그 짤라서 멘든 게 새ᄀᆞ람지. 제물은 밥허곡이 그 떡 이서. 동글락헌 돌레떡 헤나고. 아 세 밧듸 이상 올릴 거난 세 개 이상 허는 거고. 우럭 허는 건디. 국은 아녀진 거 같애. 메만 낭푼에 헤갖고 술만 세 개. 나가이 어릴 때 하르버지허고 ᄀᆞ치 댕겨낫거든. 소헐 댁에 초어스름에도 허곡 밤은 조랍고, 출련 간게 뭘 먹어야 뒈는디, 열 시 이상 헤야 막 지루허곡 헤나서.(소를 할 때는 백중 했지. 백중은 저 밤에 가서 원래는 제로, 칠월보름제인데 보통 십사일날 저녁에 하거든. 많이 한 사람은 닭도 삶아서 정성으로 하고, 간단한 것으로 제수로 하는데 저것도 천제야. 축도 있어. 축은 소가 병 안 들게 해서 키워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지. 천재로 피해 보지 마십시오, 물에 피해보지 마십시오. 원래 축 있는 것인데 안 했어. 그 메가 세 개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 하나 해서 가는데, 그 메를 하나 떠서 가면 원래는 세 개 하는 것인데 하나 해서 가면 수저를 세 개 꽂아. 수저 때진에 젓가락 '새ᄀᆞ람지' 두 개 해가지고 세 군데 꽂아. 메 원래는 세 개야. 하나는 하느님, 땅님, 쇠귀신. 쇠귀신은 '테우리'야. 양푼이라고 있어. 그것에 메 해서 가서 밤 열두 시에 하는 것인데. 집 이는 띠 알지. 그거 줄기 곧게 그거 두 개 요만큼씩 넘게. '새ᄀᆞ람지' 그 잘라서 만든 게 '새ᄀᆞ람지'. 제물은 밥하고 그 떡 있어. 동그란 도래떡 했었고. 아 세 군데 이상 올릴 것이니까 세 개 이상 하는 것이고. 우럭 하는 것인데, 국은 안 해진 것 같아. 메만 양품에 해가지고 수저만 세 개.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녔었거든. 소를 할 적에 초어스름에도 하고 밤은 졸립고, 차려서 가서 뭘 먹어야 되는데, 열 시 이상 해야 매우 지루하꼬 했었어.)"[137]

137) 홍태휴 씨 구술.

Ⅱ 조사 내용

7. 용천수

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 제주도는 한 마을내의 용천수(주로 해안마을)나 봉천수(주로 중산간 마을)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였다. 마을마다 공동수도가 설치되기 이전인 1970년대 이전에 용천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였다. 해안마을에서의 용천수는 인구수에 따른 마을의 크기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었고, 근본적으로 제주도의 마을들이 해안지역을 따라 환상으로 분포하는 배경도 바로 용천수인 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리와 한동리 용천수의 실태를 검토하는 것은 과거 마을의 성립기반과 발전기틀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하도리 내의 용천수는 17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볼 때 하도리는 상당히 물이 풍부한 마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용천수의 위치를 자연마을 단위로 보면 면수동이 6개소, 서문동이 3개소, 창흥동이 7개소 그리고 굴동이 1개소로 확인된다.

하도리에는 용천수가 많이 존재하지만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용천수는 '들렁물, 알찍물, 펄개물(웃물), 펄개물(알물), 서느렁물'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하도리 용천수 중 '탕탕물'은 하도리는 해수욕장으로 최고 입지적 조건을 가졌다. 50·60년대까지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펄개(벌개, 너른개)물 남탕, 여탕, 가마귀물, 구명물, 큰서느렁물'이 있다. 하도에 수도가 공급되면서 섯동네 동동네 위쪽에 논밭 만든다고 물이 공급되다가 논밭이 없어지면서 1980년대 중단되었다.

'큰서느렁물'과 '작은서느렁물'은 담을 쌓은 지 50년이 되었다. 하도리에는 군데군데

물담이 20~30군데 있다. '큰서느렁물'은 고구마전분공장에 3개 있는데 거기에 이용되었고, '작은서느렁물'은 '공장물(큰서느렁물)'이 모자라서 이용되었다. 별방진성에는 '들렁물' 남탕과, 여탕이 있는데 1970년대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목욕과 빨래를 하였다. '알찍물'은 4~5년 전에 담을 쌓았다. 면수동에는 '엉물, 할망물, 면수동남탕' 등 3개의 용천수가 있다.

면수동에는 호병물이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빨래와 목욕을 하였다. 1980년대에 마을주민들의 결사반대로 해안도로개설에도 살아남았다. 이 '호병물'로 인해서 면수동 알동네를 '호병물동네'라고 불렀다.

한동리 용천수는 '독그승개, 거슨물(여탕), 기러기물(남탕), 바른날통' 등이 있다.

'독그승개'는 식수로 이용되었고, '암반밑(돌언덕)'에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거슨물'은 물이 깊고 좋다. '기러기물'은 옛날부터 물맛이 제일 좋고 요즘은 중산간지역의 취수개발로 인해 물줄기가 많이 약해졌다. '잡목통물' 위에 해녀의 집을 건축하였는데 이물은 천제 때 사용하였다.



〈사진 1〉 큰서느렁물



〈사진 2〉 작은서느렁물



〈사진 3〉 구명물



〈사진 4〉 가마귀물



〈사진 5〉 탕탕물



〈사진 6〉 들렁물 남탕(별방진성에 있음)



〈사진 7〉 들렁물 여탕(별방진성에 있음)



〈사진 8〉 알찍물



〈사진 9〉 펄개물 남탕



〈사진 10〉 펄개물 남탕



〈사진 11〉 펄개물 여탕



〈사진 12〉 펄개물 여탕


〈사진 13〉 호병물1


〈사진 14〉 호병물2


〈사진 15〉 호병물3


〈사진 16〉 호병물4


〈사진 17〉 한동리 독그승개


〈사진 18〉 한동리 구시물



〈사진 19〉 한동리 기러기물 남탕



〈사진 20〉 한동리 거슨물 여탕



〈사진 21〉 한동리 바른날통



〈사진 22〉 한동리 해녀의 집(잡목통물)

Ⅱ 조사 내용

8. 신당

송당리 신당은 송당본향당, 사라흘당, 고부니물당, 소천국당이 있다.

송당본향당은 1월 13일, 2월, 7월, 10월에 제가 있다. 송당본향당 말명(본풀이)에 의하면 송당마을을 지키는 백주또(금백주할망)와 남편인 소천국이 있는데 금슬이 좋아 부부는 슬하에 18명의 아들, 28명의 딸을 두었다.

어느 날 백주또가 소천국에게 밭을 갈라며 점심을 싸서 보냈다. 밭일하던 소천국에게 지나가던 노승이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청해서 밭담옆에 가보면 밥이 있으니 먹을 만큼 먹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노승이 점심을 다 먹어 버렸다. 소천국이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 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 밭을 갈던 소를 잡아 먹고 그래도 허기가 가시질 않아 남의 소까지 잡아먹어 버렸다. 잠시 뒤 백주또가 와서 보니까 소는 없고 소천국이 힘으로 쟁기를 밀며 밭을 갈고 있었다. 소천국은 혼자 밭을 갈만큼 힘이 장사였다. 백주또가 소의 행방을 묻자 소천국이 노승이 배가 고프다 길래 점심을 주었는데 다 먹어 버려서 소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였다. 백주또가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으니 도적놈이 되지 않느냐고 크게 화를 내고 요란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둘은 헤어지고 백주또는 웃손당의 송당본향당 당신이 되고 소천국은 알손당으로 가서 소천국당의 당신이 되었다고 한다.[138]

'사라흘당'은 축산, 사냥, 짐승에 정성들이는 곳이다. 당신은 송씨로 옛날 사냥을

138) 제보자 김호종(73)

하였는데, 돌아가시니까 당을 설치하였다.

옛날엔 사냥을 주업으로 하여 사냥이 잘되고 우마를 방목하였는데, 4·3사건 당시 소개령이 있기 전까지 방목을 하고 지냈다. 봄에 소를 목장에 풀어 놓으면 유월절(소서)에 방목해서 잃어버리면 목장이 광활해서 얼른 못 찾아서 소나, 말을 찾으려고 '사라흘당'에 가서 굿을 하였다. 굿을 하고난 후 실제 찾았다.[139] 간혹 여자도 가서 집안 평안하게,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빌곤 하였다. 제일인 11월 7일에는 주민 대부분이 참석하여 제를 올리는 산신당이 되었다.

홍영애(81) 씨는 송당에 거주하다가 세화리로 이주하였는데 당에 자주 가서 치성드리고 제단을 조성하였다. 사라흘당은 박세홍목장 안에 있다.

'고부니물당'은 알손당 내바위(냇가)에 있었지만 흔적없이 사라졌다.

'사라흘당'과 '소천국당'은 남자 당신이고, '본향당'과 '고부니물당'은 여자 당신이다. 소천국당은 알손당 큰물 서쪽 팽나무 쪽에 있다.

김녕리 신당은 '김녕리 본향당 큰당, 궤네기당, ᄂᆞᄆᆞ리동산 일뤠당, 성세기당'이 있다. 김녕리 본향당 큰당은 제일 중요하다. 본향당신은 마을 사람들의 생산, 물고, 호적을 관장하는 신으로 '큰도안전 큰도부인'이라는 여성신이다. 장적문서, 호적문서로 저승사자가 제일 먼저 붉은 낙점 세 번을 그으면 데리러 온다. 정월 13일, 14일(신과세), 7월 13일 14일(마불림, 백중제), 9월 13일, 14일(시만국대제일)에 제를 지내며 자손의 번창과 곡식의 풍년을 기원한다.

'궤네기당'은 용맹한 영웅신으로 비바람을 잠재워 한 해 농사를 돌봐주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송당 7번째 아들(궤네기또)로 '돗제신'이다. 제일은 없고, 3~5년에 한번 '돗제'(돼지를 잡아서 통째로 올려 제를 지냄)를 지낸다. 이 땅에 와서 내가 잘됐으니까 조상한테 대접하는 것으로 땅세, 물세를 받는 것이다. 농사가 잘되어도 상을 받는다.

'ᄂᆞᄆᆞ리동산 일뤠당'은 조 농사를 끝낸 후에 오메기떡을 해서 일뤠할망을 찾아간다. 애기들 허물 안 나게 해줍서, 애기 낳게 해줍서, 물비리, 당비리, 허벅(허물)지시 머리 혹나물 등 피부병치료에 효험이 있다. 치성 드린 후 술잔을 안 가져 간다. 가져가면

139) 제보자 홍태휴(83)

놔두고 온다. 옛날엔 사기그릇을 깨서 온다. 애기 다 키우면 '일뤠할망당'에 애기 잘 키웠다고 애기구덕을 올린다.

'성세기당'은 고깃배를 갖고 있는 집의 부녀자와 좀수들이 주로 다니는 해신당이다. 당신은 성세기, 내외천제님 부부신이다. '요왕제국 말잣아덜' 즉 바다용왕님 셋째 아들 부부다. 이 당에서는 정월 18일에 신과세제, 3월 8일에 잠수굿, 7월 18일에 마불림제, 9월 18일에는 시만국대제가 치러진다. 가장 크게 여기는 제의는 요왕문이 열리는 날이라는 3월 8일의 잠수굿인데, 지금은 어촌계 잠수탈의장을 제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문하르방당'은 윤동지 하르방 조상으로 파평윤씨 자손이다. 파평윤씨가 소분하고 정월달 조왕제 때 찾아간다. 아기 없는 사람, 아들 못 낳는 사람이 주로 치성드린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치성 드려서 아기를 4년 연속 낳았다고 한다. 밤 12시에 불공을 드리는데 '이밤과 저밤 사이'에 치성을 드린다. 재일교포 장손 큰아들집에 시집을 갔는데 3년이 되어도 애기가 없어서 서문하르방당에 가서 불공을 드렸더니 연년생으로 애기 세 개(딸, 딸, 아들)를 낳았다. 서문에 갔다와서 애기를 낳으면 일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가야 되고 제사때도 메를 올려야 된다.[140]

140) 제보자 서순실(55)


〈사진 1〉 송당본향당 입구


〈사진 2〉 송당본향당


〈사진 3〉 사라흘당


〈사진 4〉 사라흘당


〈사진 5〉 고부니물당


〈사진 6〉 소천국당 입구


〈사진 7〉 소천국당


〈사진 8〉 궤네기당


〈사진 9〉 누ᄆᆞ리 동산 일렛당


〈사진 10〉 김녕리 본향당 큰당


〈사진 11〉 서문하르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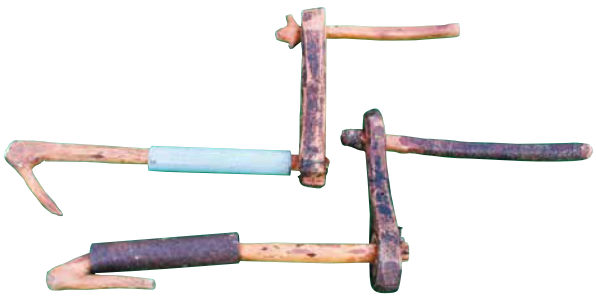

〈사진 12〉 성세기당






Ⅲ

마무리



Ⅲ 마무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3-구좌읍 편』은 2013년 애월읍, 2014년 조천읍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구좌 지역의 삶과 도구를 조사, 정리하여 체계화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구좌읍 지역의 12개 행정리(12개 법정리) 가운데 김녕리 한동리 송당리 세화리 하도리 종달리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였던 의식주 도구와 농업·어업·축산업 관련 도구, 신당, 용천수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현물 사진 등을 곁들여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조사는 조사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토박이 제보자를 대상으로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 마을에서 2명 이상의 제보자에게 교차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김녕리 7명, 한동리 12명, 세화리 4명, 송당리 6명, 하도리 10명, 종달리 2명 등 총 40명의 제보자에게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Ⅰ장 조사 개요, Ⅱ장 조사 내용, Ⅲ장 마무리로 이루어졌다. 부록으로 김녕리 주민의 삶과 도구를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김녕리 김복만 씨의 구술 이야기'를 녹취해 전사, 소개하였다.

Ⅰ장에서는 6개 조사 마을에 대한 개관을 소개하는 한편 조사 경위와 제보자, 조사 일정 등을 소개하였고, Ⅱ장에서는 구좌읍 지역의 생활 도구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을 농업 관련, 어업 관련, 축산업 관련, 용천수, 신당 등 8개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의생활 관련 도구에서는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 의류, 모자류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다듬이할 때 사용하였던 돌안반과 다양한 다듬잇방망이, 옷감의 치수 등을 잴 때 사용하였던 자, 갓 결혼한 새색시가 시집에서 처음 입었다는 '멩지저고리'와 '뉴똥치마', 호박단 저고리와 호박단치마 등도 조사되었다. 바늘과 실, 헝겊 조각 등을 담는 '고넹이포'가 조사되었다.

식생활 관련 도구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했던 그릇과 제기를 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특히 식생활 도구에서는 제주의 전통 대그릇인 '구덕'과 '차롱'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테우리'들이 마소를 돌보러 다닐 때 도시락을 싸고 다녔던 '테우리차반지'에서부터 큰일 때 떡과 제수 등을 담는 '떡차롱', '적차롱', '동이구덕', '고대구덕', '옹동바구리' 등이 조사되었다. '당'에 갈 때 가지고 다닌다고하여 '당구덕'이라는 별칭이 붙은 바구니도 있었다. 조리도구는 물론, 제상과 제기 등도 조사되었는데, 구좌 지역의 제상은 다리가 긴 '고족상'을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였다. 그러나 제기로 많이 사용되었던 놋그릇은 일제강점기에 공출되어 일반 가정에서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주생활 관련 도구에서는 가재도구인 '궤'와 '서궤', '집 일 때 사용했던 호렝이와 뒤치기, 톱과 망치, 끌 등의 연장류가 조사되었다.

농업 관련 도구로는 농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호미와 낫, 쇠스랑, 삽 등의 도구는 요즘도 많이 사용되는 도구여서 조사가 쉬웠지만 전통 방식의 농기구인 쟁기, 괭이, 끙개 등은 쉽게 조사되지 않았다. 그나마 조사된 경우에는 좀이 슬거나 녹이 스는 등 손상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마당에서 깔개 등으로 활용했던 '기직'이 조사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어업 관련 도구로는 어부와 잠녀 관련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어부 관련 도구로는 멸치잡이 도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갯담'에서 멸치잡이를 할 때 사용했던 그물의 한 종류인 '맞재비'가 조사되었다. '맞재비' 조사는 도구 조사의 목적과 가치, 왜 생활 도구 조사가 필요한 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어업 관련 도구로는 종달리 지역의 염전 제조 과정과 제조 도구 등에 대한 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축산 관련 도구는 구좌읍 송당리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는데, 예전의 축산 도구 등은 보관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축산 방식과 증언을 통한 도구의 특징 등은 조사

할 수 있었다.

용천수는 하도리와 한동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신당은 김녕리와 송당리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하여 민간 신앙의 특징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조사 결과, 산업구조와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가 멸실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이에 제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였던 의식주 관련 도구는 물론이고, 농업, 어업, 축산업 등과 관련한 생활 도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화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강정희·김순자(2008),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I-구덕·차롱≫,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고광민(2000), ≪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출판부.

고광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구좌읍(2000), ≪구좌읍≫, 태화인쇄사.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순자(2009), ≪해녀·어부·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김순자(2014), ≪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김순자(2014), ≪제주수산물 방언자료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남광우 편저(1997/2008),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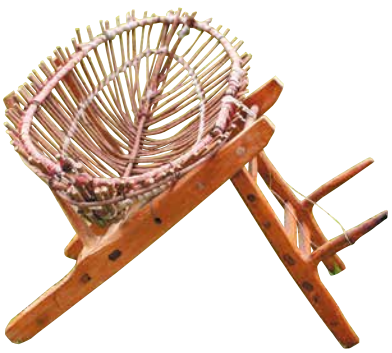
현평효 외(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현평효·강영봉(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 도서출판 각.






부 록



김녕리 주민의 삶과 도구

김복만 씨 구술 이야기

조사 및 전사자 김순자, 김보향
구술자 김복만, 이웃 주민

김순자 삼춘 이름이 어떵뒈마씨?
김복만 김복만.
김순자 복 자 만 자. 몇 년생?
김복만 사삼년, 저 호적엔 사삼년생이고 그냥 나인 칠십여섯.
김순자 하나 줄어들언?
김복만 두 개 줄어들지 안헤사.
김순자 아, 두 개 줄어들었구나. 본 나이는 이른여섯이고예?
김복만 으.
김순자 여기 주소는 어떵뒘수과?
김복만 주소 김녕.
김순자 예.
김복만 제주시 김녕○○ ○○번지.
김순자 김녕○○ ○○번지?
김복만 에구, 게나제나 잘도.
김순자 삼춘 여기 아까 게민 무슨 헤치 뒈는 거?
김복만 용.
김순자 용헤치예. 두 살 줄어든 거고. 생일은 언제?
김복만 ○○월 ○○일.

김순자 ○○월 ○○일예, 이렇게 해서 이 제기는 언제 장만헌 거라마씨?

김복만 나 스물한 살에 결혼허연.

김순자 예.

김복만 스물네 살, 스물 혼 스물 오덥에쯤 이거 장만헤서.

김순자 으. 오래됐는데도 잘도 간수를 잘 헌 거다예?

김복만 으. 해마다 다끄거든.

김순자 예. 이게 김녕에서 만든 거?

김복만 으. 김녕에서. 김녕 유기집 헐 때이 장만헌 거.

김순자 그 김녕 유기집 누게가 헤난 건지 알아졈수과?

김복만 에이고, 몰르주게. 동김녕 사름이라.

김순자 어.

김복만 집은 요 밑에 집인디.

김순자 예.

김복만 사름은 동김녕 사름이 그디 완 그디 공장허데이, 유기공장.

김순자 아, 김녕에도 유기공장이 잇어?

김복만 어, 잇어나서.

김순자 겐 그디 강 맞춰?

김복만 그때도 쒜가 좋은 셍인ᄀᆞ라 이제나도 이추룩 빈직빈직허는 거 보난, 응, 쒜가 좋은 셍이라.

김순자 직접 거기서 만든 걸 삼춘이 가근에?

김복만 어, 어.

김순자 그때 사 온 게 이게 전부?

김복만 전부. 저거 열 개, 이거.

김순자 예. 게믄 촛댄 멧 개 구입헷다고?

김복만 촛대 두 개에 상로상납에.

김순자 상로?

김복만 어, 이것ᄀᆞ라 상로상납이엔 허주.

김순자 상로상납이렌 헙니까?

김복만 어.

김순자 아, 상로상납 하나.

김복만 저 쟁반 열 개에.

김순자 예, 쟁반 열 개?

김복만 쌍잔에 웨잔에.

김순자 쌍잔에 웨잔에. 삼춘 이건 뭐렌 헙니까?

김복만 거 쌍잔이야.

김순자 이건?

김복만 거 잔대.

김순자 잔대예?

김복만 어.

김순자 이렇게 헤서 삼춘이 스물으덥에? 게민 그때부터 식게를 헌 거?

김복만 으. 그때도 그 전이 식게를 헤신디 아무것도 없어. 요 젭시 하나 수꾸락도 없어. 다 큰집이 강 문딱 하나로 열꺼장 앗이당. 앗이당 허단에 하나, 둘 장만헌 게 나대로 장만헨 제사헷주. 이거, 오십년, 사십오년, 오십년.

김순자 이 젯자린 언제 장만헌 거라?

김복만 이 젯자린 이거 이디서 장만헌 거난 혼 십년 뒈실 거라, 이거.

김순자 어, 이건 이제야 헌 젯자리구나?

김복만 으. 한 십년 뒈고 저 젯상은 친정아부지가 헤 준 거라. 옛날 젯상.

김순자 옛날 젯상도 이수과?

김복만 어. 거 상 저레 앗아뒁 보라.

김보향 아, 여기 이수다.

김복만 옛날 젯상. 친정아부지 헤 준 거라 그건.

김순자 으. 아이고 좋은 젯상인게.

김순자 제사허젠 허민 병풍도 필요허고. 병풍은 삼춘이 그냥 산 거?

김복만 어.

김순자 이 젯상 친정아부지 헤 주민 저건 언제쯤에 헤 준 거라?

김복만 친정아부지가 나 제사 험 시작허난 헤주대.

김순자 아, 게난 스물여덟, 이 유기 장만헐 때.

김복만 어. 친정아부지가 목수라낫주게.

김순자 아, 게난 게믄 친정아부지가 직접 만들어 준 거?

김복만 직접.

김순자 친정아부지 존함이 어떵 됨수과?

김복만 거꺼정 다 헐타?

김순자 으게. 이거 누게가 멘든 것도 딱 허면.

김복만 김정일.

김순자 정 자 일 자.

김복만 일 자.

김순자 살아계셔 시민 멧 살?

김복만 칠십, 아니 구십으섯게. 저 할무니영 동갑.

김순자 어 무슨 헤치?

김복만 저 양띠.

김순자 아버지는 양띠고?

김복만 어무니도 양띠고.

김순자 아, 어무니도 양띠, 어.

김복만 이제 구십여섯.

김순자 게민 삼춘은 시집왕 계속 이집이서 산 거?

김복만 아니, 그땐 엇어부난 놈의 집이 이집 저집 막 뎅견.

김순자 게민 식게도 놈의 집이서 헌 거라?

김복만 이 집을 장만헌 디가, 으, 이제 가이 살아시민 음, 마흔다섯. 마흔다섯이난 이 집 장만허건 디가 사십오 년.

김순자 사십오 년, 으. 사십오 년 전에 집 장만허고.

김복만 가이 이디 완 낳시난. 거 셋똘 살아시민 이제 저 개띠는 마흔다섯일 거라.

김순자 예.

김복만 마흔으섯이 됵띠고. 아니, 가만잇자 우리 메누리가 됵띠난에 마흔일곱, 아들이 마흔아홉. 그 아이가 마흔으섯 개띠. 이 집 사건 디가 마흔으섯. 마흔

으섯 뭬연.

김순자 예, 그 전에는 무시거 헌 거고.

김복만 으, 으.

김순자 저것덜은 다 뭐?

김복만 저거 하난 문전상, 하난.

김순자 아, 문전상?

김복만 어. 또 하나는 촛상.

김순자 촛상. 겐 요건 일체를 다 이제 아부지가 헤 준 거?

김복만 어, 어 친정아부지가.

김보향 제사 몇 번 헙니까?

김복만 제사 허면 아버지 허고 시아방 허고 시어멍, 메 두 개 놓잖아.

김순자 게 멩질헐 때는?

김복만 멩질헐 때 저 상 두 개 놔근에.

김순자 이거는 우선 놓고 저거.

김복만 이건 제사 때에만 허고 멩질헐 땐 그냥 저 얕은 상 두 개 놩 허고.

김순자 예, 그때는 저 방상덜이 하난, 초상이 하난예?

김복만 어, 어.

김순자 게난 식게헐 때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용이구나, 이거는?

김복만 어, 어.

김순자 삼춘은 식게 누구, 누구 식게허는 거?

김복만 시아방, 시어멍 허고, 시하르방, 시할망 허고 또.

김순자 그때 식게헐 때만 이 아버지가 헤 준 상을 쓰는 거라예?

김복만 으.

김순자 게믄 이 상은 무슨 상이라마씨 아까?

김복만 젯상.

김순자 그 다음은?

김복만 저 문전상.

김보향 큰 게 문전상?

김복만 어, 어.

김순자 문전상.

김복만 족은 게 촛상.

김순자 촛상. 거난 초를. 따로 저기에?

김복만 으, 이걸 올려놩 따로 초 놓고 앞에.

김순자 우리 보통 헐 때는 그 상 싱그면 그 옆이 이렇게 뒤로 허잖아예?

김복만 어, 어.

김순자 건디 삼춘네는 촛상이 있으난 따로 허는 거예?

김복만 그렇지. 저 ᄒᆞ꼼 큰 건 문전상으로 허고 저건 이 앞에다 놩 촛상 허고. 이건 큰 상으로 가운디 놓고 문전상은 문전, 저 옆이 문뚱더레 놓고 촛상은 앞더레 놓고.

김순자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방에서?

김복만 이 방.

김순자 이방에서 그냥 헴구나예? 젯자리는 막 ᄋᆞ라번 바꿔시쿠다예?

김복만 ᄋᆞ라번 바꿧주.

김순자 이 젯자리는 뭘로 멘들아신고예?

김복만 이거 왕골 아닌가?

김순자 예, 왕골예?

김복만 왕골이엔 허는 걸로 만들 거라.

김순자 예, 아버지가 목수여서 이걸 만들아 준 거고?

김복만 으, 으.

김순자 이거 뭐 젯상허고 고족상 이런 말은 안 헤낫수과?

김복만 아니. 그냥 젯상.

김순자 그냥 젯상예?

김복만 식게 때 허는 젯상.

김순자 그럼 삼춘네 식게 때는 뭣덜 올려마씨? 예전에 헐 때?

김복만 그냥 뭐 적갈 세 가지 허고.

김순자 예.

김복만 또 과일 다섯 가지 헐 때 있고 일곱 가지 헐 때 있는데, 대강은 다섯 가지 헤.

김순자 떡 같은 거는?

김복만 떡 허고 저 송편 허고 지름떡 허고, 또 저 전은 호박전, 동태전. 나 무시거 헤부난 많이 안 헤여. 두 가지 전허고 세 가지 나물허고.

김순자 요즘 이런 식으로 허는 거잖아예? 옛날에 와 가지고 처음 식게 헐 때는 어떤 떡들 헙디까? 이쪽에는?

김복만 옛날에나 이제나 옛날은 상웨떡도 허고. 이제는 맞춰 허주만은 옛날에는 손수 헷거든.

김순자 예.

김복만 다 그루도 쪄당 집이서 만들고 다 헷는디 이젠 다 맞춰불민 다 앗아오고.

김순자 그니까 이제 상, 이거에 이거 쟁반이잖아예? 떡 올리젠 허민 이 용도가 뭐꽈?

김복만 그냥 쟁반이지.

김순자 여기에 뭣 올리는 거?

김복만 뭣 올리는 거? 저 떡 올리고.

김순자 예.

김복만 떡 하나 올리고 저 무신 떡 올리는 건 저디 있지. 큰 거.

김순자 그거는 이런 걸로 안 만들아진 거?

김복만 안 만들아진 거. 건 스덴.

김순자 그거는 뭐렌 헙니까?

김복만 그냥. 뭐엔 안 허는데, 그냥 쟁반이엔 허주.

김순자 뭐 펜데 이런 말은 안 허고?

김복만 야, 야, 느 잘 골암저, 펜데. 느 잘 골암저, 펜데. 아이고, 나 잊어벤이.

김순자 그 펜데도 꺼내 줘 봅서. 놋그릇 아니여도? 게난 펜데 헤가지고 떡을 올리지 안헷수과양?

김복만 으.

김순자 게민 맨 아래는?

김복만 아래 친떡 놓고.

김순자 예, 친떡 놓고.

김복만 친떡 놓고 곤떡 그 다음 놓고 그 다음은 또 지름떡 놓고.

김순자 곤떡이 뭐가 곤떡이과?

김복만 송편.

김순자 요즘은 송편을?

김복만 옛날은 곤떡.

김순자 곤떡. 그러면 곤떡 속에도 뭐 놘?

김복만 순메 놓주게. 아, 풋.

김순자 그 팟을 여기서 뭐렌 허여? 그 소곱에 논 거를?

김복만 그냥 풋순메.

김순자 풋순메 놓는데 이 곤떡도 옛날 절벤 솔벤 안 헤 봣수과?

김복만 우리 이딘 안 헤. 동쪽더렌 절벤, 솔벤 허는디 우린 안 헤.

김순자 김녕은 절벤, 솔벤 안 허는구나.

김복만 우리 김녕은 안 헤. 딱 곤떡만 헤. 곤떡, 만디떡.

김순자 만뒤떡도 제사상에 올려?

김복만 만디떡 올리지.

김순자 아.

김복만 젤 처음은 친떡 놓고 곤떡.

김순자 친떡 멧 빗 놔?

김복만 어, 혼 줄 놓주. 이제 곤떡 그 다음은 놔. 아니, 아니 만뒤떡 놔.

김순자 어 만뒤떡.

김복만 만뒤떡부터 모녀 놓고 그 다음은 곤떡 놓고, 그 다음은 지름떡 놓고. 네 가지 놓지.

김순자 네 가지. 거는 어떵 허난 짝수로 놤수다.

김복만 이거 짝수다. 네 가지니까.

김순자 그러니까.

김복만 으. 친떡 놓고 만뒤떡 그 다음 놓고 곤떡 놓고 지름떡 놓난 이거 네 가지 짝수네.

김순자 그러면 만뒤떡은 어떤 식으로 만든 걸 만뒤떡이렌 헙니까?

김복만 그냥 영 동글락허지 안허고 소랑허게 허여.

김순자 그 속에는 뭐 놓고?

김복만 것도 폿순메.

김순자 폿순메 놓고 바깟디 뭐 무칩니까?

김복만 아니, 아니. 제 지내는 것에 베꼇디 아니 미쳐.

김순자 아, 아니 미쳐예?

김복만 으. 이 지름떡은 그냥 지져근에 뭐 놓주만은.

김순자 어. 〈중략〉

김순자 이추룩 헤근에. 만뒤떡을 세미떡이엔 안 헙니까?

김복만 아니. 옛날 쥐기떡이엔 헌 거 잇엇주.

김순자 아, 쥐기떡?

김복만 그건, 그건 상에 안 올려. 그냥 먹젠 쥐기떡, 상웨떡. 쥐기떡은 옛날은 저 밀은 골잖아. 그럼 채로 쳥 아래 헤영허게 ᄀᆞ루론 상웨떡을 허고 우에, 우에 거친 건 그건 쥐기떡이엔 헤근에이 속 순메 놔근에 그냥 먹는 거.

이웃 주민 맛있어. 갈랑 먹는 걸로.

김순자 갈랑 먹는 걸로. 그 속에 순메 놔 갖고.

김복만 으.

이웃 주민 옛날에 먹을 거 엇이난에?

김순자 삼춘, 옛날에 이 동네 떡 종류가 많지 않은 것은 밧이 산디나 이런 거 하영 엇어부난인가?

김복만 경헌디 우리 이 무시것엔 경 안 허연. 오메기떡허고 오메기떡도 잘 헷주, 옛날.

김순자 게난 오메기떡은 어떤 식으로 허는 것과?

김복만 오메기떡은 그냥 만들앙 숢아근에 폿순메 무쳥.

김순자 속에 뭐 안 놩?

김복만 아, 속에 안 놔. 속에 안 놔. 흐린떡이라부난. 흐린좁썰, 흐린좁썰로 헌 거라부난 순메 안 놔. 그냥 만들앙 피우나 숢으나 헹 우에 폿순메 무쳥.

김순자 게난 삼춘예, 아까 그 안에 놀 때 쏙 순메렌 헨 게 그건 소곱에 놓니까 쏙

순메?

김복만 쏙 순메.

김순자 게민 밖에 무치는 건 무슨 순메렌 헤?

김복만 밖에 무치는 것도 그냥 순메렌 허여. 풋순메.

김순자 풋순메예? 게민, 아까 올리는 것도 만뒤떡은 뭘로 만들아?

김복만 만뒤떡도 메밀, 메밀 헹 헐 때도 잇고 메밀 못 헐 때 그냥 송편 ᄀᆞ루로 헐 때도 잇고.

김순자 게민 옛날 송편ᄀᆞ루는 뭘로 헷수과?

김복만 그냥 쌀, 쌀.

김순자 산디?

김복만 옛날은 산디 갈앙 헷주만은 요즘은.

김순자 예. 그 다음에 그 떡도 맨 밑에 놓는 거, 맨 밑에 놓는 거 무슨 떡?

김복만 친떡.

김순자 친떡이엔 헙니까? 제펜이엔 헙니까?

김복만 제펜이엔도 허고 친떡이엔도 허고. 제펜이엔 헌 건 제사에 쓰는 거난 제펜.

김순자 게난 그 제펜헐 때도 풋순메 놓니까?

김복만 풋순메.

김순자 그냥 풋순메?

김복만 어. 풋순메 징징이 놔 무쳐. 그냥 백순메 헐 땐 안 놓주만은 옛날 집이서 헐 때 풋순메 놔.

김순자 아, 풋순메 놔근에 아까 멧 빗?

김복만 올리는 건 혼 빗만 올리고.

김순자 게민 경헨 이걸 펜데렌 허는 거라예?

김복만 으.

김순자 경헨 제 지낼 때 이렇게 나오지 안 허우과? 제 지내는 시기가. 이거 말고 여기에 향 꼽아 두는.

김복만 향로도 잇어, 향돌. 것도 어디 이실 거여마는.

김순자 어느 거?

김복만 이거 있는.

이웃 주민 아, 소곱에 엇다이.

김복만 저디 빼여부난. 상돌이 잇어. 그, 그 저 무시거 썰어 놓는 무시거.

김순자 그걸 상돌이렌 헤? 무사 걸 상돌이렌 헴신고예?

김복만 이거이 향을 까까근에 노는 그릇이 있거든.

이웃 주민 센꼬 놓는 그릇.

김복만 이젠 센꼬주만은 옛날은 향 있잖아, 나무.

김순자 향.

김복만 어, 향. 그거 영 벳기멍 놓는 거. 거 까까근에 놓는 게 있어.

김순자 게민 그건 돌로 만들어져 잇수과?

김복만 아니. 그냥 이런 거라.

김순자 아, 유긴데도 불구하고 상돌이렌 부르는 거?

김복만 어.

김순자 이름은 상돌이렌 허여?

김복만 으, 상돌.

김순자 그럼 제기는 끗. 아, 밥그릇, 국그릇은 그냥 밥그릇, 국그릇?

김복만 으, 밥그릇, 국그릇.

김순자 밥그릇, 국그릇 허는디 삼춘 제 올릴 때 밥은 뭐렌 헙니까?

김복만 메.

김순자 게민.

김복만 갱국.

김순자 갱국 허잖아예? 멧밥 허고 갱국 허잖아예? 메 거린다고 해서 멧그릇이엔 헌 말은 안 헤마씨?

이웃 주민 무사 멧그릇 가져 오라, 허메. 우리 어머니 신 때 멧사발 가져 오라 멧그릇.

김순자 아. 멧사발?

김복만 아니, 그릇ᄀᆞ란 경 곧주만은.

김순자 으.

이웃 주민 멧사발 가져 오라. 멧국사발 가져오라 경 헤나서.

김순자　멧사발, 밥사발이나 국사발이나 다 사발이렌 골읍니까? 여기선.

김복만　사발.

김순자　뚜껑은 뭐렌 골아?

김복만　음. 가짓겡이.

김순자　가짓겡이? 음, 뚜껑은 가짓겡이렌 헤예?

김복만　으.

김순자　왜냐하면 이 멧그릇 멧사발덜은 다 뚜껑이 잇잖아예? 국그릇은 엇어도예?

김복만　으.

김순자　거기에 누물 놓는 그릇덜 있지 안 헙니까? 탕쉬헹 놓는 거예? 그 탕쉬헹 놓은 그릇도 이름 뭐렌 불러?

김복만　불르는 거 잇저만은 나 잊어벤 못 골켜.

김순자　뭐 보시니 뭐 이런 말 안 허고?

이웃 주민　보시엔 안 허여.

김복만　아니, 그냥 보시엔도 허여. 보시엔도 허고.

김순자　왜냐허면 그릇마다 다 이름이 이실 거 아니우과?

이웃 주민　탕수영 가졍오랑 영 헤낫어.

김순자　어, 탕수.

이웃 주민　요만헌 접시덜 또 콩나물 같은 거, 탕수영 놀 거 가졍오랑 경 헤낫어.

김순자　탕수영 놀 거 가졍오라. 이렇게예? 그러면 떡 펜데 허고 다른 동글랑헌 쟁반 저런 거는 뭐렌 헤? 과일 놓는 거는?

김복만　과일 놓는 거 과일 쟁반이고 또.

김순자　어.

김복만　제펜 놓는 건 이거 제펜 놓는 거고. 저건 과일 놓는 거고.

이웃 주민　다 잊어벤. 영 헐 줄 알아시민 잘 헹 놔둘걸.

김순자　게난 그 이름들이 다 잇지 안허우과?

김복만　그냥 이런 건 그냥 제기덜 놓는 쟁반이고 이건 고기 올리고.

김순자　어.

김복만　물른 고기 올리고 저 무스거?

김순자 쟁반.

김복만 나도 잊어벤 못 골켜.

김순자 아까 삼춘 적갈 세 종류 헌덴 허지 안 헷수과양?

김복만 어?

김순자 적갈 세 종류?

김복만 으, 세 종류.

김순자 무슨 적갈 헤?

김복만 소고기 뒈지고기 저 바닷고기.

김순자 바닷고기는 뭐로?

김복만 바닷고기 저 무슨 것고, 저 무신 것고. 저 상어.

이웃 주민 상어궤기.

김순자 상어도 막 종류도 여러 가지렌 헙디다.

김복만 막 여러 가지. 상어도 허고 겨울에 그 뭉탕헌 궤기 이름 무시것고?

이웃 주민 상어는 잘 알아도 그건 몰라.

김복만 그 서쪽에서 나끄는 고기 무시것고?

김순자 아, 저 옥돔?

김복만 옥돔말고. 큰 고기.

김순자 아, 방어.

김복만 방어. 방어 고기도 허고 막 여러 가지 허지. 그 때에 따라서.

김순자 그 때에 따라서?

이웃 주민 상어고기 주로 헤여.

김순자 상어고기. 꼭 그런 거 세 가지를 헤마씨? 적갈을 항상?

김복만 어. 세 가지 못허민 동태라도 헤여.

김순자 아.

이웃 주민 거 적갈로 허여.

김복만 적갈로 헤.

김순자 적갈식으로 올리는, 이 동쪽에 보니까 전 우에 동태를 크게 이렇게 통으로 놉디다.

김복만 그렇게 큰 거 놧당 적갈로 헌다고.

이웃 주민 집안만썩 허여.

김복만 게난 때에 따라 헤여.

김순자 때에 따라예? 있는 거 가졍 허는 거라예?

김복만 그렇지.

김순자 그럼 과일은 삼 종 아니면?

김복만 삼 종 아니면 다섯 종, 일곱 종. 경헌디 대겐 삼 종,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김순자 삼춘넨?

김복만 똑 이 다섯 가진 헤.

김순자 무시거 헙니까?

김복만 저 밤 허고 대춘 똑 들어가야 헤.

김순자 아, 이 김녕은 밤 허고 대추를 똑 놔예?

김복만 난 똑 헤.

김순자 옛날부터?

김복만 옛날부터.

김순자 스물여덟 그때부터?

김복만 어, 어. 밤 허고 대춘 똑 헤. 게난, 게난 난 대춘 안 사주 무시거 딸령 먹젠 허민.

김순자 아, 그렇구나. 그렇고 그 탕수들 무치젠 허민 큰 그릇이 있었을 거 아니우과예? 뭐에 무쳣수과?

김복만 거야 낭푼에 무치주.

김순자 그냥 낭푼예. 할머니들.

이웃 주민 쪼그만헌 낭으로 판 거 잇어. 낭푼 닮은 거.

김복만 그런 거 우린 초상덜안티 안 물려부난 엇어.

김순자 그런 건 뭐렌 헙니까?

김복만 건 아주 옛날, 남박.

김순자 어, 남박. 그니까 남박으로덜 헹 헤서예?

김복만 으.

김순자　그릇예?

김복만　나무로 만든 거.

김순자　예, 남박예. 예, 남 판 걸로예? 도고리.

김복만　도고리, 남박.

김순자　떡 허겐 허면은 웨?

김복만　도고리, 도고리. 그런 것에 떡 몰아. 옛날, 막 옛날에 우리 그거 봐나긴 헤도 헤 나진 안 헤서.

김순자　그 떡 허젠 허민 지름떡 허젠 허민 뭘로 지름떡을?

김복만　지름떡은 찹쌀.

김순자　으, 찹쌀로 헤 갖고.

이웃 주민　본 떠.

김순자　예 본 뜨는 거예?

김복만　본 뜨기도 허고 만들기도 허고.

김순자　거 무슨 본이렌 헙니까?

이웃 주민　거 까슬까슬 톱날거치 것이 정말.

김복만　그냥 지름떡 뜨는 거엔 헤.

김순자　지름떡 뜨는 거예? 삼춘네 집이도 잇어?

김복만　겐디 난 손으로 만들어. 난 멋지게 잘 만들아.

김순자　아, 손으로 그냥 멘들아?

김복만　나 곤떡을 아니 지름떡을 잘 만들아.

김순자　아.

김복만　겡헨 나 그런 거 엇어.

김순자　아, 손으로만 다 만들아근에?

김복만　손으로 다 만들아.

김순자　무사 지름떡을 여기에서 웃지시 헙니까? 그런 말 안 들어 봔?

김복만　웃지시 몰라.

김순자　안 들어 봔예? 맨 우의 올리는 게 지름떡 아니예?

김복만　제일 우이.

김순자 예, 올리는 게 지름떡이라예? 그런 식으로게 본을 안 헷구나예?

김복만 으, 난 본 엇어.

김순자 옛날 떡은 다 집이서 허지 안 헷수과?

김복만 으.

김순자 떡 치젠 허면 어디서 쳐?

김복만 시리.

김순자 시리에서?

김복만 저 우이 보민 시리도 이신디 족은 시리.

김순자 옛날 시리?

김복만 어. 족은 시리.

김보향 거 꺼내쿠다예?

김복만 어, 저 우이 막 우이.

김보향 예.

김순자 게민 그 시리는 무슨 시리?

김복만 떡시리.

이웃 주민 사기시리라.

김복만 아니, 아니, 아니. 아리미시리.

김순자 아, 삼춘넨 아리미시리?

이웃 주민 사기시리 집이 잇어.

김순자 집이 잇수과? 사기 시리.

〈중략〉

김순자 저 시리는 언제 산 것과? 삼춘.

김복만 이거.

김순자 이거는 혼 뒈도 안 들어가큰게.

김복만 혼 뒈, 혼 뒈 들이라.

김순자 혼 뒈짜리라. 이 솟을 뭐렌 헙니까? 이 솟을.

이웃 주민 아레미.

김복만 아니, 이모노.

이웃 주민 아레미솟이주.

김복만 이모노.

김순자 이모노 언제 구입헌 거?

김복만 이것도 혼 삼십 년 뒈실 거여게. 떡 칠 때만 쓰는 거난. 이젠 아주 쓰지 않은양 담앙 내벰주.

김순자 담양 내부는 거예.

김복만 아이고 별거 다 나오켜?

김순자 삼춘 이거 시리는 이모노든 아레미든 이렇게 허는 거?

김복만 으건 이모노고 요건 아레미.

김순자 시리는 아레미고.

김복만 어, 아레미고 솟은 이모노.

김순자 솟은 이모노. 이 이모노 허는 이 솟은 무슨 솟이렌 헙니까? 이 용도 이것에 맞춰 산 거?

김복만 맞춘 거. 경헤도 그냥, 그냥 국도 끓영 먹고 반찬도 허고 다 허지. 경헌디 이 떡 칠 때 영 맞은 거?

김순자 게민예, 삼춘 이렇게 떡 치젠 허민 이 고망을 막아야지예?

김복만 막아야지.

김순자 그 막는 걸 뭐렌 헙니까?

김복만 저 떡ᄀᆞ루로 그냥, 저 곤떡허는 기지로 영 막주게. 곤떡, 곤떡.

김순자 어, 그 막는 걸 뭐렌 헤?

김복만 곤떡도 영 물앙 놓고 시리도 허민 영 톡톡 부쪄.

김순자 그건 뭐 시릿마개?

김복만 시릿마개.

김순자 시릿마개 헐 거 아니과? 시리 이디 고망 막젠 허민 이디는 뭘로 막아?

김복만 이건 ᄂᆞ물 놓을 때도 있고, 또 무수 썰엉 놓을 때도 있고, 또 저, 저 종이.

김순자 종이?

김복만 저 백지 동글락허게 잘랑 헐 때도 있고. 건 때에 따라. 게난이 종이 놓을 때 종이 깔고 그 우터레 풋 영영 놔근에 ᄀᆞ를 놓지. 경헨 어프민 종이 톡 떼어지고. 또 어떤 땐 ᄂᆞ물도 놓고 또 어떤 때 무수 썰엉도 놓고 경허여.

김순자 그 고망을 막젠 허니까예?

김복만 어, 어.

김순자 경헤연 허는 거고. 삼춘네는 떡을 막 하영 허진은 안 허는구나예?

김복만 옛날엔 막 하영 헷어. 이 동네 다 날르젠 허면 상웨떡도 한 백이십 개. 백 개는 보통. 이 동네가 작은 동네라부난. 또 떡도 큰 시리로 두 시리, 세 시리 쳐야 뒈여. 이건이, 이 멧년 전에 막 떡 아니 헐 때 헌 거고. 옛날은 막 이만큼헌 시리 있잖아.

김순자 예, 게민 그 시리는 뭐렌 헤?

김복만 그냥 시리지. 떡 치는 시리.

김순자 게, 시리지예? 삼춘, 게민 그 시리도 혼 말 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김복만 그렇지 혼말들이 있고, 두말들이 있어.

김순자 혼 말들이, 두말들이.

김복만 경허난에 혼말들이 헤근에이 두 번썩 세 번썩 쳐.

김순자 혼말들이에예?

김복만 경허고 상웨떡도 백이십 개정도. ᄀᆞ를도 두 말. 두 말, 두 말 물아야 혼 말에 오십 개썩 백 개. 두 말 물아야 백 개 나와. 경허민 ᄒᆞ꼼 졸게 허민 백이십 개도 나오고 백 개도 나오고. 경헤근에 이 동네 다 테와야 뒈여. 이젠 안 허는디.

김순자 이젠 안 허는디예? 게난 상웨떡 헐 때 영 동글랑허게 허고?

김복만 그렇지.

김순자 그 소곱에도 순메 넣어?

김복만 순메 놔. 풋순메.

김순자 그러면 그 상웨 헐 때는 무슨 ᄀᆞ루로 헷수과?

김복만 밀ᄀᆞ루.

김순자 밀가루.

김복만 옛날은 ᄀᆞ레 골앙, 우리 밀을 밧데 갈앙 그 밀 말령 놧당 ᄀᆞ렐 골앗주만은 한 그, 한 멧 년만 경헷주. 글후젠 ᄑᆞ는 밀가루 많이 나왓잖아. 겐 그 밀가룰 사당 그렇게.

김순자 음. 보리로 상웨는 안 헷구나?

김복만 안 헤연. 밀로.

김순자 여기는 밀을 갈앗구나예?

김복만 어. 옛날은 갈앗주. 경헌디 삼 키로짜리 세 갠 놔야 헤여.

김순자 음.

김복만 게민, 떡 헤여근에 이 동네 다 날라야 뒈.

김순자 이 동네 떡 날르젠 허민 무신거?

김복만 ᄒᆞᆫ 팔십 호.

김순자 팔십 호예? 무신거 가져근에 날랏수과? 뭐에 놩?

김복만 사발에 놩 구덕에 헤연.

김순자 어.

김복만 큰 구덕에 헤여근에 사발에 놔근에.

김순자 예.

김복만 이젠 비니루 잇이난 간단허주만은 옛날엔 엇엇주. 게난 사발에 놔근에 큰 구덕에 막 영 들러아정 아이구, 멧 번 날르주.

김순자 그 구덕은 뭐라? 이름이.

김복만 질구덕.

김순자 질구덕?

김복만 으.

김순자 여기 질구덕 말앙 차롱.

김복만 질구덕은 큰 거고 ᄉᆞᆼ키구덕은 ᄒᆞ꼼 족은 거고 또 족은 구덕은 동이구덕.

김순자 족은 구덕이.

김복만 동이구덕. 질 큰 게 질구덕 그 다음은 ᄉᆞᆼ키구덕, ᄉᆞᆼ키구덕은 중간 거.

김순자 게민 ᄀᆞ는대구덕은 뭐우과?

김복만 ᄀᆞ는대구덕은 어디 저 제사 먹으레 갈 때나 당에 갈 때나 쓰는 게 ᄀᆞ는대구덕.

김순자 게민 그 ᄀᆞ는대구덕허고 동이구덕허고 크기가 어떵 뒈?

김복만 ᄀᆞ는대구덕은 ᄒᆞ꼼 족주.

김순자 음.

김복만 ᄋᆞ만이. 동이구덕은 커. 동이 놓젠 허민 질구덕만이 헤. 동이구덕은.

김순자 삼춘예, 아까 동이구덕에 동이 놓젠 헌 말이 무슨 말이과?

김복만 식게 먹으레, 아부지 식게 먹으레 가젠 허민 동이 헤야주. 동이 봐낫나?

김순자 아니.

김복만 떡 놓는 동이? 옛날은 이런 기지, 이런 기지로 동이를 만들주, 동이.

김보향 그릇인 거마씨? 동이가.

김복만 어?

김보향 그릇마씨?

김복만 그릇, 그릇. 이만이헌 굽돋은, 굽돋아근에이.

김순자 예.

김복만 동일 만들주. 영 중간으로 굽 돋으게 허연. 동이를 만들민 이젠 떡을 육십 개꺼정 들어가.

김순자 아, 그 동이에?

김복만 동이에. 경허민 부모 제사 먹으레 갈 때민 동이에 떡을 이만이헤. 이만이 허영 그 큰 구덕에 놔근에 지어근에 부모 제사 먹으레 가거든. 옛날엔 동이가 잇어. 혼 말짜린 혼 말짜리 동이엔 헤.

김순자 혼 말짜리 동이. 그러면은 ᄀᆞ는대구덕 요만이 헌 구덕?

김복만 건 ᄀᆞ는대구덕. 그냥 영 정 당이 갈 때나 쪼글락헌 식게 먹으레 갈 때 이런, 이런 낭푼에다가 옛날엔 쏠 놓아근에 영 제사먹으레. 그추룩헨 제사먹으레 가는 게.

김순자 ᄀᆞ는대?

김복만 어. ᄀᆞ는대구덕이고 그 질구덕보단 ᄒᆞ꼼 족아.

김순자 예, 예.

김복만 경허영 부모 제사엔 이 떡을 이만이 하나 만들앙 갓주게.

김순자 내가 동이를 틀리게 헷네이. 난 작은 걸로 헷는데.

김복만 동이 이레, 이레 굽돋아.

김순자 예.

김복만 굽 ᄋᆞᆫ만이 노프고 동글락허게 허연. 바위는 또 이렇게 납작허게 헷어. 어, 그렇지.

김순자 이렇게 뒌 거 아니예?

김복만 어, 어, 어.

김순자 그러면 이 동이는 뭘로 멘들안?

김복만 유기.

김순자 유기로 멘들안?

김복만 어디 잇인 집인 잇일 거여.

김순자 아.

김복만 동이엔 헌 거. 옛날 집들은 잇일 거라.

김순자 게민 삼춘 우리가 돌렝이렌 헌 게 서쪽에서 떡 구덕이예, 이 동이 대용으로 쓰는 작은 구덕이 있거든마씨.

김복만 어, 어, 잇어. 이디선 ᄀᆞ는대구덕이엔 허주게.

김순자 ᄀᆞ는대구덕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잇잖아예? 젤 작은 거.

김복만 어, 작은 거. 말잣, 동이. 어, 아주 옛날엔 동이로 헤신디 ᄒᆞ꼼 지나가가난 그 구덕으로 헷어.

김순자 그 구덕에 허영 앗앙 갓잖아예?

김복만 어, 어. 앗앙도 가고 포따리에 쌍도 가고.

김순자 예, 예. 그니까 그 동이 대용으로 써서 동이구덕 이렇게 헷구나?

김복만 으, 으.

김순자 떡동이 이런 말 허지 안 헙니까?

김복만 떡동이게.

김순자 으. 게난 삼춘네도 이걸 떡동이렌 헨.

김복만 어. 떡동이.

김순자 으, 으.

김복만 식게 먹으레 갈 때민 그 떡 동이 헤여.

김순자　예. 게 옛날에는 바농쌈지도 저기 구덕으로 안 헷수과, 족은 거?

김복만　으. 구덕으로 헷주.

김순자　그 바농상지 허는 거는 더 작잖아예?

김복만　더 작은 거.

김순자　게 그 다음에. 그 구덕 쓰다근에 헐어가민?

김복만　헐어가민 난 그런 구덕 안 헤봔.

김순자　아, 삼춘 구덕 안 썻수과?

김복만　안 써봔.

김순자　구덕을 뭐 썻수과? 삼춘은. 그냥 질구덕 하나?

김복만　뭐, 우린 경 막 옛날 사름 아니난 구덕은 출리멍 못 출리멍 안 헷주게. 요새도 구덕 출립서, 요디 서랍 올민 하간 거 그디 톡톡 놔 불민.

김순자　음, 옛날엔예? 삼춘은 구덕 엇어?

김복만　구덕 어디 저디 하나 잇어.

김순자　딱 설랍 헤 갖고.

김복만　이젠 이추룩헨 써.

이웃 주민　하하하

김순자　맞수다.

김복만　이추룩헨 쓰고, 그 옛날은 막 구덕 출리멍 뭐 헷주만은.

김순자　예, 예. 삼춘네 놋수까락은 엇어?

김복만　우리 밧거리 강 보민 숭키구덕 하나 잇어.

김순자　예, 알앗수다. 이따. 삼춘 소쿠리 같은 것도 써난?

김복만　소코리, 소코리 잇어낫주, 옛날은.

김순자　옛날은예?

김복만　저 이제거트민 골체.

김순자　예.

김복만　골체 닮은 소쿠리 잇어낫지, 영. 반착은 영 헌 소쿠리. 경헌 소쿠리도 잇어 나고. 동글랑헌 소쿠리도 잇어 나고.

김순자　삼춘 이거는 어디서 산?

김복만 아이고, 이건 장에 가민 천지만지주. 이젠 엇어.

김순자 어느 장에서 산?

김복만 세화장.

김순자 세화장에서 삿구나.

김복만 이젠 엇어. 이젠 안 나와. 이것도 골동품이라 이젠.

김순자 예. 이거게, 골동품이주. 이제 안 만드난.

김복만 게메게. 안 만드난 골동품이라.

김순자 경허민 이건 이렇게 헷잖아예? 삼춘 금방 시집갔을 때 이디 부엌을 뭐렌 헤마씨?

김복만 정제.

김순자 정제. 정제를 그림을 그려봅서.

김복만 어?

김순자 정제허민 솟덜을 안칠 거 아니라예. 솟들 멧 개 안쳐?

김복만 보통은 세 개.

김순자 어.

김복만 ᄒᆞ꼼 사는 집인 다섯 개.

김순자 잘 사는 집이 다섯 개 허민 순서대로.

김복만 큰 솟. 두말떼기.

김순자 큰 솟은 두말떼기.

김복만 또 ᄒᆞ꼼 족은 건 웨말떼기.

김순자 예.

김복만 그 다음 족은 그냥 솟 경헤실 거라. 두말떼기, 웨말떼기, 두말치, 웨말치.

김순자 어. 그 다음은 석뒈들이.

김복만 석뒈들이, 두뒈들이는 아녀고 대강은 그냥 두말떼기에, 아이고, 우리 집인 수정 하부난 두말떼기에 밥헤도 족앗져게.

김순자 으. 두말떼기에 밥헤도 족앗져게. 이렇게 얘기를 헷던 거예? 맨 족은 거는?

김복만 족은솟.

김순자 족은솟말고 삼춘.

김복만 족은솟 이름도 있을 거야. 경헌디 못 튼내.

김순자 족은솟 그게 뭔가 허면예? 동솟.

김복만 으. 동솟이 세 번차야. 맞다게. 다 이름 있어.

김순자 동솟이, 동솟 젤 족아 갖고 혼자만 밥 허는 거. 동솟을 허잖아예? 떡 치젠 허면, 상웨떡 치젠 허면 어떤 식으로 쳐?

김복만 두말치에 치주.

김순자 어. 두말치에.

김복만 두말치에 저 징, 떡징.

김순자 떡징이렌 헤?

김복만 으.

김순자 떡징 놩, 떡징은 옛날 뭘로 멘들아낫수과?

김복만 저, 저 대나무.

김순자 대나무. 왕대 아니면?

김복만 왕대, 왕대헤근에 영 두 개를 쪼개여근에 만들아.

김순자 어. 게민 건 혼 칭만 놉니까 두 칭?

김복만 두 칭 놩.

김순자 두 칭 놩예? 겐 혼 번, 그 두말떼기에서 한 번 치민 멧 개를?

김복만 한 번 쳐나민 스무 개, 스물두 개.

김순자 게믄 백 개 허젠 허믄 ᄋᆞ섯 번은 쳐야쿠다예?

김복만 어, 아이구, ᄒᆞ루 종일 경허민이 제사헹 먹젠 허민 내일모레 제사면, 내일 제사면 오널, 오널 아침이 저 아침이 ᄀᆞ룰 다 기주허연. 모레 제사민 오널 저녁 감저 쳥, 감저 쳥 이젠 막걸리 사당 기주허여. 감저 쳥 문젝영 경헨 기주헤영 이제 뒷날 아칙이민 뒷날 아칙이민 이제 ᄀᆞ룰 놩 물앙 물아근에 이제 혼 열 두시 뒈 가민 그 놈이 이제 올라오거든. 부글락허게 궤여가민 이제 그때부터 만들아. 만들멍 ᄒᆞ꼼 궤여가민 치거든. 게난 만들멍 떡 치멍 삼일허여, 삼일 제서허젠 허민.

김순자 게난 그 상웨떡 허젠 허민 만들아도 ᄯᆞ똣헌디 놔 둬야 헐 거 아니?

김복만 아니야, ᄯᆞ똣헌디 놔도 보그락허게 올라오민 치거든.

김순자 게난 올라와야 칠 거 아니예? 게난 기주헐 때 옛날에 감저로 헷수과?

김복만 으, 감저로. 감저로.

김순자 보리 같은 거로 안 허고.

김복만 아니, 아니. 감저로. 감저 쳐근에이 영영 헤 놩 막걸리.

김순자 막걸리 놉니까?

김복만 어, 막걸리 놔근에이 감저에 영영 놔 두민 영 올라온다. 부각허게 궤거든. 이제 궤민 이젠 그냥 허민 건더기가 있어. 게난 체로 걸렁 체로 영영 걸러 근에 그놈을 이젠. 그룰 놩 물지. 게난 식게허젠 허민 사흘.

김순자 예, 맞수다. 식게허젠 헤도 삼춘 옛날에 이건 치는 거잖아예? 곤떡은 어떵 허연?

김복만 곤떡은 삶아 대개.

김순자 아, 삶아. 경 안 허민 그 상웨떡 쳐난 무시것에 치고. 곤떡 삶젠 허민 어떤 식으로 삶으는 것과?

김복만 그냥 물 바글바글 궤민 톡톡 들이쳥 영, 영 옥각허게 눌지 안 허게, 부트지 안 허게 헤 놩 부글부글 궤민 이젠 건져. 건정 물에 씻어근에 건지민.

김순자 경헹 건지민 뒈는 거잖아예?

김복만 경 안 허민 또, 또 쪄. 쪄근에 또 내.

김순자 촘지름 볼르진 안 헙니까?

김복만 촘지름은 대강은 안 볼라. 이제는 뭐 허지만은 옛날은 안 볼라. 그냥 나란히 놩 식여근에.

김순자 아, 우리 동네 꼭 촘지름 볼랑예. 게난 그렇게 해서 헐 때 떡을 영 허젠 허민 무신 걸로 영 헷수과?

김복만 남술.

김순자 남술. 아, 남술이 요즘 말론 국자우과?

김복만 국자가 아니주. 거 남술허고 국잔 틀리주. 국잔 으로콤 생긴 게 국자고 남술은 그냥 구짝허게.

김순자 아, 예, 예.

김복만 밥 젓을 때도 두말떼기에 밥 허민 어떵 젓어. 그 남술로 젓어.

김순자 게민, 삼춘 예전에 떡 낼 때 뭘로 냇수과?

김복만 저, 남, 남.

김순자 동글락 동글락 허잖아예?

김복만 남박.

김순자 곰박.

김복만 남박.

김순자 남박은.

김복만 곰박이엔도 허고 남박이엔도 허여. 그 나무로 만든 거잖아. 아주 옛날 거.

김순자 어, 겨난 아주 옛날 거 남죽으로, 우리 국자처럼.

김복만 어, 국자처럼. 납작허게 헤영 고망 막 뚤라진 거. 그것ᄀᆞ라 남박이엔도 허고 곰박이엔 허고.

김순자 남박은 이렇게 그릇이 남박인데?

김복만 어, 어. 곰박이엔 허여 곰박. 고망 뚤라진 떡 건지는 거.

김순자 그 곰박 이신 디 이신가?

김복만 엇저게. 이제 완전 무시건디.

김순자 삼춘 남술은 잇수과?

김복만 남술도 엇어.

김순자 남술도 엇어. 이렇게 하고. 떡 멘들젠 허면 ᄀᆞ루를 그대로 안 허니까 항상 쳣수과?

김복만 쳣지.

김순자 그럼 그 체는?

김복만 체, ᄀᆞ는체, 거름체.

김순자 ᄀᆞ는체.

김복만 ᄀᆞ는체, 거름체, 대거름체, 대체. 네 개. 네 가지.

김순자 대체가 제일 훍은 거.

김복만 제일 훍은 거. 그 다음 대거름체, 그 다음 거름체, 그 다음 ᄀᆞ는체.

김순자 ᄀᆞ는체가?

김복만 제일 ᄀᆞ는 거.

김순자 떡 헐 때 ᄀᆞ루 허는 거예. 그 다음에 대체 우이는 뭐엔 허여.

김복만 대체 우이 무시거.

김순자 보리 헐 때 영영 허는 거. 얼멩이.

김복만 얼, 느 잘 알암저. 얼멩이.

김순자 삼춘 ᄀᆞ는체는 뭘로 멘든 것과?

김복만 ᄀᆞ는첸인 옛날은 총으로 만들더라고. 그 몰총이나 그런 거로 만들앗어. 이제는 쉐로 만들지. 옛날은 총으로.

김순자 삼춘네 이 체들은 엇어?

김복만 잇어. ᄀᆞ는첸 엇인디 거름체허고 대거름체허고 대체 세 가진 잇어.

김순자 거름체는 뭘로 만들아?

김복만 것도 쒜라.

김순자 아. 쒜. 그럼 이것도 총으로 만들어시켜예 옛날은예?

김복만 어.

김순자 그럼 대체만 대로 멘들 거.

김복만 아니 다 이 밋엔 쒜라.

김순자 밋엔 쒜예. 옛날엔 대체로 대로 헤갓고 도련 가난에 거로 멘들앗덴 헨게.

김복만 경헤실 거야 옛날은이.

김순자 게난 삼춘 지금 집이 쓰는 체들은 언제부터 쓴 거?

김복만 그냥 살림 사난 썻어. 자꾸 터지민 사고.

김순자 사고, 사고. 이제 있는 거는 멧 년쯤 된 거?

김복만 이제 있는 거. 아이고 십 년 넘엇주.

김순자 요즘도 칠 일 이십니까?

김복만 게난 이젠 쓸 일 엇어. 경헌디 나 농서헐 때 많이 써. 이젠 농서 안헤부난 안 썸주. 농서헐 때 그 거름체로 꿰, 꿰 치거든, 꿰 치면 그 졸레가 나와. 여기서는 그 졸레가 알로 나오지. 또 대거름체도 꿰도 치고 다른 용도 다른 곡식도 치는 거 있어.

김순자 이렇게 허고 옛날 그러면 떡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헐 거 아니라예. 떡을 반죽헤근에 밀어야 헐 거 아니과?

김복만　아니 손으로 만들아.

김순자　아 여기는 절벤 솔벤 안 허니까?

김복만　절벤, 솔벤 동더렌이 그거 밀엉 허는디 우린 손으로 만들주게. 송펜만 허니까. 송편허고.

김순자　송펜만 허니까. 옛날부터 송편만?

김복만　어.

김순자　그 송편을 곤떡이렌 허지 안 헙니까?

김복만　어 곤떡. 만디떡.

김순자　송편이렌 헌 말은 요샛말 아니?

김복만　요샛말이주게. 우린 그냥 곤떡.

김순자　삼춘 식게헐 때부터 그 곤떡은 헨?

김복만　어, 나 식게헐 때부터 그 곤떡, 만디떡. 또 묵, 청묵.

김순자　예 묵허고 청묵허고. 묵허고 청묵을 뭘고 허는 거라?

김복만　저 ᄆᆞ물.

김순자　ᄆᆞ물로예. 그.

김복만　묵은 갈아당 만든 게 묵이고 청묵은 골지 안허영 그냥 온착 물 컷당 문질른 게 청묵이고.

김순자　게민 삼춘 이 묵허고 청묵도 식게 때 올립니까?

김복만　그렇지.

김순자　식게 때 올리는 것ᄀᆞ라 뭐렌 헤?

김복만　그냥, 그냥 묵으로 올리는 거지.

김순자　묵적 이런 말 안 써?

김복만　아니, 아니 우린.

김순자　묵을 얼만큼 크기로 올립니까?

김복만　저 묵적, 묵적도 올리는 게 옛날은 적을 만들엇지. ᄋᆞ만썩 영 꿰영.

김순자　예.

김복만　게난 묵적이엔 허고. 청묵은 그냥 네모나게 이만썩 헤영 올려.

김순자　아이고 크게. 요즘 두부 크기만큼씩.

김복만 어어, 경헨 그냥 온차 올려. 썰지 안 허여. 온차 올려. 경헨 내려근에 갈라먹을 때 썰어근에 갈라먹는디 올릴 적엔 온차 올려 청묵은.

김순자 게민 삼춘예 청묵하고 묵적허고도 같이 올려.

김복만 아니 청묵허민 묵 안 헤. 또 묵허민 청묵 안 허고. 한 가지로.

김순자 그럼 묵헐 때는 ᄆᆞ물묵 헙니까, 무신 묵?

김복만 ᄆᆞ물, ᄆᆞ물게.

김순자 ᄆᆞ멀묵 허민 멧 개를 꽂아?

김복만 네 개 꽂아. 다섯 개 꽂으민 너무 커.

김순자 게민 아까 쉐궤기 적허민 뒈지궤기 적은?

김복만 일곱. 거는 일곱 개썩 꿰여.

김순자 상어도?

김복만 상어도 다 일곱 개썩 꿰여.

김순자 건 무사 일곱 개썩 꽂아신고양?

김복만 몰라 나도 잘 모른다. 옛날 사름은.

김순자 그 옛날에 적 허젠 허민.

김복만 우리, 우리 하르방 살아시민 다 골걸.

김순자 게난마씨.

김복만 우리 하르방 막 똑똑헤낫주. 옛날이 하도

김순자 게민 여긴 안반 같은 건 엇구나. 떡 밀 때?

김복만 우린 옛날 집 아니라부난 그런 거 엇어.

김순자 보긴 헤낫수과?

김복만 보긴 헷주게. 안 봐.

김순자 안반, 안반 용도가 뭐?

김복만 보긴 헷는디 그 안반을 뭣에 쓰느냐? 아이구. 떡 미는 것에 썻인가?

김순자 으 떡 밀면 미렛대 이런 말은 안 들어봔?

김복만 안반이엔 말은 들고 그 용도도 봐 나긴 헤신디 만드는 건 아니 봤어.

김순자 아, 안 봔. 다 삼춘은 손으로만 그냥 허니까예. 겐 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부엌에 옛날 부엌 우리 들어가 보게예. 아까 솟을 앚지지 안헷수과예. 게민 솟은 뭐에 앚져?

김복만 그냥 우린 돌 세 개 놓고 앚지지.

김순자 그 돌을 뭐렌 헙니까?

김복만 거 뭐엔 헌다만은?

김순자 솟덕?

김복만 어, 솟덕. 너 잘 알암신게. 솟덕.

김순자 이 동네에는 뭐렌 골암신가헹.

김복만 아니, 솟덕.

김순자 솟덕 헤근에 허고. 뒤에 불 숢아나민

김복만 불치.

김순자 불치덜 있잖아예. 그건 솟덕 다섯 개도 앚지고 세 개도 앚져잖아예.

김복만 어 세 개, 세 개.

김순자 옛날에는 물이 엇이난 정지에 뭐?

김복만 물항.

김순자 물항을 놧지예. 삼춘네도 물항?

김복만 물항 놔난이.

김순자 게근에 불 숢고. 불 숢젠 허민 뭐로 헤근에.

김복만 저 부지뗑이.

김순자 부지뗑이 헤근에. 부지뗑이렌 헷수과?

김복만 부지뗑이렌 헤신디 우린.

김순자 부르뗑이, 부지껭이.

김복만 부지뗑이.

김순자 부지뗑이예. 껭이가 아니라. 부지뗑이로 불 숢고 그 다음에 이제 욮이 그릇도 놓젠 허민?

김복만 저 무시거. 살레.

김순자 살레. 살레 옆에 영 숟갈 놓는 통은 뭐?

김복만 거 숟구락통 그냥. 수제통, 숟구락통.

김순자 뭐 제통이나 이런 말은 안 써?

김복만 아니 숟구락통.

김순자 어 숟구락통. 숟구락통은 뭘로 만듭니까?

김복만 숟구락통은 저 대. 대로 만든 거로 숟구락 놓고.

김순자 대는 무슨 대로?

김복만 그냥 뭐 왕대로 만들엇지.

김순자 통으로 그냥.

김복만 으으. 우리 아부진 목쉬니까 저 나무 헤영 만들어. 나무 헤영 만들앙 영 걸게 만들아.

김순자 게민 그 살레도 다.

김복만 아부지가 짜.

김순자 아부지가 짜?

김복만 이제 우리 아부지 짠 살레 잇어. 정지 살레.

김순자 어디, 어디 잇어?

김복만 저 집이 할망 사는 집이.

김순자 아, 기우과. 그것도 강 사진 찍으쿠다. 아니 할망칩이 가면 옛날 것들 뭐 있을 거 닮아.

김복만 뭐 잇어. 이제 그냥 솟덕도 그냥 잇어. 살레도 있고 솟덕도 있고 솟도 그냥 논양 다 잇어.

김순자 게난 봅서게.

김복만 그 살레도 잇저게 그 아부지 만들앙. 헌 살레도 잇고 솟덕도 치워 불지 안허고 그냥 잇어. 거 어무니 뭐 헐 때 그디서 불 솜앙 물 데왕도 헤신디 이젠 아니 보난 문 더껑 보지도 안헤.

김순자 게민 어무니 사는 데는 그냥 그대로?

김복만 어.

김순자 그 불 영 허젠 허민 거 무신거 앚아근에. 거 앚는 거 뭐?

김복만 그 앚는 거 저 방석.

김순자 방석은 옛날 무신 거로 멘들앗수과?

김복만 옛날 저 저 집 일어나민 줄 잇잖아. 거 기차다근에 그놈을 벵벵벵벵 헤근에 그 방석을 멘들앗주. 겡헨 그것을 앚아신디 울 아부지 목쉬니까 나무로 방석을 다 만들아.

김순자 게민 그 줄로 멘든 방석은 무슨 방석?

김복만 그냥 줄방석.

김순자 낭으로 만든 건?

김복만 낭으로 만든 건 남방석이엔 허고.

김순자 남방석 허고 줄방석 허고. 게난 삼춘네는 아버지가 목수난 집이 치레 허는 건 잘 헤신큰게.

김복만 아니 안 헨게. 목수 집이 옛날 헛문 ᄃᆞ덴 헤세.

김순자 아.

김복만 으. 틀림엇어. 그 목수칩이 헛문 돌앙이 집도 쪼글락. 그이 다 튿어덩 슬라브집 짓으켄 허난 우리 어멍이 돈 잇어근에 허라 허멍. 그 애기덜 공부시키져 무시거 허저 허난. 애기 ᄋᆞ섯. 아덜덜은 다 높은 학교 시켱 족은 아덜은 에구에구 골지 말아사.

김순자 삼춘 아까 적 굽젠 허믄. 적 궈야 뒐 거 아니우과. 적 뭐에 궈낫수과?

김복만 옛날엔 저 숫불 살롸. 것ᄀᆞ라 돌로 만든 그것ᄀᆞ라 뭐렌 허지?

김순자 돌화리.

김복만 돌화리. 거레 숫불 살롸근에 구엇지.

김순자 게민 돌화리에 숫불 살루잖아예. 경헨 우이 영헨 걸치잖아.

김복만 적쉐.

김순자 예, 적쉐 걸치고. 적쉐 걸친 후에 또 고기 굽젠 허면은.

김복만 적쉐가 영 두 개잖아이. 영 두 개 걸쳐 이 돌화리에다가 두 개 걸쳐 경헨 궤기 영영 걸쳥 구워. 경허고 또 몰른 거 굽젠 허민 저 뭐니 것도 잊어베세게.

김순자 것도 적쉐.

김복만 적쉐엔은 허주만은 좀질게.

김순자 네모나게 헤근에.

김복만 응응. 그것에 굽고. 옛날은.

김순자 게난 그, 그 몰른궤기도 그 돌화리에 헷수과?

김복만 옛날은 거기서 헷지. 그 불 살롼.

김순자 예, 불 살롼.

김복만 숫불 살롼.

김순자 게 그 돌화리도 할망네집이 잇어?

김복만 엇어. 난 아무것도 엇인 집이난 옛날 ᄃᆞ리 사는 하르방 살아시민 그거 다 물려오컬게. 옛날 가부난 잇이냐? 우리집이 아방 나광 싸우민 우리 아방 살아시민 니 닮은 거 메누리로 안 헌다.

김복만 하하하하.

김순자 그 다음엔예 이 겨울에 불 쬐우젠 허민예 방에?

김복만 돌화리 잇엇지.

김순자 그때도 돌화리?

김복만 정동화리. 이걸로 만든 건 정동화리.

김순자 예, 돌화리도 있고 정동화리.

김복만 돌화리도 있고 정동화리.

김순자 그 다음에 정동화리 말아근에 옹기로 만든 건 엇어낫수과?

김복만 엇어.

김순자 아, 삼춘넨 엇어난예.

김복만 우린 엇어주.

김순자 삼춘네는 돌화리하고 정동화리 잇어?

김복만 아니, 엇어. 봐나고 들어낫주. 우린 그런 거 아무 것도 엇어나니까.

김순자 예. 그 다음에 도구가 있을 거 방으로 오면 저 궤. 저 궤는 언제 것과?

김복만 이거 나 시집 갈 때 우리 아부지 만들아 준 거.

김순자 아, 예. 저거는 무신 낭으로 만들앗덴 헙디까?

김복만 저거이 몰쿠실낭으로 만들앗어.

김순자 무슨 낭?

김복만　몰쿠시낭.

김순자　몰쿠시낭예?

김복만　으으.

김순자　게난 옛날 시집보내젠 허면 집 앞이 몰쿠시낭, 똘 나면 다 싱근덴 헌 말 있지 안허과? 그런 말 들어봅디가?

김복만　들어보지 안헷저만은 그때 몰쿠시낭으로 저거 헷덴 우리 아부지 골아라.

김순자　예. 경헤근에 시집올 때는 뭐뭐 헹 완?

김복만　궤허고 이불허고.

김순자　궤허고 이불 멧 채?

김복만　이불 두 채. 궤허고.

김순자　궤허고. 궤도 헤주고예.

김복만　저 우리 어머니 저 사람 인간 추급 안 허난, 그 우리 샛아버지네가 그 막 잘 살안에 일본 갓주게. 경허난 그 어른네 더끄던 이불 이디 내베던 일본 갓거든. 그거 테왕 만들어 줜. 새 소게도 아니여.

김순자　아 새 소게도 아니.

김복만　아니.

김순자　그 놈의 아들, 아들만 헷구나?

김복만　아들, 아들. 경헌디 너이, 나 일생 헌 말 곧젠 허민 오널 ᄌᆞ물아.

김순자　삼춘 예전에 여기 차롱덜은 안 썻수과?

김복만　무사 썻주.

김순자　차롱은 무사, 어떤 때 썻수과?

김복만　식게 때.

김순자　어, 식게 때.

김복만　적 차롱, 곤떡 차롱, 저 친떡 차롱 경허여.

김순자　경허면은 건 떡마다 다 차롱이 ᄐᆞ나?

김복만　어, 아니 같은 차롱이라도 족은 거, 큰 거.

김순자　뭐가 제일 커?

김복만 저 친떡 차롱이 크주게.

김순자 친떡 차롱이 크고.

김복만 으. 그 다음은 곤떡?

김순자 곤떡 차롱허고.

김복만 곤떡 차롱은 저. 반착은 곤떡 놓고 반착은 지름떡 놓고, 아니 저 만디떡 놓고.

김순자 만디떡 놓고 곤떡 차롱에는 그 다음에 적 차롱에는 적 헹 놓고예. 겐 이 적차롱덜은 어디 강 사당 써?

김복만 장에 강.

김순자 다. 세화장에?

김복만 어.

김순자 삼춘 차롱 쓰던 거 잇어?

김복만 엇어.

김순자 차롱은 하나도 엇수과?

김복만 어. 다 데껴벤.

김순자 다 데껴벤예. 그 다음에 옛날 밥 먹젠 허면 지금이야 상 출려근에 허주만은.

김복만 옛날은 낭푼에.

김순자 낭푼에예. 낭푼 전에 다른 걸로 먹어보진 안 헙디까?

김복만 아니, 아니. 옛날 옛날은 곰박에 먹엇지. 경헌디 나 나온 후젠 낭푼.

김순자 삼춘네는 낭푼에예. 겐 낭푼헹.

김복만 하나 놔근에 국은 국은 빙 허게 영 먹어.

김순자 국그릇 빙허게.

김복만 동글랑 상에.

김순자 어. 그 상 이름이 무신 상?

김복만 도리상.

김순자 도리상예. 옛날은 도리상에 동글랑케 헤근에.

김복만 어.

김순자 겐 삼춘네는 멧 식구랏수과?

김복만 우리 ᄋᆞ덥.

김순자　　으덥.

김복만　　아기 으섯에 아방, 어멍.

김순자　　그 으덥을 다 먹어져?

김복만　　먹어져. 도리상 크게 헤영. 우리 아부진 목시니까 당신 허고픈대로 다 헷지.

김순자　　그러니까. 도리상 이렇게 허고. 혼자만 하르방이나?

김복만　　하르방이나 할망이나 안넬 땐 웨상.

김순자　　웨상. 웨상은 어떤 식으로 생긴 것과?

김복만　　그냥 네모난.

김순자　　네모난 거예.

김복만　　저디 저디 잇네. 우리 쓰는 거.

김순자　　저걸 웨상이렌 허는 거. 웨상. 게난 둘만 헐 때는 웨상에 허고 그 다음에.

김복만　　도리상.

김순자　　도리상. 니기반듯 저런 큰상은 이제 나온 거예?

김복만　　으, 으.

김순자　　으 이런 걸 웨상이렌. 이거 다 어디서 산 거?

김복만　　이거 다 세화장.

김순자　　저건 언제 산 것과? 오래 된 것 같진 안허우다만은.

김복만　　오래 안 됏저.

김순자　　멧 년 된 거라?

김복만　　한 칠 팔년.

김순자　　칠, 팔년. 그 다음에 옛날에 청소허젠 허민 뭘로 청소헤낫수과?

김복만　　막 아주 옛날은이 하도 엇이니까 갈중이 옷 입단 걸로도 허고이. 방 걸레.

김순자　　방 걸레.

김복만　　으. 갈중의 입단 옷 헐어가면 방 걸레 허고. 아주 옛날은 곤 거 엇어주게. 옷 입당 헌 거 방걸레허여. 글후젠 수건. 이젠 수건. 수건 방걸레 허지.

김순자　　그 다음에 이거 쓸어야 헐 거 아니우과?

김복만　　비치락.

김순자　　비치락.

김복만　방 비.

김순자　방 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제에서.

김복만　정제 씨는 건 에구, 에구 무신 비치락. 저, 저 정제 비치락이엔 험도 허고 에구 그거 비치락 기지 이름이 뭐여만은?

김순자　기지 이름 뭐, 수레기?

김복만　아니. 쉡씨리.

김순자　으. 쉡씨리로 헤갓고 정지?

김복만　으 정지 비치락.

김순자　방 비는 뭐로 멘들아?

김복만　방 비는 무시거 저, 저 대축.

김순자　방 비는 대축으로 만들고예.

김복만　어.

김순자　집에도 대축낭덜 싱것수과 옛날에.

김복만　어. 옛날엔 싱것주게. 느렝이대축.

김순자　느렝이대축?

김복만　어.

김순자　느렝이대축이 비치락?

김복만　비치락 만드는 거.

김순자　사당대축은?

김복만　사당대축은 먹는 거고.

김순자　게민, 사당대축, 사당대축 고고리로는 뭐 안 써?

김복만　왜 그걸로 저 뭐 허지. 떡 만들앙 먹지.

김순자　걸로 헹?

김복만　겨고 또, 또 대축일름이. 무슨 대축이엔 헌 거 잇어. 그건 건 쏠 나근에 하간 거 허는 그거. 느렝이대축으로 비치락은 만들아.

김순자　게난 느렝이 대축으로 쏠은 못 먹지 안 헙니까?

김복만　먹진 안 허고 비치락 만들아.

김순자　그리고 정지에 뭐 꼴지 안 허여. 밥 먹젠 허면? 밥은 어디서 먹어낫수과?

김복만　밥 먹젠 허민 정제서도 먹주게. 정제서 상 페왕 방석 꼴앙 앚앙. 페웁지 안 허여.

김순자　아 페웁지 안 허고. 옛날 무사 마당에도?

김복만　마당에 펭상.

김순자　펭상도 만들아난? 멍석도 꼴안?

김복만　멍석도 꼴고 펭상도 잇어나고. 우리도 펭상 잇어나신디 이젠 엇어.

김순자　옛날부터도 펭상 헷구나예. 삼춘 멍석도 옛날 농서 짓젠 허민.

김복만　헷지. 우리집이 아방 멍석 잘 줄아낫어.

김순자　어. 이 멍석은 뭐로 줄아?

김복만　저 산디찍.

김순자　산디찍예. 산디찍으로 멍석 줄면. 멍석 멧 개씩 페 봅디까?

김복만　멍석. 혼 여섯 개꺼정 헤 봣어.

김순자　여섯 개꺼장. 게민 그 멍석 하나에는 멧 말 정도 널 수 잇어 보리?

김복만　혼 다섯 말 정돈 널지.

김순자　아, 멍석 하나에예. 게민 다섯 말 널면. 그 다음 이건 네모나게?

김복만　아니 질게. 이 모냥으로 질게.

김순자　멍석도 영 바위 돌리는 거는?

김복만　바위 돌지.

김순자　것도 다 찍으로?

김복만　거 산디찍으로 다 헤.

김순자　산디찍으로 허고예. 그 다음에?

김복만　ᄀᆞ렛방석.

김순자　ᄀᆞ렛방석.

김복만　ᄀᆞ레 ᄀᆞ는 방석 잇잖아 동글랑 헌 거.

김순자　예. 그 다음에 이 ᄀᆞ렛방석 말앙 보리나 헹 오면 이 저장허는 거, 동글랑 헌 거?

김복만　그건 아이구, 멕.

김순자　멕도 크기에 따라, 젤 큰 건 뭐렌 헙니까?

김복만 그냥 멕이엔 헤여. 그건.

김순자 창멕이엔 안 써?

김복만 창멕이엔 헤 첨. 막 큰 건 창멕이엔. 느 잘 알암신게.

김순자 창멕도 잇고 멕 잇잖아예. 그 다음에 보리 갈젠 허민 걸름 헤야 헐 거 아니과.

김복만 으.

김순자 걸름 담앙 다니는 건 뭐렌 헤?

김복만 것도 멕에 담아. 가마니. 가마니에도 담고 멕에도 담아.

김순자 여기 그 돗걸름은 여기선 뭐렌 헙니까?

김복만 그냥 돗걸름. 통쉐 걸름.

김순자 통쉐 걸름. 돗걸름 헤. 돗걸름착 이런 건 엇수과?

김복만 아니.

김순자 아니. 그 다음에 이거 밧디 쉐 질메 졍 갈 거 아니? 게믄 쉐 질메 허는 거 삼춘 헤 봔?

김복만 헤 보진 안 헌디 보기만 헷주.

김순자 양쪽에 돗걸름착을 헹?

김복만 어, 어. 그 부제칩이덜은 돗걸름 그추룩 쉐에 시끄고, 막 남도 시꺼오고 새도 시꺼 오곡. 막 부제칩들은 경 헴주게.

김순자 삼춘네는 그런 걸 안 헤 봣군아. 쉐를 안 질롼?

김복만 안 허여. 우리 아부지 목수질 헤부니까.

김순자 이 농사 씨 헐 때는 씨 보관은 어떻게 허여 옛날에? 조도 갈아 봔?

김복만 어, 조 갈지. 씨 그냥 그 씨멕이 잇어 쪼글락 헌 거. 것ᄀᆞ라 무시거엔 헌다 만은 것도 잊어베서.

김순자 씨 부게기, 부게기.

김복만 어?

김순자 씨부게.

김복만 아니.

김순자 씨오젱이?

김복만　아이구, 멩텡이. 씨멩텡이.

김순자　씨멩텡이 예, 예. 씨멩텡이는 허벅 모냥 아니라예?

김복만　아니 이런. 이추룩 허연 끈을 이렇콤 둘아.

김순자　아, 아 예, 예. 거는 씨 삘 때?

김복만　어.

김순자　게민 씨 보관헐 때는 어떵헤?

김복만　보관헐 때는 항에다 담주.

김순자　아, 항에. 멩텡이에 씨 담아근에 삐여예.

김복만　어.

김순자　그 다음에 그 보릴 갈면.

김복만　갈면 불려. ᄆᆞ쉬 허영 불려.

김순자　ᄆᆞ쉬예.

김복만　어.

김순자　ᄆᆞ쉬헹 불릴 때는 누게 빌엉 헐 거?

김복만　그 물 질루는 사름이 잇엇어. 경허민 그걸 빌어다가 불려. 앞에, 앞에 거 물 임제나 주인도 남제 잇인 그런 사름은 앞에 사고 조름엔 막, 막뎅이 심어근에 소리허멍, 월월 소리허멍 그 밧 불려. 조 불려.

김순자　조 불리는 거예. 경헤근에 불리면 만약에 그거는 ᄆᆞ쉬 잇는 사람이고 쪼그만 헌 밧들은.

김복만　쪼그만 헌 밧은 저 아아구 물테, 아니 에이구 남테, 남테로 불려.

김순자　그 다음에 이 벙뎅이랑 헤근에 끗엉 가는 거는?

김복만　건 끄실쿼.

김순자　끄실쿼. 끄실쿼는 보통 무신 낭으로 만들앗수과?

김복만　그냥 아무 남이라도 잡낭 그차근에 만들아근에 그 돌 지둘룅 끗이주게.

김순자　돌 지둘룅 끗이고예. 그리고 남테는 무신 낭으로?

김복만　남텐 그냥 남으로이 동글랑 헌 남이영이 ᄋᆞ만썩, ᄋᆞ만썩 허영 꼭꼭 찔러. 꼭꼭 찔렁 양펜이 줄 둘아메영 둘이 뎅겨.

김순자　아 남테는 둘이.

김복만 둘이도 뎅기곡 혼자 뎅기젠 허민 버쳐. 겡헨 남테로도 불리고. 조그만헌 밧은 남테로 불리고 큰 밧으로 그 물 빌엉 허곡. 또 쉐 많이 질르는 사름은 쉐로도 하나 두 개 헤영 불르고.

김순자 삼춘네도 그거 불려봔.

김복만 게 우리 어무니 허는 디 불려 봣지. 우리 농서헌 후젠 불리는 거 엇어.

김순자 엇고. 어무니네 헐 때. 게믄 삼춘네도 물 빌영 허진 않고?

김복만 아니 우리 어무니넨 물 빌엉 헷어.

김순자 그 물 빌엉 허젠 허민 밥도 잘 헤영 멕여야 허고?

김복만 그렇지.

김순자 건 어떤 식으로?

김복만 옛날, 옛날은 막, 이젠 흔허고 늘어진 고기주만은 고기국, 저 밥도 저 통보리쏠이렌 헤근에이 풋 놔근에이 솖아근에 흐린 좁썰, 검은 흐린 좁썰 잇잖아이, 검은 흐린 좁썰 논 게 최고라낫어.

김순자 예.

김복만 경헤근에 그 물테우리안티부터 주어서. 그 사름 나시. 그 옛날은.

김순자 그럼 그런 것은 뭐에 아졍 와?

김복만 뭐에?

김순자 예.

김복만 그 아주 옛날은 밥차롱. 양펜으로 이 영 끈 돈 밥차롱 잇어. 그 밥차롱에 밥 담앙 가. 또 그냥 식구 많은 집은 ᄒᆞ꼼 큰 차롱에. 큰 차롱에 두껑 더껑 밥 담앙 가고.

김순자 궤기는 무슨 궤기 굽디가?

김복만 옛날은 우럭. 옛날은 궤기 핫지. 우럭, 볼락 그런 거.

김순자 물테우리 허는 디 가면 거기에서 제 지내거나.

김복만 거 제 지내지. 밧디, 밧디 곡석 잘 뒈렌 그걸 제 지내지. 테우리고.

김순자 그 테우리는 걸 뭐렌 곧기도 헙니까?

김복만 코시레.

김순자 무시거?

김복만 코시레.

김순자 코시레. 코시레엔 허여 아니면?

김복만 그냥 테우리엔 허여.

김순자 우리는 안 헤예. 육지는 코시레엔 허주만은 우리는 안 헤예.

김복만 안 헤.

김순자 경헤근에 이제 불려, 불려예. 그 다음에 그 헹 오젠 허면 비여야 뒐 거 아니?

김복만 조?

김순자 예.

김복만 조 허민 검질 메야지.

김순자 으 검질 메는 거 멧 번 헷수과?

김복만 세 번헤. 초담 ᄋᆞ만썩 헌 때 이제 박박 그냥 언줘. 그땐 영 심지 못허니까 박박 언주앙 벌레기, 그건 벌레기이, 벌레기 헤 놩 이젠 또 이만이 크민 이젠 저 제 방수에 노멍 메거든 그건 초불. 돌레기 헤고 초불 메여. 그 다음은 이만이 허민 이젠 검질 떨어진 거 메고 조 알조, 알조 신 거 메여. 그건 두 불. 경헨 세 번 메여. 조팟디.

김순자 세 불 검질이엔 안 헤?

김복만 게메, 세 불 검질이엔도 허고 그 세 불이엔도 허고.

김순자 아까 벌레기 헌 거는?

김복만 벌레기.

김순자 그건 어떤 거를 벌레기렌 헙니까?

김복만 초불, 초담 이 조가 크지 안 허영 졸아부난 심질 못 허주. 씨를 삐여근에 불리민 조가 막 많이 나잖아. 많이 나면 그걸 영영 벌레기, 벌레기. 영영 영 줭. 건것만이 영영 영줭 나둬. 겡헷당 ᄒᆞ꼼 이만이 크잖아이 요만이 크민 초불로 메지. 초불을 요만이 크민 어느 정도 놀만이 놓멍 초불메여.

김순자 아까 삼춘 제 방수에 놓는다는 말은?

김복만 어 제 방수에 놓는 게 초불이라.

김순자 영 규격을 헤근에 방수 만들어 주는 거군아예.

김복만 어, 어. 제방수에. 제방수에 놓는 게 초불. 저 벌레기 메여도 초불 메레 가멘.

김순자 그 다음에 두 불 헐 때 알조랑?

김복만 으으 알조랑 떨어진 검질이랑 메는 게 두불 검질.

김순자 삼춘 그 떨어진 검질은 어떤 거라마씨?

김복만 여름 검질, 여름 검질 제완지 또 해바레기 또 에이구 뭐니? 물풀. 또 대강은 그거야.

김순자 그 다음에 조가 어느 정도 크면 검질도 다 메면 익어가면 고고리가 영 숙잖아예. 조는 종류가 멧 가지우과?

김복만 조. 흐린조, 모인조, 정당시리 세 가지.

김순자 정당시리는 어떤 거우과?

김복만 정당시리는 노랑허면서도 흐린 거야 찰 져.

김순자 흐린조는?

김복만 흐린조는 검은 흐린조.

김순자 모인조는?

김복만 모인조는 노랑헌 거.

김순자 그냥 노랑헌 거. 게난 정당시리는 노랑허멍 흐린 거. 삼춘 혹시 게발시리 이런 말 안 들어 봅디가?

김복만 게발시리 우리 안 헤 봐서.

김순자 아, 정당시리예. 정당시리 허고 흐린 조 허민 남뎅이로도.

김복만 남뎅이로도 틀려.

김순자 어떤 식으로 틀려.

김복만 검은 흐린존 빨갛고.

김순자 남뎅이가.

김복만 어, 정당시린 그냥 노랗고 파랗고 경허고.

김순자 모인존?

김복만 저 모인 조도 희여. 남뎅이가.

김순자 게난 검은흐린존 남뎅이 ᄒᆞ꼼 붉은?

김복만 벌겅허여.

김순자 음. 남뎅이로 알고. 고고리로도 알아집니까?

김복만 고고리로도 알아져. 저 흐린조 검엉허주.

김순자 그 다음에 모인조는?

김복만 모인존 그냥 노랑허고.

김순자 정당시리는?

김복만 정당시리도 노랑허여.

김순자 경헨 삼춘 이제 조 비어얄 거 아니? 조 비젠 허민 뭘로 비어?

김복만 그냥 낫으로, 호미.

김순자 으, 호미로예. 호미로 헤근에?

김복만 비영 이젠 혼 이틀 몰르민 이젠 고고리 톧아. 고고리 톧앙 모두아근에 이젠 옛날은 도께로 두드렷주. 아주 옛날은. 아주 옛날은 도께로 두드련에 그걸 장만헤신디 그거 우리 세대 나난 기계로 헷잖아. 우린 두린 때 한 열 살, 열 살 열다섯 살까지는 도께로 헷저. 마당질.

김순자 마당질예. 그 마당질 헐 때는 저기 멍석 페와 안 페와.

김복만 안 페와.

김순자 안 페와예.

김복만 저 조는 조는 멍석 페웁지.

김순자 음.

김복만 콩은 안 페웁고. 멍석 페와근에 조 마당질 허고 또 혼 번 두드령 이젠 건거 에염더레 놔 덩 이젠 초불 다 허민 이젠 곡석은 앗아베덩 두 번찬 에염에 논 것덜 또 다 몯앙 두 번 두드려. 경허근에 마당질허고.

김순자 그 다음에 물ᄀᆞ레 가근에?

김복만 우리 두린 땐 물ᄀᆞ레 골앗어.

김순자 아.

김복만 열 설, 열다섯 전이 물ᄀᆞ레 헷주. 글후젠 기계 낫주.

김순자 기계빵.

김복만 어, 우리 막 어린 때 ᄀᆞ레 ᄀᆞ는 것 강 봐낫어.

김순자 삼춘 불림질도 헤 봅디까?

김복만 어 그 불림질이야 막 헤사주. 농서허는 사름은 다 불림질 헤서.

김순자 불림질 허젠 허민 뭘로 헤?

김복만 그냥 속박으로 불리주게.

김순자 속박으로?

김복만 어.

김순자 속박으로 불리고. 이 풀젠 허민 속박 말앙?

김복만 관뒈.

김순자 관뒈예. 관뒈도 집이 잇지예.

김복만 엇어. 옛날에 잇어난디 엇어.

김순자 속박은?

김복만 속박은 저디. 그냥 나일롱 속박.

김순자 경헹 허고 밧 갈젠 허민 뭐로 갈아.

김복만 옛날은 쉐로 쉐로 갈앗지.

김순자 게믄 쉐 허게 뒈면 뭐, 뭐 메와?

김복만 쟁기.

김순자 쟁기를 뭐렌 헷수과 이 동네서는?

김복만 그냥 쟁기. 쟁기 보섭 끗뎅이 좁작헌 건 보섭. 또 그 다음 건 에구 뭐엔 허니 또 잊어벳져.

김순자 벳.

김복만 어, 벳.

김순자 벳 허고예. 그 쟁기도 손 잡는 거 무신 거 알아지쿠과?

김복만 아, 이름 모르크라.

김순자 쟁기허고 쉐 메운 거 연결허젠 허민.

김복만 연결허젠 허민 그 줄ᄀᆞ라 무시거엔 ᄀᆞᆫ다만은?

김순자 멍에.

김복만 이디, 이디 허는 나무 헌 거 멍에. 또 그, 그 줄 이만이 허는 것ᄀᆞ라 것도 이름이 잇어.

김순자 줄 연결을 헤야 헐 거 아니과?

김복만 그렇지. 멍에 줄 헤여근에 쟁기더레, 것도 이름 잇는디.

김순자 한줄은 뭐우과?

김복만 한줄, 한줄이엔 허는 건가?

김순자 쉐 헤근에 물앙 뎅기젠 허민, 쉐도 ᄀᆞ까봔 삼춘네도?

김복만 우리 막 질롓주.

김순자 쉐 허게 뒈민 이 집에서 멜 때도 잇고 들에 강 멕이레도 다니지예.

김복만 여름에 여름엔 그냥. 여럿이 모도아근에 산에 강 놓주. 이제 산에 강 놓젠 허민 거 담을 다 강 멀어진 거 다 다와. 그 잣. 잣을 다 데와놩 쉐 강 놓주. 경허민 이젠 매날 차례로 오널은 나, 내을 느, 또 다음. 이 동네 여럿이 쉐 강 놔 ᄒᆞ루 ᄒᆞᆫ 사름썩 보레 가.

김순자 그 쉐 보러 가는 당번을 뭐렌 골아.

김복만 쉐 ᄀᆞ꾸렌 갓나.

김순자 게민 그런 게 번 서는 거?

김복만 건서. 쉐 건서.

김순자 쉐 건서허는 거. 그렇게 헤근에 당번 헤근에 강. 게민 그거는 줄 안 메는 거 아니라.

김복만 줄 안 메영 그냥 영 영 대강 강 누게네 쉐, 누게네 쉐 봐근에, 영 동네 쉐면은 알 거든 어느 정도. 허민 와근에 오널 가난 자네네 쉐 잘 못 보데. 경허민 또 뒷날 임제가 강 또 촞아 보고 그런 식으로.

김순자 게난 잣 에와근에.

김복만 으. 잣 에왕.

김순자 삼춘 그 잣, 여기서는 어느 잣을 가는 것과?

김복만 이디 알잣, 중잣, 저 우린 중잣에 강 쉘 놓주게.

김순자 여기서 중잣이민 어느 지경이우과?

김복만 어느 지경, 세커리.

김순자 세커리.

김복만 세커리가 중잣이라. 웃잣은, 웃잣은 벌러진 동산이 웃잣인가?

김순자 알잣은?

김복만 알잣은 세멩기, 세멩기 잣이 알잣이고, 중잣은 세커리고, 저 웃잣은 벌러진 동산이엔 헌가 그디가. 벌러진 동산이고 또 다른 이름도 잇인디 잊어벳저.

김순자 게난 삼춘 낭 혼 줄레허면은 얼마 받안?

김복만 그때 얼마사 받은 것산디 몰르크라.

김순자 게민 낭 혼 줄레는 어느 정도가 혼 줄레우과?

김복만 혼 짐, 혼 짐 지어오민 ᄒᆞ꼼 골라. 이게 이, 이게 발로 혼 발 허고 세 뽐이가 혼 줄레렌 헤신가? 이 혼 발 허고 세 뽐이 혼 줄레엔 헤신가 그때. 겡헤근에 남을 영 낭 줄을 영 메거든 겡헨 혼 줄레에 얼마 경헨 풀앗지.

김순자 낭 어디 강 풀앗수과, 것도 세화장?

김복만 남? 풀레?

김순자 으.

김복만 사레 뎅기는 사름이 잇엇어.

김순자 아, 남 사레 뎅기는 사름이 잇어.

김복만 어.

김순자 게난 그 남 푼 게 어느?

김복만 남 푼 게 겨울.

김순자 게 그 솔입 걷는 건?

김복만 솔입 거드는 건 그 솔입 거드는 글겡이 잇잖아. 글겡이 강 그 소낭 밧디 가근에 막 긁어 모아. 긁어 모은 거 줄을.

김순자 게난 아까 그 솔입 글겡이 앗아 강?

김복만 글겡이 앗앙 간에 글겅 줄을, 옛날은 산디찍 줄 있잖아. 또 또 뭐 칙. 칙 걷어 강 이제 세줄 놔. 줄 세 개 낭 그놈을 톡톡 모두멍 이디 톡톡 놔. 이레 모으멍 톡톡 두들멍. 경헤근에 이만이 헤영 막 두들멍 둘이 가 막 잡아 뎅기멍 그놈을 묶엉 이따만이, 이따만이 겡헤영 덩어리 만들아.

이웃 주민 혼 덩어리가 혼 지게 지게게. 혼 지게 지게 만들아사.

김복만 덩어리 만들앙, 덩어리 만들앙 혼 지게 졍 와.

김순자 그러면 그렇게 줄 세 개 헹 무끌 거 아니과? 무끈 거를 뭐렌 헤여.

이웃 주민 솔입 보닥, 솔입 보닥.

김복만 솔입 혼 보닥. 솔입 보닥.

김순자 보달 찻덴 허지 안 헤예.

이웃 주민 으으 보닥 찻덴 헹 지영 와세, 지게에.

김순자 보달 친 거를 지게에 올려놩 졋수과?

김복만 어. 지게에

이웃 주민 김녕은이 벳짐은 안 져.

김복만 우린 지게로만 져. 이만이 허거든, 이만이 헌 거를 지게로 올려 놩 져. 떼꾸리 메영.

이웃 주민 김녕은이 요만헌 아이도 다 지게져.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 |구좌읍 편|

발행일 2015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http://museum.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693 FAX. (064)710-7709
인쇄처 고려인쇄 TEL. (064)752-1153

ISBN 979-11-87075-00-4 93380

[非買品]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Museum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비 매 품
93380
9 791187 075004
ISBN 979-11-87075-00-4